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1. 12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최종보고서)

2021. 12

〈 연구 진 〉

책임연구원 :	장동호	남서울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이영수	인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윤현우	공주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원 :	백경호	전남대학교 박사

CONTENTS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8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청년부채의 개념과 유형	14
제2절. 청년부채 관련 이론	17
제3절. 청년부채 관련 정책대안 검토	24

제3장. 전국·지역별 청년부채 실태 분석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청년부채	44
제2절. 한국은행 가계부채DB와 청년부채	59
제3절. 청년패널과 청년부채	63
제4절. 한국노동패널과 청년부채	68

제4장. 인천 청년부채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76
1. 설문조사 개요	77
2. 전체 부채 현황 및 집단별 비교 분석	84
3. 부채 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97
4. 연령대별 비교 분석	125
5. 부채유형별 비교 분석	164
6. 소결	211
제2절. 청년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213
1. 개요	214
2. 인터뷰 분석	218
3. 소결	282

CONTENTS

제5장. 인천 청년부채 해소방안

제1절. 인천 청년부채 해소 정책모형290

제2절. 인천 청년부채 해소 핵심과제293

참고문헌319

■ 부록 1. 조사 설문지 / 323

Table

<표 2-2-1> 청년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적 특성	21
<표 2-2-2> 청년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23
<표 2-3-1> 가계부채 해소 목적: EPIC 모델	29
<표 2-3-2> 가계부채 해소방안1: 비상금 부족 문제 해결	30
<표 2-2-3> 가계부채 해소방안2: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33
<표 2-2-4> 가계부채 해소방안8: 유해한 대출 조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38
<표 3-1-1> 가구주 연령대별 총자산, 부채 및 순자산 추이	45
<표 3-1-2> 청년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산, 부채 및 순자산	48
<표 3-1-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구성	51
<표 3-1-4> 부채 사유별 부채금액 및 비중	52
<표 3-1-5> 대출 기관별 부채 액수 및 비중	53
<표 3-1-6> 가구주 연령별 원리금 연체 사유	56
<표 3-1-7> 1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 증가 여부	57
<표 3-1-8> 부채 증가 원인	57
<표 3-2-1>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총액	60
<표 3-2-2>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주택담보대출	61
<표 3-2-3>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신용대출	62
<표 3-3-1>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현황	64
<표 3-3-2> 지역별 청년부채 발생의 원인	66
<표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청년부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67
<표 3-4-1> 지역별 부채 보유자 현황	69
<표 4-1-1> 응답자 구성	77

<표 4-1-2> 설문내용	78
<표 4-1-3> 금융역량 척도(financial capability scale: FCS)	79
<표 4-1-4> 재무스트레스 척도	80
<표 4-1-5> 자아존중감 척도	80
<표 4-1-6> 미래지향 척도	81
<표 4-1-7> CES-우울척도	82
<표 4-1-8>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83
<표 4-1-2-1> 응답자 부채 현황	84
<표 4-1-2-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85
<표 4-1-2-3> 응답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86
<표 4-1-2-4> 응답자의 거주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88
<표 4-1-2-5> 응답자의 주거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89
<표 4-1-2-6>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1
<표 4-1-2-7> 응답자와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4
<표 4-1-2-8> 응답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5
<표 4-1-2-9> 응답자의 재무역량 및 정서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6
<표 4-1-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98
<표 4-1-4-2> 응답자의 가구 특성	99
<표 4-1-4-3> 응답자의 거주 특성	100
<표 4-1-4-4> 응답자의 주거 특성	102
<표 4-1-4-5> 응답자의 일	103
<표 4-1-4-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105
<표 4-1-4-7> 응답자의 지출	107
<표 4-1-4-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109

<표 4-1-4-9> 응답자의 저축	110
<표 4-1-4-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111
<표 4-1-4-11>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112
<표 4-1-4-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113
<표 4-1-4-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114
<표 4-1-4-14> 응답자의 대출계획	115
<표 4-1-4-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116
<표 4-1-4-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17
<표 4-1-4-17>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117
<표 4-1-4-18>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118
<표 4-1-4-19>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120
<표 4-1-5-1>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125
<표 4-1-5-2> 응답자의 가구 특성	126
<표 4-1-5-3> 응답자의 거주 특성	128
<표 4-1-5-4> 응답자의 주거 특성	129
<표 4-1-5-5>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	132
<표 4-1-5-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134
<표 4-1-5-7> 응답자의 지출	136
<표 4-1-5-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137
<표 4-1-5-9> 응답자의 저축	139
<표 4-1-5-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140
<표 4-1-5-11> 응답자의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141
<표 4-1-5-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143
<표 4-1-5-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144

<표 4-1-5-14> 응답자의 대출계획	149
<표 4-1-5-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151
<표 4-1-5-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52
<표 4-1-5-17>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154
<표 4-1-5-18>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의견	157
<표 4-1-5-19>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160
<표 4-1-5-20>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160
<표 4-1-5-21>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161
<표 4-1-4-1>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164
<표 4-1-4-2> 응답자의 가구 특성	166
<표 4-1-4-3> 응답자의 거주 특성	168
<표 4-1-4-4> 응답자의 주거 특성	170
<표 4-1-4-5>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	172
<표 4-1-4-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176
<표 4-1-4-7> 응답자의 지출	178
<표 4-1-4-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180
<표 4-1-4-9> 응답자의 저축	182
<표 4-1-4-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183
<표 4-1-4-11> 응답자의 목적별 대출잔액	185
<표 4-1-4-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187
<표 4-1-4-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189
<표 4-1-4-14> 응답자의 대출계획	193
<표 4-1-4-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195
<표 4-1-4-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96

<표 4-1-4-17>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200
<표 4-1-4-18>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의견	204
<표 4-1-4-19>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206
<표 4-1-4-20>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207
<표 4-1-4-21>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208
<표 4-2-1> 질적조사 설계방안	214
<표 4-2-2> 청년의 부채 심층면접 구성	215
<표 4-2-3> 청년의 부채 개별심층면접(IDI) 참여자	215
<표 4-2-4> 청년의 부채 집단심층면접(FGI) 참여자	217

Figure

[그림 1-2-1] 인천시 청년부채 실태 및 해소방안 마련 추진체계	10
[그림 1-2-2]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영역 세부 추진과정	11
[그림 2-2-1] 청년 자산/부채의 이론모형	21
[그림 2-3-1] 광주 청년금융안전망 모형	26
[그림 3-1-1]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추이	45
[그림 3-1-2]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추이	46
[그림 3-1-3]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47
[그림 3-1-4] 청년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채 보유비율: 30세 미만가구주, 2020년	49
[그림 3-1-5] 청년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채 보유 비율: 30대 가구주, 2020년	50
[그림 3-1-6]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자 비율 추이	50
[그림 3-1-7]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부채 구성비, 2019년(왼쪽), 2020년(오른쪽)	52
[그림 3-1-8]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 대출 기관별 부채 액수 비율	54
[그림 3-1-9] 부채 보유자 중 연체 비율	55
[그림 3-3-1]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비율	64
[그림 3-3-2] 지역별 부채 보유자 부채금액	65
[그림 3-4-1] 지역별 부채 보유자 비율	69
[그림 3-4-2] 지역별 부채 사유	70
[그림 3-4-2] 지역별 부채 액수 (가구원수로 조정된 균등화 부채)	71
[그림 3-4-3] 지역별 소득대비 부채 비율	72
[그림 3-4-4] 지역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73
[그림 4-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I	85
[그림 4-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II	87

[그림 4-1-3] 응답자의 거주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89
[그림 4-1-4] 응답자의 주거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0
[그림 4-1-5] 응답자의 취업/창업 현황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3
[그림 4-1-6] 응답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4
[그림 4-1-7] 응답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5
[그림 4-1-8] 응답자의 재무역량 및 정서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97
[그림 4-2-1]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17
[그림 4-2-2]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121
[그림 4-2-3]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122
[그림 4-2-4]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만족도와 이용의향 산점도	123
[그림 4-3-1]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142
[그림 4-3-2-1] 신용 및 연체 현황 I	146
[그림 4-3-2-2] 신용 및 연체 현황 II	147
[그림 4-3-2-3] 신용 및 연체 현황 III	148
[그림 4-3-3] 대출계획 유무	150
[그림 4-3-4] 대출계획의 용도	150
[그림 4-3-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151
[그림 4-3-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52
[그림 4-3-7]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155
[그림 4-3-8]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156
[그림 4-3-13]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163
[그림 4-4-1]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186
[그림 4-4-2-1] 신용 및 연체 현황 I	190
[그림 4-4-2-2] 신용 및 연체 현황 II	191

[그림 4-4-2-3] 신용 및 연체 현황 III	192
[그림 4-4-3] 대출계획 유무	194
[그림 4-4-4] 대출계획의 용도	194
[그림 4-4-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195
[그림 4-4-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197
[그림 4-4-7]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201
[그림 4-4-8]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202
[그림 4-4-9]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210
[그림 5-1-1] 인천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291
[그림 5-1-2] 인천 청년부채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292
[그림 5-2-1] 미국 월마트 복권(prize)방식 저축상품	296
[그림 5-2-2]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비율관련 보도자료	297
[그림 5-2-3] 온라인 금융멘토링의 효과	299
[그림 5-2-4] 유타주립대학교의 금융복지센터	300
[그림 5-2-5] 찾아가는 직장인 경제교육 사진	303
[그림 5-2-6] 발달장애인 부모 생활금융교육 홍보물	305
[그림 5-2-7] 주거소개 관련 TV 프로그램 내용	307
[그림 5-2-8] 한양대학교 대학생 자조금융 '키다리은행' 자료 화면	310

연 · 구 · 요 · 약

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 2021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45조로서,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비율을 보임
- 2020년 1년간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는 14만4,356명으로, 2010년 2만6,097명보다 크게 늘었고, 2019년 13만9,769명과 비교해도 4,58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2019년 이후 청년부채 증가현상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부동산 및 주식투자 심리,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득불안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2)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지원의 필요성

- 청년기는 인생주기 특성상 학업, 결혼, 출산 등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이행과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청년의 경제적 부담과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 2015년을 전후로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지자체도 등장함
 - 인천시의 경우에도 2019년 실시된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서 ‘인천지역 청년부채(생활안정) 실태 및 해소 방안 심층연구’가 ‘인천지역 자취 대학(원)생 월세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제안으로 선정됨

(3) 청년부채에 관한 기존 접근과 연구자료의 한계

- 정부나 금융당국 중심의 청년부채 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이며 사전예방적 개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청년부채 관련 통계자료는 지역 구분이 없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지역 단위의 청년부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설문조사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 필요함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천 청년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고 청년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수립 분석 (문헌조사)
- 청년부채 및 생활 관련 정부 통계 분석 (통계조사)
- 청년 부채·생활안정 정책 분석 (통계조사)
- 인천 청년 계층별 청년부채 현황 분석과 정책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1,000명
- 인천 청년 부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50명
- 인천광역시 청년부채 해결과 생활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2. 선행연구 검토

1) 청년부채의 개념과 유형

- 청년부채는 청년과 부채의 결합어로 일반적으로 ‘청년이 진 빚’을 뜻함
- 본 연구에서 인천시 청년부채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와 통계청 가계부채에 대한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시민의 가계대출과 비공식대출”로 정의함
 -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주택대출과 기타대출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탁,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그리고 기타금융기관(보험, 연금, 여전사 등)을 통한 대출을 의미함
 - 비공식대출은 부모나 지인을 통한 대출을 의미함
 -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개념에는 신용카드사, 백화점 또는 할부금융사를 통한 외상거래, 즉 판매신용을 포함하나, 통상 일반인들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외상거래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판매신용은 조사시점에서 변동성이 심해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워 본 연구의 인천시 청년부채의 개념에서는 제외함

2) 청년부채 관련 이론적 접근

- 가계부채를 포함해 재무(finance)와 관련한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적 접근은 크게 세 가지임
- 신고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 심리사회학은 인간의 심리와 사회적 관계망,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개입을 통해 청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을 시사

3) 청년부채 관련 정책대안 검토

- 광주광역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부채 문제를 체계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사례로서, 광주시 청년금융안전망은 한편으로 부채예방과 부채해소,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의 금융역량강화와 금융환경의 변화로 정책의 세부영역을 구분하여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미국의 유명 연구소인 EPIC(2018)이 제시한 가계부채 대응모델은 광주광역시와 같이 부채의 예방과 해소도 중요하지만, 부채발생의 시점, 즉 대출시점에서 보다 안전하고 소비자에게 유리한 대출을 받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 전국·지역별 청년부채 실태 분석

- 2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국·지역(인천시 포함)간의 청년부채 규모와 증가세를 비교 분석함

1)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청년부채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전국단위에서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를 확인할 수 있음
 - 20대 가구주의 가계부채의 경우 2020년 현재 평균 3,479만원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채규모는 작지만, 2018년(2,378만원) 이후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함
 - 30대 가구주의 경우, 2020년 현재 가계부채가 평균 10,082만원으로 40대 다음으로 규모가 크고, 증가폭도 큼
 - 2020년을 기준으로 1년 전과 비교해 가계부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20대와 30대에서 높음

2) 한국은행 가계부채DB와 청년부채

- 한국은행 가계부채DB는 비공개자료지만 청년부채를 지역과 개인단위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국내 유일의 통계자료임
-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 사이(코로나19 이후 1년) 인천 지역 20대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가계대출이 16.6%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보다 높았고, 30대의 경우 전국의 30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음
 - 30대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이후에 높은 증가세를 보임
- 인천 청년부채 증가현상의 특성 중 하나는 다른 지역에 비해 신용대출 비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이 높다는 사실이 확인됨

3) 청년패널과 청년부채

- 청년패널은 청년 개인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자료임
- 2019년을 기준으로 인천청년(만 19세~39세)의 부채보유비율(21.3%)이 타 지역(전국 평균 16.7%)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부채보유 청년의 부채금액은 평균 8,353만원이었음
-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거주 주택 마련(41.6%), 보증금 마련(17.5%), 생활비 마련(16.9%), 학자금 마련(12.1%), 사업자금 마련(10.3%)임(복수응답 가능)
 - 인천시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음

4) 한국노동패널과 청년부채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청년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 개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패널 조사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2019년을 기준으로 인천 지역의 부채 보유자 비율은 65.1%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경기(46.8%), 서울(39.2%) 순서였음
- 청년 가구주 가구의 지역별 부채금액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 지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음

- 지역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경기도(199.5%), 인천시(125.3%), 서울시(92.7%) 순서로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인천지역(8.5%) 청년은 서울지역(13.5%) 청년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으나 경기도(16.6%)에 비해서는 낮았으며, 지역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임

4. 인천 청년부채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 본 설문조사의 표본크기는 1,000명이었음
- 성별, 연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임의표집을 하였으며, 최소분석단위를 고려하여 제공 근비례할당 방식을 적용하였음
 - 응답자는 남성 49.0%, 여성 51.0%, 만 19~24세 19.6%, 만 25세~29세 24.9%, 만 30세~34세 26.4%, 만 35세~39세 29.1%로 구성되었음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개별면접조사였음
-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26일 ~ 9월 30일이었음

2) 전체 부채 현황 및 집단별 비교 분석

- 인천 청년의 부채보유 비율은 27.9%였으며, 전체 응답자 1,000명의 평균 부채금액은 2,017.18만원, 부채보유 청년의 평균 부채금액은 7,230.0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211.0만원, 월 평균 지출은 187.5만원, 월 평균 저축액은 49.6만원, 평균 총저축액은 1,341.4만원이었음
- 세부 집단별로 부채현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남성이 여성보다 부채규모가 컸음
 - 연령대, 학력수준이 높고 기혼일수록 부채규모가 컸음
 - 가구내 경제활동 인구가 2인인 경우에 가계부채 규모가 가장 컸으나, 비주거대출은 1인 경제활동 가구가 2인 경제활동가구보다 더 많았음
 - 성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채규모가 컸고, 특히 학업으로 인해 인천시로 이사한 경우 비주거관련대출액이 상당히 컸음

- 직장취업 등에 비해 창업(자영업 포함) 청년의 비주거대출관련대출 규모가 2배 이상 컸음

3) 부채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보유한 일명 부채보유 청년은 279명(27.9%)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금액은 7,230.0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지난달 본인 소득 총합은 평균 211.0만원이었으며, 부채보유 응답자는 265.2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187.5만원이었으며,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이보다 약 100만원이 많은 281.6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월저축액은 평균 49.6만원이었으며, 현재 총저축액은 평균 1,725만원인 반면, 부채보유 응답자의 월저축액은 평균 46.8만원이었으며, 총저축액은 1,341.4만원이었음
- 대출목적별로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유형을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평균 4,36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1,706.7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286.3만원), 자동차 구입(225.4만원), 투자목적(202.7만원), 대학학자금(187.4만원), 창업 준비(106.1만원) 등의 순이었음
- 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5.7%,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11.5%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요원인은 만성적 수입부족(17.5%)보다는 실업(24.6%),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21.1%) 등의 사건이었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7.3%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16.3%였음
- 부채 보유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과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13.7%와 22.9%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음
- 전체 응답자의 금융역량(8점 만점)은 3.8점인 반면, 부채보유 응답자는 4.0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금전스트레스(40점 만점)는 17.5점, 부채보유 응답자는 19.0점이었음

4) 연령대별 비교 분석

- 응답자의 지난달 본인 소득 총합은 20대가 평균 145.6만원, 30대가 평균 263.4만원이었음
- 월지출액은 20대 응답자가 평균 126.06만원, 30대가 236.7만원이었음
- 본인 총자산은 20대 응답자가 평균 2,592.4만원, 30대 응답자는 1억6,944.0만원으로, 30대 이상의 총자산이 20대 이하에 비해 6배정도 많았음
 - 특히 30대의 부동산(1억2648.6만원) 금액이 20대에 비해 10배정도 많았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부채보유자는 69명(15.5%), 평균 부채금액은 3411.1만원이었으며, 30대 응답자 중 부채보유자는 210명(37.8%), 평균 부채금액은 8,484.7만원으로 20대에 비해 훨씬 많았음
 - 2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전세보증금이 평균 128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택구입(1036.2만원), 대학학자금(501.3만원), 창업준비(144.9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126.0만원), 투자목적(104.4만원), 자동차 구입(98.5만원), 가족의 대출요청(76.0만원) 등의 순이었음
 - 3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546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1843.6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338.9만원), 자동차 구입(267.1만원), 투자목적(235.0만원), 창업준비(93.3만원), 가족의 대출요청(87.2만원) 등의 순이었음
-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20대에서 4.7%, 30대에서 9.4%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포함)은 20대에서 15.5%, 30대에서 16.9%였음
- 금융역량(8점 만점)은 20대에서 3.5점, 30대에서 3.9점이었으며, 금전스트레스(40점 만점)는 20대에서 16.3점, 30대에서 18.4점으로 확인됨

5) 부채유형별 비교 분석

- 부채유형에 따라 부채와 참여자 특성이 다른 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유형을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함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기혼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비혼은 33.7%를 차지했으며,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미혼/비혼이 84.3%로 가장 많았음

- 지난달 월 소득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평균 300.7만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221.2만원이었으며,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288.3만원으로 나타남
- 본인 총자산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평균 3억4670.9만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평균 총자산 6,285.3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에서 2억 3978.4만원으로 확인됨
- 월저축액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의 경우, 평균 65.6만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의 경우 평균 32.4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집단의 경우 43.1만원으로 확인됨
 - 이들의 총 금융자산은 각각 1,955.9만원, 1,034.6만원, 916.2만원이었음
- 대출원금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억830.3만원이었으며,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750.7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억1,460.2만원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6.0%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포함)은 8.9%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은 18.3%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1.3%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은 17.5%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0.2%였음
- 금융역량(8점 만점)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4.4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3.8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3.8점이었음
- 금전스트레스(40점 만점)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6.8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3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9.9점이었음

5. 인천 청년부채 해소방안

1) 인천시 청년부채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 인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미션으로 “인천 청년의 금융역량강화(financial capability)와 포용금융(financial inclusion) 확대”를 제안하고, 인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비전으로는 “인천 청년의 재무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제시함

- 인천 청년부채 해소방안의 전략목표는 ‘청년부채 수요억제’, ‘스마트 청년 대출 지원’, ‘청년 부채상환 성공 지원’, 총 3 가지로 설정함
- 이는 부채발생 이전, 부채발생 시점, 부채발생 이후라는 3가지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을 제안한 EPIC 가계부채 해소모형(2018)을 참고한 것임

2) 인천시 청년부채정책의 전략과제

- 청년부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는 포용금융’ (financial inclusion)과 ‘금융역량강화’ (financial capability)를 고려하여 총 14가지로 제안함
- 각 전략과제는 개입의 시점과 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유형화될 수 있음
- ①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 ②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 ③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 ④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 ⑤ 청년 부채상환 성공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 ⑥ 청년 부채상환 성공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미션		인천 청년의 금융역량강화와 포용금융 확대		
비전		인천 청년의 재무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금융안전망		
전략목표		청년 부채 수요억제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	청년 부채상환 성공 지원
개입시점		부채 발생 이전	부채 발생 시점	부채 발생 이후
전략목표		청년 부채 수요억제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	청년 부채상환 성공 지원
전략과제	포용 금융 (제도 변화)	1-1. 최소 유동성확보지원 1-2. 자산형성지원	3-1. 인천청년대출 3-2. 청년 자조금융 지원	5-1. 청년금융안전협의체 운영 5-2. 채무조정지원 인력 확충 등
	금융 역량 강화 (개인 변화)	2-1. 대학생 금융역량강화 2-2. 근로 청년 금융역량강화 2-3. 청년 가구원 금융역량강화 2-4. 청년 저분가능소득 확대	4-1. 청년PB센터 4-2. 청년PB이용 인센티브 지원	6-1. 부채상환컨설팅 이용률 제고 6-2. 인천시 채무조정 성과장려금

[그림 i-1] 인천시 청년금융안전망 정책모형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청년부채

- 2021년 3분기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총액은 1,845조로서,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과 증가 속도를 보임
 -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2%로 조사대상 국가 37개국 중 가장 높았으며,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가계부채 비율을 보인 홍콩(92.0%), 영국(89.4%), 미국(79.2%), 일본(63.9%), 중국(60.5%)과 큰 격차를 보임(세계일보, 2021)
 - 지난 1년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은 6.0%point로 홍콩(5.9%point), 태국(4.8%point), 러시아(2.9%point)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름(세계일보, 2021)
-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은 집값과 전세 값의 상승임
 - 우리나라 가계대출에서 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8.45%임(연합뉴스, 2021)
 - 주거관련 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연체율이 낮아 비교적 우량대출로 평가되지만, 조만간 국제 금리 인상이 예고되어 있고, 부동산 가격의 추락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 우리나라에서 청년부채에 관한 관심 증가는 2009년 한국장학재단 설립 후 학자금 대출제도가 일반화되고 관련 대출 규모와 연체자가 늘어나면서임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많은 청년에게 대학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대규모 청년부채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강종만, 2015)
 - 특히 코로나19 이후인 2020년 1년간 6개월 이상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연체자의 수가 14만435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2만6,097명보다 5배 이상 많고, 2019년 13만9769명과 비교해도 4,587명 증가한 것으로 청년부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동아일보, 2021)
- 2019년 이후 청년부채 증가현상은 우리나라 특유의 세습자본주의에 따른 비정상적인 부동산 및 주식투자 심리,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소득불안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정부의 주택공급 축소로 주택시장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청년들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모가 증가하였음

- 자산부족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지 못한 청년들의 경우에도,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하는 일명 ‘빚투’ 사례도 증가하고 있고, 그 결과 부채증가와 경제적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줌(이동준·맹성준·강준혁, 2020)
- 코로나19로 인해 청년취업 비중이 높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급감했고, 이로 인해 빚을 내서 생계를 유지하는 청년이 급증함(파이낸셜뉴스, 2021)

2.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의 책임과 지원의 필요성

- 전통적으로 ‘부채’ (debt)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어왔지만, 최근에는 개인 부채가 사회구조에 의해 형성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음
 - 청년기는 인생주기 특성상 학업, 결혼, 출산 등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이행과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한 경우 청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대출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음(장동호, 2014)
 - ‘빚투’ 또는 ‘영끌’ 과 같은 청년들의 과잉 투자심리도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의 세습 문화와 과잉경쟁에 의해 구조적으로 촉발되고 있다는 점, 불법 대부업체 등이 생계가 불확실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각종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제도적 개입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도 사회적 책임론의 배경임(임명규, 2021)
-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채무조정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만, 청년부채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이 수반할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함
 - 채무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청년의 경우 개인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의 가능성이 낮고, 대학 졸업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장동호, 2018; NEFE, 2014)
- 2015년을 전후로 청년부채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 정치권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조사와 관련 사업을 개발·운영하는 지자체도 등장함
 - 2015년 11월 서울시복지재단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와 유인태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과 관련한 법 개정 방안, 청년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등을 논의한 바 있음

- 2017년 자치단체 차원에서 최초로 광주광역시가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2018년부터 청년부채 해소방안 차원에서 청년부채 전담 상담센터 그리고 청년부채 예방 차원에서 소액저축지원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2018년에는 충청남도가 충남연구원을 통해 청년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2019년 실시된 인천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에서 ‘인천지역 청년부채(생활안정) 실태 및 해소방안 심층연구’가 ‘인천지역 자취 대학(원)생 월세 지원’에 이어 두 번째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제안으로 선정됨
- 2021년 9월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서울희생법원과 함께 ‘청년재무길잡이’ 사업을 진행하여, 악성부채에 빠져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청년에게 금융복지상담원이 1대 1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함(매일경제, 2021)
- 2021년 11월 현재 청년부채는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2021 청년의제 열린공론장 토론회’의 기획주제로 선정되었으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등 부채문제 해소를 위한 청년당사자 집단의 순회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음

3. 청년부채에 관한 기존 접근과 연구자료의 한계

- 정부나 금융당국 중심의 청년부채 대책은 대부분 사후조치 방식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접근임(장동호·백경호, 2017)
 - 정부나 금융당국의 청년부채 대책은 크게 저금리 대출상품지원(대출이자 지원 포함)과 채무조정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둘 다 부채 수요 또는 대출 자체를 억제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이미 감당할 수 없는 부채를 지고 연체가 시작된 후에는 채무조정지원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 이전의 생활로 되돌아가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함(예: 실업, 수급자 전략, 가족 해체, 사회적 고립, 심리정서 불안 등)
 - 채무관리교육이나 상담 또는 경제교육 등의 예방 프로그램도 부채문제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중요하며,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보다 지자체가 물리적 접근성 측면에서 더 강점이 있음
- 모든 사회정책은 대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해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 청년 부채 관련 통계자료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단위에서만 제공되거나 가구주가 아닌 청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체계적으로 가계부채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의 경우, 지역 구분이 없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는 청년부채와 관련한 정보를 일부 포함하고 있고, 변수의 지역 구분이 있으나, 지역에 따라 사례 수가 매우 적어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로 간주되기 어려움
-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청년부채 금액뿐만 아니라, 그 원인 및 결과일 수 있는 청년 개인의 금융역량과 심리사회 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포함한 통계자료는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함
- 비벌리 등(Beverly et al, 2008)에 따르면, 재무와 관련한 인간의 의사결정은 객관적 경제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금융역량 등과 상호작용함

4.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인천 청년의 부채실태를 파악하고 청년부채 경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본 연구의 세부 목표는 다음과 같음
 - 인천의 청년부채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인천시 거주 청년에 대한 양적·질적 조사를 수행함
 - 해외 및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하여, 인천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사전예방대책과 사후조치대책을 수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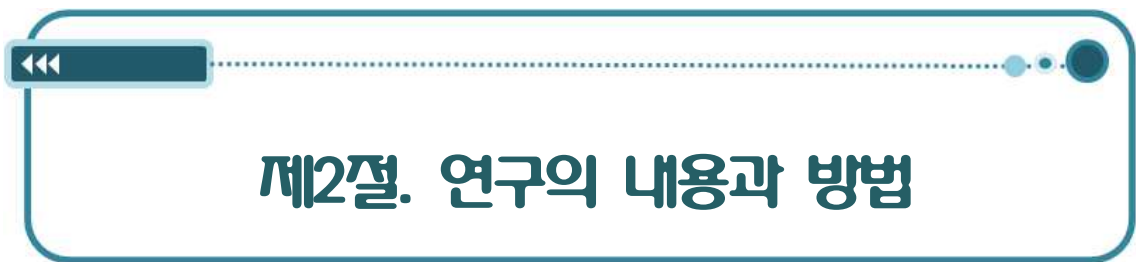
5. 연구의 한계

- 지자체 단위 정책연구로서의 한계
 - 본 연구는 지자체 단위의 정책연구로서 현재 정부와 인천시 정책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청년부채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지자체 차원의 청년 정책을 제안하는 데 초점을 둠

- 인천시 청년부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부의 대출상품, 대학학자금, 청년 일자리 및 임금, 주거비 등과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은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와 오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의 내용에는 담지 않았음

○ 자료수집 방법에 따른 한계

- 본 연구는 인천 청년의 청년부채 실태를 직접 파악하기 1,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 다만, 이 과정에서 단순무작위 표본추출을 하지 못하고, 성별·연령·지역 분포만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임의표집 함으로써 표본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개인의 기억에 의존해 정보를 추출하는 설문조사의 특성상 측정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
- 특히 가계부채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을 고려하여 응답자가 실제보다 부채 규모를 축소해 보고하는 과소추정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움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인천시 전역

나.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1년도

○ 시간적 범위 : 2022년 ~ 2026년 (5개년)

다. 내용적 범위

○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수립 분석 (문헌조사)

- ‘인천 청년 실태조사’ (2019년) 분석과 정책 보완점 도출

○ 청년부채 및 생활 관련(주거포함) 정부 통계 분석 (통계조사)

- 청년 정책 집단 및 대상 규모 분석

- 인천광역시 청년층 통계 추출

○ 청년 부채·생활안정(주거포함) 정책 분석 (통계조사)

- 중앙정부 및 타시도 청년 부채 정책 및 생활안정 정책 현황 검토

- 인천광역시 청년 복지정책 현황 검토

○ 인천 청년 계층별 청년부채 현황 분석과 생활안정 정책 수요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인천 청년부채 계층별 조사: 1,000명

○ 인천 청년 부채 관련 심층인터뷰 분석

- 인천 청년부채 심층인터뷰: 50명

○ 인천광역시 청년부채 해결과 생활안정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수립

2. 연구의 방법

1) 추진 체계

- 본 연구의 추진목적은 인천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마련이며, 이를 위한 추진체계는 아래와 같음



[그림 1-2-1] 인천시 청년부채 실태 및 해소방안 마련 추진체계

2) 추진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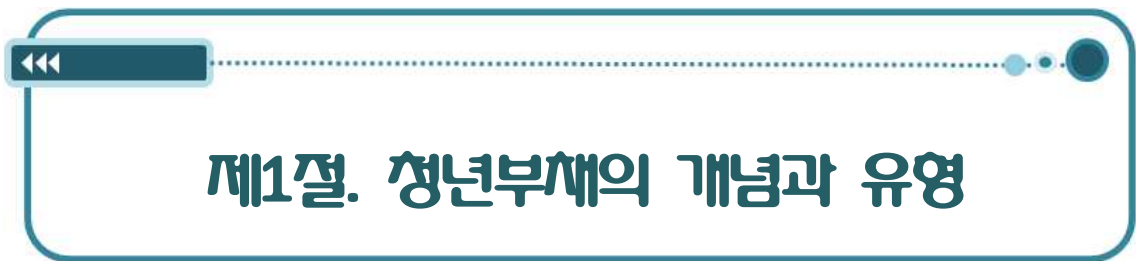
○ 본 연구의 세부과제 추진 절차는 다음과 같음

- A, B, C단계에서는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 현황 및 현 지원체계의 문제 그리고 새로운 정책수요를 확인함
- D와 E단계에서는 인천 청년 금융복지 지원체계 및 사업안을 구축함



[그림 1-2-2]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영역 세부 추진과정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청년부채의 개념과 유형

1. 청년부채의 개념

- 청년부채는 청년과 부채의 결합어로 일반적으로 ‘청년이 진 빚’을 뜻함
- 모든 실태조사에서 청년부채의 규모와 내용에 차이가 발견되는데, 이는 ‘청년’과 ‘부채’의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기 때문임
- 먼저, 각 법률과 조례에 규정된 청년의 연령범주에 차이가 있음
 - 2020년에 제정된 우리나라 청년기본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청년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이지만, 동시에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역별로 청년 인구가 다르게 지정될 수 있는 상황임
 - 예컨대,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의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을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 연령별 부채규모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의 연령규정 차이로 인해 인천시의 청년부채 비율이 부산시에 비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부채와 채무가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음
 - 부채와 혼용되는 용어로 채무가 있는데, 채무란 “차입자(차주)가 미래의 특정 날짜 또는 특정 기간까지 대출자(대주)에게 이자 또는 원금을 상환할 것이 요구되는 모든 책임”으로 정의되며(OECD, 2014), 은행대출금, 공채 및 사채, 기업어음, 신용카드대금 같은 판매신용을 뜻함
 - 부채는 채무보다 포괄적 개념으로, 채무 이외에도 경제적으로 발생하게 될 손실이나 희생, 의무, 그리고 부담 같은 것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임대보증금, 벌금은 채무는 아니지만, 부채에 속함
 - 청년의 빚을 부채의 개념에서 측정하느냐, 아니면 채무의 개념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채무발생의 경로로서 가계대출의 일반적인 형태는 무담보대출(unsecured loans),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대출(revolving loans), 주택담보대출(mortgage loans)임
 - 무담보 대출은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부채로서, 신용도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른 일종의 신용대출에 의해 발생한 부채이며,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대출(credit card loans), 자동차 대출(automobile loans), 학자금 대출(student loans)이 여기에 속함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대출은 카드대금의 일부를 결제하고 나머지를 높은 수수료를 낸다는 약정 하에 연체 처리하지 않고 상환일을 다음 달로 이월한 부채임
- 주택담보대출은 일종의 담보대출로서,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빌린 대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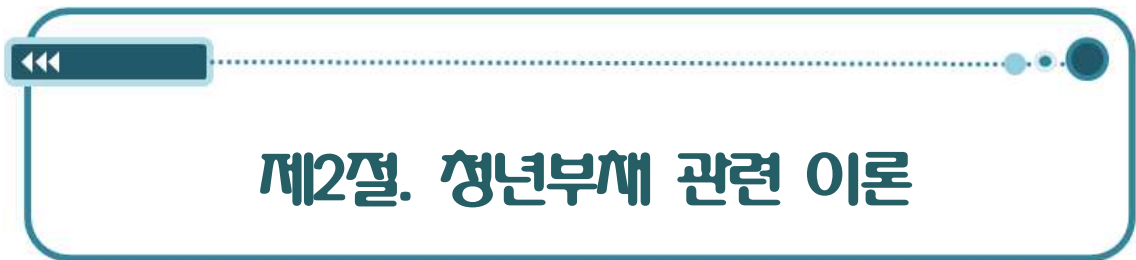
○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부채의 경계는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움

- 광주시 청년부채 연구(장동호·백경호, 2017: 110)에 따르면, 가족의 요청으로 대출을 받은 청년의 비율이 15.2%였는데, 해당 부채상환을 부모 등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순수한 청년부채라 말할 수 없음
- 마찬가지로 가족이 청년의 사업, 주거 마련 등을 위해 대신 대출을 받고, 원금과 이자 일부를 청년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대출자 명의를 기준으로 청년부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지만, 청년부채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

2. 인천시 청년부채의 개념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와 통계청 가계부채에 대한 개념정의에 근거하여, “인천시 청년부채”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인천시민의 가계대출과 비공식대출로 규정함

- 가계대출은 예금은행의 주택대출과 기타대출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예금 등), 그리고 기타금융기관(보험, 연금, 여전사 등)을 통한 대출을 의미함(통계청, 2021)
- 비공식대출은 부모나 지인을 통한 대출을 의미하며(통계청, 2021), 상환날짜나 이자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부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음
- 일반적으로 가계부채의 개념에는 신용카드사, 백화점 또는 할부금융사를 통한 외상거래, 즉 판매신용을 포함하나, 통상 일반인들이 신용카드 등을 활용한 외상거래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판매신용은 조사시점에 따라 변동성이 심해 설문조사를 통해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인천시 청년부채의 개념에서는 제외함



제2절. 청년부채 관련 이론

1. 가계부채를 설명하는 이론적 접근

- 청년부채를 포함한 가계부채 전반에 관한 연구는 금융산업이 가장 발전한 미국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으며, 인간의 재무행위에 관한 관점을 기준으로 크게 신고전경제학, 심리사회학, 행동경제학 접근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신고전경제학의 접근

- 가계부채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 이론으로는 신고전경제학과(Neo-classical economics)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Friedman)의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 (life cycle - permanent income hypothesis)이 있음
 - 생애주기-항상소득가설이론에 따르면 “각 위험 기피적인 효용함수를 갖는 가계 또는 개인은 소득이 변동적일 경우 자본시장에서 저축(saving)과 대출(loan)을 통해 자신의 소비를 균등화(consumption smoothing)하려는 성향이 있음(김대일, 2007: 83 재인용)
 - 즉, 가계와 개인은 매 기간 당시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신이 생애에 걸쳐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적인 소득인 항상소득(permanent income)에 따라 소비수준을 결정함
 - 전 생애에 걸쳐 일정 수준의 최적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생애주기(life cycle)상 비교적 소득이 낮은 유년기와 노년기 그리고 청년기에는 대출을,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중장년기에는 저축을 하는 것임
 - 신고전경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부채는 청년기라는 구조적으로 소득이 부족한 시기에 청년 또는 그 가계가 향후 얻게 될 기대소득을 생각하며 대출을 통해 소비수준을 균등화한 결과임

2) 심리사회학의 접근

- 심리사회학(Psychological sociology)은 신고전경제학과 다른 관점에서 가계부채의 원인을 설명함
 - 심리사회학은 개인의 성격, 동기, 영감, 삶에 대한 기대, 그리고 동료 및 가족의 영향을 저축이나 대출의 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함(장동호, 2013; Furnham & Argyle, 1998; Beverly et al., 2008)

- 구체적으로 심리학자들은 부채에 관한 가계나 개인의 행위가 개인의 성격과 태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봄
- 예컨대, 검약과 성실이 몸에 배어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었으며, 자주성이 강한 사람은 대출보다는 저축에 성공할 가능성이 큰 반면, 과시욕이 큰 사람은 과잉지출로 저축할 돈이 없어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경향이 있음(Furnham and Argyle, 1998)

○ 또한, 심리사회학은 대출에도 일종의 '이웃효과'(neighborhood effects)가 있다고 봄

- 예를 들어 저축보다는 대출을 많이 하는 부모나 이웃과 함께 지낸 청년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Payne, Devol and Smith, 2000; Walks, 2013; Almenberg, Lusardi, Sääve-Söderbergh and Vestman, 2016)
- 바로 이점에서 해외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이웃'(good neighbors)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금융멘토링(financial mentor) 사업¹⁾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음(장동호, 2013)

3) 행동경제학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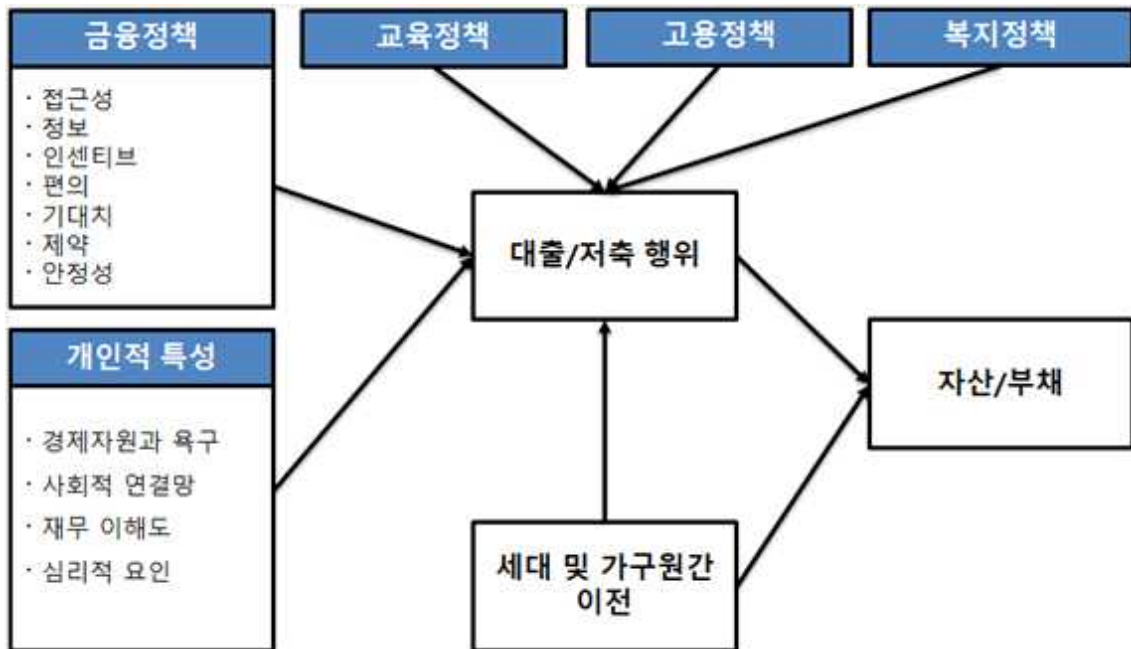
○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은 신고전경제학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개인들이 합리적이고 모든 것을 다 안다는 신고전경제학의 주장은 거부하며, 인간들의 공통적 특성, 예컨대 자기통제력(self-control)의 부재, 인지력(cognitive ability)의 제한, 타성(inertia), 심적 계산(mental accounting)의 활용과 같이 비합리적 기준이 개인의 대출에 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함

- 현실에서 자기통제력 결핍은 종종 사람들로 하여금 과소비나 과잉부채를 야기함
- 제한된 인지력과 관성도 사람들이 금융행위와 관련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임
- 실제로 청년들의 부채문제를 분석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청년들 중 다수는 자신들의 부채상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대출을 쉽게 갚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김순영, 2011; 조성목, 2012)

1) 금융멘토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카고에 위치하면서 대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역량강화교육 및 멘토링 사업을 펼치고 있는 비영리기관인 '머니씽크'(Moneythink)를 우수사례로 추천함. 특히 온라인(online) 멘토 사업을 참고할 만함(<http://moneythink.org>)

2. 청년부채의 이론모형

- 앞서 언급한 신고전경제학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부채 문제는 생애주기에 걸친 효용 극대화 과정에 따른 개인이나 가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의사결정의 결과임
 - 청년의 부채가 개인 또는 가계의 내적 상태 또는 이웃 등의 미시적 수준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은 심리사회학자나 행동경제학자 모두 수용되는 부분임
-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들(장동호, 2014; Beverly et al., 2008)이 주장하듯이, 청년부채도 온전히 청년 개인차원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음
 -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원인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목되어 온 것처럼(여경훈, 2010), 청년부채 역시 거시적 환경이나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아야 함
- 아래 [그림 2-2-1]은 Beverly et al.(2008)이 제시한 자산형성의 이론모형을 본 연구가 수정하여 만든 ‘청년 자산부채의 이론모형’이다. 이 모형을 보면 청년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청년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와 세대 및 가구원 간 이전임
 - 개인이 저축을 많이 한다면 자산이 늘고, 대출을 많이 받는다면 부채가 늘어나며, 또 상속재산을 포함한 세대 및 가구원간 사적이전이 늘어나면 청년의 자산이 늘고 부채는 줄어드는 구조임
- 한편 이 모형의 핵심인 개인의 저축/대출행위는 여러 제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금융뿐만 아니라 교육정책, 고용정책, 복지정책이 그것임
 - 특히 금융제도는 제도적 차원에서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보, 인센티브, 편의, 기대치, 제약, 안전성을 통해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침
 - 동시에 금융과 관련된 개인적 특성, 예컨대 경제자원과 욕구, 사회적 연결망, 재무 이해도, 심리적 요인도 청년의 저축/대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
- [그림 2-2-1]의 모형은 청년부채에 대한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관리 및 처방 역시 미시만이 아니라 거시적 수준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대출을 받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연체하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개인적 재무관리역량을 청년들이 보유했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차원적 접근이 중요함을 시사함



[그림 2-2-1] 청년 자산/부채의 이론모형

○ [그림 2-2-1]에서 저축/대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과 개인적 특성은 각각 [표 2-2-1]과 [표 2-2-2]에 설명함

<표 2-2-1> 청년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적 특성

요인	내용
접근성	금융에 관한 개인의 이용자격과 실행가능성 그리고 지리적 의미의 물리적 접근성이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바로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이다.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으로서, 이용자격의 측면에서 제도권 금융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정보	특정 금융상품이나 프로그램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또는 금융뿐만 아니라 세금공제서비스와 같은 공적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도 개인의 저축/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금융정보의 양과 질에 따라 금융행위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양질의 정보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 특히 청년층 중에서도 이러한 정보가 충분히 많은 이들의 경우 저축/대출과 관련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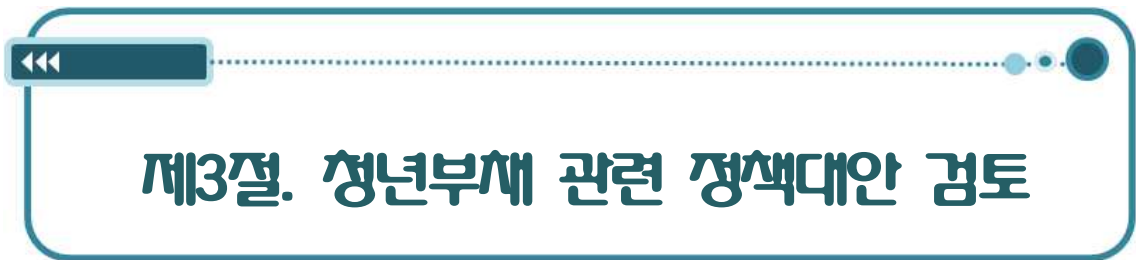
요인	내용
인센티브	금융 및 정부제도 등이 제공하는 비금전적 보상, 보조금, 수익도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발달계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희망플러스 통장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업은 개인들이 꾸준히 저축할 수 있도록 저축금에 1대1 매칭 보조금을 인센티브 차원에서 제공한다. 즉 보조금을 저축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로 활용하여 주로 저소득층인 프로그램 참여자의 저축 동기를 강화하거나 유지한다.
편의	저축이나 대출을 돕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장치를 의미하며 이 역시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친다. 급여공제와 자동이체적금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편의는 일단 한번 정해놓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시간이 가면서 저축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급여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줄임으로써 총동소비를 억제할 수도 있다.
기대치	바람직한 저축에 대한 명시적·비명시적 제안인 기대치도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예컨대, 만일 정부가 소득공제적금에 대하여 연 3천만 원까지 비과세 처리해주는 경우 사람들은 바람직한 저축의 목표치를 그 금액 정도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공제를 더 많이 해준다면 저축금액의 수준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제약	자산에 대한 접근이나 사용에 대한 금지 또는 규제를 의미하는 제약도 개인의 저축/대출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개인발달계좌가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꿈나래통장은 저축을 통해 형성된 자금을 자녀교육자금으로만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5년 또는 7년 동안은 적금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해지할 경우 보조금(매칭금)을 제공하지 않으므로써, 장기저축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까다로운 대출조건 역시 부채증가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다.
안정성	안전성은 저축이나 대출의 손실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이러한 안정성은 사실 금융위기나 글로벌 정치경제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보다 하위차원인 국가차원 또는 개별 금융기관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예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정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의 예금은 금융회사가 문을 닫더라도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한편 대출에 의한 안전성은 예컨대 1금융과 대부업체 대출 사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출처: 장동호(2013): 214

<표 2-2-2> 청년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	내용
경제적 자원과 욕구	개인의 소득과 소비지출을 의미한다. 즉, 소득이 많고 지출이 적어야 당연히 저축하기가 쉽다. 따라서 소득을 늘리고 소비욕구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한데, 청년층은 구조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쉽지 않다. 학생신분이 많아 소득이 부족하고 학비와 생활비 등을 줄이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의미 있는 것이 바로 청년수당이나 장학금과 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지원이다.
사회적 연결망	사회적 연결망도 개인의 저축/대출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축과 대출에 대한 가족, 친인척, 친구나 직장 동료들의 태도 및 통제력 등은 개인의 저축과 대출행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무 이해도	돈에 관한 개인의 지식과 기술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예컨대, 각종 금융용어, 재무설계 방법, 저축전략에 관한 지식과 기술이 있으며, 저축과 대출 등을 포함한 금융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재무와 관련하여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심리적 요인	개인의 자산/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미래지향성, 저축 동기, 저축 능력에 대한 믿음이 그것이다. 먼저 미래지향성이란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성이 강한 사람은 대출을 통한 현재의 즐거움보다는 저축을 통한 미래에 대한 투자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통제다. 자기 통제력이 높은 개인일수록 저축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저축 동기이다. 특히 대표적인 저축 동기는 노후준비, 위기상황 대비, 재산남기기, 자기계발 등의 필요성이다. 끝으로 자신의 저축 능력에 대한 믿음도 중요하다. 예컨대, 자신이 저축에 성공할 것이라고 믿는 개인이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더 많이 저축할 가능성이 높다.

출처: 장동호(2013): 216



제3절. 청년부채 관련 정책대안 검토

1. 광주광역시 사례: 광주청년금융안전망

- 광주시는 2017년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장동호·백경호, 2017)를 통해 청년부채 해소정책 모형으로서 광주청년금융안전망 모형을 개발하였음
 - 이전까지 청년부채 관련 여러 정책제안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정부차원의 개입 제안이었음
 - 개별 청년부채 정책에 대한 단순 나열이 아닌, 여러 청년부채 정책을 하나의 모형으로 묶어 제시한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임
- 광주시 청년금융안전망 설계의 대원칙은 중앙정부와 차별화였음
 - 중앙정부의 청년부채 정책이나 제도를 명확히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는 내용 또는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하였음
 - 지역의 인적 자원이 개입하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무관리 역량강화교육이나 상담과 같은 면대면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임
- 광주시 청년금융안전망은 다단계·다차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우선, 개입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연체나 채무불이행 문제로 힘들어하는 일부 청년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사후개입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전체 광주시 청년을 대상으로 부채수요를 사전 예방하는 기능을 담고 있음
 - 다음으로 변화의 초점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에 대한 청년 개개인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자신감 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재무관리 역량강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청년들을 둘러싼 금융환경 및 제도를 좀 더 청년 친화적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함(예: 청년자산형성지원)
- 광주시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장동호·백경호, 2017)가 제안한 세부 사업은 총 7가지였음
 - 청년재무관리 역량강화 사업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광주청년금융안전센터 운영
 - 청년 친화적 금융안전망 조성을 위한 청년금융안전네트워크 운영
 - 6개월 단기저축지원을 통해 비상금 보유를 지원하는 광주청년 비상금 통장 지원
 - 금융역량강화교육/상담 참여율 제고를 위한 광주 청년금융역량강화교육/상담 크레딧 운영
 - 청년 금융이해도 및 자신감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금융역량강화교육 자료/도구 제공과 공모전 개최

- 청년 채무자의 생존권 보장과 재출발 지원을 위한 청년 채무조정 지원
 - 채무조정 단계에 있는 청년들의 생활안정 및 추가대출 방지를 위한 청년 금융 복지 사례관리와 긴급지원
- 광주시는 위의 7가지 청년부채 세부사업 중 금융역량강화교육/상담 참여율 제고를 위한 크레딧 운영을 제외한 6가지를 이미 실행 중임



[그림 2-3-1] 광주 청년금융안전망 모형

2. 해외사례: EPIC의 가계부채 대응모형

1) EPIC의 가계부채 대응모델

○ EPIC의 개요

- EPIC은 Expanding Prosperity Impact Collaborative의 줄임말로써, 미국 아스펜 연구소 금융안정프로그램(Aspen Institute Financial Security Program)의 사업 일부임
- 아스펜연구소(Aspen Institute)는 1949년 시카고의 사업가인 Walter Paepcke(1896-1960)에 의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서,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Executive Seminar, Policy Program, Public Program, Aspen Global Leadership Program이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위기나 인류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아스펜연구소 금융안정프로그램의 목적은 미국 가정들의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임

○ EPIC은 2018년 『Lifting the Weight: Solving the Consumer Debt Crisis for Families, Communities & Future』를 통해 미국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모형과 해결방안 등을 제안함

- EPIC은 가계 재정 불안(financial insecurity) 해소와 관련하여, 실천가, 학계, 정부, 금융산업 전문가들이 협업한 최초의 협업사업으로서, 미국인들의 재정불안과 관련된 중요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Lifting the Weight」는 가계부채 이슈를 다룬 연구결과물임
- EPIC 모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가계부채 해소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정부와 별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안한다는 점임
- 청년을 별도로 분리하여,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제안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자금 대출과 같은 청년과 관련성이 높은 부채에 대한 해소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점에서 본 연구와 무관치 않음

2) EPIC의 가계부채 대응모델의 특징

○ EPIC은 미국 가계의 채무 문제를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함

- 개인적 차원의 부채문제는 다음과 같음
 - 가계의 저축(savings) 또는 비상금(financial cushion) 부족
 - 저금리 신용대출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 부당한 대출 조건에 대한 노출
 - 위험한 대출의 연체, 채무불이행, 채권추심
- 구조적 차원의 부채문제는 다음과 같음
 - 학자금 대출
 - 병원비 채무
 - 공적 벌금이나 요금
-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EPIC의 솔루션 프레임(solution framework)은 특정 영역(예: 소비자, 금융회사 등)의 입장이나 주장을 대표하기보다는 다양한 영역의 이해관계자가 협의하여 서로 수용한 협의틀이라는 특징을 지님
 - 이해관계자 집단에는 핀테크 회사, 주류 금융회사,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비영리단체, 대학, 연구소 등이 해당함
- EPIC의 솔루션 프레임을 개발하기 위한 주요 과정은 아래와 같음
 - EPIC은 자문가집단을 초정하여 각 이해관계집단이 가계부채의 다양한 이슈를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Consumer Debt: A Primer)를 출간
 - 논의에 참여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부채문제의 현상과 해결방안을 각각 도출함
 - 부채문제로 힘들어하는 개인들을 초대하여, 전문가들이 제안한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방안을 확정함

3) EPIC 가계부채 문제해결의 시점

- EPIC에 따르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3가지 시점이 있음
 - 부채발생 전 단계, 부채발생 단계, 부채발생 후단계가 그것임
- 부채발생 전 단계에서 주요 개입의 목표는 부채예방 또는 부채액을 가급적 최소화 하는 것임

- 부채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개입은 부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의미를 가지며, 개인의 대출수요를 줄이거나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함
- 대표적인 부채 사전예방 개입은 가계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돈을 안 빌릴 수 있도록 비상금저축을 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대학교육 등과 관련하여 학자금 대출을 많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부채발생 단계에서 개입의 핵심은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임

- 부채발생 단계에서의 개입은 대출자의 입장에서 가장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게 하는 것임
- 차주의 입장에서 이는 이자율의 조정, 원금과 이자 조정, 병원비나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 신용카드대출이나 학자금대출을 가장 좋은 조건에 받게 하는 것, 약정에 이자율조정요구권을 포함하는 것 등이 포함됨

○ 부채발생 후 단계에서 개입의 핵심은 채무조정임

- 부채발생 후 단계에서의 개입은 사람들이 부채상환에 힘들어할 때 이뤄짐
- 차주의 입장에서 채무조정은 분할상환, 연체이자 면제 및 금리감면, 원금감면 등을 의미함

4) EPIC 가계부채 해소방안의 목적

- EPIC은 미국 가계의 채무 문제를 개인적 차원과 구조적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문제 별로 차별화된 목적을 제시함

<표 2-3-1> 가계부채 해소 목적: EPIC 모델

문제(Problems)		목적(Goals)
개인적 차원의 해결	비상금 부족 또는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 적자와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비상금과 가계 소득 확보함으로써, 불필요한 대출 수요를 예방하는 것
	저금리 신용대출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 저신용자도 고신용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 과거 연체나 채무불이행으로 적정 수준의 신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부당한 대출 조건에 대한 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소외자나 주류 소비자 등이 접근할 수 있는 일반 신용상품을 더욱 적정하고 안정하게 하는 것

문제(Problems)		목적(Goals)
구조적 차원의 해결	위험한 대출의 연체, 채권추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체자 또는 채무불이행자를 보호받게 하는 것 • 채권추심업자, 대부업체, 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를 신장하는 것
	학자금 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학비를 학생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특히 유색인종) • 감당할 수 없는 학자금대출 부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
	병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비 부채를 가진 사람들을 줄이고, 발생한 병원비 부채를 경감하는 것 • 감당할 수 없는 병원비 부채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고 복지를 증진하는 것
	정부 벌금과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이나 과태료를 지출해야 하는 사람들을 줄이는 것 • 벌금이나 과태료를 너무 과도하게 부과하여 사람들의 근로 능력이나 생활 수준을 떨어트리지 않게 하는 것

5) EPIC 가계부채 해소방안의 세부내용

- <표 2-3-1>에 제시된 총 7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나라와 상황이 달라 정책적 함의 도출이 어려운 ‘병원비’, ‘정부 벌금과 과태료’를 제외한 5가지의 문제에 대한 5가지 해소방안의 세부내용을 차례대로 살펴봄

(1) 비상금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비상금저축과 가불제도

- 유동성이 충분하고 가불이 가능한 사람들은 소득과 지출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상황에서 충격이 덜하고, 돈을 빌려야 할 필요가 적음

<표 2-3-2> 가계부채 해소방안1: 비상금 부족 문제 해결

제공자	예
금융서비스 제공자	
소비평탄화(consumption smoothing)를 위해 소액저축(micro-savings)을 돕는 혁신적인 저축상품과 서비스 개발	EARN의 Saver Life Product Prudential과 NEST의 “Sidecar savings” pilot: 소득공제 자동저축상품
저축,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개발	Walmart의 MoneyCard(Vault Digit): 저축과 신용카드, 계좌이체 거래를 할 수 있는 선불카드
고용주	
근로자의 현금흐름 안정화를 지원	추가 근로소득을 지원하는 Even, FlexWage, 그리고 Payactive: 모바일을 이용한 일종의 근로자 가불제도

제공자	예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비상금저축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동모금회의 자동저축급여(automatic savings benefit): 회사가 지원하는 기업 내 자동저축 프로그램
정부	
급여공제 저축상품에 자동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지원	미국 의회의 “단기저축지원법” (Short-term Savings Act) 제정
비상금저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Prosperity Now의 “Rainy Day Savings Account” (여웃돈마련 저축계좌) 제안
단기저축에 매칭금 지원	The Save USA pilot program

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 소비평탄화를 위해 소액저축을 돕는 혁신적인 저축상품과 서비스 개발

- 매우 작은 유동자산을 보유한 것만으로도 소득이 중단 또는 줄어들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음
- 비상금(유동성) 저축계좌는 개설하기 쉽고, 저축하기 쉽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함
- 예컨대, EARN은 Saver Life 계좌를 제공하는데, 이는 소액저축으로 한 달 최저 20달러 저축을 요구함
- Prudential과 NEST도 최근 근로자의 유동성 확보를 돕는 Sidecar savings 계좌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저축,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기능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개발

- 여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기능을 결합한 금융상품의 경우, 저축을 돕고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예컨대, 월마트의 머니카드(money card)의 경우, 충전할 수 있는 일종의 선불·직불카드로 최대 500달러까지 저축할 수 있는 Vault라는 저축계좌를 함께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월마트는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Vault를 통해 저축을 하는 사용자를 매달 추천하여 1명에게는 1,000달러를, 99명에게는 25달러를 제공함
- 또 다른 예로는 모바일 앱 ‘Digit’ 이 있는데, 이는 은행계좌소유주의 소득과 소비패턴 등을 인공지능을 통해 파악하여 자유입출금통장에 불필요하게 남아있는 예금 잔액을 매우 수차례 Digit 소액저축계좌로 자동 저축하는 통장임

② 고용주의 역할

○ 근로자의 현금흐름 안정화를 지원

- 근로자가 벌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월급의 경우 월급날 이전에 급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여러 고용주들이 Even, FlexWage, 그리고 Paydactiv와 같은 회사들과 함께 임금가불을 지원하고 있음
- 긴급현금지원 프로그램(Emergency cash grant program)도 근로자의 현금흐름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선택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Georgetown 대학은 소속 근로자들에게 긴급현금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수백 개의 고용주 중에 하나임
- 긴급현금지원 프로그램은 사고나 사망, 자연재해, 질병 등 생애사건에 의한 갑작스러운 지출에도 불구하고 안정감 있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비상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지원

- 급여공제를 통한 자동저축은 퇴직저축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원리는 비상금저축에도 적용될 수 있음
-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rainy day” 또는 “sidecar” savings로, 자동저축으로 약정한 일정액의 비상금(예: 1,000달러)이 모이면, 자동으로 저축을 멈추며, 사용자가 비상금을 일부 이용하면 다시 약정 금액까지 자동저축이 시작됨

③ 정부의 역할

○ 급여공제 저축상품에 자동 가입되도록 지원: 연방정부 차원

- 미연방 법령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음
- Strengthening Security Through Short-term Savings Act(단기저축을 통한 소득 보장강화법)은 은퇴연금제도를 제공하는 고용주가 급여공제방식의 비상금저축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비상금저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방정부, 주정부

- 미국 비영리민간단체인 Prosperity Now가 개발하여 제안한 Rainy Day EITC는 납세자들이 받는 세금환급금의 일부를 단기저축계좌에 6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최대 250달러에 이르는 매칭금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함
- 이 프로그램은 뉴욕시, 뉴욕, 톨사, 샌 안토니오에서 실시된 파일럿 프로그램 SaveUSA의 긍정적 결과에 기반을 둔 것으로서, 무료세금환급준비 프로그램을

이용한 납세자가 일정 금액을 특정 은행이나 신협이 저축계좌에 저축할 수 있게 도왔는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를 통해 참여자들이 저축이 30% 가까이 증가하고,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축을 유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음

- SaveUSA 모델의 확장을 위해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은 Rainy Day 저축계좌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행정비용, 저축매칭지원금을 준비했고, 매년 세금환급금을 이용한 비상금저축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무료세금신고 자원봉사 캠페인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있음

○ 단기저축에 매칭금 지원: 연방정부, 주정부

- SaveUSA의 핵심 요소는 저축 후 최소한 1년 이상 인출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축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칭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임
- 3년간의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3분의 2가 최소한 한 번의 저축매칭금을 받았으며, 평균 매칭금 금액은 365달러이었음
- The Rainy Day EITC 사업의 경우 미국 전국단위의 프로그램으로 확대될 것이며, 근로장려금을 저축계좌에 최소 6개월 이상 예치할 경우 저축액에 1:0.5 매칭금을 최대 250달러까지 제공할 계획임

(2) 저금리 신용대출 등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한

- 금융거래를 위한 신용을 쌓으려면 대출과 부채를 피할 수 없음
- 적정한 신용은 가계의 재정적 생활을 지탱하는 견고한 토대가 될 수 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신용은 가계를 불안정한 재정상태에 놓이게 하고 크고 작은 혼란을 유발함

<표 2-2-3> 가계부채 해소방안2: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

제공자	예
금융서비스 제공자	
인구학적 집단들에 걸쳐 신용상품에 대한 접근 및 비용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대출과 상환 규정 개발	FS Card: 고금리 소액대출 고객을 보다 저렴한 신용상품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안된 신용카드 벤처
신용이 없는 이들의 신용상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다수의 선도적 핀테크 대출업자들의 경우 대안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음 Credit Builders Alliance라는 전국단위비영리조직이 비영리대출자가 신용당국에 관련 대안적 신용정보를 제공하도록 지원함

제공자	예
신용상담과 금융코칭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을 후원하고 협력	미국의 대형 은행 대부분이 지역의 신용상담조직을 충분한 규모는 아니지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정부	
신용 접근 및 비용 측면에서 인종 및 성별 격차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의 공정한 대출 고객차별 대출기관 상대 마이애미와 필라델피아 주의 소송 제기
정기적인 지도감독과 함께, 금융서비스제공기업이 대안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허용 신용당국이 공과금, 전화, 인터넷서비스, 월세 지출에 대한 정보와 현금흐름 정보를 활용하도록 장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혁신 사무소(Office of Innovation) 신용 접근과 포용법(The Credit Access and Inclusion Act)
신용상담을 제공하는 비영리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 미국 파산법 13장 수정	HUD가 보증하는 효과적인 주거상담 프로그램
비영리조직	
신용상담, 신용회복, 채무관리 프로그램 제공	전국신용상담재단 소속 다수 비영리조직 재무클리닉과 실천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3) 인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

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 인구학적 집단들에 걸쳐 신용상품에 대한 접근 및 비용의 격차를 적극적으로 줄이는 대출과 상환 규정 설정
 - 금융서비스 제공자들도 정부의 지원 없이도 금융상품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음
 - 비록 많은 금융회사들이 “인종차별 금지”를 이유로 인종이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이 자체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이러한 접근이 문제 해결을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을 수도 있음
 - 예를 들면, 신용카드회사 FS Card는 적극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의 차이에 따른 대출조건의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음

② 정부의 역할

-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이 대안적 자료들을 소비자 친화적인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절한 규제 실시(연방정부 및 주정부)
 - 미국과 다른 여러 국가의 정부기관들은 금융 혁신을 지원하는 새로운 규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음

- 전통적인 방법을 벗어나거나 새로운 기술에 의존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 규제 당국은 금융서비스 제공기관과 밀접하게 협력
 -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로도 불리는 이 접근은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통제된 실험 환경을 제공. 자료공유, 부정확한 자료, 자동화된 의사결정, 빅데이터의 잠재적 가치를 활용하는 작업들과 관련된 여러 우려들에 대응하고, 소비자들을 차별과 부정적 결과들로부터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대안적 자료의 활용을 지원하는 모든 정책적 노력들은 소비자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되거나 개인정보보호 관련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견고한 관리, 감독이 병행되어야 함
- 소비자 신용보고 기관들이 은행 거래기록뿐 아니라 공과금, 통신비, 월세 지급 기록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함(연방정부)
- ‘공정한 신용 보고 법(The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은 어떤 정보가 소비자 신용 보고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정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출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데, 1990년대 이후로 업데이트 되지 않고 있음
 - FCRA 개혁과 규제 가이드라인은 대안적 신용 자료의 포괄적이고 적절한 활용을 촉진할 수 있음
 - ‘신용 접근과 포용에 관한 법(Credit Access and Inclusion Act, H.R.235)’은 신용평가 및 보고 기관들이 유해하지 않은 방식의 대안적 신용점수 부여 모델들을 받아들이도록 함
 - 이후의 법안들은 신용 평가 및 보고 기관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유인들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음

(4) 신용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이력을 재구축하고 저비용의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기회 보유

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 비영리 신용상담 및 금융코칭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 및 협력

- 신용 관련 상담 기관들과 금융코칭 관련 프로그램들은 클라이언트의 금융적 성과들을 개선하는데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비영리 서비스에 재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용이력을 재구축하는데 도움이 필요한 모든 소비자들에게 이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더 큰 규모의 재정지원이 필요함

-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은 새로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위험과 혜택을 분석하고 검증하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음

② 비영리기관의 역할

○ 신용상담과 부채관리 프로그램의 제공

- 신용상담과 금융코칭 프로그램은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더 많은 연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함
- 신용상담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 NFCC)의 회원 기관들은 신용과 부채, 학자금 대출, 모기지 대출, 파산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무료 또는 저비용의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
- 뉴욕의 금융 클리닉은 ‘Change Machine’ 플랫폼을 통해 전국의 비영리 금융코칭 기관들에게 자원과 커리큘럼을 제공
- 이러한 비영리 프로그램들은 민간 영역의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되는데, 신용회복과 관련된 영리 프로그램들 역시 소비자들의 부채를 줄이고 신용보고의 오류를 제거하는 것을 도울 수 있음
- 효과성이 증명된 비영리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더 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③ 정부의 역할

○ 비영리 신용상담에 대한 재정지원(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 연방정부는 견고한 서비스 전달을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예컨대 미국의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 및 주택소유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주택 구입자 상담 프로그램에 재정을 지원하는데, 여러 평가를 통해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 비영리 기관들에게 검증된 커리큘럼과 재정을 지원하는 이러한 모델은 다른 기관들에 의해 실시되는 신용상담 및 신용회복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음
-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기금(Cities for Financial Empowerment Fund: CFE Fund)은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기관들과 비영리 기관 파트너들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하고 있음
- 주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보다 큰 규모로 확장할 수 있음

- 개인회생 계획(Chapter 13 bankruptcy payment plan)의 개혁(연방정부)
 - 개인 채무자가 본인의 부채 일부 또는 전부를 3년에서 5년 기간 동안 상환할 수 있도록 파산법원에서 허용한 절차를 의미하는 개인회생계획(Chapter 13 bankruptcy payment plan)은 금융 및 건강 성과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그러나 이 절차를 신청하는 채무자의 반 이상이 회생 절차에 실패하고 파산 신청을 반복하게 됨
 - 연방 정부는 파산법원 판사가 좀 더 현실적이고 감당 가능한 부채상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실행해야 하는데, 부채상환에 사용되는 가처분 소득의 비율을 줄이거나 부채 상환 기일을 한 번 놓친 것이 실패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제공하는 것 등을 포함

(5) 부당한 대출 조건에 대한 노출 방지

- 유해한 대출 조건은 과도하게 높은 이자율, 상환 지연에 대한 과도한 벌칙, 원리금 지급일이 도래하면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풍선식 대출(balloon payment)’ 등을 포함
- 금융서비스혁신센터(Center for Financial Services Innovation: CFSI)에 따르면 양질의 신용상품은 저비용, 투명한 마케팅, 공정한 가격, 반복적인 대출 없는 상환 지원, 대출자의 신용형성 지원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액 대출 상품들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
- 연평균 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대출 상품들은 대출자들을 새로운 부채로 몰아넣을 수 있으며, 조건이 좋아 보이는 신용상품들도 급격하게 높아지는 수수료와 연체 이자율, 분쟁 발생 시 강제적 중재 제도, 높은 조기상환 수수료 등 유해한 조건들을 가질 수 있음

<표 2-2-4> 가계부채 해소방안3: 유해한 대출 조건에 대한 노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

제공자	예시
금융서비스 제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및 필요가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품 및 운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의 ‘Compass Principles’는 금융기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USAA의 secured credit card: 카드 발급 회사 계좌에 현금을 넣고 한도 내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질의 신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Credit Union Payday Alternative Loan Program US Bank Simple Lo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점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흐름 중심의 위험평가 및 선별(cash-flow underwriting)’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Petal: 이민자, 저소득층 등 신용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신용카드 서비스
고용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급여와 연계된 대출을 통해 낮은 비용의 신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주와 협력 하에 근로자에게 대출을 제공하는 TrueConnect Loans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비용의 악랄적 신용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엄격한 규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기지대출 및 소액대출에 대한 연방정부의 Ability to Repay(ATR) 기준 자동차 대출에 대한 매사추세츠와 델라웨어의 ATR 기준

① 금융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 금융기관의 이해관계와 소비자의 이해관계 및 필요가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상품 및 운영 방식 변경
 -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예금 한도 내의 신용을 제공하는 ‘secured credit card’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음
 -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에 따르면 이러한 상품들이 잘 설계된다면 신용점수가 부족한 소비자들에게 단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신용을 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금융서비스혁신센터(CFSI)가 제공하는 ‘Compass Principles’는 소비자 친화적인 상품을 설계하고 실행하는데 유용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양질의 ‘secured credit card’는 저렴한 수수료, 카드 소유자와의 의사소통 촉진, 모든 상황 기록을 신용관련 기관들에게 보고, 성공적인 이용자들은 전통적인 신용카드로 전환될 수 있는 정책 등의 특징을 포함

- 예컨대, USAA는 위험의 감소로 인한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평균보다 낮은 이자율의 ‘secured credit card’ 제공
- 양질의 신용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을 위해 설계된 혁신적이고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개발
 - 최근 이루어진 몇몇 혁신 사례들은 상품과 서비스 설계가 소비자 친화적인 해결책을 위해 전망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줌
 - 대출기관들은 기존의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 수수료가 일정 한도를 넘어서지 않게 조정하고, 채무불이행을 피할 수 있는 조기 경고 체계를 개발하고 있음
 -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NCUA)는 연방 신용조합들이 최대 20달러의 신청 수수료로 최대 6개월까지 200달러에서 1,000달러의 대출이 가능한 ‘payday alternative loan’ 을 제공하도록 허용
 - 미국의 US Bank는 Simple Loan 상품을 개발했는데, 1,000달러의 payday loan을 제공하고 3개월 동안 균등상환 가능
 - JPMorgan Chase는 상환일정을 잘 지키는 대출자에 대해 개인대출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 신용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소비자들에 대해 현금흐름 중심의 위험 평가 및 선별 활용 확대
 - 안정적인 재정 상태에 있지만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현금 흐름 중심의 위험 평가 및 선별은 전통적인 신용점수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더 잘 예측할 수 있음
 -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은행계좌 거래 자료를 활용하는 방식은 대출기관이 좀 더 저렴한 신용에 대한 접근성을 책임성 있게 확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 대출기관과 다른 금융기관들은 소비자의 거래 계좌를 포함하여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자료를 집계할 수 있음
 - 예컨대 Mint 앱은 이러한 접근을 활용해왔는데 이용자의 동의하에 이용자들이 선택한 금융 계좌들로부터의 정보에 접근하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 및 채무불이행 가능성에 대해 평가
 - 핀테크 대출 기관인 Petal은 월 단위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대출자들의 은행계좌를 결합하는 앱을 제공

② 고용주의 역할

- 고용주는 급여와 연계된 대출을 통해 근로자에게 낮은 비용의 신용에 대한 접근을 지원할 수 있음
 - 급여 연계 대출은 채무불이행의 위험을 낮춤으로써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대출자들이 회사의 급여 시스템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직장을 유지하는 한 상환이 보증됨
 - TrueConnect는 고용주들과 협력하여 3,000달러 한도의 안전하고 규제된 은행대출을 제공하는데, 1년 동안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상환

③ 정부의 역할

- 과도한 비용을 유발하고 유해한 조건을 가진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보다 엄격한 감시와 규제를 적용(연방정부, 주정부)
 -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신용 제약으로 고비용, 고위험의 상품에 접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 불황 이후 모기지 대출은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기반을 두어 위험평가 및 선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사한 원칙이 서브프라임 대출과 소액대출 규제에 적용되어야 함
 - 적합성(suitability) 의무는 상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기관에게 예방의 의무를 부과하며,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의 범리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대출기관의 평가를 요구하는 것과 관련됨
 -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대출의 유형 및 종류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상환능력심사 기준을 제안
 - 2017년 매사추세츠와 델라웨어 주는 자동차 대출 기관들과의 합의를 통해 자동차 대출 위험평가 및 선별에 있어 상환능력 기준을 적용하는 법을 적용

(6) 학자금 대출 부담

- 교육비의 상승
 - 4년제 대학들의 등록금은 1980년 이후 매년 물가 상승률보다 빠르게 증가해왔으며, 2006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학 등록금 및 등록금 소비자물가지수는 63% 상승했고 교과서의 가격은 88%, 학교에서의 주택은 51%, 전체 물가상승률은 21%의 비율을 보였음

- 교육비 대출을 받는 학생의 비율(50%)은 1980년대보다 두 배 높은 수준을 보임
- 부채 부담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며, 2018년 6월 기준 1조 4천억 달러에 달하는 연방 학자금 대출 채무 중 1490억 달러(약 11%)가 채무불이행 상태임

① 고용주가 할 수 있는 일

- 직원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 혜택 제공
- 높은 학자금 대출과 낮은 퇴직 저축
- Fidelity의 직원 복리후생 제도인 학생 부채 고용주 기여도 혜택
- Vault와 tuition.io를 포함한 다른 복지 사업가의 시장 진출
- 휴렛 팩커드, 스테이플스, 라이브네이션 등 대기업에서의 제공
- 근로자의 퇴직계좌에 대한 사용자 기여금으로 제공하는 대안적 접근법을 통한 유리한 세무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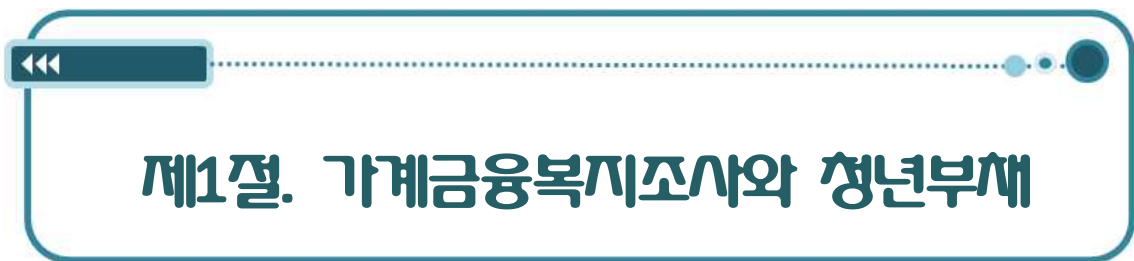
② 대학이 할 수 있는 일

- 경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을 위한 비상금 마련
- 고등교육기관의 70% 이상이 푸드뱅크에서 캠퍼스 내 외식이나 서점 이용권, 긴급 대출, 수수료 장학금, 보조금 같은 긴급지원 프로그램 제공
- UMass-Boston의 U-ACCESS 프로그램은 식품 저장고, 사례 관리, 만성적인 빈곤, 일시적인 노숙자, 위탁양육으로부터의 해방 등 정보 및 자원의 제공

③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 소득주도 상환 계획 및 대출 탕감 프로그램의 합리화와 확대
- 소득주도 상환 계획은 지급과 소득의 연계를 통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보호
- 다중 IDR 계획을 소득의 10%로 월 상환액을 제한, 20년 상환 후 비과세 대출 면제 혜택 제공,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고액 채무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단일 계획으로 간소화
- 학자금 부채 채무조정 지원 확대

제3장. 전국·지역별 청년부채 실태 분석



제1절.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청년부채

1. 가구주의 연령대별 자산·부채·순자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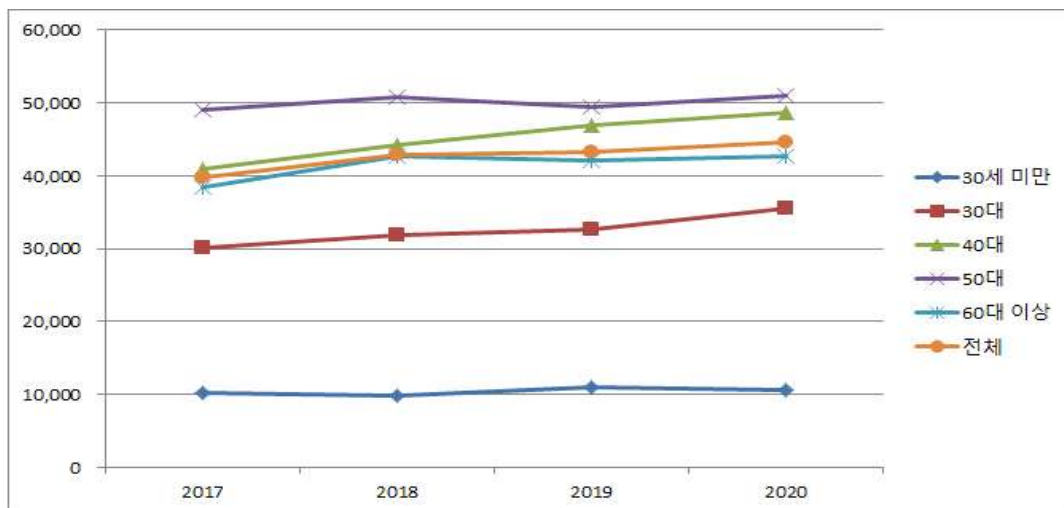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대별 총자산 수준 및 추이를 살펴보면 타 연령대에 비해 30세 미만, 30대 가구주 가구의 총자산 수준이 낮게 나타남
- 특히 30세 미만 가구주의 총자산 수준이 매우 낮고, 타 연령대 가구주 가구의 총자산이 증가 추세인데 비해 정체되고 있음

<표 3-1-1> 가구주 연령대별 총자산, 부채 및 순자산 추이 (단위: 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총자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부채	순자산	총자산	부채	순자산
30세 미만	10,347	2,454	7,893	9,827	2,378	7,449	10,994	3,197	7,796	10,720	3,479	7,241
30대	30,066	7,082	22,985	31,862	7,916	23,946	32,638	8,915	23,723	35,467	10,082	25,385
40대	40,858	8,338	32,520	44,150	9,258	34,892	46,967	10,689	36,278	48,686	11,327	37,359
50대	49,146	9,477	39,669	50,719	9,011	41,708	49,345	9,321	40,024	50,903	9,915	40,987
60세 이상	38,403	5,107	33,296	42,696	5,759	36,936	42,026	5,222	36,804	42,701	5,279	37,422
전체	39,870	7,245	32,625	42,925	7,641	35,285	43,191	7,910	35,281	44,543	8,256	36,287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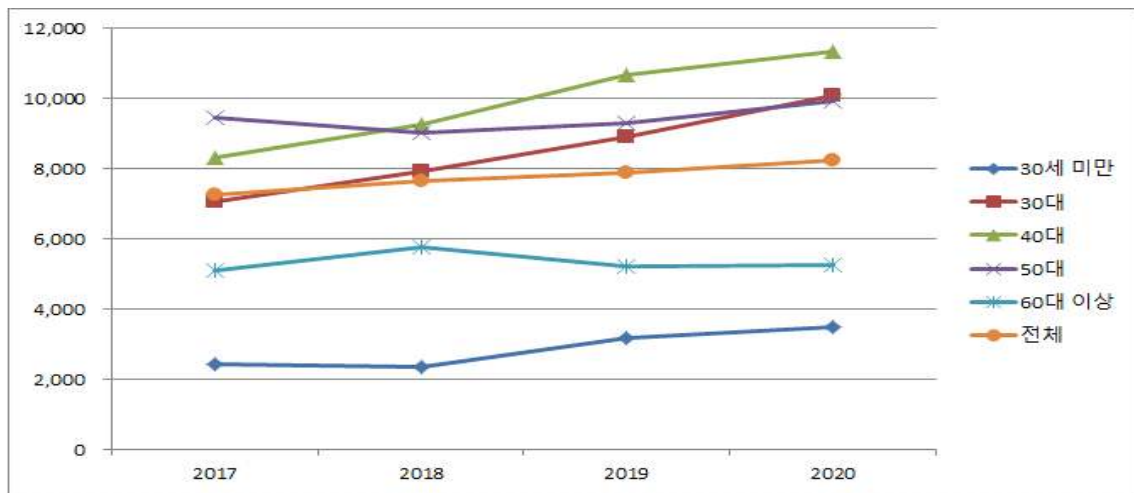


[그림 3-1-1] 가구주 연령대별 자산 추이 (단위: 만원)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50-60대 가구주 가구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부채의 절대적 수준은 낮지만 2018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임
- 30대 가구주의 경우 부채 수준도 높고 2017년 이후 증가폭도 상당히 빠른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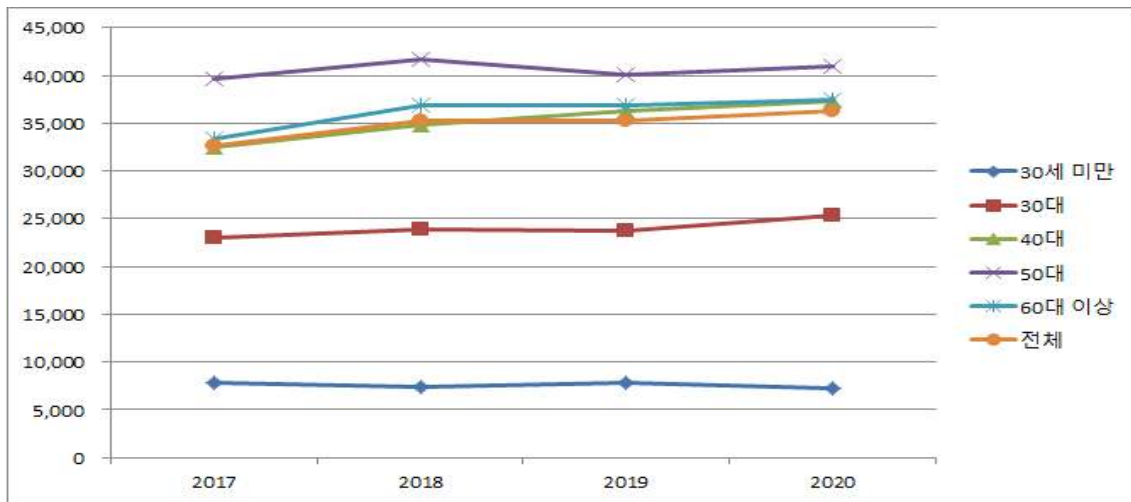
[그림 3-1-2]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추이 (단위: 만원)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3. 가구주의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 다음으로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총자산-부채)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 가구주 가구의 순자산 수준이 타 연령대에 비해 낮으며, 특히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순자산의 수준이 매우 낮고 2017-2020년 기간 동안 순자산이 감소한 유일한 연령 집단임
 - 즉, 30세 미만 청년 가구주 가구의 경우, 자산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부채의 증가로 순자산이 감소하고 있음
 - 타 연령대 가구주의 경우 부채가 증가하나 자산의 증가를 동반하고 있어 순자산이 증가하는 것과 대비됨



[그림 3-1-3] 가구주 연령대별 순자산 추이 (단위: 만원)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4. 청년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재무상태

- 다음으로 청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총자산, 부채 및 순자산 수준을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여 살펴보았음
-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임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지만, 2019년에 비해 2020년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부채가 증가하고 순자산이 감소하였음
 - 30세 미만 가구주 중 남성 가구주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이 여성 가구주에 비해 높게 나타남. 2019년에 비해 2020년 가구주 성별 간 차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
 - 입주형태별 총자산, 부채, 순자산은 자가>전세>월세의 순서를 보임
 -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부채가 크게 증가하나 총자산의 증가를 동반하기 때문에 순자산의 규모 역시 커짐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소득분위별 순자산의 격차가 커졌다는 사실로, 특히 30세 미만 소득 1분위에 포함되는 가구주 가구는 2020년 들어 총자산이 다소 감소한 반면 부채는 증가하여 순자산이 감소함
 - 학력이 높아질수록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가 커짐

-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시·일용직의 총자산, 부채 및 순자산 규모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30세 미만 자영업자 가구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총자산이 줄고 부채가 증가하여 순자산의 규모가 매우 줄어들었는데, 이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자산 규모가 증가한 상용직과 대비되는 결과임
- 미혼 가구에 비해 기혼가구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30대 가구주 가구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가 큼
- 2019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부채규모가 커졌으나 총자산의 증가를 동반하여 순자산 역시 증가함
- 30대 여성 가구주에 비해 남성 가구주 가구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성별 차이가 다소 증가함
- 입주형태별 총자산, 부채, 순자산은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와 같이 자가>전세>월세의 순서를 보임
- 전반적으로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총자산, 부채, 순자산의 규모가 큼
- 종사상 지위별로는 30세 미만 가구주와 마찬가지로 임시·일용직의 총자산, 부채 및 순자산 규모가 상용직이나 자영업자에 비해 매우 낮음. 30세 미만 가구주와 달리 2020년 들어 자영업자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규모가 오히려 다소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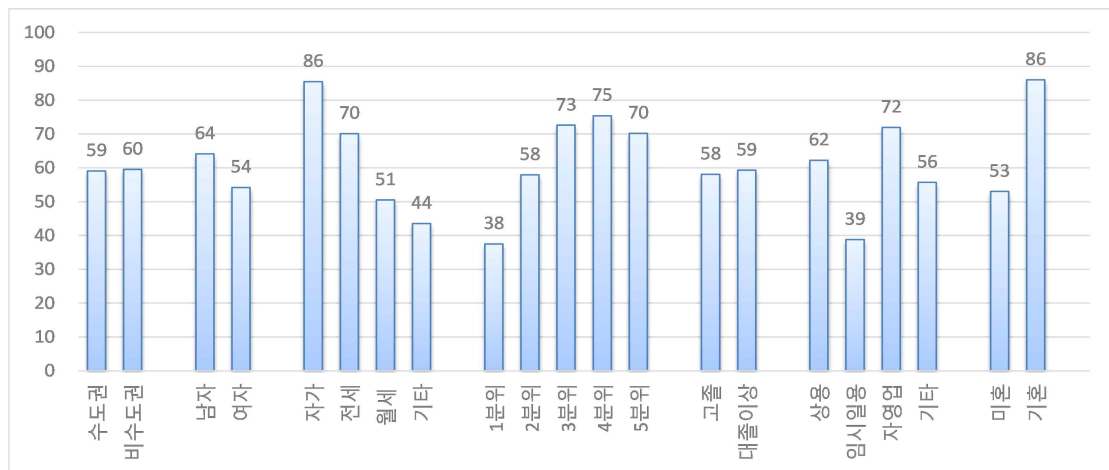
<표 3-1-2> 청년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산, 부채 및 순자산 (단위: 만원)

구분		2019						2020					
		30세 미만			30대			30세 미만			30대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지역	수도권	10,621	3,327	7,294	36,422	10,099	26,323	11,154	3,420	7,734	39,721	11,546	28,174
	비수도권	11,527	3,013	8,514	27,950	7,448	20,501	10,068	3,567	6,500	30,168	8,257	21,911
성별	남자	13,369	4,052	9,317	33,837	9,262	24,576	12,013	4,028	7,985	37,230	10,572	26,659
	여자	8,197	2,191	6,006	25,492	6,849	18,643	9,388	2,913	6,475	26,169	7,499	18,670
입주 형태	자가	26,569	7,462	19,107	47,044	12,736	34,308	27,885	6,909	20,976	49,737	13,473	36,264
	전세	16,045	5,010	11,036	32,026	8,753	23,273	16,233	5,468	10,766	34,168	10,859	23,309
	월세	4,203	1,126	3,077	10,503	2,921	7,582	4,602	1,829	2,773	10,489	3,294	7,195
	기타	5,531	1,436	4,095	14,325	4,472	9,853	7,459	2,203	5,256	23,268	4,830	18,438

구분		2019						2020					
		30세 미만			30대			30세 미만			30대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자산	부채	순자산
소득 분위	1분위	5,828	880	4,948	11,435	3,878	7,557	4,306	1,175	3,131	11,269	3,200	8,069
	2분위	7,397	2,254	5,143	15,951	3,759	12,192	8,026	2,914	5,112	15,603	4,154	11,449
	3분위	12,981	3,492	9,489	24,332	7,157	17,175	13,573	3,911	9,662	25,098	7,703	17,395
	4분위	18,055	5,968	12,086	36,833	9,531	27,302	18,089	4,898	13,191	40,057	11,786	28,272
	5분위	33,645	12,430	21,215	68,258	19,088	49,171	41,732	18,104	23,628	71,757	19,221	52,536
학력	초졸이하	-	-	-	11,463	3,027	8,435	1,971	1,700	271	9,311	5,025	4,286
	중졸	2,961	46	2,914	9,947	4,309	5,638	2,248	1,608	639	5,337	2,416	2,921
	고졸	8,839	2,683	6,156	20,317	6,088	14,229	7,907	2,435	5,472	22,106	6,888	15,218
	대졸이상	12,443	3,558	8,885	37,431	10,011	27,421	12,688	4,188	8,499	40,628	11,317	29,310
종사 상 지위	상용	11,832	3,314	8,519	35,507	9,625	25,882	12,817	4,070	8,746	37,658	10,599	27,059
	임시·일용	2,328	409	1,919	10,698	2,994	7,703	2,347	747	1,600	13,701	4,050	9,651
	자영업	19,469	7,334	12,135	35,397	10,627	24,770	13,652	5,436	8,216	43,556	12,594	30,962
	기타	8,853	2,563	6,289	21,364	4,852	16,512	6,448	1,951	4,497	18,021	5,716	12,304
혼인 상태	미혼	9,491	2,570	6,921	17,298	3,540	13,758	8,744	2,572	6,171	17,784	4,137	13,646
	기혼	16,705	5,582	11,123	38,533	10,980	27,553	19,224	7,379	11,845	42,793	12,545	30,249
전체		10,994	3,197	7,796	32,638	8,915	23,723	10,720	3,479	7,241	35,467	10,082	25,385

주: 표본 가중치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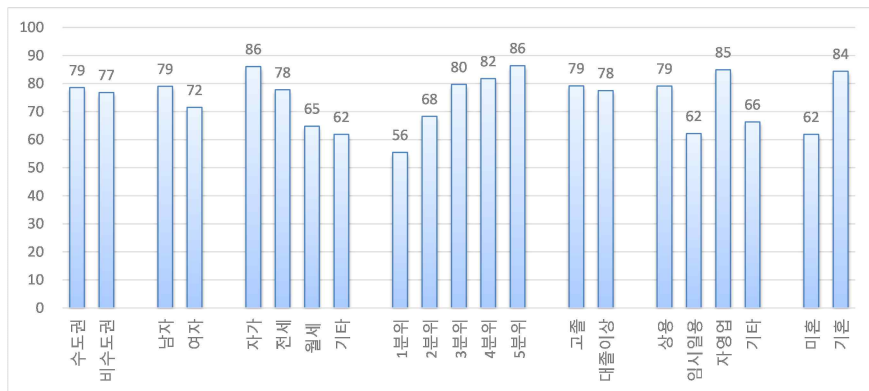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그림 3-1-4] 청년 가구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부채 보유 비율: 30세 미만 가구주, 2020년 (단위: %)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그림 3-1-5] 청년 가구주 인가사회학적 특성별 부채 보유 비율: 30대 가구주, 2020년 (단위: %)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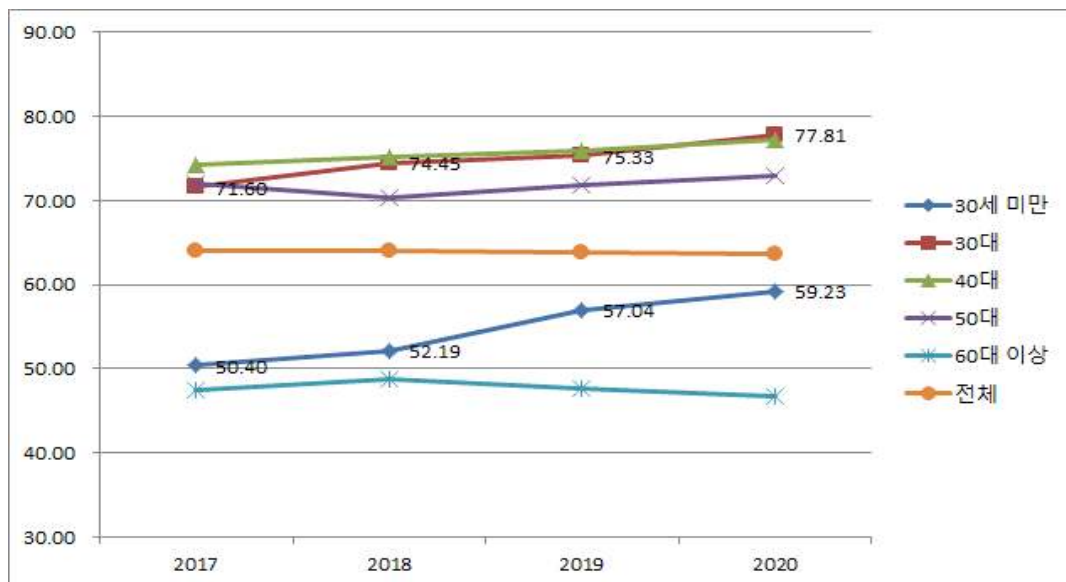
5.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자 비율 추이

○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자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부채 보유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2017년 부채보유비율이 50% 수준이었으나 2020년 59%로 증가함

○ 30대 가구주 가구의 경우 부채보유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2017년 부채보유비율이 72%에서 2020년 78%로 증가하였음



[그림 3-1-6]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보유자 비율 추이 (단위: %)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6.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부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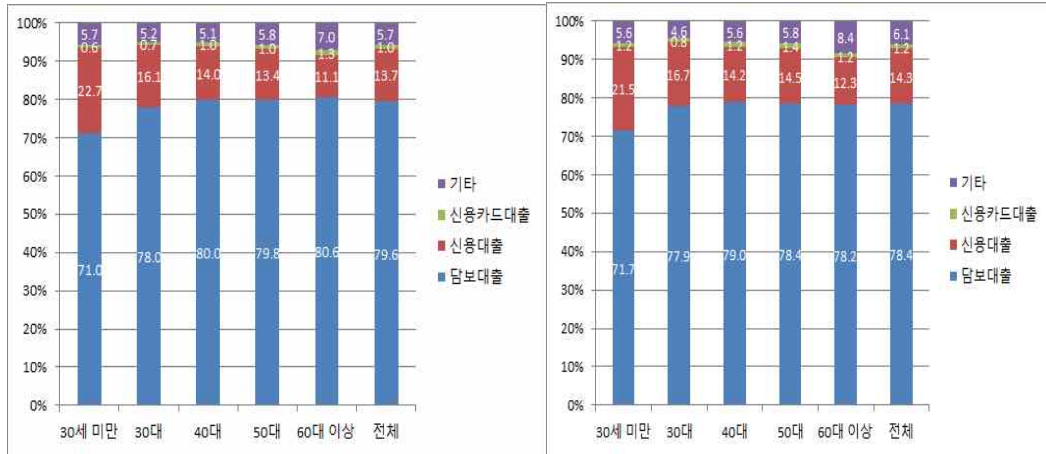
-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경우 총부채 중 금융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2019년 96.5%, 2020년 92%)
- 30대 가구주 역시 30세 미만 가구주 다음으로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아 청년 가구주의 경우 타 연령대에 비해 금융부채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3-1-3>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 구성 (단위: 만원, %)

구분	2019년			2020년		
	총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총부채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30세 미만	5,605	5,407 (96.5)	199 (3.5)	5,873	5,403 (92.0)	470 (8.0)
30대	11,835	9,746 (82.3)	2,089 (17.7)	12,957	10,593 (81.8)	2,363 (18.2)
40대	14,063	10,848 (77.1)	3,215 (22.9)	14,669	11,506 (78.4)	3,163 (21.6)
50대	12,987	9,703 (74.7)	3,284 (25.3)	13,601	10,181 (74.9)	3,420 (25.1)
60세 이상	10,941	6,440 (58.9)	4,501 (41.1)	11,293	6,790 (60.1)	4,503 (39.9)
전체	12,397	9,020 (72.8)	3,378 (27.2)	12,971	9,504 (73.3)	3,467 (26.7)

주: 부채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 금융부채의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담보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을 신용대출이 차지하고 있음
 - 신용카드 대출의 비중은 0.6%~1.4% 수준으로 높지는 않음
- 가구주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신용대출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2019년 22.7%, 2021년 21.5%)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신용카드 대출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임
 - 신용카드 대출 비율이 2019년 0.6%로 낮았으나 2020년 1.2%로 두 배가량 증가하였는데, 타 연령대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신용카드 대출 비중에 큰 차이가 없었음



[그림 3-1-7] 가구주 연령대별 금융부채 구성비, 2019년(왼쪽), 2020년(오른쪽) (단위: %)

주: 부채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7.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사유별 부채금액 및 비중

- 부채 사유별 부채 액수 및 비중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 마련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2019년 46.2%, 2020년 48.2%), 반면 30대 가구주의 경우 거주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음 (2019년 52.7%, 2020년 47.6%)
-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2019년에 비해 2020년 거주주택 외 부동산 마련의 비중이 다소 높아졌고(11.3%→19.3%), 30대 가구주의 경우 전·월세보증금 마련을 위한 부채 비중이 다소 높아짐(19.3%→23.9%)

<표 3-1-4> 부채 사유별 부채금액 및 비중 (단위: 만원, %)

구분	2019년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 상환		사업 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30세 미만	1,417	28.0	572	11.3	2,343	46.2	33	0.7	242	4.8	208	4.1	252	5.0
30대	4,829	52.7	1,165	12.7	1,769	19.3	93	1.0	662	7.2	353	3.8	299	3.3
40대	4,551	44.6	1,849	18.1	960	9.4	193	1.9	1,679	16.5	484	4.7	478	4.7
50대	3,289	36.4	2,043	22.6	612	6.8	212	2.3	2,052	22.7	409	4.5	424	4.7
60세 이상	1,527	25.9	1,425	24.1	325	5.5	144	2.4	1,444	24.4	350	5.9	692	11.7
전체	3,325	39.5	1,660	19.7	826	9.8	167	2.0	1,543	18.3	401	4.8	493	5.9

구분	2020년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부채 상환		사업 자금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30세 미만	907	18.0	972	19.3	2,428	48.2	17	0.3	267	5.3	123	2.4	322	6.4
30대	4,773	47.6	1,259	12.6	2,392	23.9	151	1.5	560	5.6	402	4.0	487	4.9
40대	4,781	44.6	1,886	17.6	1,095	10.2	189	1.8	1,747	16.3	568	5.3	459	4.3
50대	3,305	34.9	2,352	24.9	681	7.2	242	2.6	1,995	21.1	493	5.2	390	4.1
60세 이상	1,618	26.3	1,591	25.9	356	5.8	185	3.0	1,525	24.8	372	6.1	493	8.0
전체	3,363	38.2	1,824	20.7	970	11.0	194	2.2	1,556	17.6	457	5.2	451	5.1

주: 부채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8. 가구주 연령대별 대출기관별 부채금액 및 비중

- 대출기관별 부채금액 및 비중을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은행을 통한 대출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한 가지 주목할 점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은행을 통한 부채 비중이 86%에서 76%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고,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비중이 2.5%에서 9.9%로 비교적 크게 증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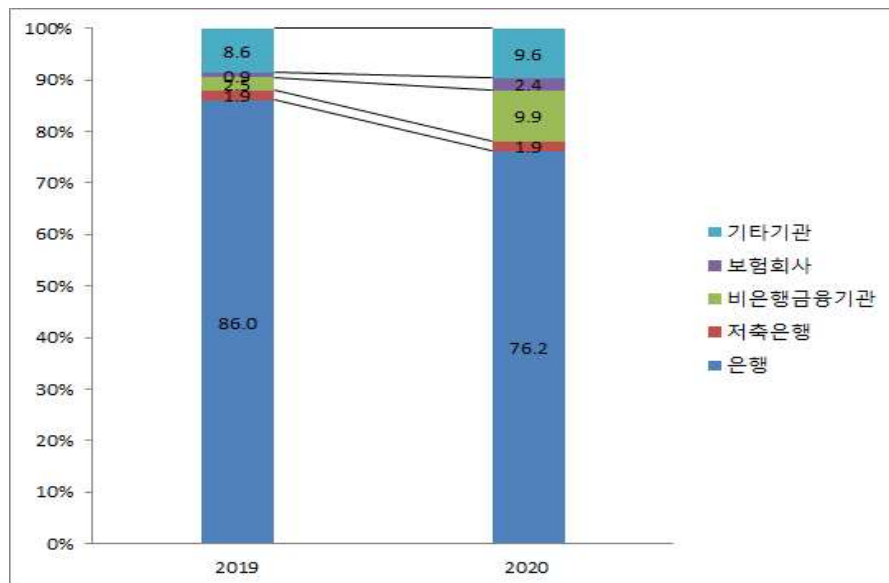
<표 3-1-5> 대출 기관별 부채 액수 및 비중 (단위: 만원, %)

구분	2019년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타 기관	
30세 미만	4,360	86.0	97	1.9	129	2.5	46	0.9	435	8.6
30대	7,833	85.4	161	1.8	490	5.3	347	3.8	338	3.7
40대	8,399	82.4	163	1.6	886	8.7	418	4.1	328	3.2
50대	7,320	81.0	138	1.5	1,009	11.2	273	3.0	301	3.3
60세 이상	4,229	71.6	104	1.8	1,233	20.9	105	1.8	236	4.0
전체	6,761	80.3	138	1.6	947	11.3	271	3.2	298	3.5

구분	2020년									
	은행		저축은행		비은행 금융기관		보험회사		기타 기관	
30세 미만	3,835	76.2	97	1.9	500	9.9	122	2.4	481	9.6
30대	8,812	87.9	221	2.2	438	4.4	196	2.0	356	3.5
40대	8,655	80.7	311	2.9	1,038	9.7	404	3.8	317	3.0
50대	7,437	78.6	276	2.9	1,111	11.7	331	3.5	302	3.2
60세 이상	4,543	74.0	92	1.5	1,268	20.6	115	1.9	124	2.0
전체	7,036	79.8	220	2.5	1,031	11.7	264	3.0	264	3.0

주: 부채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그림 3-1-8]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 대출 기관별 부채 액수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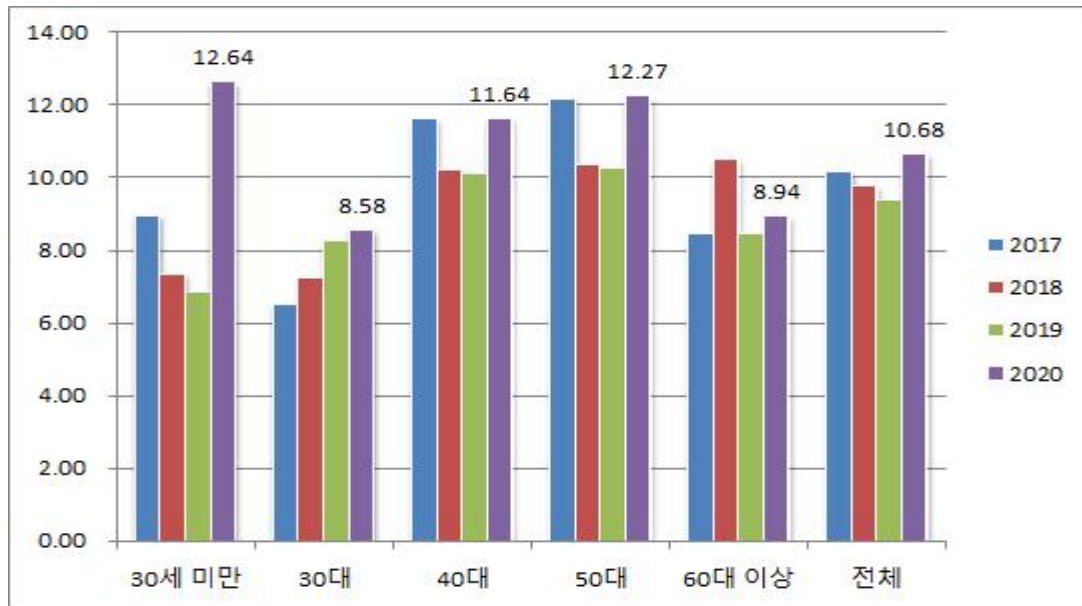
주: 부채가 있는 표본만을 대상으로 분석.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9. 가구주 연령대별 부채보유자 중 연체자의 비율

- 다음으로 부채보유자 중 연체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20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 가구의 연체 비율이 12.6%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2017, 2018, 2019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시기인 2020년 연체 비율이 급격히 증가함
- 30대 가구주의 경우 2020년 기준 연체 비율은 8.6%로 타 연령대에 비해 가장 낮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3-1-9] 부채 보유자 중 연체 비율 (단위: %)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10. 가구주 연령대별 원리금 연체 사유

- 가구주 연령대별 원리금 연체사유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납부기일 착오(43.0%), 소득감소(18.9%), 이자 및 원금 상환부담 증가(17.5%)의 순서를 보였고, 2020년의 경우 소득감소(47.7%), 자금용통 차질(23.9%)의 순서로 나타남.
- 30대 가구주의 경우 연체 사유별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임
- 2019년에 비해 2020년 코로나19 시기에 소득 감소 또는 자금용통 차질의 비율이 증가한 것은 주목할 결과이나 사례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표 3-1-6> 가구주 연령별 원리금 연체 사유 (단위: 명, %)

	n	2019년					
		이자·원금 상환부담 증가	자금유통 차질	소득 감소	가계지출 증가	납부기일 착오	기타
30세 미만	13	17.5	14.1	18.9	6.5	43.0	0.0
30대	131	21.5	22.7	22.7	8.3	23.5	1.4
40대	288	19.5	24.6	22.7	9.3	23.4	0.5
50대	296	16.5	26.9	32.5	9.1	14.8	0.2
60세 이상	205	27.5	23.4	30.3	6.2	11.1	1.5
전체	934	20.6	24.6	27.4	8.4	18.2	0.8

	n	2020년					
		이자·원금 상환부담 증가	자금유통 차질	소득 감소	가계지출 증가	납부기일 착오	기타
30세 미만	24	3.3	23.9	47.7	12.6	12.5	0.0
30대	126	19.3	25.3	23.3	13.9	18.3	0.0
40대	315	16.6	27.1	27.7	9.3	19.2	0.0
50대	340	23.1	21.2	35.4	8.5	10.9	0.8
60세 이상	222	24.5	21.1	41.3	4.9	7.9	0.3
전체	1,027	20.5	23.6	33.1	8.7	13.8	0.3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11. 가구주 연령대별 “1년 전과 비교한 부채증가 여부”

- 1년 전과 비교한 부채 증가여부를 가구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및 30대 청년 가구주의 경우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남
-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주의 경우 2019년 기준 전월세 보증금 마련(32.0%), 생활비 마련(14.4%), 거주주택 마련(13.9%), 사업자금 마련(9.7%) 순서였고, 2020년 기준 전월세 보증금 마련(21.7%), 부채상환(20.7%), 거주주택 마련(20.5%), 생활비 마련(18.7%)의 순서를 보임
- 2019년에 비해 2020년 30세 미만 가구주의 부채상환 응답비율이 크게 증가하였고, 생활비 마련 응답 비율 역시 증가하였음

○ 30대 가구주의 경우 2019년에서 2020년 사이 응답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3-1-7> 1년 전과 비교하여 부채 증가 여부 (단위: 명, %)

구분	2019년				2020년			
	n	감소	변화 없음	증가	n	감소	변화 없음	증가
30세 미만	193	46.5	21.0	32.6	196	37.8	30.0	32.3
30대	1,576	48.4	20.2	31.4	1,491	46.9	20.2	33.0
40대	2,814	46.1	24.7	29.1	2,736	48.1	21.2	30.7
50대	2,864	48.0	26.7	25.3	2,802	44.8	24.7	30.4
60세 이상	2,406	40.2	35.7	24.1	2,508	40.0	34.5	25.5
전체	9,852	45.6	27.2	27.2	9,733	44.7	25.7	29.7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표 3-1-8> 부채 증가 원인 (단위: %)

구분	2019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거주주택 마련	13.9	34.8	18.1	9.9	4.3	15.5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7.5	11.2	13.7	13.1	6.4	11.3
전월세 보증금	32.0	15.8	6.1	6.1	4.6	8.0
금융자산 투자	0.0	0.3	2.1	1.6	1.1	1.4
부채 상환	3.7	1.5	4.3	7.0	10.0	5.9
사업자금	9.7	8.3	11.7	18.2	12.0	12.9
교육비	2.6	8.1	24.4	14.1	2.0	13.1
생활비	14.4	16.3	18.1	25.1	47.2	26.3
기타	16.2	3.6	1.5	5.1	12.4	5.7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구분	2020					
	30세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전체
거주주택 마련	20.5	32.0	16.6	11.5	7.8	15.8
주택 이외 부동산 구입	10.8	17.0	12.9	8.0	6.8	10.8
전월세 보증금	21.7	14.1	7.9	6.3	4.7	7.9
금융자산 투자	0.0	2.8	1.2	1.1	0.8	1.3
부채 상황	20.7	3.3	7.2	5.0	5.6	5.8
사업자금	3.6	8.0	16.9	16.7	15.2	14.8
교육비	0.0	5.0	17.2	10.5	1.7	9.6
생활비	18.7	15.4	18.0	35.6	49.3	29.6
기타	4.0	2.4	2.2	5.3	8.1	4.5

주: 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0)



제2절. 안국은행 가계부채DB와 청년부채

1.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대출 동향

- 전국 기준 2019년 1분기에서 2020년 1분기(코로나19 이전 1년) 사이에 20대의 가계대출이 가장 크게 증가하였음(24.3%)
- 인천 지역 20대 역시 같은 기간 동안 가계대출이 24.6% 증가하여 타 연령대(24.3%)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임
- 2020년 1분기에서 2021년 1분기 사이(코로나19 이후 1년) 20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낮아졌으나 여전히 타 연령대에 비해서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인천 지역 20대의 경우 이 기간 동안 가계대출이 16.6% 증가하여 전국 평균 증가율(15.4%)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30대의 경우 가계 대출 증가율이 높지 않은 편이며, 특히 인천 지역 30대의 경우 전국의 30대 평균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임
 - 다만,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코로나19 이후 30대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높아졌음에 주목할 필요는 있음

<표 3-2-1>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총액 (단위: 백만원, %)

연령대	인천				전국			
	2019 Q1 - 2020 Q1		2020 Q1 - 2021 Q1		2019 Q1 - 2020 Q1		2020 Q1 - 2021 Q1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대	254,021	24.6%	213,616	16.6%	3,653,048	24.3%	2,875,613	15.4%
30대	195,589	3.9%	459,166	8.8%	3,545,297	4.4%	10,782,448	12.8%
40대	301,846	4.5%	611,073	8.7%	1,816,342	1.6%	10,728,290	9.4%
50대	73,878	1.2%	379,679	6.3%	(79,968)	-0.1%	7,134,461	6.7%
60대	478,780	22.8%	197,982	7.7%	7,750,635	16.1%	2,576,915	4.6%
70대	18,528	2.4%	23,704	3.0%	1,308,891	7.3%	1,515,430	7.8%
전체	1,322,642	6.1%	1,885,220	8.2%	17,994,245	4.7%	35,613,157	8.9%

출처: 서봉만 · 최태림 · 김다애(2021)

2. 코로나19 전후 연령대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변화 추이

- 가계대출 동향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20대의 신용대출 증가율이 타 연령대에 비해 매우 높고 인천 지역의 경우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 30대의 경우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코로나19 이후 신용대출 증가율이 높아졌음
- 전반적으로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60대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특히 인천 지역의 경우 20대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
- 30대의 경우 20대 및 타 연령대에 비해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높은 편은 아니나 코로나19 위기 이후 증가율이 높아졌음

<표 3-2-2>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주택담보대출 (단위: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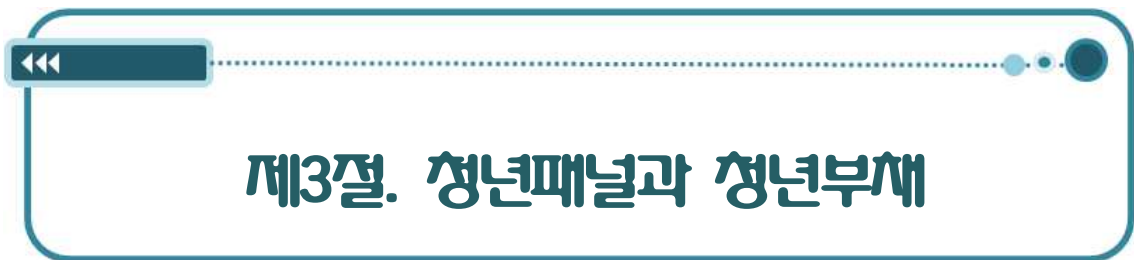
연령대	인천				전국			
	2019 Q1 - 2020 Q1		2020 Q1 - 2021 Q1		2019 Q1 - 2020 Q1		2020 Q1 - 2021 Q1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대출액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대	45,195	16.7%	36,112	11.4%	361,865	9.8%	356,966	8.8%
30대	44,112	1.7%	94,602	3.7%	(369,551)	-1.0%	2,595,639	6.9%
40대	147,496	3.9%	248,948	6.3%	(629,652)	-1.1%	3,263,917	5.7%
50대	49,176	1.5%	182,949	5.4%	(1,091,735)	-2.2%	1,267,807	2.6%
60대	275,225	23.0%	24,646	1.7%	2,683,939	12.0%	653,085	2.6%
70대	15,327	3.8%	13,652	3.3%	525,591	6.5%	604,773	7.0%
전체	576,531	5.0%	600,909	5.0%	1,480,457	0.8%	8,742,187	4.8%

출처: 서봉만 · 최태림 · 김다애(2021)

<표 3-2-3> 코로나19 전후 연령별 가계 대출 동향: 신용대출 (단위: 백만원, %)

연령대	인천				전국			
	2019 Q1 - 2020 Q1 대출액 증감		2020 Q1 - 2021 Q1 대출액 증감		2019 Q1 - 2020 Q1 대출액 증감		2020 Q1 - 2021 Q1 대출액 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대	208,826	27.4%	177,504	18.3%	3,291,183	29.1%	2,518,647	17.2%
30대	151,477	6.0%	364,564	13.6%	3,914,848	9.2%	8,186,809	17.7%
40대	154,350	5.4%	362,125	12.0%	2,445,994	4.4%	7,464,373	13.0%
50대	24,702	0.9%	196,730	7.4%	1,011,767	1.8%	5,866,654	10.2%
60대	203,555	22.5%	173,336	15.7%	5,066,696	19.6%	1,923,830	6.2%
70대	3,201	0.8%	10,052	2.6%	783,300	7.9%	910,657	8.5%
전체	746,111	7.4%	1,284,311	11.9%	16,513,788	8.2%	26,870,970	12.3%

출처: 서봉만 · 최태림 · 김다애(2021)



제3절. 청년패널과 청년부채

1.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현황

- 지역별 부채를 보유한 청년(만19~39세)의 비율을 살펴보면, 인천지역이 21.3%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청년 부채보유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3-3-1>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현황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국
예	241	26	40	73	18	14	9	307	935
부채여부									
아니오	974	317	214	270	144	154	108	1,215	4,654
총계	1,215	343	254	343	162	168	117	1,522	5,589

주: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 대상(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청년패널 13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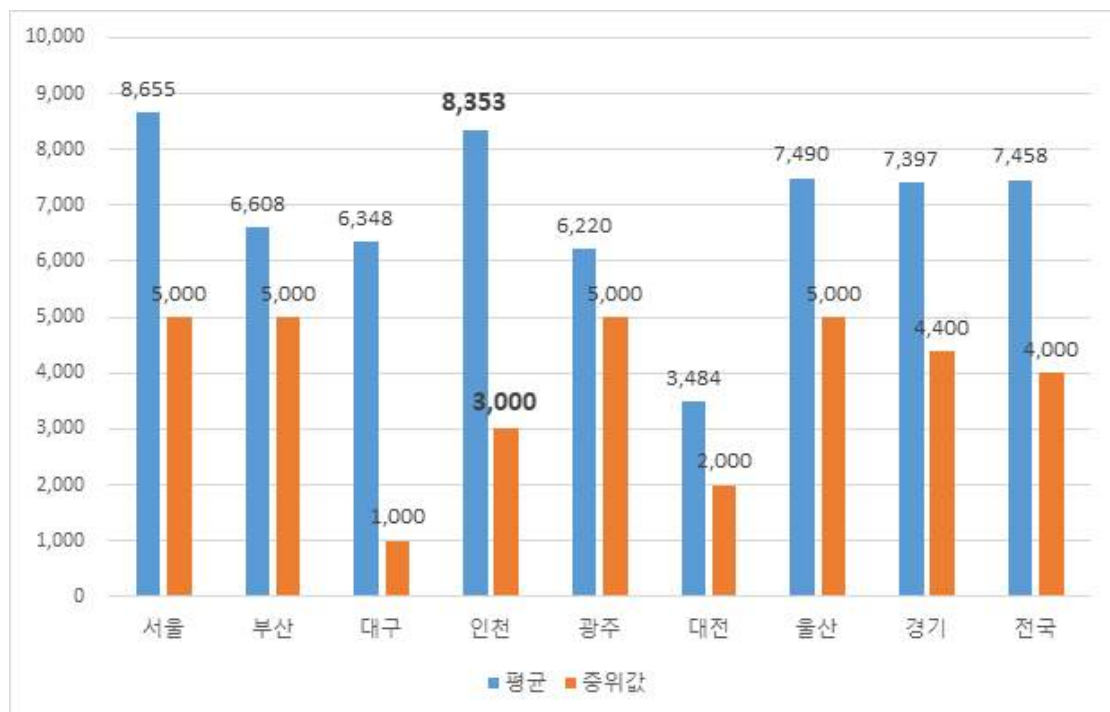
[그림 3-3-1]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비율 (단위: %)

주: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 대상(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청년패널 13차(2019)

2. 지역별 부채보유 청년 부채금액

-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지역별 평균 부채 액수를 분석한 결과가 제시되었음
 - 인천 지역의 경우 평균 부채액이 8,353만원(중위값 3,000만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인천의 경우 부채 액수의 평균값과 중위값의 차이가 큰 편인데 청년 부채 보유자 집단 내에서 부채 액수 간의 격차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그림 3-3-2] 지역별 부채 보유자 부채금액 (단위: 만원)

주: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 대상.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청년패널 13차(2019)

3. 지역별 청년부채의 발생원인

- 부채 발생 이유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 기준으로 거주 주택 마련(41.6%), 보증금 마련(17.5%), 생활비 마련(16.9%), 학자금 마련(12.1%), 사업자금 마련(10.3%) 순서이며(복수 응답 가능), 인천시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음

<표 3-3-2> 지역별 청년부채 발생의 원인 (단위: n, %)

구분	합계	부채 발생 이유											
		거주 주택 마련		거주 주택 외 부동산 마련		전·월세 보증금 마련		투자 자금 마련		부채 상환		사업 자금 마련	
서울	233	88	37.8	14	6.1	64	27.3	2	0.8	8	3.4	11	4.9
부산	25	19	73.9	1	2.6	3	13.5	0	0.0	0	0.0	2	8.0
대구	38	8	22.1	2	4.1	4	9.6	0	0.9	1	2.0	5	12.6
인천	71	29	41.1	2	3.3	8	11.9	0	0.0	3	4.2	8	12.0
광주	18	11	62.0	1	3.0	1	6.2	1	8.1	0	0.0	2	13.2
대전	14	3	24.4	0	0.0	2	14.5	0	0.0	1	5.7	4	29.2
울산	9	8	90.0	0	0.0	0	0.0	0	0.0	0	0.0	0	0.0
경기	297	121	40.6	10	3.4	47	15.9	7	2.3	15	5.2	29	9.7
전국	904	376	41.6	32	3.5	159	17.5	10	1.2	36	3.9	93	10.3

구분	합계	부채 발생 이유											
		결혼 자금 마련		의료비 마련		본인 학자금 마련		본인 외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기타	
서울	233	4	1.5	1	0.4	26	11.0	1	0.3	40	17.3	6	2.5
부산	25	0	0.0	0	0.0	1	2.2	0	0.0	1	4.5	0	0.0
대구	38	0	1.0	0	0.0	5	14.3	0	0.0	8	20.8	3	7.0
인천	71	3	3.7	2	2.8	10	13.7	0	0.0	13	18.3	3	3.7
광주	18	0	2.6	0	0.0	1	6.7	0	0.0	3	17.2	1	3.4
대전	14	0	3.4	0	0.0	0	0.0	0	0.0	3	23.1	0	3.2
울산	9	0	0.0	0	0.0	0	0.0	0	0.0	1	10.1	0	0.0
경기	297	6	2.0	5	1.7	49	16.5	3	1.1	56	18.9	10	3.5
전국	904	19	2.1	9	1.0	109	12.1	6	0.6	153	16.9	28	3.1

주: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 대상. 부채를 보유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청년패널 13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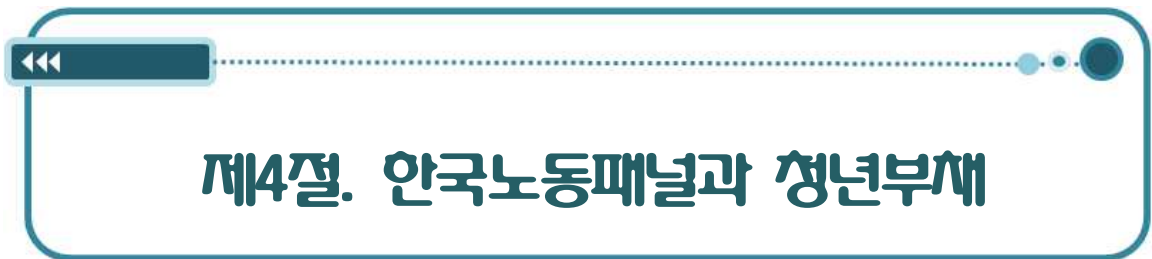
-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부채 보유 여부와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를 표에 제시하였음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남성, 상대적으로 고령 청년집단, 기혼일수록 부채 보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음.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부채 보유 확률이 낮았음
-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에 비해 부채 보유 확률이 높았음. 반면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채 보유 확률이 낮았으며,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는 경우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에 비해 부채 보유 확률이 오히려 낮았음
- 임금근로자 내에서는 상용직에 비해 임시/일용직의 부채 보유 확률이 낮게 나타남
- 인천지역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도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다소의 차이가 있음. 성별, 종사상 지위 등이 부채 보유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데 사례수 차이의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표 3-3-3>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청년부채의 관계: 다중회귀분석

구분		전국		서울		인천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성별	(여성)						
	남성	.037**	.013	.031	.029	-.016	.046
연령	(19-24)						
	25-29	.014	.025	.018	.035	.058	.036
	30-34	.044+	.026	.084*	.039	.081+	.046
	35-39	.085**	.027	.105*	.046	.163**	.052
가구소득(균등화, 로그)		-.014**	.005	-.007	.006	-.040*	.017
경제적 지원	(없음)						
	있음	.003	.047	.230+	.118	.216	.212
혼인상태	(미혼/비혼)						
	기혼	.045*	.023	.034	.050	.141+	.077
부모와 동거 여부	(부모와 동거)						
	비동거/경제적 비독립	-.042*	.017	.113	.077	-.052	.085
	비동거/경제적 독립	.090***	.020	.183***	.043	.135*	.060
종사상 지위	(상용직)						
	임시/일용직	-.063***	.017	-.110***	.030	-.008	.082
	자영업	.078**	.029	-.065	.061	.106	.074
상수항		.156**	.047	.094	.064	.305*	.146
N		4,667		955		363	

주: 청년패널 표본 중 취업자 대상(표본 가중치 반영). 종속변수는 부채 여부, 독립변수 중 가구소득은 가구원 수로 조정된 균등화 가구총소득, 경제적 지원은 ‘부모, 형제를 포함하여 가족으로부터 매달 고정적으로 생활비(용돈) 등의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자료: 청년패널 13차(2019)



제4절. 한국노동패널과 청년부채

1. 지역별 청년가구주 부채보유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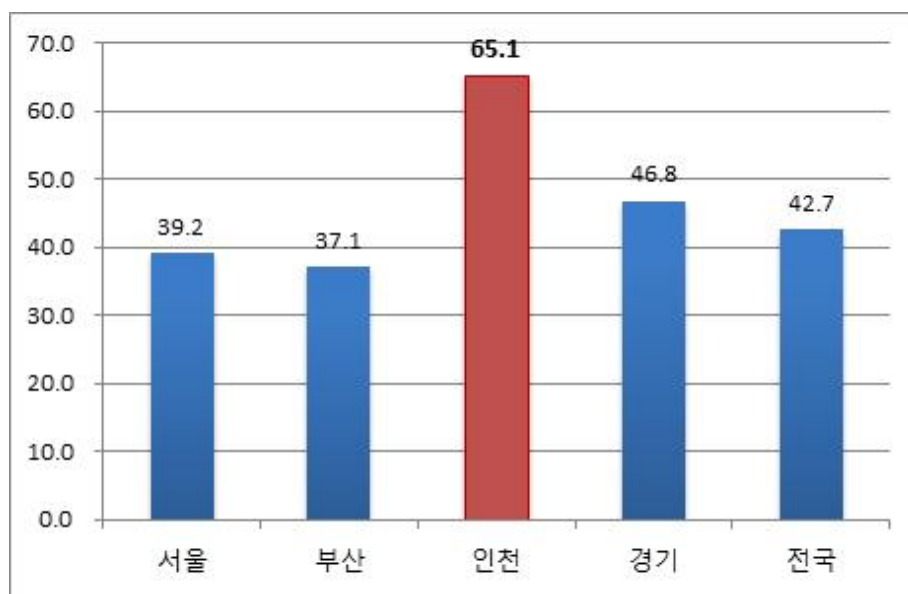
- 한국노동패널의 경우 청년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단위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년 개인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패널 조사의 결과와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인천 지역의 부채 보유자 비율은 65.1%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경기(46.8%), 서울(39.2%) 순서임

<표 3-4-1> 지역별 부채 보유자 현황

구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전국
예	146	36	67	184	719
부채 여부 아니오	226	61	36	209	965
총계	372	97	104	393	1,684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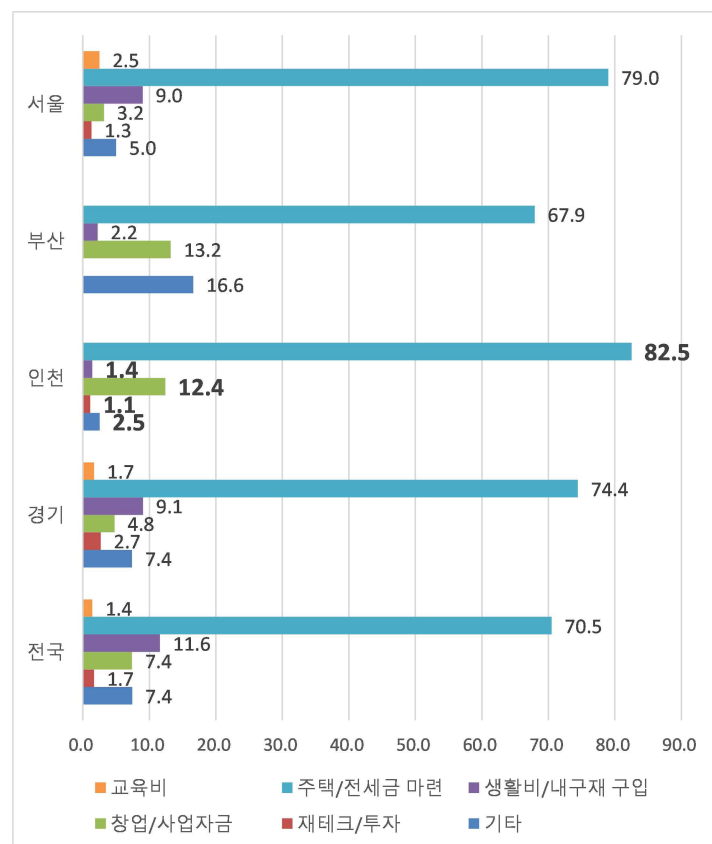
[그림 3-4-1] 지역별 부채 보유자 비율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2. 지역별 청년가구주 가구 부채 발생원인

- 지역별 부채 사유를 살펴보면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임. 주택 또는 전세금 마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생활비 또는 내구재 구입(자동차, 가전제품 등), 창업 또는 사업자금의 순서임. 청년 가구주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 때문에 청년패널 분석결과와 달리 학자금 마련 등의 사유는 매우 낮음
- 인천 지역의 경우 주택 또는 전세금 마련이 특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82.5%), 타 지역에 비해 창업 또는 사업 자금 마련의 비중이 높은 편임(12.4%)



[그림 3-4-2] 지역별 부채 사유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3. 지역별 청년가구주 가구의 부채 금액

- 청년 가구주 가구의 지역별 부채금액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 대구 등 타 광역시 지역과 비교하여 비슷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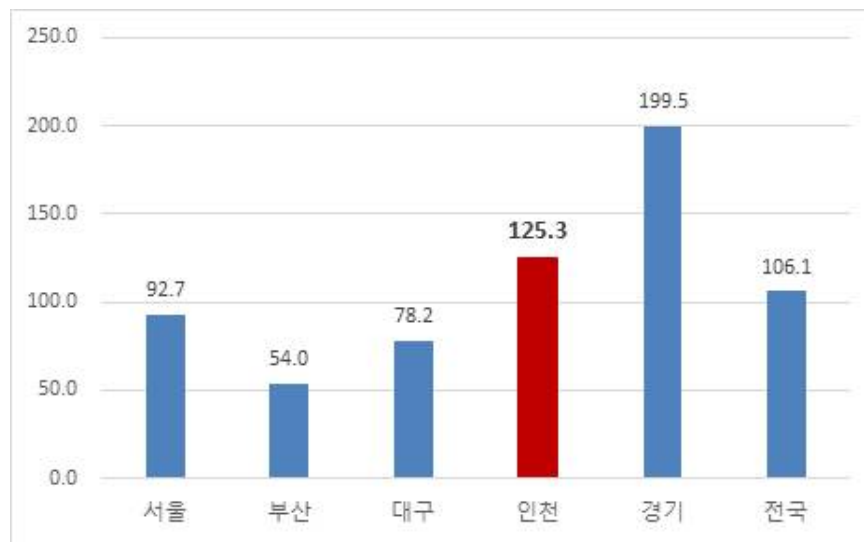


[그림 3-4-2] 지역별 부채 액수 (가구원수로 조정된 균등화 부채, 단위: 만원)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부채보유 응답자만 분석
 자료: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4. 지역별 청년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

- 지역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경기, 인천, 서울 순서로 수도권 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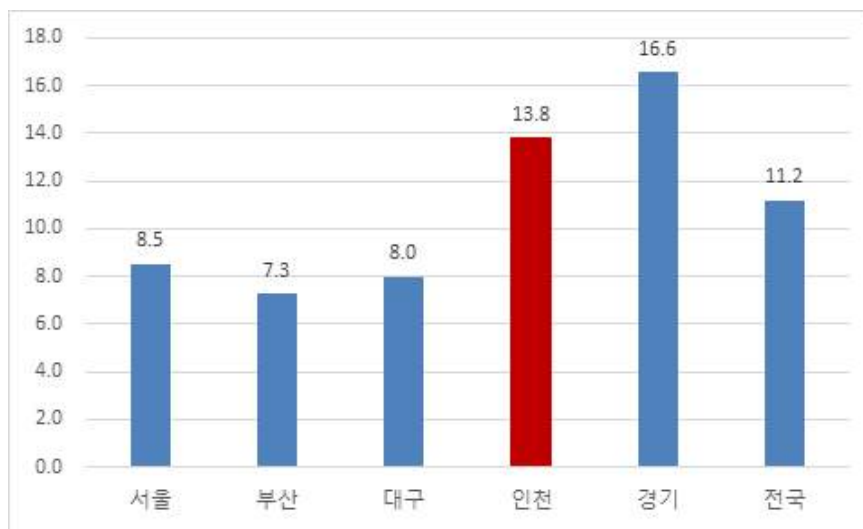


[그림 3-4-3] 지역별 소득대비 부채 비율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가구균등화 부채 및 가처분소득을 활용하여 연간 총소득대비 총부채 비율 계산.
출처: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자료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5. 지역별 청년가구주 가구의 원리금 상환 비율

- 인천 지역은 서울에 비해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으나 경기도에 비해서는 낮음
- 지역별 청년 가구주 가구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역시 유사한 경향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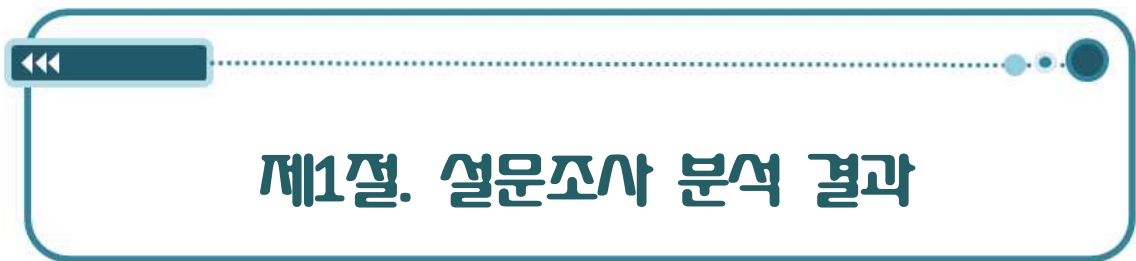
[그림 3-4-4] 지역별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 (단위: %)

주: 한국노동패널 표본 중 청년 가구주 대상으로 가구단위 분석(표본 가중치 반영).

가구균등화 가처분소득 및 원리금 상환액을 활용하여 연간 총소득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 비율 계산.

출처: 한국노동패널 22차(2019) 자료 바탕으로 연구진 분석.

제4장. 인천 청년부채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제1절.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설계

- 본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조사준비 시점인 2021년 6월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한 만 19세~39세 이하의 시민 826,071명이었음
 - 2021년 6월 당시 인천시 인구는 2,936,367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청년인구는 28.13%였음
- 본 설문조사의 표본크기는 1,000명이었음
 - 성별, 연령, 거주지를 기준으로 임의표집을 하였으며, 최소분석단위를 고려하여 제곱근비례할당 방식을 적용하였음
-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및 개별면접조사였음
- 조사기간은 2021년 8월 26일 ~ 9월 30일이었음

<표 4-1-1> 응답자 구성

전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0	49.0%
	여성	510	51.0%
연령대	만 19 ~ 24세	196	19.6%
	만 25 ~ 29세	249	24.9%
	만 30 ~ 34세	264	26.4%
	만 35 ~ 39세	291	29.1%
거주지역	중구	70	7.0%
	동구	37	3.7%
	미추홀구	128	12.8%
	연수구	130	13.0%
	남동구	154	15.4%
	부평구	151	15.1%
	계양구	113	11.3%
	서구	156	15.6%
	강화군	37	3.7%
	옹진군	24	2.4%

2) 조사 내용

- 설문내용은 개인 인적사항과 가계부채와 신용뿐만 아니라, 가계소득과 지출, 가계자산과 저축, 금융역량과 금전 스트레스 등 재무상태 전반을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더불어 청년부채 문제의 심리적·시대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응답자의 심리정서 그리고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의 현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을 추가하였음

<표 4-1-2> 설문내용

구 분	내용
개인 인적사항(27문항)	성별, 연령, 현 거주지, 최종학력, 결혼상태, 가구구성 특성, 가구원수, 경제활동 가구원수, 가구주와 관계, 거주지 변경 여부, 이전 거주지, 인천거주기간, 거주지 변경 사유, 주택유형, 주거점유형태, 현재 일, 종사상지위, 근로기간, 학생아르바이트 여부, 아르바이트 이유, 코로나19에 따른 아르바이트 시간 단축 여부, 학자금마련방식, 실직 경험 여부, 실직 사유, 실직과 코로나19와 관련성, 실업급여 수급 여부
가계소득과 지출(8문항)	본인 소득(6항목), 가구 총소득,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 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 총지출, 항목별 세부 지출(14항목), 소비 빈곤 일 수, 생활비 부족 해결 방식
가계자산 및 저축(8문항)	본인 총자산(3항목), 가구 총자산, 본인 월저축액, 본인 총저축액, 저축의 어려움, 예비비 금액, 추가 월저축 상한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여부
가계부채와 신용(15문항)	부채 유무, 총 부채 금액, 목적별 대출 잔액(16항목), 채권자별 대출잔액(13항목), 추가대출 계획, 향후 대출 목적, 연체 경험, 연체 해결방식, 본인 채무불이행 경험 유무, 가구원 채무불이행 경험 유무, 청년부채 해소방안 관련 사업의 경험(14항목), 만족도(14항목), 중요도(14항목), 이용의향(14항목), 청년부채 예방 및 해소 방안 제언(개방형)
금융역량과 금전 스트레스(2문항)	금융역량 척도(6항목), 재무 스트레스 척도(8항목)
심리정서(3문항)	자아존중감 척도(10항목), 미래지향 척도(8항목), 우울감 척도(11항목)
코로나19의 영향(1문항)	노동시간 감소 등(12개 항목)

3) 척도 및 도구

(1) 금융역량 척도

- 금융역량의 측정은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금융안정센터(Center for Financial Capability)에서 개발한 금융역량척도(Financial Capability Scale: FCS)를 이용하였음

- 금융역량척도는 총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 문항은 최소 0점, 최대 1점, 그리고 2개 문항은 최소 0점, 최대 2점이 배점되어 있음
- 금융역량 점수는 6개 문항 값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하며, 개발 응답자의 금융역량 총점은 최소 0점 그리고 최대 8점이 될 수 있음
- 합산 점수가 0~3점이면 ‘낮은 금융역량’, 4~5점이면 ‘보통의 금융역량’, 6~8점이면 ‘높은 금융역량’ 으로 불림

<표 4-1-3> 금융역량 척도(financial capability scale: FCS)

문항	변수값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구체적인 금액과 날짜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함).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재무관련 목표(예: 저축, 재무관리 등) 달성에 자신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다소 그렇다=1, 정말 그렇다=2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비상금(여윌돈)이 있어 최소한 1달은 돈을 빌리지 않고 살 수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0, 다소 그렇다=1, 정말 그렇다=2
매달 저축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지난 달 가계적자가 발생했다.*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지난 12개월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대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다.* **	그렇다=1, 그렇지 않다=0

* 역방향 질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점수화하여 사용.

** Collins et al.(2013)에서는 12개월이 아닌 2개월 내에 공과금이나 대출금의 미납상황을 측정함. 본 연구는 변수의 변별력을 늘리기 위해 연체 측정기간의 기준을 당초 2개월이 아닌 12개월로 늘려 측정.

(2) 재무 스트레스 척도

○ 재무건전성에 대한 객관적 지표로서 재무비율의 이용과 더불어 본 연구는 참여자의 재무스트레스를 주관적 지표로 이용하였음

- 재무스트레스 척도는 Aldana와 Liljenquist (1998)가 제시한 재무압박 조사(financial strain survey) 측정도구에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서, 척도는 각각 ‘관계’(relationship)와 ‘신체’(physical)와 관련된 4개 문항을 포함함

<표 4-1-4> 재무스트레스 척도

변수		변수값
재무관련 관계적 스트레스	가족구성원 간에 돈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돈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 경향이 있다.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상처를 입었다.	
	돈 문제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관련 신체적 스트레스	돈 걱정 때문에 잠을 잘 못 잔다.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	
	대출금 상환이나 공과금 걱정 때문에 목이나 등 또는 어깨가 아프다.	
	돈 문제 때문에 혈압이 오르거나 소독이 아플 때가 있다.	

출처: Aldana, S. G., & Liljenquist, W. (1998)

(3) 자아존중감 척도

- 자아존중감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로젠버그의 자아존중감 척도(Rosenberg, 1979)를 사용하였음
-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4-1-5>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내용	변수값
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만큼은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대체로 그렇다=3, 매우 그렇다=4
2	나는 나에게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3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내가 실패자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5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7	전반적으로 볼 때, 나는 나 자신이 만족스럽다.	
8	나는 나 자신을 보다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생각한다. 즉, 나는 평소 나 자신에 대한 존중감이 낮은 편이다.	
9	나는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10	이따금 나는 내가 아주 보잘 것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출처: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4) 미래지향 척도

- 본 연구에서 미래지향 척도는 Cauffman과 Wooldard(1999)가 개발한 미래예상목록(future outlook inventory)의 일부임
 - 미래예상목록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개인들의 생각과 계획을 측정한 것으로서,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이 중 현재 지향을 측정하는 7개 문항을 제외하고 미래에 관한 지향을 측정하기 위한 8개의 문항만을 활용하였음

<표 4-1-6> 미래지향 척도

문항	변수값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1, 대체로 그렇지 않다=2, 보통이다=3, 대체로 그렇다=4, 매우 그렇다=5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정리(계획, 기록)해 둔다.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5) 우울감 척도

- 본 연구에서 사용한 우울척도는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에서 개발하고 조맹제·김계희(1993)가 번역한 CES-D 척도임
 -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자는 지난 일주일간 각 문항별로 그와 같은 일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답변함
 - 지난 1주일간 해당 사건이 1일 미만으로 발생한 경우, “극히 드물었다.”로 답변하였으며, 1~2일의 경우 “가끔 있었다.”, 3~4일은 “종종 그랬다.”, 5일 이상은 “대부분 그랬다.”로 해석함

<표 4-1-7> CES-우울척도

문항	변수값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이 괴롭고 귀찮게 느껴졌다.	극히 드물었다=1, 가끔 있었다=2, 종종 그랬다=3, 대부분 그랬다=4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었다.	
어느 누가 도와준다 하더라도, 나의 울적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 같았다.	
무슨 일을 하던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비교적 잘 지냈다.*	
상당히 우울했다.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앞일이 암담하게 느껴졌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적어도 보통 사람들만큼의 능력은 있었다고 생각한다.*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두려움을 느꼈다.	
평소에 비해 말수가 적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 한 외로움을 느꼈다.	
큰불만 없이 생활했다.*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갑자기 울음이 나왔다.	
마음이 슬펐다.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도무지 뭘 해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 역방향 질문으로 본 분석에서는 역점수화하여 사용.

(6) 재무건전성: 재무비율

- 본 연구는 청년가계의 재무건전성을 확인하고자 4가지 재무비율과 각각의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였음(Khashadourian, 2017)
 - 재무비율마다 각 가이드라인이 있고, 이를 충족할 경우 재무건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함
- 월재량 소득은 월수입을 월지출로 나눈 것으로서, 이 값이 1.0을 넘을 경우 재무건전성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됨
 - 월재량소득이 1을 넘는다는 것은 가계흑자를 의미함

- 평균유동성 비율은 유동자산(현금, 현금성 자산)을 월지출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이 점수가 200%를 넘으면 재무건전성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됨
 - 유동성비율이 200% 이상이라는 것은 유동자산이 2개월 치 월지출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의미하며, 가계가 위기에 대응할 최소한의 준비가 되어있음을 시사함
- 월저축비율은 월저축액을 월수입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이 점수가 10% 이상이면 재무건전성이 충족된 것으로 간주됨
 - 월저축비율 10% 이상이라는 것은 미래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됨
- 고정지출비율은 월세나 관리비 등 가계의 고정지출(세금납부 제외)을 월수입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이 값이 60% 미만이어야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 고정 지출이 너무 높을 경우, 약간의 소득변동 만으로도 가계의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을수록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됨

<표 4-1-8> 재무비율과 가이드라인

지표	정의 및 가이드라인	가이드라인
월재량 소득(descrancy income)	월수입/월지출	월재량소득 < 1.0
평균유동성 비율(average liquidity rate)	유동자산(현금, 현금성 자산) / 월지출 × 100	유동성비율 ≥ 200%
월저축비율(monthly savings rate)	월저축/월수입 × 100	월저축률 ≥ 10%
고정지출비율(percentage fixed expenditure)	총 고정지출(세금납부 제외)/월수입 × 100	고정지출비율 ≤ 60%

출처: Khashadourian(2017: 8)을 요약·수정 정리

2. 전체 부채 현황 및 집단별 비교 분석

1) 전체 현황

- 부채비보유자(721명)를 포함한 응답자 1,000명의 총부채 잔액 평균은 2,017.19만원, 주거관련대출액 평균은 1,218.73만원, 비주거관련대출액 평균은 796.44만원이었음
- 인천 청년 총부채에서 비주거관련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39.48%였음

<표 4-1-2-1> 응답자 부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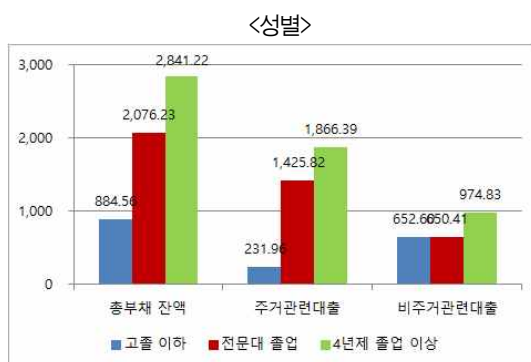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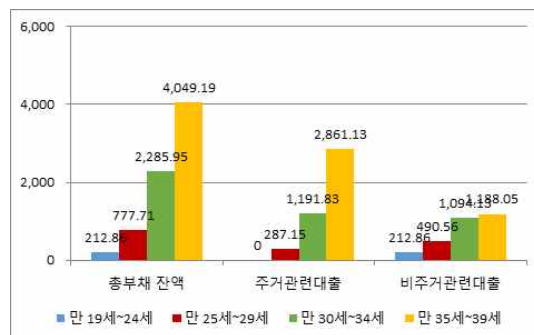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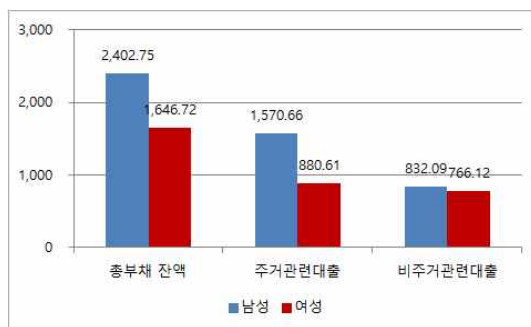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빈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000	2,017.18	5,366.886	1,000	1,218.73	4,652.400	1,000	796.44	2,769.284

2)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 성별을 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부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이 여성보다 총부채 잔액이 145.91%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됨
 - 남녀 간 부채액 차이는 주거관련대출액에서 크게 나타난 반면, 비주거관련대출액(예: 신용대출)에서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음
-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부채가 많은 것을 확인됨
 - 만 19세~24세 청년의 총부채 잔액은 평균 212.86만원인데 비해, 만 35세~39세 청년은 평균 4,049.19만원으로 그 격차가 매우 컸고, 대졸이상 청년의 총부채 잔액은 평균 2,841.22만원인 반면, 고졸이하 청년은 평균 884.56만원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과 신용도가 증가하며, 주거구입 등 대출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으로 보임

<표 4-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전체		1,000	2,017.18	-	-	-	1,000	1,218.73	-	-	-	1,000	796.44	-	-	-
성 별	남성(a)	490	2,402.75	2.215	.027	b<a	490	1,570.66	2.328	.020	b<a	490	832.09	.376	.707	
	여성(b)	510	1,646.72				510	880.61				510	766.12			
연령 대	만 19세~24세(a)	196	212.86	28.044	.000	a,b<c<d	196	0.00	21.104	.000	a<c<d	196	212.86	6.994	.000	a,b<c,d
	만 25세~29세(b)	249	777.71				249	287.15				249	490.56			
	만 30세~34세(c)	264	2,285.95				264	1,191.83				264	1,094.13			
	만 35세~39세(d)	291	4,049.19				291	2,861.13				291	1,188.05			
최 종 학 력	고졸 이하(a)	341	884.56	13.276	.000	a<b,c	341	231.96	12.556	.000	a<b,c	341	652.60	1.689	.185	
	전문대 졸업(b)	205	2,076.23				205	1,425.82				205	650.41			
	4년제 졸업 이상(c)	454	2,841.22				454	1,866.39				454	974.83			



<연령대>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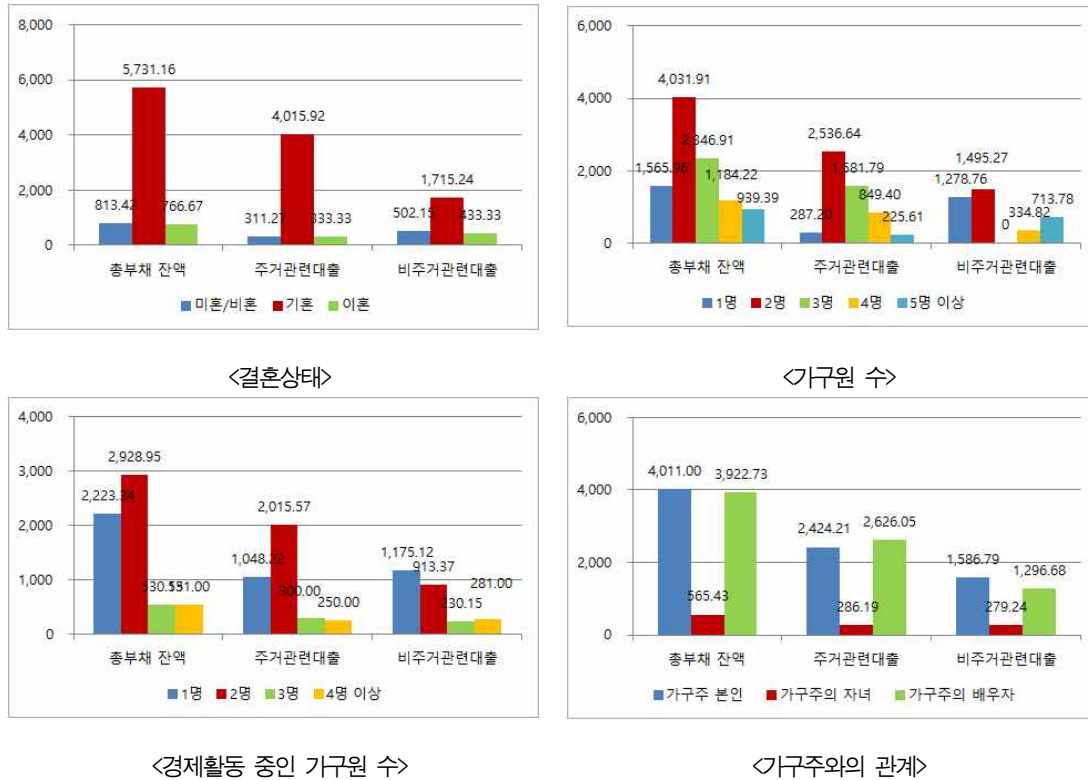
<최종학력>

[그림 4-1-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 기혼 청년이 미혼 또는 이혼청년에 비해 훨씬 많았음
 - 기혼청년의 총부채 잔액은 평균 5,731.16만원인 반면, 미혼은 813.42만원에 그쳤으며, 이러한 경향은 부채의 유형과 상관없이 확인되었음
- 2인가구의 부채규모가 가장 크지만, 1인가구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주거관련 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음
 - 2인가구의 비주거관련 대출액은 1,495.27만원이었으며, 1인가구는 1,278.76만원으로 수입원이 1인임에도 불구하고 2인가구와 큰 차이가 없었음
- 가구내 경제활동인구가 1인인 경우는 비주거관련 대출규모가 다른 가구에 비해 컸으며, 2인인 경우는 주거관련대출 규모가 컸음
- 청년 응답자가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에 비해 가구주이거나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 부채의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훨씬 컸음

<표 4-1-2-3> 응답자의 가구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결혼 상태	미혼/비혼(a)	748	813.42				748	311.27				748	502.15			
	기혼(b)	245	5,731.16	91.671	.000	a,c<b	245	4,015.92	66.219	.000	a,c<b	245	1,715.24	18.360	.000	
	이혼(c)	6	766.67				6	333.33				6	433.33			
가구 원 수	1명(a)	125	1,565.96				125	287.20				125	1,278.76			
	2명(b)	155	4,031.91				155	2,536.64				155	1,495.27			
	3명(c)	313	2,346.91	9.043	.000	a,c,d, e<b	313	1,581.79	6.421	.000	a,d,e <b	313	7,65.12	5.811	.000	d<a,b
	4명(d)	325	1,184.22				325	849.40				325	334.82			
	5명 이상(e)	82	939.39				82	225.61				82	713.78			
경제 활동 중인 가구 원수	1명(a)	303	2,223.34				303	1,048.22				303	1,175.12			
	2명(b)	406	2,928.95				406	2,015.57				406	913.37			
	3명(c)	201	530.15	11.875	.000	c,d<a ,b	201	300.00	8.192	.000	c,d<b	201	230.15	6.061	.000	c,d<a
	4명 이상(d)	90	531.00				90	250.00				90	281.00			
가구 주와 의 관계	가구주 본인(a)	297	4,011.00				297	2,424.21				297	1,586.79			
	가구주의 자녀(b)	559	565.43	53.595	.000	b<a,c	559	286.19	28.191	.000	b<a,c	559	279.24	24.757	.000	b<a,c
	가구주의 배우자(c)	129	3,922.73				129	2,626.05				129	1,29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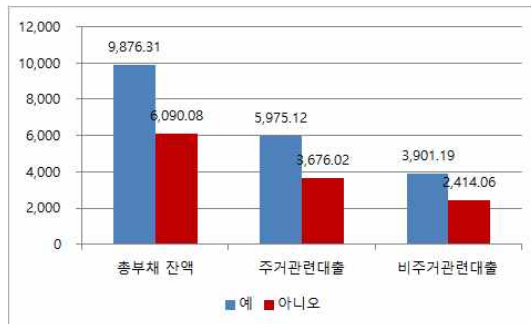
[그림 4-1-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II

3) 거주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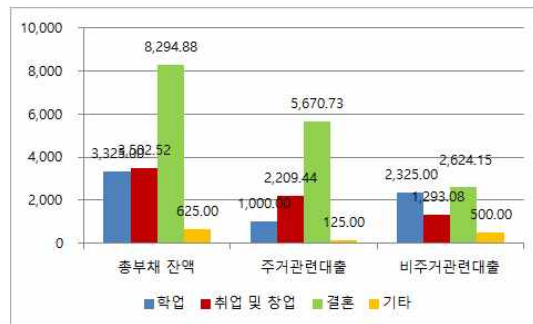
- 지역별로 부채규모에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주거관련대출액은 연수구(2,353.41만원), 계양구(1,664.60만원)가 많은 편이었고, 비주거관련대출액은 서구(1,289.74만원)와 동구(1,219.46만원)가 많았음
- 성인이 되기 이전부터 인천에 거주한 청년에 비해 성인이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청년의 부채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결혼 때문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청년의 경우, 주거관련대출(5,670.73만원)이 가장 많았고, 학업으로 이주한 경우 비주거관련대출(2,325.00만원)이 많았음

<표 4-1-2-4> 응답자의 거주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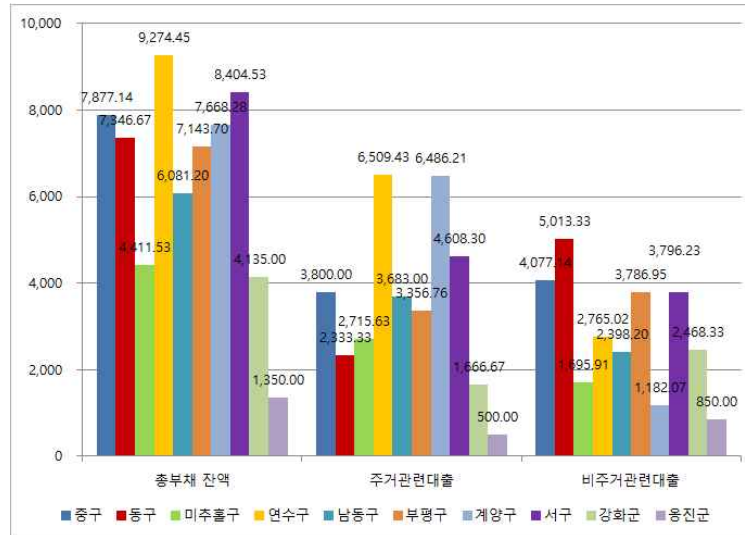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거주 지역	중구(a)	70	1,575.43	2.461	.009	j<d	70	760.00	1.897	.049		70	815.43	1.696	.086	
	동구(b)	37	1,787.03				37	567.57				37	1,219.46			
	미추홀구(c)	128	1,102.88				128	678.91				128	423.98			
	연수구(d)	130	3,353.07				130	2,353.41				130	999.66			
	남동구(e)	154	1,974.42				154	1,195.78				154	778.64			
	부평구(f)	151	1,750.44				151	822.52				151	927.93			
	계양구(g)	113	1,967.96				113	1,664.60				113	303.36			
	서구(h)	156	2,855.38				156	1,565.64				156	1,289.74			
	강화군(i)	37	670.54				37	270.27				37	400.27			
	옹진군(j)	24	112.50				24	41.67				24	70.83			
성인 이후 인천 으로 거주 지 변경 여부	예(a)	202	4,106.98	4.592	.000	b<a	202	2,484.70	3.113	.002	b<a	202	1,622.28	3.311	.001	b<a
	아니오(b)	798	1,488.18				798	898.27				798	589.90			
인천 으로 거주 지를 변경 한 이유	학업(a)	30	3,325.00	6.319	.000	a,b,d <c	30	1,000.00	4.480	.005	a,d<c	30	2,325.00	1.789	.150	
	취업 및 창업(b)	107	3,502.52				107	2,209.44				107	1,293.08			
	결혼(c)	41	8,294.88				41	5,670.73				41	2,624.15			
	기타(d)	24	625.00				24	125.00				24	500.00			



〈성인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 변경 여부〉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이유〉



<거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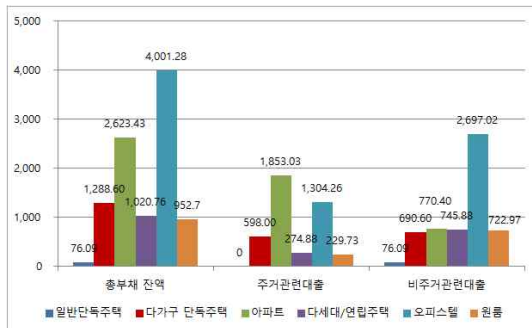
[그림 4-1-3] 응답자의 거주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 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관련대출액은 평균 1,853.03만원이었는데, 이는 자녀로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를 반영한 금액임
 - 비주거관련대출은 아파트(770.40만원)보다는 오피스텔(2,697.02만원) 거주 청년에서 훨씬 더 많았음
- 주거점유형태를 기준으로 가장 대출금이 많은 청년은 전세거주 청년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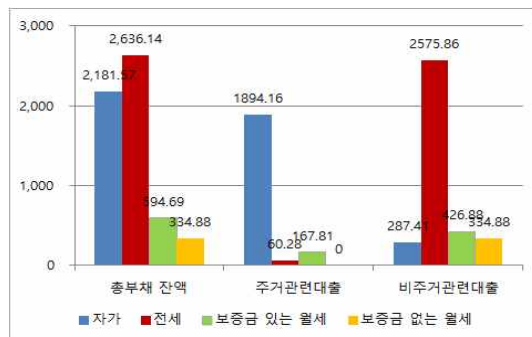
<표 4-1-2-5> 응답자의 주거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거주 중인 주택 유형	일반단독주택(a)	64	76.09	6.465	.000	a,b,d,f<e	64	0.00	5.328	.000	64	76.09	5.389	.000	a,b,c,d,f<e	
	다가구 단독주택(b)	50	1,288.60				50	598.00			50	690.60				
	아파트(c)	572	2,623.43				572	1,853.03			572	770.40				
	다세대/연립 주택(d)	215	1,020.76				215	274.88			215	745.88				
	오피스텔(e)	47	4,001.28				47	1,304.26			47	2,697.02				
	원룸(f)	37	952.70				37	229.73			37	722.97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분석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자가(a)	625	2,181.57				625	1,894.16				625	287.41			
	전세(b)	214	2,636.14				214	60.28				214	2,575.86			
	보증금 있는 월세(c)	131	594.69	4.726	.003		131	167.81	11.618	.000		131	426.88	41.553	.000	a,c,d <b
	보증금 없는 월세(d)	16	334.88				16	0.00				16	334.88			



<거주 중인 주택유형>



<거주 중인 주택 점유형태>

[그림 4-1-4] 응답자의 주거 특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4) 응답자의 일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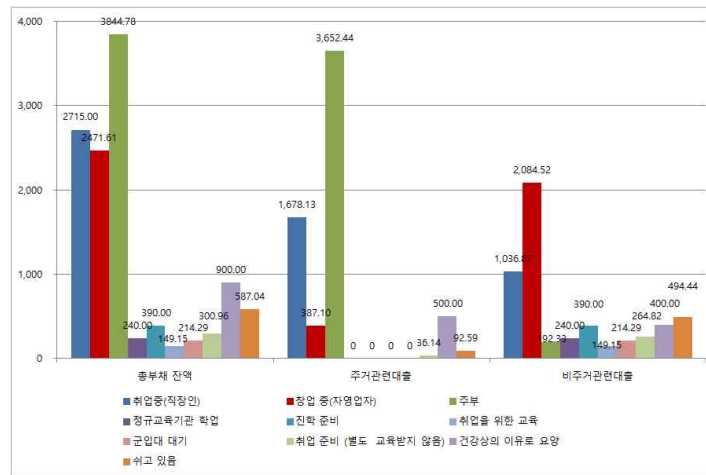
- 응답자의 일을 기준으로 볼 때, 총부채 잔액과 주거관련대출액은 ‘주부집단’ (각각 3,844.78만원, 3,652.44만원)에서 가장 많았고, 비주거관련대출액은 창업(자영업자 포함)(2,084.52만원)에서 가장 많았음
 -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다고 응답한 54명 청년의 평균 비주거관련대출액이 494.44만원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종사기간이 길수록 부채규모가 증가했음
 - 이러한 현상은 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수준이 높고, 신용도가 좋아 고액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실직을 경험한 경우보다 경험하지 않은 경우에 주거관련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비주거관련대출액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실직시 일부 청년들이 대출을 통해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측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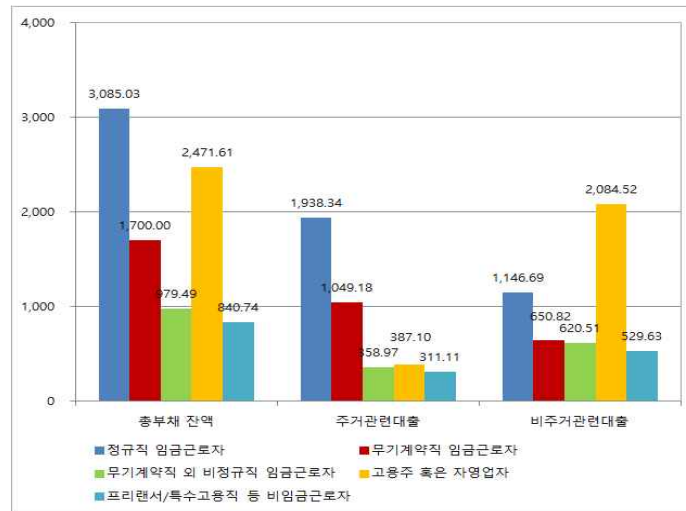
<표 4-1-2-6>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현재 하는 일	취업(중장기인) ※이비이트는 제외(a)	614	2,715.00			614	1,678.13				614	1,036.87			
	창업 중(자영업자)(b)	31	2,471.61			31	387.10				31	2,084.52			
	주부(c)	45	3,844.78			45	3,652.44				45	192.33			
	정규교육기관 학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d)	101	240.00			101	0.00				101	240.00			
	진학준비(e)	10	390.00	5.427	.000	10	0.00	4.508	.000		10	390.00	2.767	.003	
	취업을 위한 교육(f)	47	149.15			47	0.00				47	149.15			
	군입대 대기(g)	7	214.29			7	0.00				7	214.29			
	취업준비 (별도 교육받지 않음)(h)	83	300.96			83	36.14				83	264.82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i)	8	900.00			8	500.00				8	400.00			
	쉬고 있음(j)	54	587.04			54	92.59				54	494.44			
일자 리 고용 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a)	487	3,085.03			487	1,938.34				487	1,146.69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b)	61	1,700.00			61	1,049.18				61	650.82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c)	39	979.49	2.254	.062	39	358.97	1.928	.104		39	620.51	1.441	.219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d)	31	2,471.61			31	387.10				31	2,084.52			
	포렌서특수 고용직 등 비임금근로자(e)	27	840.74			27	311.11				27	52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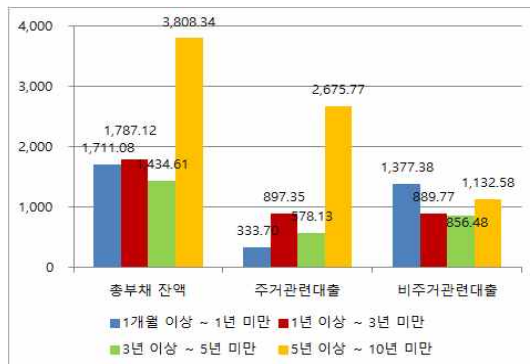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통 석
일 자 리 종 사 기 간	1개월 이상 ~ 1년 미만(a)	92	1,711.08				92	333.70				92	1,377.38			
	1년 이상 ~ 3년 미만(b)	195	1,787.12				195	897.35				195	889.77			
	3년 이상 ~ 5년 미만(c)	128	1,434.61	11.130	.000	a,b,c <d<e	128	578.13	11.68 8	.000	a,b,c <d<e	128	856.48	.934	.444	
	5년 이상 ~ 10년 미만(d)	163	3,808.34				163	2,675.77				163	1,132.58			
	10년 미만(e)	67	6,467.64				67	4,873.73				67	1,593.91			
	실 직 여 부	있다(a)	218	1,503.81				218	620.00				218	883.81		
없다(b)		782	2,160.29	1.914	.056		782	1,385.64	2.966	.003	a<b	782	774.64	.514	.6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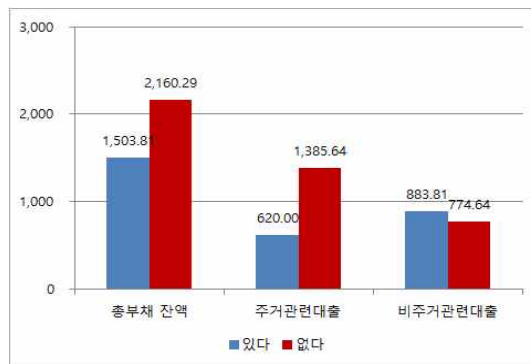
<현재 하는 일>



〈일자리 고용형태〉



〈일자리 종사기간〉



〈실직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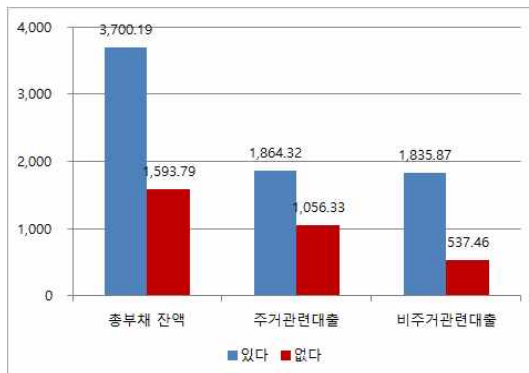
[그림 4-1-5] 응답자의 취업/창업 현황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5) 재무 상태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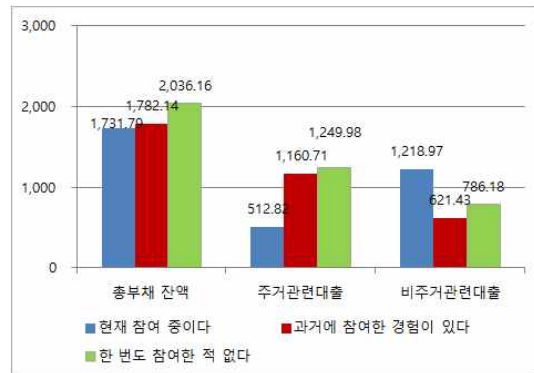
- 전체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1년 이내에 대출계획이 있는 청년은 20.1%였으며,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추가 대출계획의 의향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1,000명의 응답자 가운데 과거 또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의 비율은 6.7%에 그쳐,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기회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4-1-2-7> 응답자와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검 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검 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검 정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있다(a)	201	3,700.19				201	1,864.32				201	1,835.87			
				3.843	.000	b<a			1.725	.086				3.996	.000	b<a
	없다(b)	799	1,593.79				799	1,056.33				799	537.46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참여 경험	현재 참여 중이다(a)	39	1,731.79				39	512.82				39	1,218.97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b)	28	1,782.14	.088	.916		28	1,160.71	.472	.624		28	621.43	.516	.597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c)	933	2,036.16				933	1,249.98				933	786.18			



<1년 이내 대출계획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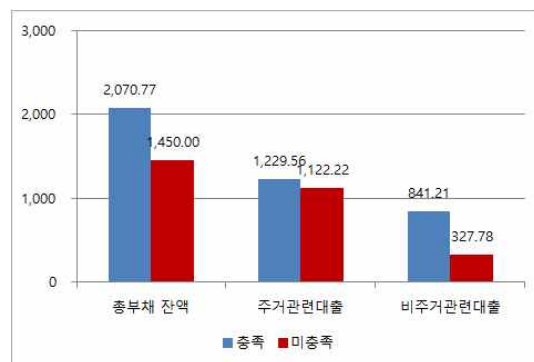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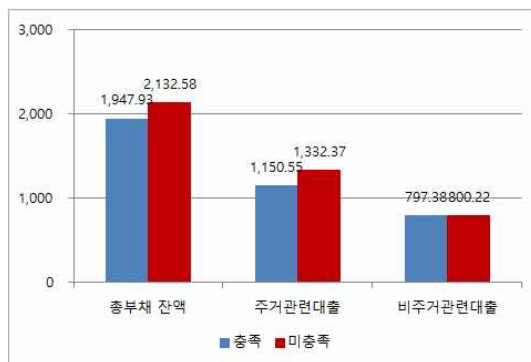
<자산형성사업 참여경험 여부>

[그림 4-1-6] 응답자의 재무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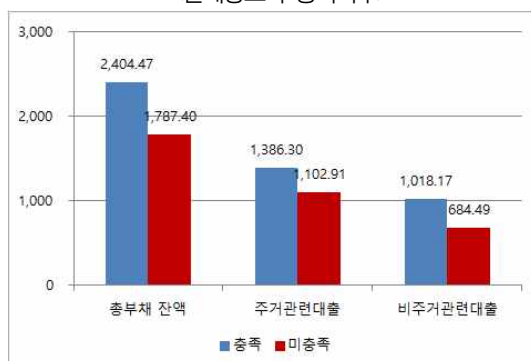
- 재무건전성 지표 가운데 고정지출비율의 가이드라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가계부채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세금을 제외한 월고정지출(예: 월세, 대출상환)이 월수입의 60%를 초과할 경우에 고정지출과 관련하여 재무건전성이 나쁜 것으로 판단함

<표 4-1-2-8> 응답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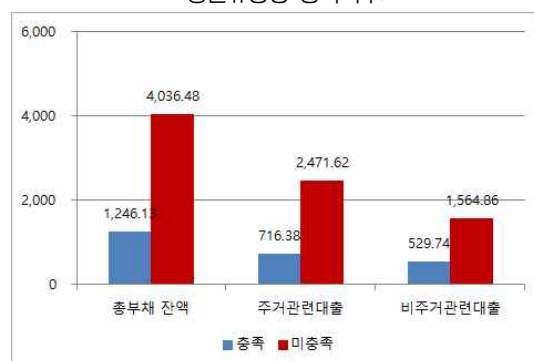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분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분 석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분 석
월재 량소 득	충족(a)	625	1,947.93	.527	.599		625	1,150.55	.598	.550		625	797.38	.016	.987	
	미충족(b)	375	2,132.58				375	1,332.37				375	800.22			
평균 유동 성	충족(a)	899	2,070.77	.478	.633		899	1,229.56	.095	.924		899	841.21	.768	.443	
	미충족(b)	18	1,450.00				18	1,122.22				18	327.78			
월저 축비 율	충족(a)	403	2,404.47	1.645	.100		403	1,386.30	.901	.368		403	1,018.17	1.739	.082	
	미충족(b)	514	1,787.40				514	1,102.91				514	684.49			
고정 지출 비율	충족(a)	650	1,246.13	5.704	.000	a<b	650	716.38	4.045	.000	a<b	650	529.74	3.942	.000	a<b
	미충족(b)	267	4,036.48				267	2,471.62				267	1,564.86			



<월재량소득 충족여부>



<평균유동성 충족여부>



<월저축비율 충족여부>

<고정지출비율 충족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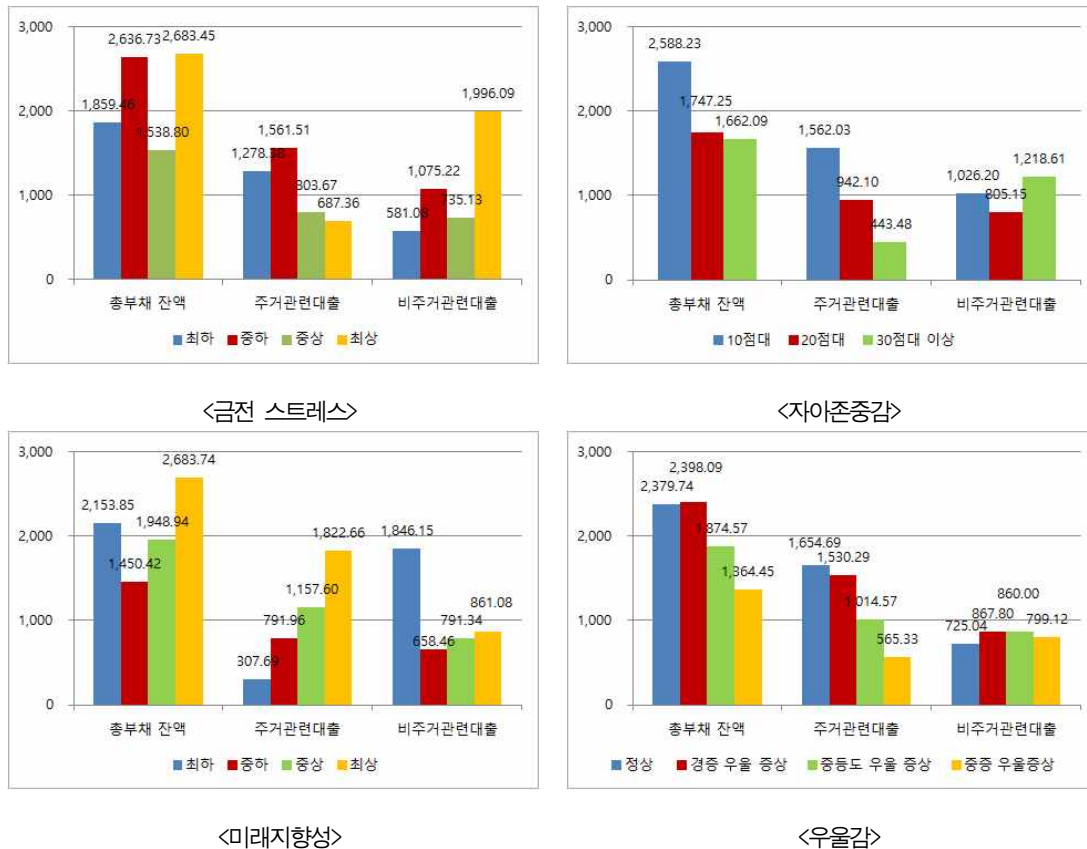
[그림 4-1-7] 응답자의 재무건전성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6) 정서상태에 따른 비교

- 금전스트레스는 주거관련대출이 아닌 비주거관련대출이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금전스트레스가 가장 높은 집단의 경우 비주거관련대출액이 평균 1,996.09만원으로 가장 많고, 주거관련대출액은 평균 687.36만원으로 가장 적은 특징을 보임
- 자아존중감, 미래지향, 우울감은 청년부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음
 - 다만, 미래지향이 매우 낮은 경우 비주거관련대출액이 다른 집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2-9> 응답자의 재무역량 및 정서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구 분		대출유형														
		총부채 잔액					주거관련대출액					비주거관련대출액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빈도	평균	(T)F	유의 확률	사후 검정
금전 스트레스	최하(a)	453	1,859.46	2.151	.092		453	1,278.38	1.306	.271		453	581.08	3.961	.008	a,b,c <d
	중하(b)	269	2,636.73				269	1,561.51				269	1,075.22			
	중상(c)	245	1,538.80				245	803.67				245	735.13			
	최상(d)	33	2,683.45				33	687.36				33	1,996.09			
자아 존중 감	10점대(a)	387	2,588.23	2.372	.094		387	1,562.03	2.523	.081		387	1,026.20	.757	.470	
	20점대(b)	336	1,747.25				336	942.10				336	805.15			
	30점대	64	1,662.09				64	443.48				64	1,218.61			
	이상(c)															
미래 지향	최하(a)	13	2,153.85	1.580	.193		13	307.69	1.700	.165		13	1,846.15	.781	.504	
	중하(b)	150	1,450.42				150	791.96				150	658.46			
	중상(c)	646	1,948.94				646	1,157.60				646	791.34			
	최상(d)	191	2,683.74				191	1,822.66				191	861.08			
우울 감	정상 (15점 미만) (a)	340	2,379.74	2.347	.071		340	1,654.69	3.329	.019		340	725.04	.151	.929	
	경증 우울 증상 (16~20점) (b)	223	2,398.09				223	1,530.29				223	867.80			
	중등도 우울 증상 (21~24점) (c)	151	1,874.57				151	1,014.57				151	860.00			
	중증 우울증상 (25점 이상) (d)	286	1,364.45				286	565.33				286	799.12			



[그림 4-1-8] 응답자의 재무역량 및 정서상태에 따른 부채유형 평균비교

3. 부채유무에 따른 비교 분석

○ 전체 응답자 중 남성은 49.0%, 여성은 51.0%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음

- 부채보유자의 경우 남성(54.5%)이 여성(45.5%)보다 많았음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0.4세였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전체 응답자의 평균연령보다 약간 높은 32.9세였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20.5%, 4년제 재학생이 11.1%, 4년제 졸업자가 39.8%일 정도로 학력수준은 높은 편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4년제 졸업자가 45.9%로 전체 응답자보다 많았는데, 이는 부채보유 응답자의 연령이 전체 응답자보다 높다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 별	남성	490	49.0	152	54.5
	여성	510	51.0	127	45.5
연령대	만 19~24세	196	19.6	21	7.5
	만 25~29세	249	24.9	48	17.2
	만 30~34세	264	26.4	88	31.5
	만 35~39세	291	29.1	122	43.7
	평균(표준편차)	30.4(5.633)		32.9(4.782)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2	0.2	0	0.0
	고등학교 중퇴	5	0.5	2	0.7
	고등학교 졸업	159	15.9	34	12.2
	2·3년제 대학 중퇴	19	1.9	8	2.9
	2·3년제 대학 재학 중	32	3.2	3	1.1
	2·3년제 대학 졸업	205	20.5	61	21.9
	4년제 대학 중퇴	13	1.3	3	1.1
	4년제 대학 재학 중	111	11.1	11	3.9
	4년제 대학 졸업	398	39.8	128	45.9
	대학원 재학 중	19	1.9	9	3.2
	대학원 졸업	37	3.7	20	7.2

- 전체 응답자 중 미혼/비혼이 74.8%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24.5%를 차지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기혼의 비율이 44.1%로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음
-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2.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형제/자매와 동거비율은 39.5%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24.0%, 자녀가 있는 경우가 16.0%, 청년 단독가구 비율은 12.5%였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부모(35.8%)보다 배우자(43.7%)와의 동거비율이 높았고, 자녀(26.9%)와의 동거비율 및 단독가구(17.9%)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는 전체 응답자의 경우 평균 3.1명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2.9명으로 전체 응답자보다 다소 작았음

-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29.7%,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는 55.9%,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12.9%였음
 -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부채보유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0.9%로 훨씬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도 18.3%로 더 많은 특징을 보임
-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29.7%,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는 55.9%,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12.9%였음
 -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부채보유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50.9%로 훨씬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도 18.3%로 더 많은 특징을 보임

<표 4-1-4-2> 응답자의 가구 특성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00명)	100%	(279명)	100%
결혼상태	미혼/비혼	749	74.8	152	54.5
	기혼	245	24.5	123	44.1
	이혼	6	0.6	4	1.4
	사별	1	0.1	0	0.0
가구구성원	부모	621	62.1	100	35.8
	형제/자매	395	39.5	67	24.0
	배우자	240	24.0	122	43.7
	자녀	160	16.0	75	26.9
	본인만(단독가구)	125	12.5	50	17.9
	조부모님	42	4.2	6	2.2
	친구/지인	7	0.7	2	0.7
	친인척	1	0.1	1	0.4
가구원 수	1명	125	12.5	50	17.9
	2명	155	15.5	65	23.3
	3명	313	31.3	88	31.5
	4명	325	32.5	59	21.1
	5명	71	7.1	15	5.4
	6명 이상	11	1.1	2	0.8
	평균(표준편차)	3.1(1.175)		2.9(1.219)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	1명	303	30.3	106	38.0
	2명	406	40.6	126	45.2
	3명	201	20.1	34	12.2
	4명	87	8.7	12	4.3
	5명	2	0.2	0	0.0
	6명	1	0.1	1	0.4
	평균(표준편차)	2.1(.938)		1.8(.842)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297	29.7	142	50.9
	가구주의 자녀	559	55.9	82	29.4
	가구주의 배우자	129	12.9	51	18.3
	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5	0.5	1	0.4
	기타	10	1.0	3	1.1

2) 거주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비교

- 전체 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서구(15.6%), 남동구(15.4%), 부평구(15.1%)가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3.7%)과 옹진군(2.4%)이 가장 적었음
 - 부채보유자의 인구분포도 전체 응답자의 인구분포가 큰 차이는 없었음
- 성인(만 18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역을 옮긴 사례는 전체 응답자의 20.2%, 부채보유 응답자 중에서는 30.0%였음
 - 이주 전 거주지는 인천과 인접한 서울(36.1%)과 경기(28.7%) 집중되어 있었음
 - 이주 시기는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취업 및 창업(53.0%), 결혼(20.3%), 학업(14.9%)이었으며, 이는 부채보유자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

<표 4-1-4-3> 응답자의 거주 특성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00명)	100%	(279명)	100%
거주지역	중구	70	7.0	14	5.0
	동구	37	3.7	9	3.2
	미추홀구	128	12.8	32	11.5
	연수구	130	13.0	47	16.8
	남동구	154	15.4	50	17.9
	부평구	151	15.1	37	13.3
	계양구	113	11.3	29	10.4
	서구	156	15.6	53	19.0
	강화군	37	3.7	6	2.2
	옹진군	24	2.4	2	0.7
성인이후 인천으로 거주지 변경 여부	예	202	20.2	84	30.1
	아니오	798	79.8	195	69.9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	서울	73	36.1	30	35.7
	부산	8	4.0	4	4.8
	대구	5	2.5	4	4.8
	대전	4	2.0	1	1.2
	광주	6	3.0	2	2.4
	경기	58	28.7	20	23.8
	강원	5	2.5	4	4.8
	충남	8	4.0	4	4.8
	충북	2	1.0	2	2.4
	경남	10	5.0	3	3.6
	경북	10	5.0	3	3.6
	전남	8	4.3	4	4.8
	전북	3	1.5	1	1.2
	제주	1	0.5	1	1.2
	해외	1	0.5	1	1.2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연도	2000	1	0.5	1	1.2
	2001	4	2.0	3	3.6
	2002	2	1.0	1	1.2
	2003	2	1.0	1	1.2
	2005	3	1.5	2	2.4
	2006	3	1.5	2	2.4
	2007	2	1.0	0	0.0
	2008	3	1.5	1	1.2
	2009	3	1.5	2	2.4
	2010	13	6.4	6	7.1
	2011	4	3.0	3	3.6
	2012	17	8.4	11	13.1
	2013	14	6.9	6	7.1
	2014	11	5.4	2	2.4
	2015	18	8.9	8	9.5
	2016	10	5.0	3	3.6
	2017	20	9.9	12	14.3
	2018	27	13.4	7	8.3
	2019	20	9.9	5	6.0
	2020	15	7.4	6	7.1
	2021	8	4.0	2	2.4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이유	취업 및 창업	107	53.0	47	56.0
	결혼	41	20.3	21	25.0
	학업	30	14.9	12	14.3
	기타	24	11.9	4	4.8

○ 전체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7.2%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다세대/연립주택(21.5%)이었음

- 이러한 특성은 부채보유 응답자에게서도 큰 차이 없이 발견되는데, 이는 응답자 다수가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한편, 청년 1인 가구의 주택 유형을 보면, 원룸(25.6%)과 다세대/연립주택(24.0%), 오피스텔(21.6%)이 가장 많았고, 아파트의 비율(12.8%)은 낮았음
-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은 전체 응답자가 자가(62.5%)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은 전세(21.4%), 보증금 있는 월세(13.1%)의 순이었음
- 한편,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해 보증금 있는 월세(44.8%)와 전세(35.2%), 보증금 없는 월세(10.4%)의 비율이 높았고, 자가(5.6%)의 비율은 크게 낮았음

<표 4-1-4-4> 응답자의 주거 특성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주 중인 주택 유형	아파트	572	57.2	158	56.6
	다세대/연립주택	215	21.5	61	21.9
	일반단독주택	64	6.4	5	1.8
	다가구 단독주택	50	5.0	18	6.5
	오피스텔	47	4.7	21	7.5
	원룸	37	3.7	15	5.4
	영업 겸용 단독 주택	10	1.0	1	0.4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2	0.2	0	0.0
	쪽방	2	0.2	0	0.0
	기타	1	0.1	0	0.0
거주 중인 주택 유형 (1인 가구)	원룸	32	25.6	12	24.0
	다세대/연립주택	30	24.0	15	30.0
	오피스텔	27	21.6	10	20.0
	아파트	16	12.8	7	14.0
	다가구 단독주택	15	12.0	6	12.0
	일반단독주택	3	2.4	0	0.0
	쪽방	2	1.6	0	0.0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25	62.5	156	55.9
	전세	214	21.4	78	28.0
	보증금 있는 월세	131	13.1	38	13.6
	보증금 없는 월세	16	1.6	5	1.8
	무상	10	1.0	1	0.4
	사글세 또는 연세	2	0.2	0	0.0
	일세	2	0.2	1	0.4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1인 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56	44.8	20	40.0
	전세	44	35.2	21	42.0
	보증금 없는 월세	13	10.4	4	8.0
	자가	7	5.6	4	8.0
	무상	4	3.2	1	2.0
	일세	1	0.8	0	0.0

3) 응답자의 일에 따른 비교

- 전체 응답자가 현재 하는 일을 구분해 보면, 취업 중인 자가 61.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규교육기관 학업(10.1%), 취업 준비(8.3%), 쉬고 있음(5.4%), 취업을 위한 교육(4.7%), 주부(4.5%), 창업 중(자영업자)(3.1%)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가 72.8%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고, 정규교육기관 학업은 3.9%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음
- 일(취업,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 평균 종사기간은 51.8개월이었으며, 부채보유 청년의 경우 60.1개월로 좀 더 길었음
-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은 59.6%였으며, 1주일 평균 근로시간은 45.3시간이었음
-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는 생활비(50.0%)와 학비(15.0%)를 벌기 위함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21.8%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함
 - 권고사직과 비자발적 해고의 비율은 각각 15.6%와 11.9%였음
 - 실직자(자발적 퇴사 포함) 가운데 78.9%가 실직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나 고용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답함
 - 실직(자발적 퇴사 포함)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의 비율은 57.8%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규 교육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60명 가운데 53.3%가 그렇다고 답함

<표 4-1-4-5> 응답자의 일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 하는 일	취업 중(직장인) ※아르바이트는 제외	614	61.4	203	72.8
	정규교육기관 학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101	10.1	11	3.9
	취업 준비 (별도 교육받지 않음)	83	8.3	17	6.1
	쉬고 있음	54	5.4	8	2.9
	취업을 위한 교육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어학학원 등)	47	4.7	6	2.2
	주부	45	4.5	16	5.7
	창업 중(자영업자)	31	3.1	13	4.7
	진학 준비	10	1.0	2	0.7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8	0.8	2	0.7
	군 입대 대기	7	0.7	1	0.4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	755	75.5	175	81.0
	무기 계약직 임금근로자	95	9.5	11	5.1
	무기 계약직 외 비정규직	60	6.0	11	5.1
	임금근로자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	48	4.8	13	6.0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42	4.2	6	2.8
	비임금 근로자				
일자리(취업·창업) 종사기간(개월)	평균(표준편차)	51.8(31.190)		60.1(30.830)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60	59.6	5	45.5
	없다	41	40.6	6	54.5
한 달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평균(표준편차)	45.3(29.231)		53.0(40.589)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	생활비 마련을 위해	30	50.0	2	40.0
	학비를 벌려고	9	15.0	0	0.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	11.7	0	0.0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경비	7	11.7	1	20.0
	마련을 위해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4	6.4	1	20.0
	쌓기 위해				
	독립하기 위한	2	3.3	0	0.0
	자금을 모으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학원비 등	1	1.7	1	20.0
	취업 준비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직 경험 여부	그렇다	32	53.3	3	60.0
	그렇지 않다	28	46.7	2	40.0
실직 사유	있다	218	21.8	62	22.2
	없다	782	78.2	217	77.8
실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또는 고용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자발적 퇴사	79	36.2	25	40.3
	계약기간 만료	73	33.5	19	30.6
	권고사직	34	15.6	9	3.2
	비자발적 해고	26	11.9	9	3.2
	기타	6	2.8	0	0.0
실업급여 수령 여부	관련성이 전혀 없다	13	6.0	5	8.1
	관련성이 거의 없다	25	11.5	9	14.5
	관련성이 약간 있다	75	34.4	20	32.3
	관련성이 매우 크다	97	44.5	28	45.2
	잘 모르겠다	8	3.7	0	0.0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받았다	58	26.6	18	29.0
	받았지만, 재취업 전에 모두				
	소진했다	34	15.6	9	14.5
	받지 못했다	126	57.8	35	56.5

4) 재 무 상 태

① 소득

- 전체 응답자의 지난달 본인 소득 총합은 평균 211.0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월 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8.3%, 99만원 이하인 자는 29.6%를 차지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지난달 월소득이 265.2만원이었으며,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
 - 응답자 소득의 주요 재원을 보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평균 17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소득이 16.6만원,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9.7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지난달 가구 총소득은 월 499만원 이하가 46.2%로 가장 많았고, 월 500만원~999만원은 36.6%였음
 - 부채보유 응답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 비해 가구 총소득이 조금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남
- 지난 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7%였으며, 총금액은 462.7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이전소득을 받는 경우가 11.1%로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금액도 415.3만원이었음
- 지난 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24.7%였으며, 총금액은 381.4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28.7%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그 금액도 447.0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표 4-1-4-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지난달 소득	없음	83	8.3	18	6.5
	월 1만원~49만원	124	12.4	16	5.7
	월 50만원~99만원	89	8.9	16	5.7
	월 100만원~199만원	150	15.0	27	9.7
	월 200만원~299만원	319	31.9	102	36.3
	월 300만원~399만원	143	14.3	52	18.6
	월 400만원 이상	92	9.2	48	17.2
	평균(표준편차)	211.0(233.9)		265.2(198.1)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소득 재원	가족 및 친척	평균(표준편차)	9.7(25.9)		9.3(31.2)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표준편차)	179.8(159.6)		234.3(187.2)					
	금융소득	평균(표준편차)	16.6(170.2)		14.2(49.8)					
	그 외의 기타소득	평균(표준편차)	4.9(22.0)		7.4(27.0)					
지난달 가구의 총 소득			월 499만원 이하	462	46.2	133	47.7			
			월 500만원~999만원	366	36.6	113	40.5			
			월 1,000만원~2,999만원	66	6.6	13	4.7			
			월 3,000만원~4,999만원	52	5.2	12	4.3			
			월 5,000만원~6,999만원	27	2.7	4	1.4			
			월 7,000만원~8,999만원	13	1.3	2	0.7			
			월 9,000만원~9,999만원	10	1.0	2	0.7			
			월 1억원 이상	4	0.4	0	0.0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예	207	20.7	31	11.1
						아니요	793	79.3	248	88.9
지난 한 해 가족에게 받았던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462.7 (577.8)		415.3 (441.7)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예	247	24.7	79	28.3			
			아니요	753	75.3	200	71.7			
지난 한 해 가족에게 준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381.4 (531.7)		447.0 (598.6)				

② 지출

- 전체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187.5만원이었으며,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이보다 약 100만원이 많은 281.6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주요 지출항목은 식료품/외식비(32.4만원), 주거비(33.5만원), 저축(50.1만원)이었으며, 부채상환에는 평균 14.6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부채보유 응답자는 주거비(81.4만원)와 부채상환비(42.6만원)가 전체 응답자에 비해 두 배 이상 많았음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를 100%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하는 경우는 59.2%였으며, 100% 보호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12.3%였으며, 나머지 19.5%는 본인(배우자 포함)과 보호자가 일정비율 분담하는 형태였음
 - 부채보유자의 경우, 본인(배우자 포함) 부담이 비율이 70.6%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8.8%였음
- 나머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해결방법 1순위는 소비를 줄이는 것 (69.8%)이었으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5.8%에 그쳤음
 - 전체 응답자들 중에서 생활비 부족 해결을 위한 1순위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와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각각 5.8%와 1.1%인 가운데, 부채보유 응답자는 각각 9.0%와 2.9%로 전체 응답자보다 높았음
 - 또한 1순위 방법으로도 생활비 부족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2순위), 신용카드(19.7%)나 추가근로(19.4%), 부모님의 도움(14.9%), 예금·적금·보험 등 해약(13.4%)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1.1%, 부채보유 응답자의 2.9%,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3.2%, 부채보유 응답자의 4.5%로 절대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존재하고 있었음

<표 4-1-4-7> 응답자의 지출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지난달 지출		평균(표준편차)		281.6(864.5)	
본인 지출 항목	식료품/외식비	평균(표준편차)	32.4(30.6)	41.9(34.5)	
	컴퓨터/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	평균(표준편차)	4.7(17.7)	6.9(26.6)	
	주거비	평균(표준편차)	33.5(461.4)	81.4(839.0)	
	학비	평균(표준편차)	5.8(36.6)	2.3(17.2)	
	취업준비비	평균(표준편차)	2.4(9.1)	1.8(7.9)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4.7(17.1)	8.1(23.3)	
	교통/통신비	평균(표준편차)	13.3(13.1)	16.8(15.0)	
	문화/미용비	평균(표준편차)	13.0(18.5)	14.6(19.0)	
	저축	평균(표준편차)	50.1(80.0)	47.4(104.5)	
	민간보험료	평균(표준편차)	11.5(14.5)	15.8(16.4)	
	부채상환	평균(표준편차)	14.6(48.8)	42.6(82.1)	
	기타1	평균(표준편차)	47.1(47.1)	90.0(65.1)	
	기타2	평균(표준편차)	26.8(18.3)	40.0(14.1)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생활비 마련 방법	100%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한다	592	59.2	197	70.6
	75%정도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95	9.5	22	7.9
	50%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95	9.5	30	10.8
	25%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95	9.5	17	6.1
	100% 보호자가 지원한다	123	12.3	13	4.7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1순위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88	8.8	15	5.4
	소비를 줄인다	698	69.8	196	70.3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58	5.8	10	3.6
	신용카드를 쓴다	55	5.5	25	9.0
	추가로 일을 한다	54	5.4	14	5.0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23	2.3	8	2.9
	지인에게 빌린다	12	1.2	2	0.7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11	1.1	8	2.9
	기타	1	0.1	1	0.4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2순위	신용카드를 쓴다	197	19.7	66	25.0
	추가로 일을 한다	194	19.4	59	22.3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149	14.9	24	9.1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134	13.4	28	10.6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125	12.5	31	11.7
	소비를 줄인다	124	12.4	30	11.4
	지인에게 빌린다	39	3.9	13	4.9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32	3.2	12	4.5
	기타	5	0.5	1	0.4

③ 자산과 저축

- 전체 응답자의 본인 총자산은 평균 1억557.5만원이었으며, 주된 자산인 부동산은 평균 7천492.6만원, 금융자산은 2,776.3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에 비해 총자산(2억556.3만원)과 부동산(1억7,611.4만원)이 2배정도 많았음
- 부모를 포함한 전체 응답자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14.3%였으며,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56.7%였음
 - 가구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7%로 극히 드물었고, 부채보유 응답자의 가구 총자산이 전체 응답자 평균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 됨

<표 4-1-4-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00명)	100%	(279명)	100%
본인 총 자산	부동산 자산	평균(표준편차)	7,492.6(21,215.7)		17,611.4(31,551.6)	
	금융 자산	평균(표준편차)	2,776.3(5,691.1)		2,478.8(4,769.0)	
	기타 자산	평균(표준편차)	288.6(1,153.6)		466.1(1,367.9)	
	합계	평균(표준편차)	10,557.5(23,998.7)		20,556.3(33,370.9)	
가구의 총 자산			5천만원 미만	14.3	38	13.6
			5천만원~1억원 미만	42.4	79	28.3
			1억원~2억원 미만	13.1	43	15.4
			2억원~4억원 미만	13.2	49	17.6
			4억원~6억원 미만	7.3	25	9.0
			6억원~8억원 미만	4.8	22	7.9
			8억원~10억원 미만	2.2	12	4.3
			10억원~12억원 미만	1.2	7	2.5
			12억원~14억원 미만	0.5	1	0.4
			14억원~16억원 미만	0.4	2	0.7
			16억원~18억원 미만	0.1	0	0.0
			18억원~20억원 미만	0.1	0	0.0
			20억원 이상	0.4	1	0.4

- 전체 응답자의 월저축액은 평균 49.6만원이었으며, 현재 총저축액은 평균 1,725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월저축액(46.8만원)과 총저축액(1,341.4만원)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다소 작은 경향을 보였음

- 전체 응답자 가운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0.6%였고,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수입 부족(56.4%)을 꼽았으며, 2순위 주된 이유는 예상하지 못한 지출의 발생(33.4%)이었음
 - 저축이 어려운 1순위 기타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10.6%), 대출금 상환 부담(6.4%), 이미 많은 저축(56.1%), 즉흥소비(4.3%), 낮은 저축동기(3.5%), 많은 월세 지출(3.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 기타 이유는 즉흥소비(19.5%), 수입 부족(12.0%), 낮은 저축동기(9.4%), 이미 많은 저축(8.9%), 대출금 상환부담(8.6%), 많은 월세 지출(8.4%)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96.8%는 저축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전체 응답자와 비교했을 때 그 원인을 수입 부족(45.2%)보다는 대출금 상환 부담(22.9%)에서 찾는 응답자가 많았음
 - 수입 부족을 제외하면, 예상치 못한 지출과 대출금 상환 부담이 저축의 주된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전체 응답자 가운데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30.5%였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 금액은 평균 442.8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예비비 보유실태도 전체 응답자가 큰 차이가 없었음
-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전체 응답자와 부채보유 응답자에서 각각 21.2만원과 22.1만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음

<표 4-1-4-9> 응답자의 저축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난달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49.6(79.9)		46.8(104.4)	
현재 총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1,725.6(3,988.5)		1,341.4(3,210.9)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1순위	어려움이 없다	106	10.6	9	3.2
	수입이 적다	564	56.4	129	46.2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106	10.6	30	10.8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64	6.4	64	22.9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51	5.1	11	3.9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43	4.3	16	5.7
	저축동기가 낮다	35	3.5	9	3.2
	월세 지출이 크다	31	3.1	11	3.9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2순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268	33.4	63	25.4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156	19.5	35	14.1
	수입이 적다	96	12.0	45	18.1
	저축동기가 낮다	75	9.4	19	7.7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71	8.9	16	6.5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69	8.6	52	21.0
	월세 지출이 크다	67	8.4	18	7.3
긴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만원)	없다	305	30.5	84	30.1
	있다	695	69.5	195	69.9
평균(표준편차)		442.8(1,133.7)		426.4(883.9)	
추가 저축 가능금액(만원)		21.2 (35.8)		22.1 (28.4)	

-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경험을 보면, 전체 응답자와 부채보유 응답자 모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93.3%와 93.2%로 대부분이었음
-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49.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시가 자체 운영하는 드림For청년통장으로 14.8%였음
 - 부채보유 응답자도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율을 보임

<표 4-1-4-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경험	현재 참여 중이다	39	3.9	11	3.9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8	2.8	8	2.9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933	93.3	260	93.2	
참여한 자산형성지 원사업	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31	50.8	12	66.7
		드림For청년통장(인천시)	9	14.8	3	16.7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중기부)	5	8.2	0	11.1
		청년저축계좌(복지부)	2	3.3	1	5.6
		청년희망키움통장(복지부)	5	8.2	1	5.6
		희망키움통장(복지부)	3	4.9	0	0.0
		내일키움통장(복지부)	1	1.6	0	0.0
		디딤씨앗통장(복지부)	1	1.6	0	0.0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1	1.6	0	0.0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경기도)	1	1.6	1	5.6
		희망디딤돌통장(충남도)	1	1.6	0	0.0
		기타	1	1.6	0	0.0
	월 납입금(만원)	평균(표준편차)	11.5 (3.0)		12.2 (2.9)	
	입금 횟수(회)	평균(표준편차)	16.9 (11.3)		17.5 (10.6)	

④ 부채

1 부채현황과 대출목적

-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보유한 일명 부채보유 청년은 279명(27.9%)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7,230.0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평균 4,368.2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1,706.7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286.3만원), 자동차 구입(225.4만원), 투자목적(202.7만원), 대학학자금(187.4만원), 창업 준비(106.1만원) 등의 순이었음
 -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청년의 부채가 본인이 아닌 가족의 대출요청(84.7만원)에 의해서도 발생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과 같은 투자형/비소비형 대출이외의 투자를 위한 대출금(202.7만원)이 대학학자금이나 창업 준비를 위한 대출금보다 많다는 사실도 시사점이 큼

<표 4-1-4-11>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00명)	100%	(279명)	100%
상환해야 할 대출금 보유 여부	예	279	27.9	279	100.0
	아니요	721	72.1	0	0.0

구 분			전체 (279명)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생활비	평균(표준편차)	31.2 (118.7)
	주택구입	평균(표준편차)	4368.2 (7998.4)
	전세보증금	평균(표준편차)	1706.7 (4359.2)
	월세	평균(표준편차)	0.3 (4.0)
	대학학자금	평균(표준편차)	187.4 (559.0)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0.5 (6.2)
	결혼	평균(표준편차)	13.9 (100.4)
	자동차 구입	평균(표준편차)	225.4 (670.7)
	가족의 대출 요청	평균(표준편차)	84.5 (454.0)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평균(표준편차)	286.3 (956.2)
	취업준비	평균(표준편차)	0.7 (12.0)
	창업 준비	평균(표준편차)	106.1 (689.0)
	병원비	평균(표준편차)	14.6 (146.2)
	투자목적	평균(표준편차)	202.7 (905.4)
	합계	평균(표준편차)	7,230.0 (8,104.4)

② 대출기관

- 부채보유 청년 중 채권자별 대출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6,13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은 722.6만원이었으며, 다음은 가족(150.0만원), 합법적 대부업체(28.4만원)의 순이었음

<표 4-1-4-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구 분			전체 (279명)
각 채권자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제1금융권	평균(표준편차)	6,133.3(7,733.9)
	제2금융권	평균(표준편차)	722.6(2,481.2)
	합법적 대부업체	평균(표준편차)	28.4(194.0)
	불법 사채	평균(표준편차)	0.0(0.0)
	직장	평균(표준편차)	0.4(6.0)
	한국장학재단	평균(표준편차)	133.1(470.5)
	가족	평균(표준편차)	150.0(1,317.6)
	친구, 지인	평균(표준편차)	24.4(194.8)
	기타	평균(표준편차)	1,758.3(1,118.2)
	합계	평균(표준편차)	7,230.0(8,104.4)

③ 신용 및 연체

- 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5.7%,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11.5%인 것으로 나타났음
-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요원인은 만성적 수입부족(17.5%)보다는 실업(24.6%),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21.1%) 등의 사건의 비중이 높았음
 - 금융(예: 주식, 코인)(10.5%)과 부동산(8.8%)에 대한 투자 실패,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매출 감소에 따른 소득과 신용 하락도 일정정도 청년의 신용과 부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
-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에서 5.1%, 부채보유 응답자 중 에서 7.9%였음

- 연체 시 활용했던 문제해결 방법은 소비를 줄인다(45.1%)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35.3%), 추가로 일을 한다(21.6%),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21.6%), 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19.6%), 추가 대출을 받는다(17.6%) 등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전체 평균에 비해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45.5%)와 추가 대출을 받는다(22.7%)의 비율이 높았음
-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전체 응답자와 부채보유 응답자에서 각각 1명씩으로 미미했음
-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7.3%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16.3%였음
- 부채 보유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과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13.7%와 22.9%로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음

<표 4-1-4-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경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 없다	594	59.4	18	6.5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다	349	34.9	229	82.1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이 있다	57	5.7	32	11.5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된 이유	실업	14	24.6	9	28.1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	12	21.1	5	15.6
	만성적 수입부족	10	17.5	7	21.9
	금융투자 실패(예: 주식, 코인)	6	10.5	3	9.4
	자영업 실패 (예: 매출 감소)	5	8.8	5	15.6
	부동산 투자 실패	5	8.8	3	9.4
	신용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	3	5.3	2	6.3
	산업재해	2	3.5	0	0.0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 여부	예	51	5.1	22	7.9
	아니요	949	94.9	257	92.1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연체 시 주 해결 방법 (중복응답)	소비를 줄인다	23	45.1	13	59.1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18	35.3	10	45.5
	추가로 일을 한다	11	21.6	3	13.6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11	21.6	5	22.7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	10	19.6	3	13.6
	추가 대출을 받는다	9	17.6	5	22.7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	2.0	1	4.5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8	0.8	8	2.9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다	65	6.5	30	10.8
	경험이 없다	927	92.7	241	86.4
다른 가구원(본인제 외) 중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39	3.9	16	5.7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적 있다	124	12.4	48	17.2
	가구원 중 아무도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다	837	83.7	215	77.1

④ 대출 계획

- 전체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20.1%였으며, 주요 대출용도는 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52.2%), 전세보증금(28.4%), 생활비(15.4%), 자동차 구입(10.0%) 등이었음
- 부채보유자의 경우,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이 있는 비율이 32.6%으로 전체 평균보다 12.5%p 더 많았으며,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겠다는 비율(24.2%)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
 - 비율은 높지 않지만, 투자 목적의 대출계획과 원금 회수가 쉽지 않은 가족을 위한 대출 계획은 재무(부채)상담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결과임

<표 4-1-4-14> 응답자의 대출계획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대출계획이 있다	201	20.1	91	32.6
	대출 계획이 없다	799	79.9	188	67.4
대출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대출 받고자 하는 용도 (중복응답)	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	105	52.2	47	51.6
	전세보증금	57	28.4	20	22.0
	생활비(식비, 사교비, 교통비 등)	31	15.4	22	24.2
	자동차	20	10.0	7	7.7
	투자 목적(주식, 코인 등)	11	5.5	8	8.8
	대학학자금	9	4.5	4	4.4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9	4.5	9	9.9
	창업 준비	8	4.0	4	4.4
	월세(관리비 포함)	5	2.5	4	4.4
	가족의 대출 요청	5	2.5	5	5.5
	취업준비	4	2.0	1	1.1
	결혼	3	1.5	0	0.0
	기타 1	3	1.5	0	0.0
	병원비	2	1.0	2	2.2
	자녀교육비/보육비	1	0.5	0	0.0

5) 금융역량과 재무건전성에 따른 비교

- 전체 응답자의 금융역량은 8점 만점에서 3.8점, 금전스트레스는 40점 만점에서 17.5점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금융역량은 4.0점, 금전스트레스는 19.0점으로,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해 금융역량은 조금 더 높고, 재무스트레스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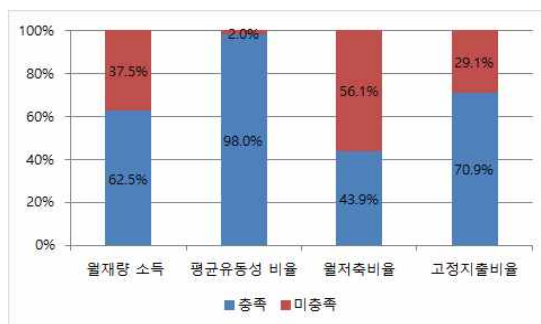
<표 4-1-4-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금융역량	1,000	3.7560	1.72553	279	4.0036	1.61713
금전스트레스	1,000	17.4810	7.70760	279	18.9570	7.83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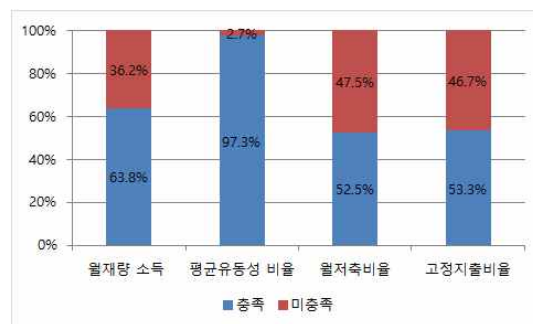
- 월재량소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일명 흑자가구인 것으로 확인됨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에도 월재량소득 충족률은 63.8%로 전체 응답자와 같은 수준이었음
- 평균유동성 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98.0%가 2개월 치 월지출보다 많은 총저축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부채보유 응답자의 평균유동성 충족률은 97.3%로 전체 응답자와 다르지 않았음
- 월저축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3.9%가 월소득의 10%보다 많은 저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채보유 응답자의 월저축비율은 52.5%로 전체 응답자보다 높은 편이었음
- 고정지출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0.9%가 고정지출을 월소득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부채보유 응답자의 고정지출비율 충족률은 53.3%로 전체 응답자보다 크게 낮았음

<표 4-1-4-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재량 소득	625	62.5	375	37.5	178	63.8	101	36.2
평균유동성 비율	899	98.0	18	2.0	254	97.3	7	2.7
월저축비율	403	43.9	514	56.1	137	52.5	124	47.5
고정지출비율	650	70.9	267	29.1	139	53.3	122	46.7



<전체 응답자의 충족 비율>



<부채보유 응답자의 충족 비율>

[그림 4-2-1]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6) 심리정서 상태

- 전체 응답자와 부채보유 응답자의 모두 자아존중감은 50점 만점에 33.1점으로 같았고, 미래지향도 40점 만점에 각각 27.44점, 27.57점으로 거의 같았으며, 우울감도 44점 만점에 각각 20.18점, 20.32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음

<표 4-1-4-17>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000	33.0770	6.55912	279	33.0538	7.15959
미래지향	1,000	27.4430	5.03111	279	27.5663	5.39602
정서상태_우울감	1,000	20.1800	7.11310	279	20.3226	7.17434

7)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연구진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에서 전체 응답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실제 변화는 고독감 증가(26.3%), 소득 감소(22.7%), 월 저축액 감소(21.8%), 노동시간 감소(19.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에도 고독감 증가(29.0%), 월 저축액 감소(25.1%), 소득 감소(21.9%)의 경험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응답자와 비교해 부채 증가(21.9%), 신용점수 하락(14.7%)의 비율이 훨씬 높았음

<표 4-1-4-18>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00명)	100%	(279명)	100%
노동시간 감소	예		19.8		
	아니오	450	45.0	143	51.3
	해당없음	352	35.2	85	30.5
소득 감소	예		22.7		
	아니오	435	43.5	132	47.3
	해당없음	338	33.8	86	30.8
임금 미지급(연체)	예		7.2		
	아니오	530	53.0	158	56.6
	해당없음	398	39.8	98	35.1
무급휴직 경험	예		8.2		
	아니오	497	49.7	147	52.7
	해당없음	421	42.1	102	36.6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	예		16.6		
	아니오	413	41.3	121	43.4
	해당없음	421	42.1	101	36.2
월 저축액 감소	예		21.8		
	아니오	460	46.0	128	45.9
	해당없음	322	32.2	81	29.0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예		12.5		
	아니오	536	53.6	156	55.9
	해당없음	339	33.9	88	31.5
보험 해약	예		5.7		
	아니오	573	57.3	158	56.6
	해당없음	370	37.0	95	34.1
부채 증가	예		11.0		
	아니오	503	50.3	141	50.5
	해당없음	387	38.7	77	27.6
개인 신용점수 낮아짐	예		7.8		
	아니오	521	52.1	152	54.5
	해당없음	401	40.1	86	30.8
고독감 증가	예		26.3		
	아니오	421	42.1	124	44.4
	해당없음	316	31.6	74	2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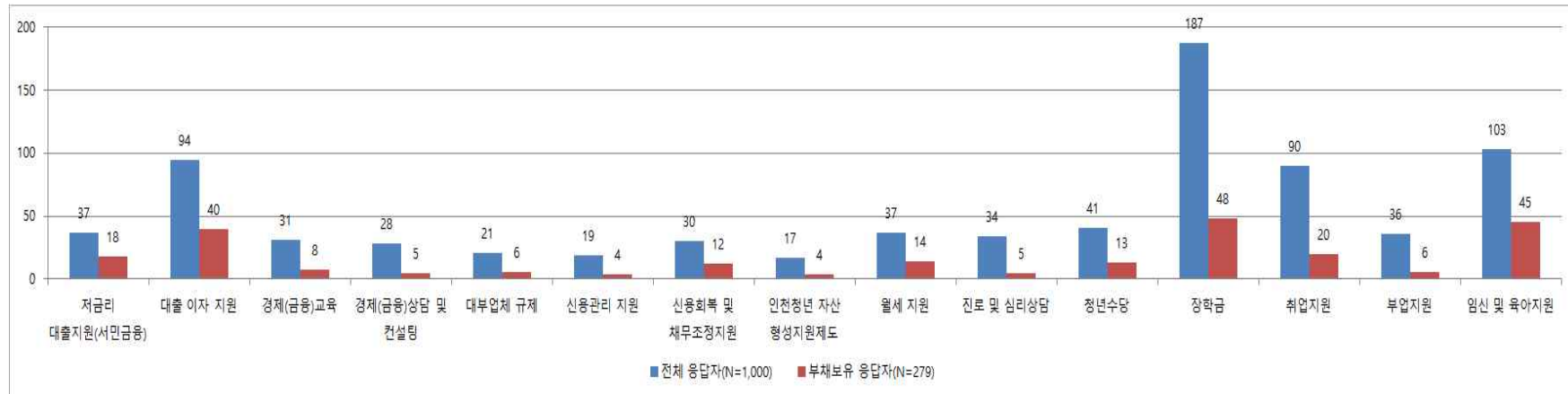
8) 청년부채 관련 정책 수요

① 청년부채 관련 사업 이용률과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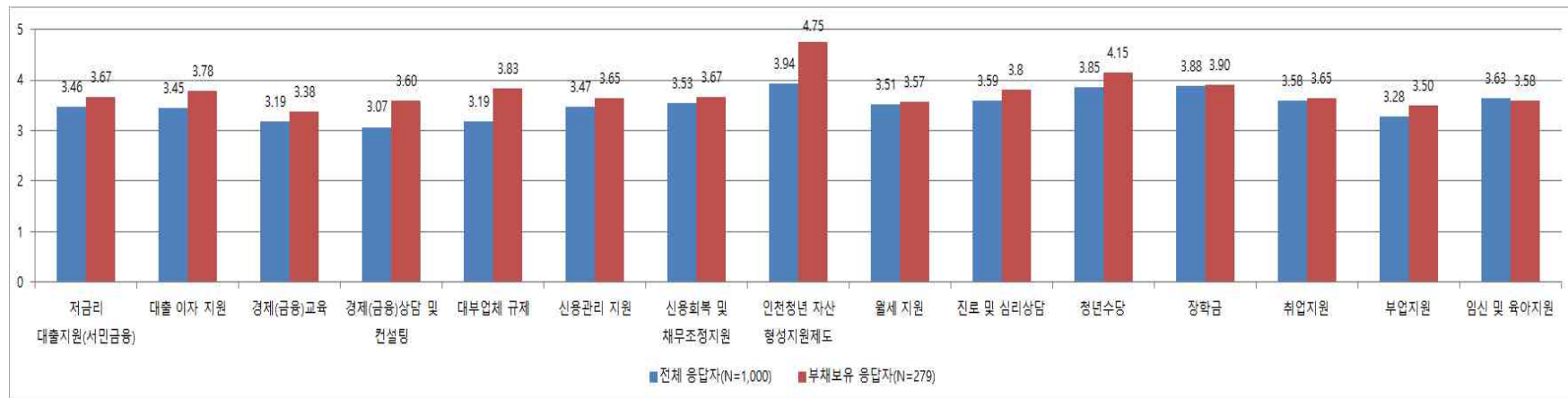
- 연구진이 포괄적으로 제안한 청년부채 관련 사업 총 15개 가운데, 전체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사업은 장학금(18.7%)이었으며, 그 다음은 임신 및 육아지원(10.3%), 대출이자 지원(9.4%), 취업지원(9.0%)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보다 저금리 대출지원(서민금융)(6.5%),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4.3%) 관련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총 15개 사업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대부분 3점대 후반으로 의견을 표시했음
 - 15개 사업의 중요도에 대한 부채보유 응답자의 인식은 전체 응답자 평균에 비해 더 긍정적인 것으로 평균 점수를 통해 확인되었음
- 전체 응답자가 참여해 본 사업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94점)이었으며, 장학금(3.88점)과 청년수당(3.85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경제(금융)교육(3.19점)이나 경제(금융)상담 및 컨설팅(3.07점), 대부업체 규제(3.19점)의 만족도는 낮았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에도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4.75점), 청년수당(4.15점), 장학금(3.90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고, 전체 응답자 평균과 비교해 경제(금융)교육(3.38점)이나 경제(금융)상담 및 컨설팅(3.60점), 대부업체 규제(3.83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음
- 전체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업은 임신 및 육아지원(4.00점), 대출이자 지원(3.94점), 장학금(3.92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88점)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체 응답자와 유사한 답변 분포를 보이나, 특별히 저금리 대출지원(서민금융)과 경제(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전체 응답자가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장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은 청년수당(3.29점)과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27점)이었으며, 다음은 취업지원(3.09점), 임신 및 육아지원(3.09점), 부업지원(3.01점)의 순이었음
 - 부채보유 응답자도 임신 및 육아지원(3.21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19점), 청년수당(3.15점)에 대한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4-19>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구 분		전체 응답자(N=1,000)								부채보유 응답자(N=279)							
		이용경험(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이용경험(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관 사업	저금리 대출지원(서민금융)	37	3.7	3.46	1.238	3.74	1.065	2.79	1.395	18	6.5	3.67	1.237	3.83	1.106	2.96	1.472
	대출 이자 지원	94	9.4	3.45	1.094	3.94	0.982	2.54	1.382	40	14.3	3.78	0.862	4.05	0.960	2.74	1.509
	경제(금융)교육	31	3.1	3.19	0.980	3.68	1.021	2.81	1.354	8	2.9	3.38	0.744	3.75	1.018	2.79	1.433
	경제(금융)상담 및 컨설팅	28	2.8	3.07	1.152	3.67	1.044	2.91	1.369	5	1.8	3.60	0.548	3.75	0.989	2.87	1.418
	대부업체 규제	21	2.1	3.19	1.078	3.67	1.138	2.62	1.354	6	2.2	3.83	0.753	3.76	1.094	2.68	1.419
	신용관리 지원	19	1.9	3.47	0.772	3.58	1.070	2.70	1.367	4	1.4	3.75	0.957	3.76	1.016	2.84	1.442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	30	3.0	3.53	1.196	3.68	1.057	2.56	1.356	12	4.3	3.67	1.303	3.85	0.985	2.62	1.423
	인천청년 자산 형성지원제도	17	1.7	3.94	1.029	3.88	1.043	3.27	1.399	4	1.4	4.75	0.500	3.81	1.136	3.19	1.458
	월세 지원	37	3.7	3.51	0.989	3.79	1.066	2.97	1.388	14	5.0	3.57	1.089	3.77	1.087	2.81	1.450
	진로 및 심리상담	34	3.4	3.59	1.104	3.75	1.026	2.98	1.372	5	1.8	3.80	0.837	3.79	0.997	2.79	1.455
	청년수당	41	4.1	3.85	0.853	3.69	1.211	3.29	1.443	13	4.7	4.15	0.555	3.5	1.268	3.15	1.525
	장학금	187	18.7	3.88	0.949	3.92	1.016	2.78	1.454	48	17.2	3.90	0.881	3.92	0.997	2.64	1.483
	취업지원	90	9.0	3.58	1.027	3.97	0.994	3.09	1.401	20	7.2	3.65	1.137	3.91	0.98	2.90	1.436
	부업지원	36	3.6	3.28	0.944	3.78	1.094	3.01	1.422	6	2.2	3.50	1.049	3.77	1.075	2.86	1.467
	임신 및 육아지원	103	10.3	3.63	1.029	4.00	1.028	3.09	1.438	45	16.1	3.58	1.011	4.05	1.017	3.21	1.4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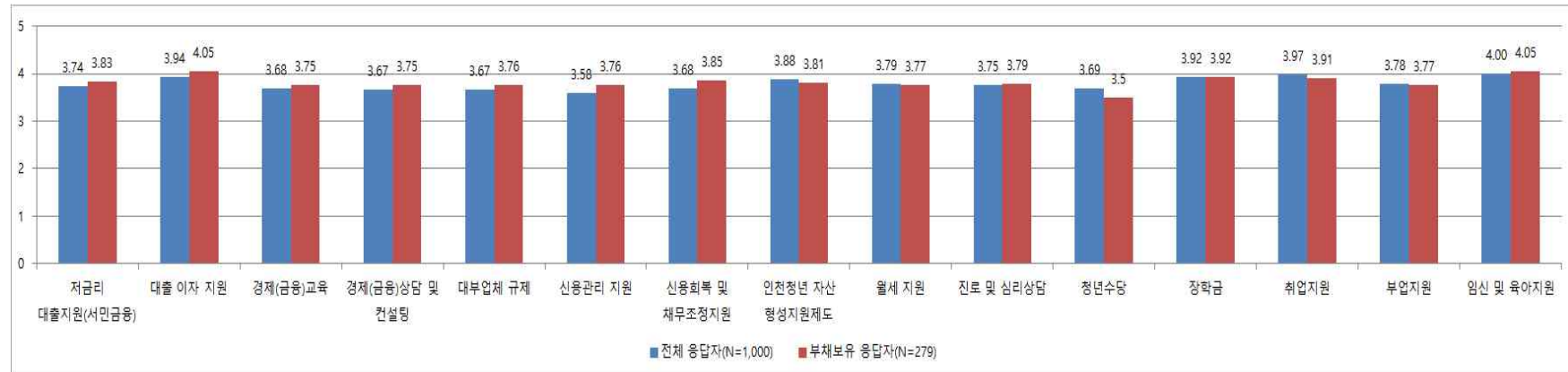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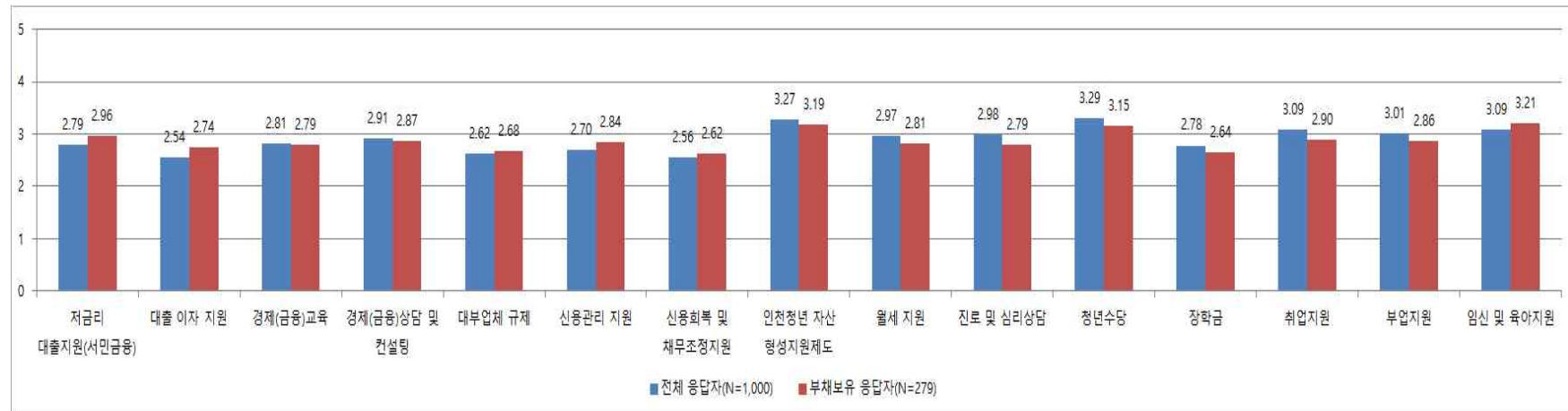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그림 4-2-2]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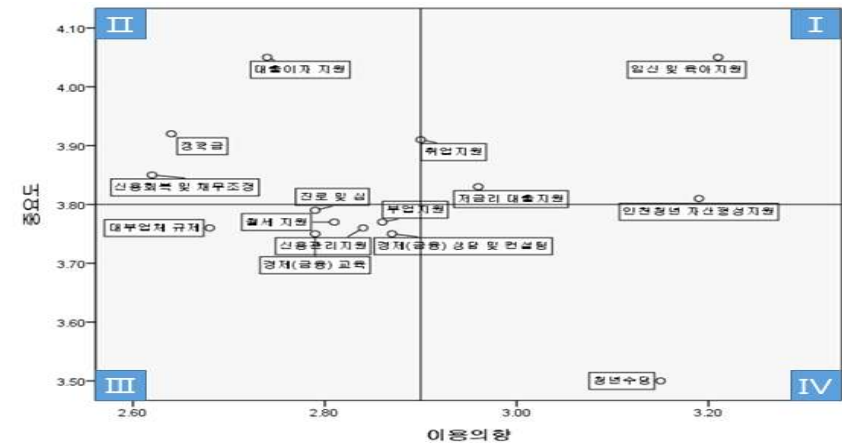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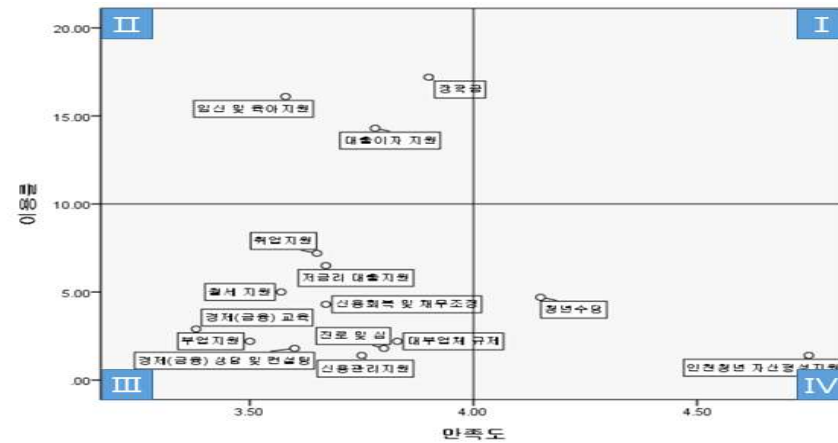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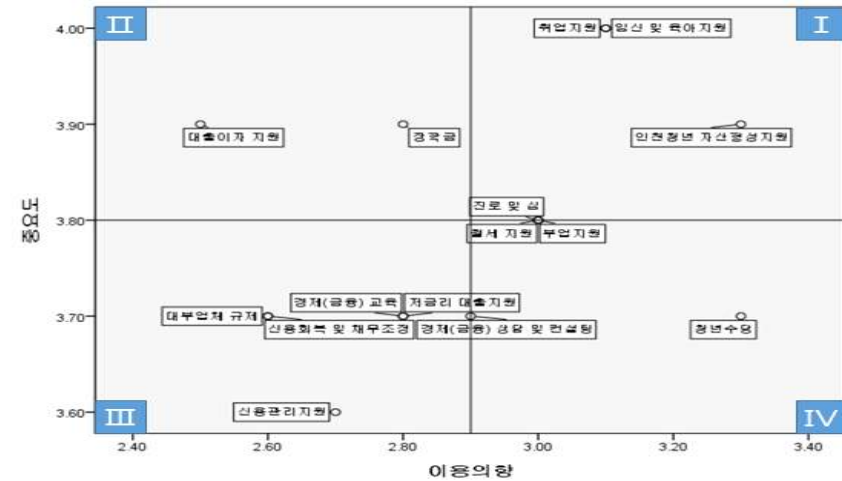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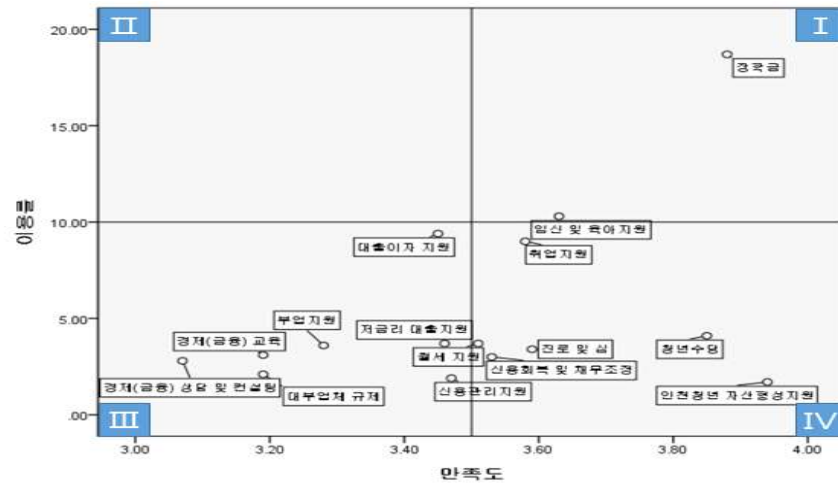


<청년부채 문제 해소방안으로서의 사업 중요도>



<향후 6개월 이내 청년부채 지원 사업 이용 의향>

[그림 4-2-3]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그림 4-2-4]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만족도와 이용의향 산점도

② 청년부채 관련 청년 의견

-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묻는 개방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4.2%, 부채보유 응답자의 55.6%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음
- 극히 작은 비율(전체 응답자의 1.7%, 부채보유 응답자의 1.8%)이지만, 부채는 본인 책임이며,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청년부채 해소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6.7%)이었으며, 경제/금융교육 및 상담(3.0%),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2.3%),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2.2%), 청년 지원금 제공(1.9%),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1.8%)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음
 - 부채보유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4.7%), 경제/금융교육 및 상담(4.3%),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 조건완화(3.2%)의 비율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4. 연령대별 비교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 20대 응답자 중 남성이(46.3%), 여성(53.7%)보다 적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남성이 51.2%, 여성이 48.8%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음
- 20대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전문대 졸업자가 21.1%, 4년제 재학자가 23.1%, 4년제 졸업자가 27.0%일 정도로 학력수준은 높은 편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4년제 대학 졸업자가 50.1%로 20대 응답자보다 많았는데, 이는 응답자의 연령의 차이와 20대 응답자의 4년제 대학 재학 비율이 높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1-5-1>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구 분		20대 (N=445)		30대(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성 별	남성	206	46.3	284	51.2
	여성	239	53.7	271	48.8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	0	2	0.4
	고등학교 중퇴	1	0.2	4	0.7
	고등학교 졸업	76	17.1	83	15.0
	2·3년제 대학 중퇴	9	2.0	10	1.8
	2·3년제 대학 재학 중	27	6.1	5	0.9
	2·3년제 대학 졸업	94	21.1	111	20.0
	4년제 대학 중퇴	3	0.7	10	1.8
	4년제 대학 재학 중	103	23.1	8	1.4
	4년제 대학 졸업	120	27.0	279	50.1
	대학원 재학 중	10	2.2	9	1.6
	대학원 졸업	2	0.4	35	6.3

- 20대 응답자 중 미혼/비혼이 94.2%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5.8%를 차지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기혼이 39.5%로 20대 응답자의 평균에 비해 크게 높았음
- 20대 응답자의 80.4%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형제/자매와 동거비율은 58.9%였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5.4%, 자녀가 있는 경우가 3.1%, 청년가구 단독 비율은 11.0%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부모(45.8%)와의 동거비율이 20대 응답자에 비해 낮았으며, 배우자(38.9%)와의 동거비율이 20대 응답자보다 높았고, 자녀(26.3%)와의 동거비율 및 단독가구(13.7%)의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음
-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평균 3.39명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2.87명으로 20대 응답자보다 다소 작았음
- 20대 응답자의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는 평균 2.29명이었으며, 2명(38.7%)이 가장 많았고, 1명인 경우가 22.5%, 3명인 경우가 27.0%, 1명인 경우가 22.5%, 4명인 경우가 11.5%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는 평균 1.92명으로 20대 응답자보다 다소 작았고, 2명(42.2%)인 경우와 1명(36.6%)인 경우, 3명(14.6%)인 경우가 20대 응답자보다 많았으며, 4명(6.5%)의 경우 20대 응답자보다 다소 작았음
- 20대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15.7%,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는 79.1%,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2.5%였음
 - 20대 응답자와 비교해 30대 응답자는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가 40.9%로 훨씬 더 많았으며,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도 21.3%로 더 많은 특징을 보임

<표 4-1-5-2> 응답자의 가구 특성

구 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45명)	100%	(555명)	100%
결혼상태	미혼/비혼	419	94.2	329	59.3
	기혼	26	5.8	219	39.5
	이혼	0	0	6	1.1
	사별	0	0	1	0.2
가구구성원	부모	358	80.4	254	45.8
	형제/자매	262	58.9	133	24.0
	배우자	24	5.4	216	38.9
	자녀	14	3.1	146	26.3
	본인만(단독가구)	49	11.0	76	13.7
	조부모님	32	7.2	10	1.8
	친구/지인	6	1.3	1	0.2
	친인척	1	0.2	0	0
가구원 수	1명	49	11.0	76	13.7
	2명	46	10.3	109	19.6
	3명	95	21.3	218	39.3
	4명	203	45.6	122	22.0
	5명	46	10.3	25	4.5
	6명 이상	6	1.3	5	0.9
	평균(표준편차)	3.39 (1.20)		2.87 (1.10)	

구 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	1명	100	22.5	203	36.6
	2명	172	38.7	234	42.2
	3명	120	27.0	81	14.6
	4명	51	11.5	36	6.5
	5명	1	0.2	1	0.2
	6명	1	0.2	0	0
	평균(표준편차)	2.29 (0.96)		1.92 (0.88)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70	15.7	227	40.9
	가구주의 자녀	352	79.1	207	37.3
	가구주의 배우자	11	2.5	118	21.3
	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5	1.1	0	0
	기타	7	1.6	3	0.5

2) 거주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비교

- 20대 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남동구(15.7%), 부평구(15.3%), 서구(14.6%)가 가장 많았으며, 동구(4.0%), 강화군(4.0%), 옹진군(2.9%)이 가장 적었음
 - 30대 응답자의 인구분포도 20대 응답자의 인구분포와 큰 차이는 없었음
- 20대 응답자 중 성인(만 18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역을 옮긴 사례는 11.7%였음
 - 30대 응답자 중 성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역을 옮긴 사례는 27.0%로 20대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큰 수치를 보임
- 20대 응답자의 이주 전 거주지는 인천과 인접한 서울(21.2%)과 경기(42.3%)에 집중되어 있었음
 - 30대 응답자의 이주 전 거주지도 인천과 인접한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서울(41.3%)이 더 높은 비율이며, 경기(24.0%)는 더 낮은 비율을 보임
- 20대 응답자의 이주 시기는 2010년 이전에는 전무하였으며, 2011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30대 응답자의 이주 시기 역시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20대 응답자의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취업 및 창업(50.0%), 학업(34.7%)이 가장 큰 이유였음
 - 30대 응답자의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취업 및 창업(54.0%), 결혼(26.0%), 학업(8.0%)로 20대 응답자와 큰 차이를 보임

<표 4-1-5-3> 응답자의 거주 특성

구 분		20대		30대	
		빈도 (445명)	비율 100%	빈도 (555명)	비율 100%
전 체					
거주지역	중구	32	7.2	38	6.8
	동구	18	4.0	19	3.4
	미추홀구	56	12.6	72	13.0
	연수구	53	11.9	77	13.9
	남동구	70	15.7	84	15.1
	부평구	68	15.3	83	15.0
	계양구	52	11.7	61	11.0
	서구	65	14.6	91	16.4
	강화군	18	4.0	19	3.4
	옹진군	13	2.9	11	2.0
성인이후 인천으로 거주지 변경 여부	예	52	11.7	150	27.0
	아니오	393	88.3	405	73.0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	서울	11	21.2	62	41.3
	부산	2	3.8	6	4.0
	대구	1	1.9	4	2.7
	대전	1	1.9	3	2.0
	광주	1	1.9	5	3.3
	경기	22	42.3	36	24.0
	강원	0	0	5	3.3
	충남	3	5.8	5	3.3
	충북	0	0	2	1.3
	경남	3	5.8	7	4.7
	경북	3	5.8	7	4.7
	전남	3	5.8	5	3.3
	전북	1	1.9	2	1.3
	제주	1	1.9	0	0
	해외	0	0	1	0.7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연도	2000	0	0	1	0.7
	2001	0	0	4	2.7
	2002	0	0	2	1.3
	2003	0	0	2	1.3
	2005	0	0	3	2.0
	2006	0	0	3	2.0
	2007	0	0	2	1.3
	2008	0	0	3	2.0
	2009	0	0	3	2.0
	2010	0	0	13	8.7
	2011	1	1.9	5	3.3
	2012	3	5.8	14	9.3
	2013	5	9.6	9	6.0
	2014	3	5.8	8	5.3
	2015	2	3.8	16	10.7
	2016	4	7.7	6	4.0
	2017	9	17.3	11	7.3
	2018	9	17.3	18	12.0
	2019	7	13.5	13	8.7
	2020	7	13.5	8	5.3
	2021	2	3.8	6	4.0

구 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이유	취업 및 창업	26	50.0	81	54.0
	결혼	2	3.8	39	26.0
	학업	18	34.7	12	8.0
	기타	6	11.5	18	12.0

- 20대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3.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다세대/연립주택(24.0%)이었음
 - 이러한 특성은 30대 응답자에게서도 큰 차이 없이 발견되는데, 이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하며,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도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음
- 20대 응답자의 청년 1인 가구 주택의 유형을 보면, 원룸(34.7%)과 오피스텔(26.5%), 다세대/연립주택(24.5%)이 가장 많았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23.7%)이 가장 많았으며, 원룸(19.7%), 아파트(19.7%), 오피스텔(18.4%), 다가구 단독주택(15.8%)의 순이었으며, 20대 응답자보다 아파트와 다가구 단독주택 거주비율이 훨씬 더 많았음
-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경우 자가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16.4%), 보증금 있는 월세(14.4%)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도 자가가 59.8%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25.4%), 보증금 있는 월세(12.1%)의 순이었음
- 1인 청년가구의 경우, 20대 응답자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가 57.1%로 가장 높았으며, 전세(24.5%), 보증금 없는 월세(12.6%)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1인 청년가구의 경우에는 전세가 42.1%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가 36.8%로 20대 응답자의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1-5-4> 응답자의 주거 특성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거주 중인 주택 유형	아파트	237	53.3	335	60.4
	다세대/연립주택	107	24.0	108	19.5
	일반단독주택	32	7.2	32	5.8
	다가구 단독주택	21	4.7	29	5.2
	오피스텔	20	4.5	27	4.9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원룸	19	4.3	18	3.2
	영업 겸용 단독 주택	6	1.3	4	0.7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1	0.2	1	0.2
	쪽방	2	0.4	0	0
거주 중인 주택 유형 (1인가구)	원룸	17	34.7	15	19.7
	다세대/연립주택	12	24.5	18	23.7
	오피스텔	13	26.5	14	18.4
	아파트	1	2.0	15	19.7
	다가구 단독주택	3	6.1	12	15.8
	일반단독주택	1	2.0	2	2.6
	쪽방	2	4.1	0	0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자가	293	65.8	332	59.8
	전세	73	16.4	141	25.4
	보증금 있는 월세	64	14.4	67	12.1
	보증금 없는 월세	8	1.8	8	1.4
	일세	0	0	2	0.4
	무상	5	1.1	5	0.9
	사글세 또는 연세	2	0.4	0	0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1인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28	57.1	28	36.8
	전세	12	24.5	32	42.1
	보증금 없는 월세	6	12.6	7	9.2
	자가	1	2.0	6	7.9
	무상	2	4.1	2	2.6
	일세	0	0	1	1.3

3) 응답자의 일에 따른 비교

- 20대 응답자가 현재 하는 일을 구분해 보면, 취업 중인 자가 49.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정규교육기관 학업(21.6%), 취업 준비(13.3%), 쉬고 있음(5.4%), 취업을 위한 교육(5.2%)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취업 중인 경우가 71.4%로 20대 응답자의 비율보다 훨씬 높았고, 정규교육기관 학업은 0.9%로 20대 응답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았음
- 20대 응답자의 일자리 고용형태의 경우 67.3%가 정규직 임금근로자였고,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가 14.2%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80.0%로 20대 응답자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는 6.9%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보였음
- 일(취업,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 20대 응답자의 평균 종사기간은 25.4개월이었음
 - 30대의 경우 65.9개월로 20대 응답자의 평균 종사기간과 큰 차이를 보였음

-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20대 응답자는 59.4%였으며, 한 달 평균 근로시간은 45.33시간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60.0%로 20대 응답자와 유사한 비율을 보였으며, 한 달 평균 근로시간 또한 45.0시간으로 20대 응답자와 유사한 수치를 보였음
- 20대 응답자의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는 생활비마련이 50.9%였고, 학비(14.0%), 여가시간의 활용(12.3%), 여행경비마련(12.3%)의 순이었음
 - 30대의 경우 생활비(33.3%), 학비(33.3%), 독립을 위한 자금 마련(33.3%)이 주된 이유로 같은 비율을 보였음
-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정규교육 중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 57명 가운데 50.9%가 그렇다고 답함
 - 30대의 경우 응답자 3명 모두 그렇다고 답하였다.
-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직 경험은 20대 응답자의 경우 22.0%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21.6%로 20대 응답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20대 응답자의 실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가 40.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계약기간 만료(28.6%), 권고사직(14.3%), 비자발적 해고(14.3%)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37.5%로 가장 많았고, 자발적 퇴사(32.5%), 권고사직(16.7%), 비자발적 해고(10.0%)의 순으로 20대 응답자의 실직 사유와 유사한 수준을 보임
- 20대 응답자의 실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또는 고용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는 관련성이 매우 크다가 50.0%이고, 관련성이 약간 있다가 34.7%의 수준으로 실직과 코로나19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관련성이 매우 크다가 40.0%이고 관련성이 약간 있다가 34.2%로 20대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실직과 코로나19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실업급여 수령 여부는 20대 응답자의 경우 66.3%가 받지 못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50.8%가 받지 못했음

<표 4-1-5-5>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재 하는 일	취업 중(직장인) ※아르바이트는 제외	218	49.0	396	71.4
	정규교육기관 학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96	21.6	5	0.9
	취업 준비 (별도 교육받지 않음)	59	13.3	24	4.3
	쉬고 있음	24	5.4	30	5.4
	취업을 위한 교육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어학학원 등)	23	5.2	24	4.3
	창업 중(자영업자)	8	1.8	23	4.1
	진학 준비	8	1.8	2	0.4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2	0.4	6	1.1
	주부	0	0	45	8.1
	군 입대 대기	7	1.6	0	0
일자리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	153	67.3	335	80.0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	32	14.2	29	6.9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27	11.9	12	2.9
	임금근로자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	8	3.5	23	5.5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	7	3.1	20	4.8
일자리(취업·창업) 종사기간 (개월)	평균(표준편차)	25.4 (19.6)		65.9 (45.5)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있다	57	59.4	3	60.0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없다	39	40.6	2	40.0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평균(표준편차)	45.33 (29.8)		45.0 (15.0)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	생활비 마련을 위해	29	50.9	1	33.3
	학비를 벌려고	8	14.0	1	33.3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7	12.3	0	0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경비 마련을 위해	7	12.3	0	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4	7.0	0	0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1	1.8	1	33.3
	학원비 등	1	1.8	0	0
	취업 준비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그렇다	29	50.9	3	100
	그렇지 않다	28	49.1	0	0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직 경험 여부	있다	98	22.0	120	21.6
	없다	347	78.0	435	78.4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실직 사유	자발적 퇴사	40	40.8	39	32.5
	계약기간 만료	28	28.6	45	37.5
	권고사직	12	14.3	20	16.7
	비자발적 해고	12	14.3	12	10.0
	기타	2	2.0	4	3.3
실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또는 고용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관련성이 전혀 없다	6	6.1	7	5.8
	관련성이 거의 없다	8	8.2	17	14.2
	관련성이 약간 있다	34	34.7	41	34.2
	관련성이 매우 크다	49	50.0	48	40.0
	잘 모르겠다	1	1.0	7	5.8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받았다	19	19.4	39	32.5
	받았지만, 재취업 전에 모두 소진했다	14	14.3	20	16.7
	받지 못했다	65	66.3	61	50.8

4) 재무 상태에 따른 비교

① 소득

- 20대 응답자의 지난달 본인 소득 총합은 평균145.6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월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6.5%, 99만원 이하인 자는 41.8%를 차지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지난달 평균 월소득이 263.4만원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소득 주요 재원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122.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13.4만원, 금융소득이 6.4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소득의 주요 재원으로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225.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소득이 24.8만원,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6.6만원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지난달 가구 총소득은 월 499만원 이하가 43.4%로 가장 많았고, 월 500~999만원은 38.4%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월 499만원 이하가 48.5%이었으며, 월 500~999만원은 35.1%였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34.6%였으며, 총금액은 526.7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경우가 9.5%로 20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적었으며, 금액도 276.6만원으로 적었음

- 지난 해 20대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15.5%였으며, 총금액은 318.5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32.1%로 20대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그 금액도 405.8만원으로 역시 20대의 평균보다 높았음

<표 4-1-5-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지난날 소득	없음		29	6.5	54	9.7
	월 1만원~49만원		89	20.0	35	6.3
	월 50만원~99만원		68	15.3	21	3.8
	월 100만원~199만원		86	19.3	64	11.5
	월 200만원~299만원		142	31.9	177	31.9
	월 300만원~399만원		22	4.9	121	21.8
	월 400만원 이상		9	2.0	83	15.0
	평균(표준편차)		145.6 (119.4)		263.4 (284.6)	
본인 소득 재원	가족 및 친척	평균(표준편차)	13.4 (26.4)		6.6 (25.1)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표준편차)	122.1 (110.4)		225.9 (177.0)	
	금융소득	평균(표준편차)	6.4 (50.4)		24.8 (223.6)	
	그 외의 기타소득	평균(표준편차)	3.5 (16.4)		5.9 (25.5)	
지난달 가구의 총 소득	월 499만원 이하		193	43.4	269	48.5
	월 500만원~999만원		171	38.4	195	35.1
	월 1,000만원~2,999만원		28	6.3	38	6.8
	월 3,000만원~4,999만원		28	6.3	24	4.3
	월 5,000만원~6,999만원		13	2.9	14	2.5
	월 7,000만원~8,999만원		7	1.6	6	1.1
	월 9,000만원~9,999만원		4	0.9	6	1.1
	월 1억원 이상		1	0.2	3	0.5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예		154	34.6	53	9.5
	아니오		291	65.4	502	90.5
지난 한 해 가족에게 받았던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526.7 (633.0)		276.6 (309.4)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예		69	15.5	178	32.1
	아니오		376	84.5	377	67.9
지난 한 해 가족에게 준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318.5 (376.7)		405.8 (579.8)	

② 지출

- 20대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126.06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20대 응답자의 월지출액보다 약 100만원 많은 236.7만원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주요 지출항목은 식료품/외식비(22.36만원), 학비(11.8만원), 주거비(8.0만원), 부채상환에는 5.03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한편, 30대 응답자는 주거비(53.9만원)와 부채상환비(22.2만원)가 20대 응답자에 비해 각각 네 배 이상 많았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를 100%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하는 경우는 46.1%였으며, 100% 보호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19.1%였으며, 나머지 34.8%는 본인(배우자 포함)과 보호자가 일정비율 분담하는 형태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를 100% 본인(배우자 포함)이 부담하는 비율이 69.7%로 20대의 평균에 비해 높았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7.6%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9.7%이었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나머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해결방법 1순위는 소비를 줄이는 것(66.7%)이었고,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1%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소비를 줄이는 것이 72.2%이었고,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 것은 2.3%에 그쳤음
- 20대 응답자들 중에서 생활비 부족 해결을 위한 1순위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쓰는 경우(3.6%)와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0.7%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신용카드(7.0%)와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1.4%로 20대 응답자보다 높았음
- 20대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방안 1순위 방법으로도 생활비 부족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2순위), 부모님의 도움(23.1%), 추가 근로(18.7%), 신용카드(14.1%), 소비를 줄이는 것(16.1%),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10.9%)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신용카드(24.4%), 추가 근로(20.0%),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15.4%), 부모님의 도움(8.2%)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가 생활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0.7%,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4.4%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1.4%,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2.2%로 20대 응답자와 30대 응답자 모두 절대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존재하고 있었음

<표 4-1-5-7> 응답자의 지출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지난달 지출		평균(표준편차)	126.06 (130.0)		236.7 (641.5)	
본인 지출 항목	식료품/외식비	평균(표준편차)	22.36		40.4 (34.1)	
	컴퓨터/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	평균(표준편차)	3.77		5.5 (22.0)	
	주거비	평균(표준편차)	8.0		53.9 (618.6)	
	학비	평균(표준편차)	11.8		0.8 (12.4)	
	취업준비비	평균(표준편차)	3.2		1.67 (7.7)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0.2		8.2 (22.2)	
	교통/통신비	평균(표준편차)	10.4		15.5 (14.6)	
	문화/미용비	평균(표준편차)	11.4		14.2 (20.2)	
	저축	평균(표준편차)	43.1		55.7 (71.1)	
	민간보험료	평균(표준편차)	5.89		15.9 (16.3)	
	부채상환	평균(표준편차)	5.03		22.2 (61.9)	
	기타1	평균(표준편차)	20.0		55.7 (51.1)	
	기타2	평균(표준편차)	23.6		30.0 (20.0)	
생활비 마련 방법		100%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한다	205	46.1	387	69.7
		75%정도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54	12.1	41	7.4
		50%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48	10.8	47	8.5
		25%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53	11.9	42	7.6
		100% 보호자가 지원한다	85	19.1	38	6.8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34	7.6	54	9.7
		소비를 줄인다	297	66.7	400	72.2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1순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45	10.1	13	2.3
		신용카드를 쓴다	16	3.6	39	7.0
		추가로 일을 한다	32	7.2	22	4.0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10	2.2	13	2.3
		지인에게 빌린다	8	1.8	4	0.7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3	0.7	8	1.4
		기타	0	0	2	0.4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2순위		신용카드를 쓴다	58	14.1	122	24.4
		추가로 일을 한다	77	18.7	100	20.0
		부모님의 도움을	95	23.1	41	8.2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받는다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45	10.9	77	15.4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33	8.0	81	16.2
	소비를 줄인다	66	16.1	47	9.4
	지인에게 빌린다	17	4.1	19	3.8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18	4.4	11	2.2
	기타	2	0.5	3	0.6

③ 자산과 저축

- 20대 응답자의 본인 총자산은 평균 2592.4만원이었으며, 주된 자산인 금융 자산은 평균 1424.3만원, 부동산자산은 1062.1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20대 응답자에 비해 총자산(1억6944.0만원)이 6배정도 많았고, 부동산(1억2648.6만원)이 10배정도 많았음
- 부모를 포함한 20대 응답자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15.5%였으며,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69.4%였고, 가구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1.3%로 극히 드물었음
 - 30대 응답자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3.3%였고,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46.5%였고, 가구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3.7%로 20대 응답자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 됨

<표 4-1-5-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45명)	100%	(555명)	100%
본인 총 자산	부동산 자산	평균(표준편차)	1062.1 (4815.9)		12648.6 (27077.9)	
	금융 자산	평균(표준편차)	1424.3 (2441.3)		3860.3 (7140.2)	
	기타 자산	평균(표준편차)	105.9 (440.4)		435.0 (1481.8)	
	합계	평균(표준편차)	2592.4 (6160.4)		16944.0 (30270.7)	
가구의 총 자산			69	15.5	74	13.3
			240	53.9	184	33.2
			45	10.1	86	15.5
			44	9.9	88	15.9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4억원~6억원 미만	19	4.3	54	9.7
6억원~8억원 미만	18	4.0	30	5.4
8억원~10억원 미만	4	0.9	18	3.2
10억원~12억원 미만	3	0.7	9	1.6
12억원~14억원 미만	2	0.4	3	0.5
14억원~16억원 미만	0	0	4	0.7
16억원~18억원 미만	0	0	1	0.2
18억원~20억원 미만	1	0.2	0	0
20억원 이상	0	0	4	0.7

- 20대 응답자의 월저축액은 평균 42.4만원이었으며, 현재 총저축액은 평균 1021.5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월저축액(55.41만원)과 총저축액(2290.1만원)이 20대 응답자보다 다소 큰 경향을 보였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9.9%였고,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수입 부족(63.8%)을 꼽았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10.3%), 이미 많은 저축(3.8%), 즉흥소비(3.8%), 많은 월세 지출(3.6%), 낮은 저축동기(2.5%), 대출금 상환부담(2.2%)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11.2%였고,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수입 부족(50.5%)을 꼽았으며, 예상치 못한 지출(10.8%), 대출금 상환부담(9.7%), 이미 많은 저축(6.1%), 즉흥소비(4.7%), 낮은 저축동기(4.3%), 많은 월세 지출(2.7%)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저축이 어려운 2순위 주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38.4%)이었으며, 즉흥소비(23.2%), 수입부족(9.0%), 많은 월세지출(8.8%), 낮은 저축동기(8.5%), 이미 많은 저축(7.9%), 대출금 상환부담(4.2%)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저축이 어려운 2순위 주된 이유도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29.5%)이었으며, 즉흥소비(16.5%), 수입부족(14.3%), 대출금 상환부담(12.1%), 낮은 저축동기(10.0%), 이미 많은 저축(9.6%), 많은 월세 지출(8.0%)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34.2%였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 금액은 평균 242.8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27.6%였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 금액은 평균 603.1만원으로 20대 응답자의 평균 금액보다 2배정도 많았음

- 20대 응답자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17.0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24.5만원이었음

<표 4-1-5-9> 응답자의 저축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지난달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42.4 (89.1)		55.41 (71.0)	
현재 총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1021.5 (5)		2290.1 (4994.6)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1순위	어려움이 없다	44	9.9	62	11.2
	수입이 적다	284	63.8	280	50.5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46	10.3	60	10.8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10	2.2	54	9.7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17	3.8	34	6.1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17	3.8	26	4.7
	저축동기가 낮다	11	2.5	24	4.3
	월세 지출이 크다	16	3.6	15	2.7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2순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136	38.4	132	29.5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82	23.2	74	16.5
	수입이 적다	32	9.0	64	14.3
	저축동기가 낮다	30	8.5	45	10.0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28	7.9	43	9.6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15	4.2	54	12.1
	월세 지출이 크다	31	8.8	36	8.0
긴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만원)	없다	152	34.2	153	27.6
	있다	293	65.8	402	72.4
예비비(만원)	평균(표준편차)	242.8 (537.8)		603.1 (1424.1)	
추가 저축 가능금액(만원)	평균(표준편차)	17.0 (28.4)		24.5 (40.4)	

- 20대 응답자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경험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89.9%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96.0%로 20대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20대 응답자의 참여 경험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51.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시가 자체 운영하는 드림 For 청년통장(8.9%)과 복지부의 청년 희망키움 통장(8.9%)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도 청년 내일채움공제가 4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드림 For 청년통장(22.7%),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13.6%), 청년저축계좌(13.6%), 청년 희망키움통장(4.5%)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월납입금은 평균 16.0만원이었고, 입금횟수는 평균 16.6회였음
- 30대 응답자의 월납입금은 평균 11.7만원이었고, 입금횟수는 평균 17.2회였음

<표 4-1-5-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경험	현재 참여 중이다	25	5.6	14	2.5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0	4.5	8	1.4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400	89.9	533	96.0	
참여한 자산형성지 원사업	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23	51.1	10	45.5
		드림For청년통장(인천시)	4	8.9	5	22.7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2	4.4	3	13.6
		청년저축계좌(복지부)	2	4.4	3	13.6
		청년희망키움통장(복지부)	4	8.9	1	4.5
		희망키움통장(복지부)	3	6.7	0	0
		내일키움통장(복지부)	1	2.2	0	0
		디딤씨앗통장(복지부)	1	2.2	0	0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1	2.2	0	0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경기도)	1	2.2	0	0
		희망디딤돌통장(충남도)	1	2.2	0	0
		기타	2	4.4	0	0
	월 납입금(만원)	평균(표준편차)	16.0 (11.4)		11.7 (2.6)	
	입금 횟수(회)	평균(표준편차)	16.6 (12.0)		17.2 (9.8)	

5) 부채에 따른 비교

① 부채현황과 대출목적

- 20대 응답자 445명 중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보유한 일명 부채보유 청년은 69명 (15.5%)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3,411.1만원이었음
- 30대 응답자 555명 중 상환해야할 대출금을 보유한 일명 부채보유 청년은 210명(37.8%)이었으며, 평균 금액은 8,484.7만원이었음
- 2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전세보증금이 평균 1289.8만원으로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택구입(1036.2만원), 대학학자금(501.3만원), 창업준비(144.9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126.0만원), 투자목적(104.4만원), 자동차 구입(98.5만원), 가족의 대출요청(76.0만원) 등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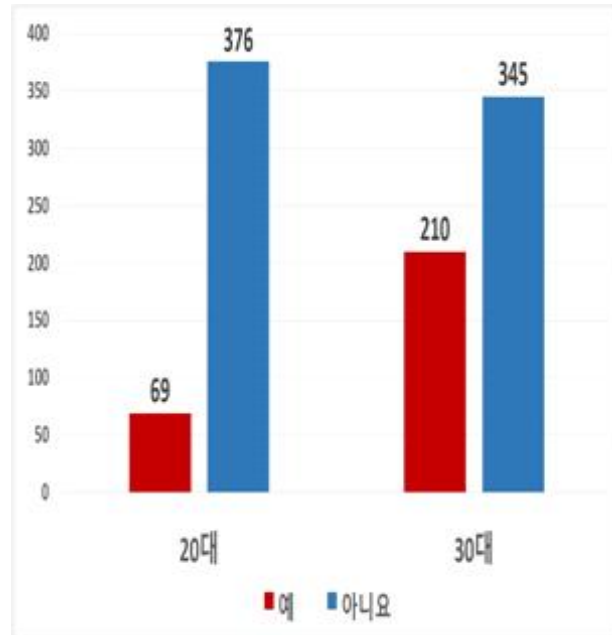
- 3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546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1843.6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338.9만원), 자동차 구입(267.1만원), 투자목적(235.0만원), 창업준비(93.3만원), 가족의 대출요청(87.2만원) 등의 순이었음
- 큰 비중은 아니었지만, 청년의 부채가 본인이 아닌 가족의 대출요청에 의해 20대 30대 응답자 각각 76.0만원, 87.2만원이 발생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표 4-1-5-11> 응답자의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45명)	100%	(555명)	100%
상환해야 할 대출금 보유 여부	예	69	15.5	210	37.8
	아니요	376	84.5	345	62.2

구 분			20대 (N=69)	30대 (N=210)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생활비	평균(표준편차)	24.9 (109.2)	33.2 (121.8)
	주택구입	평균(표준편차)	1036.2 (3462.3)	5463.0 (8736.4)
	전세보증금	평균(표준편차)	1289.8 (3304.2)	1843.6 (4652.7)
	월세	평균(표준편차)	0 (0)	0.45 (4.6)
	대학학자금	평균(표준편차)	501.3 (859.1)	84. (363.6)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0 (0)	0.62 (7.1)
	결혼	평균(표준편차)	0 (0)	18.4 (115.4)
	자동차 구입	평균(표준편차)	98.5 (326.9)	267.1 (745.9)
	가족의 대출 요청	평균(표준편차)	76.0 (487.2)	87.2 (443.7)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평균(표준편차)	126.0 (572.1)	338.9 (1048.0)
	취업준비	평균(표준편차)	2.9 (24.0)	0 (0)
	창업준비	평균(표준편차)	144.9 (884.9)	93.3 (631.2)
	병원비	평균(표준편차)	0 (0)	19.3 (168.3)
	투자목적	평균(표준편차)	104.4 (232.2)	235.0 (1025.7)
	합계	평균(표준편차)	3411.1 (4268.0)	8484.7 (8662.6)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상환해야 할 대출금 보유 여부>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그림 4-3-1]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② 대출기관

- 20대 응답자 중 채권자별 대출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2652.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장학재단은 342.6만원이었으며, 다음은 제2금융권(265.5만원), 가족(100만원), 친구 및 지인(28.2만원), 합법적 대부업체(14.2만원)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 중 채권자별 대출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727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은 872.7만원이었으며, 다음은 가족(166.4만원), 한국장학재단(64.2만원), 합법적 대부업체(33.1만원), 친구 및 지인(23.1만원)의 순이었음

<표 4-1-5-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구 분			20대 (N=69)	30대 (N=210)
각 채권자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제1금융권	평균(표준편차)	2652.5 (4402.8)	7277.0 (8242.4)
	제2금융권	평균(표준편차)	265.5 (820.3)	872.7 (2806.7)
	합법적 대부업체	평균(표준편차)	14.2 (76.9)	33.1 (219.2)
	불법 사채	평균(표준편차)	0 (0)	0 (0)
	직장	평균(표준편차)	0 (0)	0.4 (6.9)
	한국장학재단	평균(표준편차)	342.6 (760.1)	64.2 (295.2)
	가족	평균(표준편차)	100.0 (444.2)	166.4 (1497.9)
	친구, 지인	평균(표준편차)	28.2 (186.1)	23.1 (197.9)
	기타	평균(표준편차)	550.0	2000.0 (1060.6)
	합계	평균(표준편차)	3411.1 (4268.0)	8484.7 (8662.6)

③ 신용 및 연체

- 20대 응답자 중 제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3.4%이었음
- 30대 응답자 중 제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경우 7.6%이었음
- 20대 응답자의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요원인은 실업(40.0%),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33.3%) 등의 사건이 비중이 높았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만성적 수입부족이 23.8%로 가장 높았고, 실업(19.0%),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16.7%), 금융투자 실패(11.9%), 자영업 실패(9.5%), 부동산 투자 실패(9.5%)등의 순이었음

○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는 20대 응답자의 4.5%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5.6%였음

○ 20대 응답자가 연체 시 활용했던 문제해결 방법은 소비를 줄인다(45.0%)와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45.0%)가 가장 많았고,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40.0%),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25.0%), 추가로 일을 한다(15.0%), 추가대출을 받는다(10.0%), 채무조정을 신청했다(5.0%)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소비를 줄인다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29.0%), 추가로 일을 한다(25.8%), 추가대출을 받는다(22.6%),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19.4%),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6.5%)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4.7%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포함)은 15.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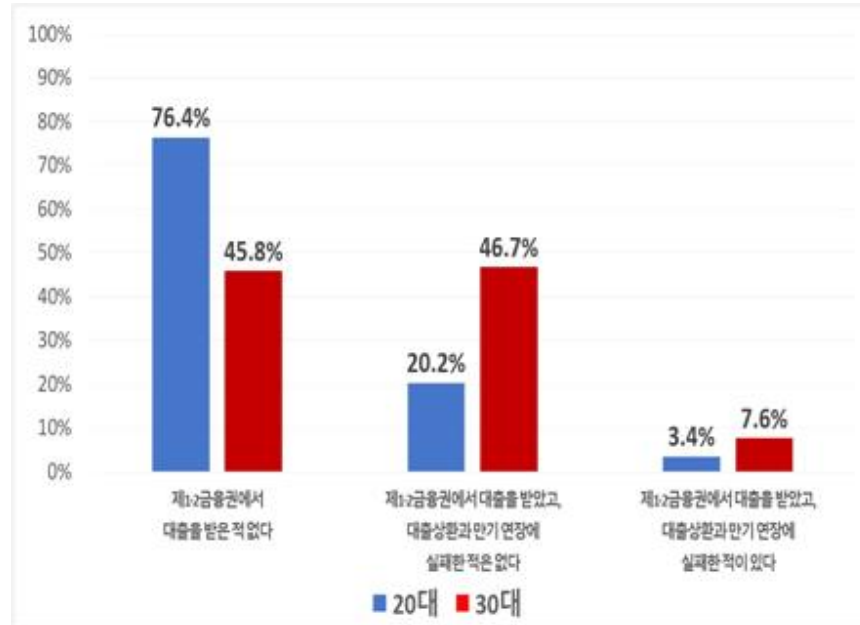
- 30대 응답자의 경우,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9.4%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16.9%였음

<표 4-1-5-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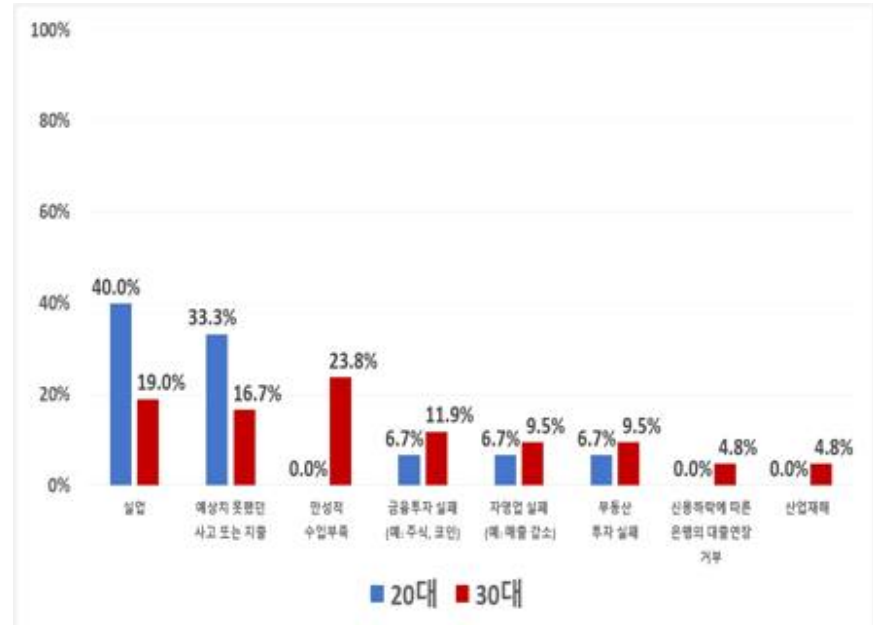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경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 없다	340	76.4	254	45.8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다	90	20.2	459	46.7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이 있다	15	3.4	42	7.6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된 이유	실업	6	40.0	8	19.0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	5	33.3	7	16.7
	만성적 수입부족	0	0	10	23.8
	금융투자 실패(예: 주식, 코인)	1	6.7	5	11.9
	자영업 실패 (예: 매출 감소)	1	6.7	4	9.5
	부동산 투자 실패	1	6.7	4	9.5
	신용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	0	0	2	4.8
	산업재해	0	0	2	4.8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 여부	예	20	4.5	31	5.6
	아니요	425	95.5	524	94.4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연체 시 주 해결 방법 (중복응답)	소비를 줄인다	9	45.0	14	45.2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9	45.0	9	29.0
	추가로 일을 한다	3	15.0	8	25.8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5	25.0	6	19.4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	8	40.0	2	6.5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추가 대출을 받는다	2	10.0	7	22.6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1	5.0	0	0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1	0.2	7	1.3
다른 가구원(본인제 외) 중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다	20	4.5	45	8.1
	경험이 없다	424	95.3	503	90.6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19	4.3	20	3.6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적 있다	50	11.2	74	13.3
	가구원 중 아무도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다	376	84.5	461	83.1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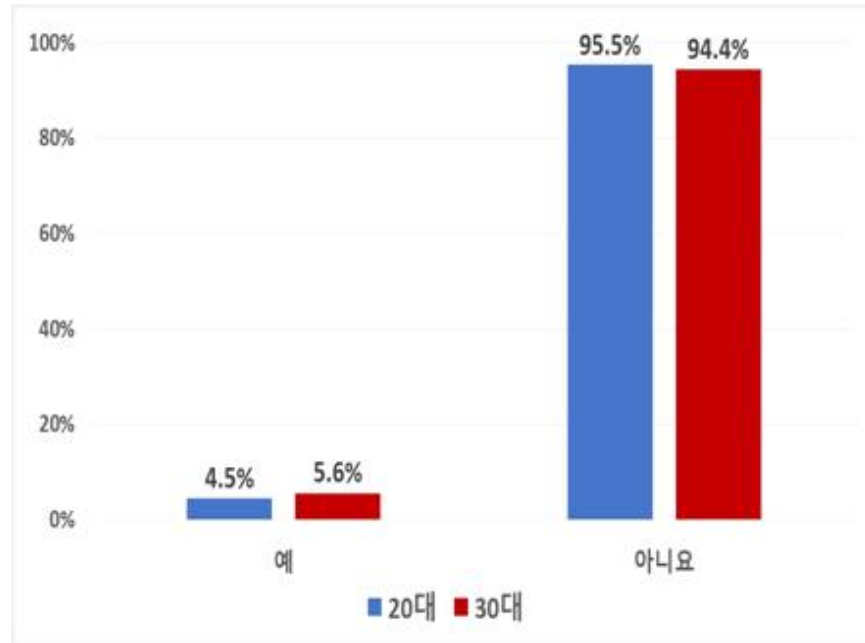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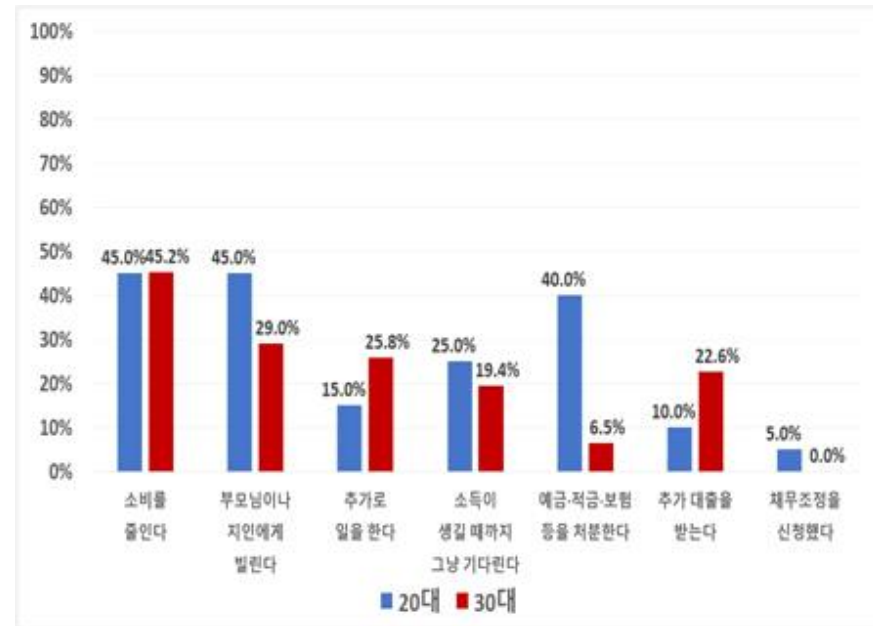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된 이유>

[그림 4-3-2-1] 신용 및 연체 현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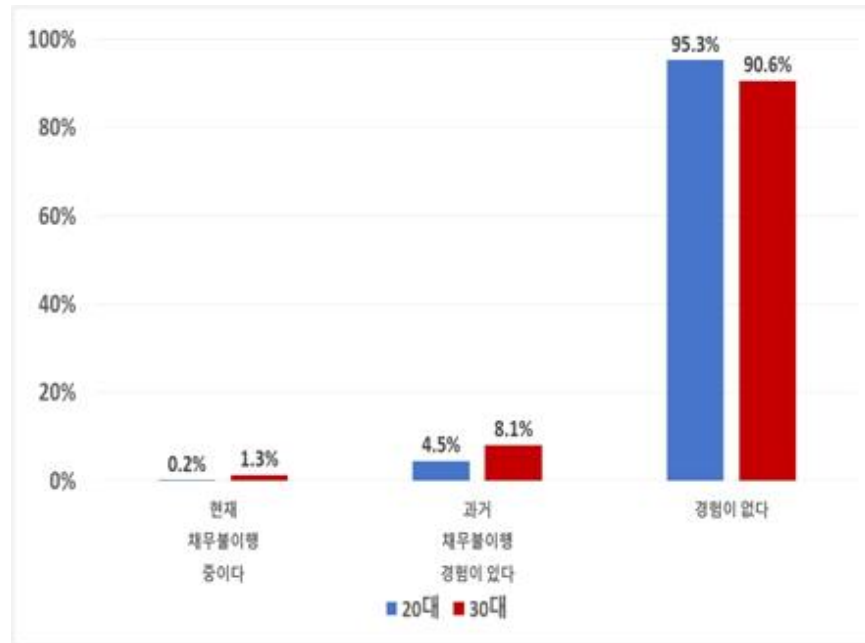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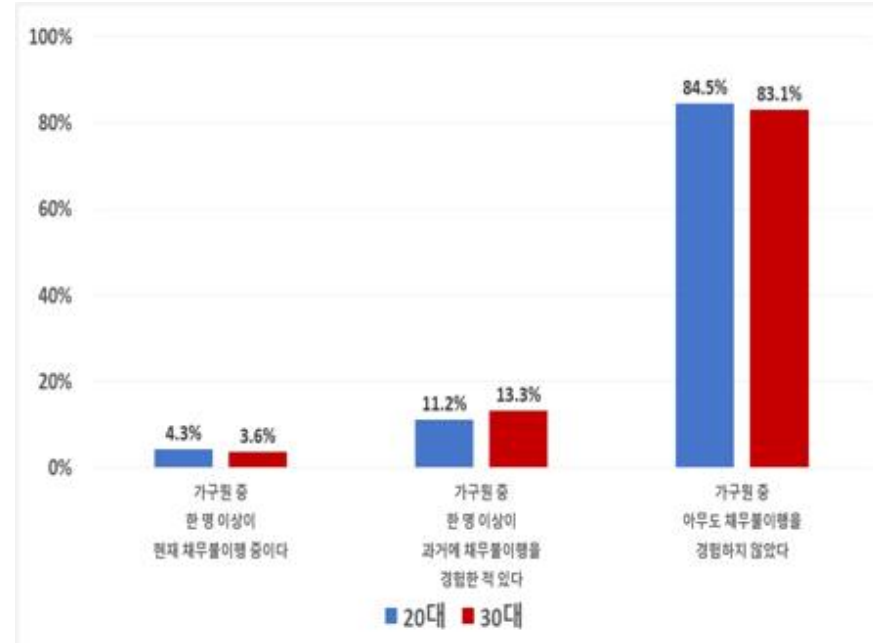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연체 시 주 해결 방법 (중복응답)>

[그림 4-3-2-2] 신용 및 연체 현황 II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 여부]



<다른 가구원(본인제외) 중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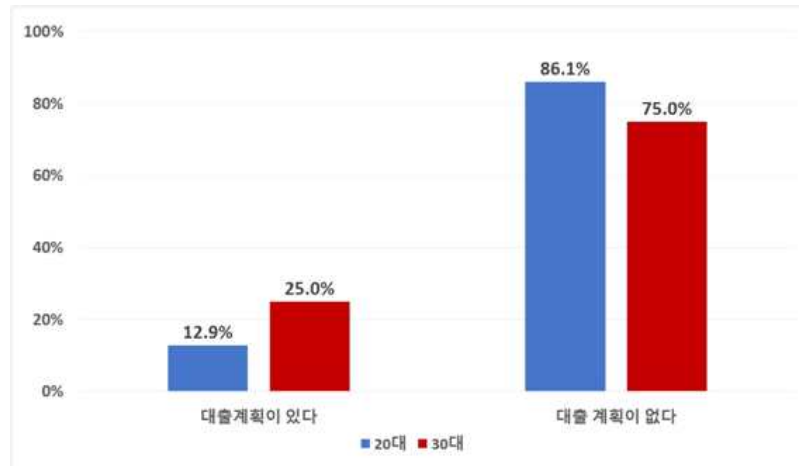
[그림 4-3-2-3] 신용 및 연체 현황 III

④ 대출 계획

- 20대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12.9%였음
 - 30대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25.0%였음
- 대출계획이 있는 20대 응답자 중 대출 받고자 하는 용도는 전세보증금(40.3%), 주택구입(32.3%), 생활비(11.3%), 대학학자금(11.3%), 자동차(6.5%), 투자 목적(4.8%),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4.8%), 창업준비(3.2%), 월세(3.2%), 결혼(3.2%), 취업준비(1.6%), 자녀교육비/보육비(1.6%)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주택구입(61.2%), 전세보증금(23.0%), 생활비(17.3%), 자동차(11.5%), 투자 목적(5.8%),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4.3%), 창업준비(4.3%), 가족의 대출 요청(3.6%), 월세(2.2%), 취업준비(2.2%), 대학학자금(1.4%), 병원비(1.4%), 결혼(0.7%)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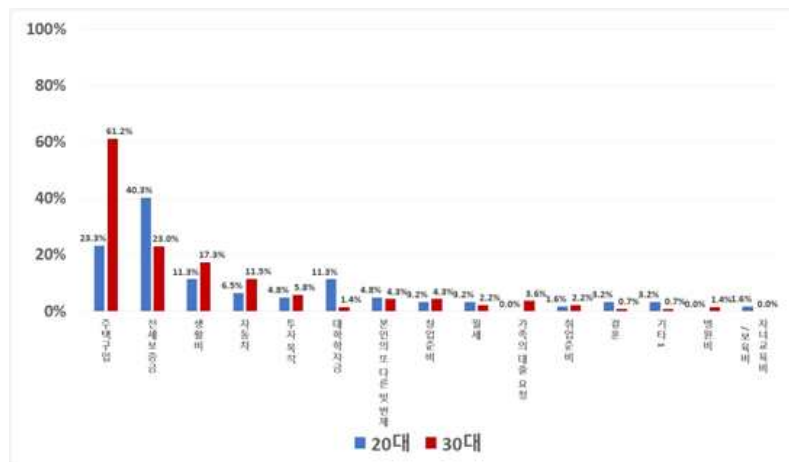
<표 4-1-5-14> 응답자의 대출계획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대출계획이 있다	62	12.9	139	25.0
	대출 계획이 없다	383	86.1	416	75.0
대출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대출 받고자 하는 용도 (중복응답)	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	20	32.3	85	61.2
	전세보증금	25	40.3	32	23.0
	생활비(식비, 사교비, 교통비 등)	7	11.3	24	17.3
	자동차	4	6.5	16	11.5
	투자 목적(주식, 코인 등)	3	4.8	8	5.8
	대학학자금	7	11.3	2	1.4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3	4.8	6	4.3
	창업준비	2	3.2	6	4.3
	월세(관리비 포함)	2	3.2	3	2.2
	가족의 대출 요청	0	0	5	3.6
	취업준비	1	1.6	3	2.2
	결혼	2	3.2	1	0.7
	기타 1	2	3.2	1	0.7
	병원비	0	0	2	1.4
	자녀교육비/보육비	1	1.6	0	0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그림 4-3-3] 대출계획 유무



<대출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대출 받고자 하는 용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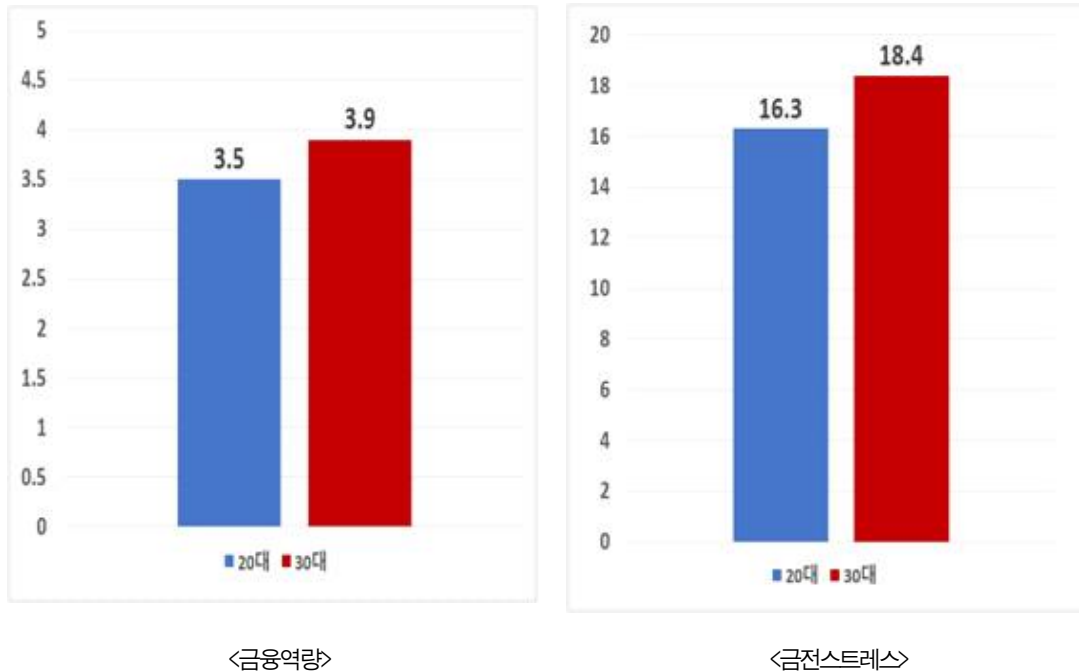
[그림 4-3-4] 대출계획의 용도

6) 금융역량과 재무건전성에 따른 비교

- 20대 응답자의 금융역량은 8점 만점에서 3.5점, 금전스트레스는 40점 만점에서 16.3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금융역량은 3.9점, 금전스트레스는 18.4점으로, 20대 응답자 평균에 비해 금융역량은 조금 더 높고, 재무스트레스도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5-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금융역량	445	3.5	1.9	555	3.9	1.6
금전스트레스	445	16.3	7.6	555	18.4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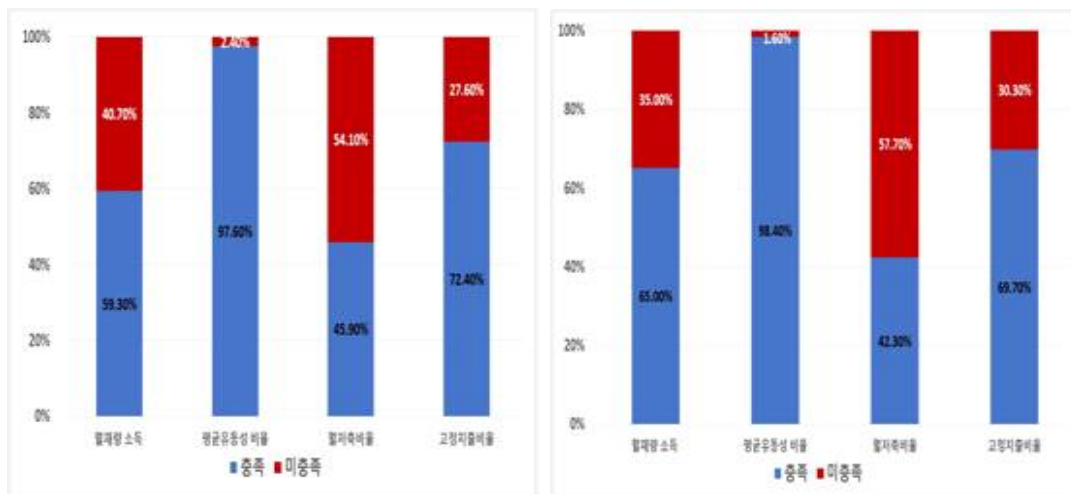
[그림 4-3-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 월재량 소득 여부를 살펴본 결과, 20대 응답자의 59.3%가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일명 흑자가구인 것으로 확인됨
 - 30대 응답자의 경우 월재량 소득 충족률은 65.0%였음
- 평균유동성 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97.6%가 2개월 치 월지출보다 많은 총 저축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응답자의 평균유동성 충족률은 98.4%로 20대 응답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음
- 월저축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45.9%가 월소득의 10%정도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0대 응답자의 월저축비율은 42.3%로 20대 응답자보다 낮은 편이었음

- 고정지출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20대 응답자의 72.4%가 고정지출을 월소득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30대 응답자의 고정지출비율 충족률은 69.7%로 20대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음

<표 4-1-5-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재량 소득	264	59.3	181	40.7	361	65.0	197	35.0
평균유동성 비율	406	97.6	10	2.4	493	98.4	8	1.6
월저축비율	191	45.9	225	54.1	212	42.3	289	57.7
고정지출비율	301	72.4	115	27.6	349	69.7	152	30.3



<20대의 충족비율>

<30대의 충족비율>

[그림 4-3-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6) 청년부채 관련 정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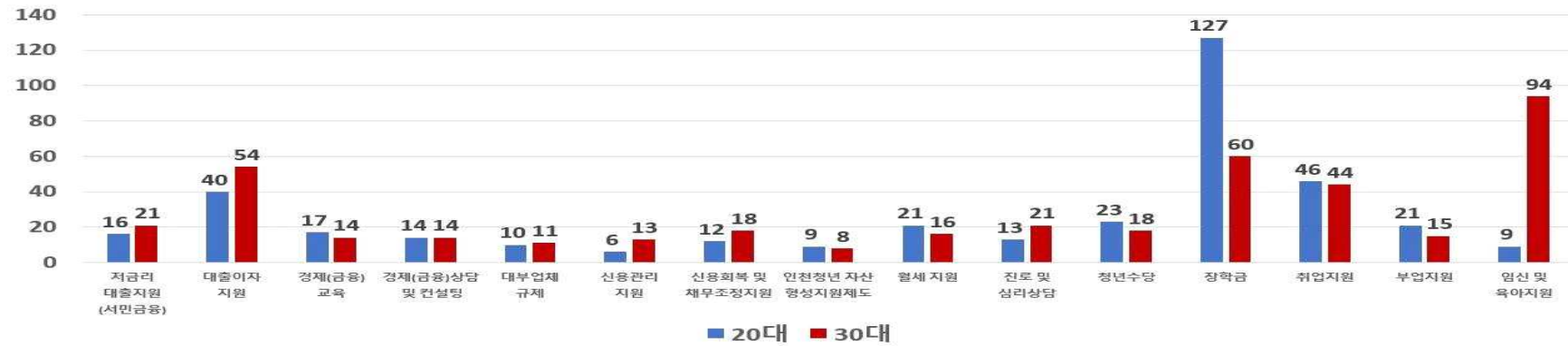
① 청년부채 관련 사업 이용률과 이용의향

- 20대 응답자의 경우 연구진이 포괄적으로 제안한 청년부채 관련 사업 총 15개 가운데, 전체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사업은 장학금(28.5%)이었으며, 그 다음은 취업지원(10.3%), 대출이자지원(9.0%), 청년수당(5.2%)의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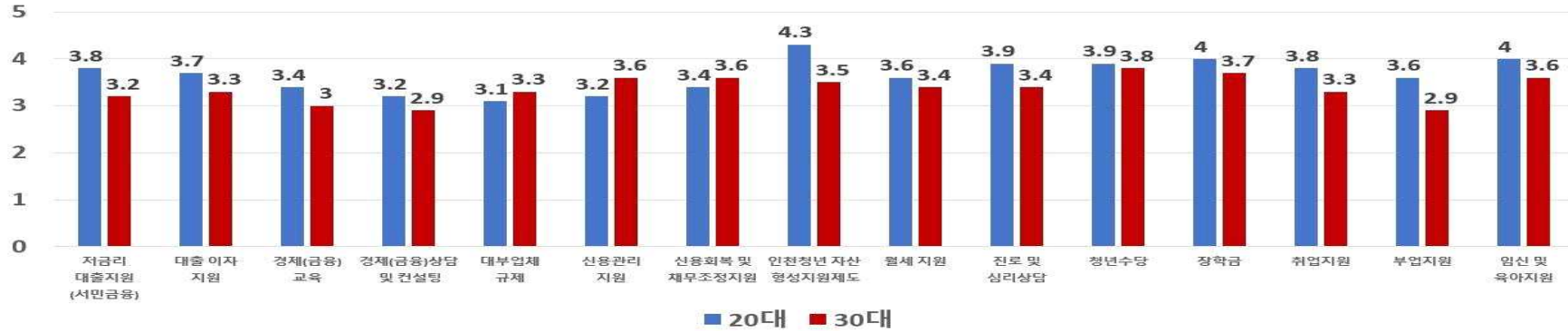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임신 및 육아지원이 46.9%로 가장 높았으며, 장학금(10.8%), 대출이자지원(9.7%), 취업지원(7.9%)의 순이었음
- 20대 응답자가 참여해 본 사업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4.3점)이었으며, 장학금(4.0점), 임신 및 육아지원(4.0점), 진로 및 심리상담(3.9점), 청년수당(3.9점)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었으며, 대부업체 규제(3.1점), 경제상담 및 컨설팅(3.2점), 신용관리 지원(3.2점)의 만족도는 낮았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는 청년수당(3.8점)이 가장 높았으며, 장학금(3.7점), 신용관리 지원(3.6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3.6점), 임신 및 육아지원(3.6점)의 순이었으며, 경제상담 및 컨설팅(2.9점), 부업지원(2.9점), 경제교육(3.0점)의 만족도는 낮았음
-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총 15개 사업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20대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4점대 초반으로 의견을 표시했음
- 30대 응답자의 인식은 20대 응답자 평균에 비해 더 부정적인 것으로 평균 점수를 통해 확인되었음
- 20대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업은 장학금(4.3점)과 취업지원(4.3점), 대출 이자 지원(4.2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4.2점), 청년수당(4.2점), 부업지원(4.2점), 임신 및 육아지원(4.2점)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임신 및 육아지원(4.3점), 대출이자지원(4.1점), 대부업체 규제(4.1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4.1점), 장학금(4.1점), 취업지원(4.1점)의 순이었으며, 대부업체 규제, 신용관리 지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 20대 응답자가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장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은 청년수당(4.0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8점), 취업지원(3.8점), 부업지원(3.6점), 월세 지원(3.5점), 진로 및 심리상담(3.5점)의 순이었음
- 30대 응답자는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5점), 임신 및 육아지원(3.5점), 청년수당(3.4점), 월세 지원(3.2점), 진로 및 심리상담(3.2점)에 대한 참여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4-1-5-17>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이용경험 (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이용경험 (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관 사업	저금리 대출지원(서민금융)	16	3.6	3.8	1.0	4.1	1.2	3.3	1.6	21	3.8	3.2	1.3	4.0	1.3	3.1	1.8
	대출 이자 지원	40	9.0	3.7	1.0	4.2	1.0	3.1	1.6	54	9.7	3.3	1.1	4.1	1.2	2.9	1.8
	경제(금융)교육	17	3.8	3.4	1.0	3.9	1.1	3.3	1.5	14	2.5	3.0	1.0	3.9	1.3	3.1	1.7
	경제(금융)상담 및 컨설팅	14	3.1	3.2	1.1	3.9	1.2	3.4	1.5	14	2.5	2.9	1.3	3.9	1.3	3.2	1.7
	대부업체 규제	10	2.2	3.1	1.0	3.9	1.3	3.1	1.6	11	2.0	3.3	1.2	4.1	1.3	3.0	1.8
	신용관리 지원	6	1.3	3.2	0.8	3.8	1.2	3.2	1.5	13	2.3	3.6	0.8	3.9	1.3	3.1	1.8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	12	2.7	3.4	1.3	3.9	1.2	3.1	1.6	18	3.2	3.6	1.1	4.0	1.3	3.0	1.8
	인천청년 자산 형성지원제도	9	2.0	4.3	0.5	4.2	1.0	3.8	1.4	8	1.4	3.5	1.3	4.1	1.3	3.5	1.7
	월세 지원	21	4.7	3.6	0.7	4.1	1.1	3.5	1.5	16	2.9	3.4	1.3	3.9	1.3	3.2	1.7
	진로 및 심리상담	13	2.9	3.9	0.9	4.1	1.1	3.5	1.4	21	3.8	3.4	1.2	3.9	1.3	3.2	1.7
	청년수당	23	5.2	3.9	0.7	4.2	1.2	4.0	1.4	18	3.2	3.8	1.1	3.8	1.5	3.4	1.7
	장학금	127	28.5	4.0	0.9	4.3	1.1	3.5	1.6	60	10.8	3.7	1.0	4.1	1.2	2.9	1.8
	취업지원	46	10.3	3.8	0.9	4.3	1.0	3.8	1.4	44	7.9	3.3	1.1	4.1	1.2	3.2	1.7
	부업지원	21	4.7	3.6	0.6	4.2	1.1	3.6	1.4	15	2.7	2.9	1.2	3.9	1.3	3.1	1.8
	임신 및 육아지원	9	2.0	4.0	1.0	4.2	1.1	3.4	1.6	94	46.9	3.6	1.0	4.3	1.2	3.5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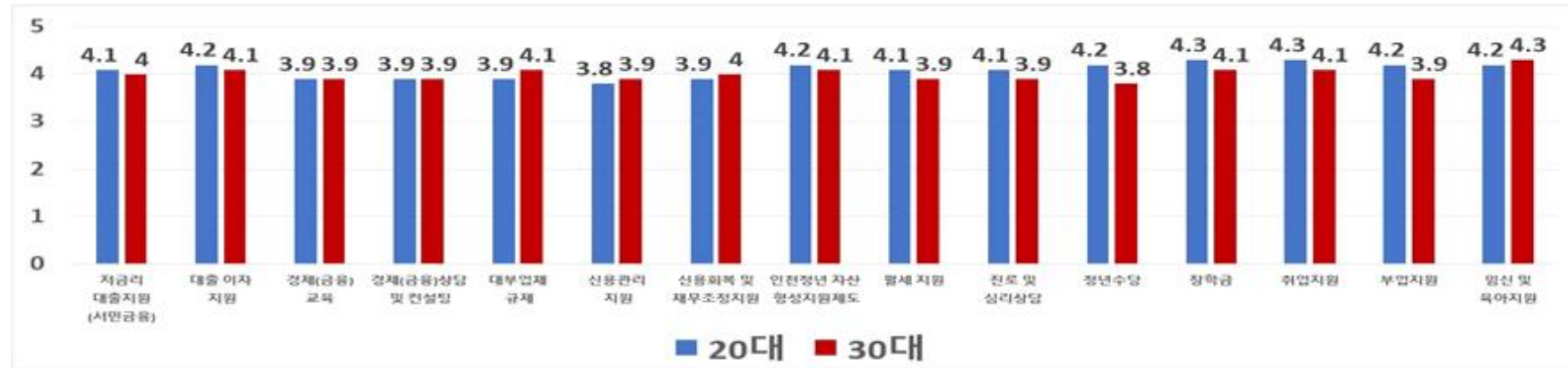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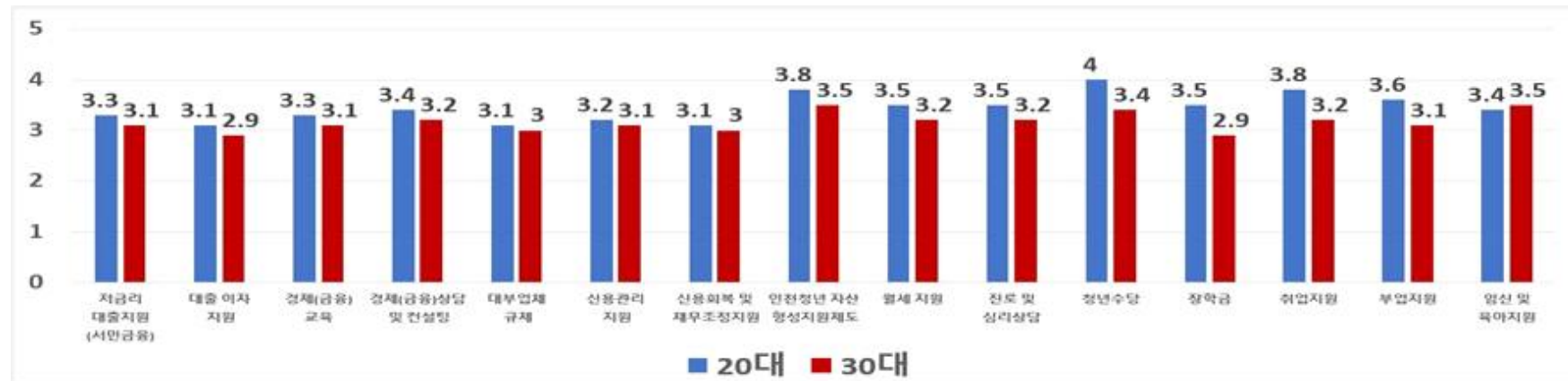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그림 4-3-7]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청년부채 문제 해소방안으로서의 사업 중요도>



<향후 6개월 이내 청년부채 지원 사업 이용 의향>

[그림 4-3-8]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② 청년부채 관련 청년 의견

-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묻는 개방질문에 20대 응답자의 64.9%, 30대 응답자의 63.6%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음
- 극히 작은 비율(20대 응답자의 0.2%, 30대 응답자의 1.8%)이지만, 부채는 본인 책임이며,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청년부채 해소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8.8%)이었으며,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2.5%), 기존 사업 홍보 강화(2.2%), 취업 연계(1.6%),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1.3%), 대학등록금 삭감 및 학자금 지원(1.3%),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1.1%),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1.1%), 청년 주거 지원(1.1%)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4.3%),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4.0%),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프로그램 확대(2.3%),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2.2%),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2.2%),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2.0%), 청년 지원금 제공(2.0%) 등의 순이었음

<표 4-1-5-18>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의견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45	100	555	100
없음/모름/무응답	289	64.9	353	63.6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39	8.8	24	4.3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	11	2.5	12	2.2
기존 사업 홍보 강화(지원금 신청방법 등)	10	2.2	6	1.1
취업 연계	7	1.6	0	0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	6	1.3	11	2.0
대학등록금 삭감 및 학자금 지원(대출이자 감면)	6	1.3	5	0.9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	5	1.1	22	4.0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5	1.1	13	2.3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5	1.1	12	2.2
청년 주거 지원	5	1.1	2	0.4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사업 확대	4	0.9	2	0.4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서울/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참고, 인천 청년사업 개선 및 확대	4	0.9	3	0.5
대출관련 혜택 및 무이자 대출 확대	4	0.9	2	0.4
경기 부양	3	0.7	0	0
청년지원 수당 확대	3	0.7	0	0
청년 지원금 제공	3	0.7	11	2.0
대출상환 능력 없을 시 대출 제한 및 조건 강화	3	0.7	7	1.3
임대주택 공급 개선	2	0.4	1	0.2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 교육	2	0.4	0	0
부동산 안정화 정책	2	0.4	4	0.7
기본소득 제공	2	0.4	1	0.2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경제 독립을 돕는 지원 사업	2	0.4	6	1.1
임금 상향	2	0.4	5	0.9
지원대상 요건 검토 강화	2	0.4	0	0
대출심사요건 완화	2	0.4	0	0
취업 안정	1	0.2	0	0
청년 대출 확대	1	0.2	0	0
성실한 근로자 대상 부채 감면 제도	1	0.2	0	0
부채는 본인 책임이며, 지원해줄 필요 없음	1	0.2	10	1.8
현행 유지	1	0.2	4	0.7
무분별한 세금납비 유의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필요	1	0.2	4	0.7
시장자율에 맡기기	1	0.2	2	0.4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1	0.2	7	1.3
창업비 지원	1	0.2	0	0
재난지원금 지급 빈도 상향	1	0.2	0	0
청년 저신용대출 연봉 3배까지 가능하도록	1	0.2	0	0
청년 의견 수렴 및 현장 반영	1	0.2	0	0
세금 활용한 지원 확대	1	0.2	0	0
합법적 대부업체 정보 제공	1	0.2	1	0.2
정책 실행 시 지속적으로 운영	1	0.2	1	0.2
현실에 맞는 정책 필요	1	0.2	0	0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수당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우려	1	0.2	0	0
포퓰리즘 억제	0	0	1	0.2
신속한 지원	0	0	0	0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사업 확대	0	0	2	0.4
불필요한 신청서류 단순화	0	0	0	0
이자 관련 지원	0	0	3	0.5
인천시 내 청년 부채 지원 대책 확립	0	0	1	0.2
청년1인 가구 지원 확대	0	0	1	0.2
조건이 좋은 대출상품 출시	0	0	1	0.2
투기조장 분위기 억제	0	0	1	0.2
맞춤형 대출 상품 안내	0	0	0	0
부채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	0	0	1	0.2
지역인재 가점 부여	0	0	1	0.2
상속 등 집안사정으로 인한 부채 상황 지원사업	0	0	2	0.4
행정 소외지역(영종)	0	0	1	0.2
대부업체 광고 제재 및 불법 사채 강력 단속	0	0	2	0.4
부채절감 서류 단순화	0	0	1	0.2
청년 나이 범위 상향 조정	0	0	3	0.5
규제완화	0	0	1	0.2
교육비 지원	0	0	0	0
청렴한 행정 필요	0	0	1	0.2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 지원사업	0	0	1	0.2

7) 심리정서 상태에 따른 비교

- 20대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은 50점 만점에 33.6점이었으며, 미래지향은 40점 만점에 27.5점, 우울감은 44점 만점에 19.6점이었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32.7점, 미래지향은 27.4점, 우울감은 20.6점으로 20대 응답자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심리정서상태 수준을 보였음

<표 4-1-5-19>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445	33.6	6.2	555	32.7	6.8
미래지향	445	27.5	5.0	555	27.4	5.0
우울감	445	19.6	6.7	555	20.6	7.4

8)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연구진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에서 20대 응답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실제 변화는 고독감 증가(28.3%), 소득감소(22.9%), 노동시간 감소(22.5%), 월 저축액 감소(21.3%)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12.4%),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10.6%)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에도 고독감 증가가 24.7%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 감소(22.5%), 월 저축액 감소(22.2%),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21.4%), 노동시간 감소(17.7%), 부채 증가(14.8%),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12.6%), 무급휴직 경험(10.1%), 개인 신용점수 낮아짐(9.7%) 등의 순이었으며, 20대 응답자에 비해 부채 증가나 개인 신용점수 하락의 비율이 높았음

<표 4-1-5-20>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구 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445명)	100%	(555명)	100%
노동시간 감소	예	100	22.5	98	17.7
	아니오	178	40.0	272	49.0
	해당없음	167	37.5	185	33.3
소득 감소	예	102	22.9	125	22.5
	아니오	179	40.2	256	46.1
	해당없음	164	36.9	174	31.4
임금 미지급(연체)	예	31	7.0	41	7.4
	아니오	221	49.7	309	55.7
	해당없음	193	43.4	205	36.9
무급휴직 경험	예	26	5.8	56	10.1
	아니오	211	47.4	286	51.5
	해당없음	208	46.7	213	38.4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	예	47	10.6	119	21.4
	아니오	185	41.6	228	41.1
	해당없음	213	47.9	208	37.5
월 저축액 감소	예	95	21.3	123	22.2
	아니오	198	44.5	262	47.2
	해당없음	152	34.2	170	30.6

구 분		20대		30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예	55	12.4	70	12.6
	아니오	230	51.7	306	55.1
	해당없음	160	36.0	179	32.3
보험 해약	예	19	4.3	38	6.8
	아니오	251	56.4	322	58.0
	해당없음	175	39.3	195	35.1
부채 증가	예	28	6.3	82	14.8
	아니오	228	51.2	275	49.5
	해당없음	189	42.5	198	35.7
개인 신용점수 낮아짐	예	24	5.4	54	9.7
	아니오	231	51.9	290	52.3
	해당없음	190	42.7	211	38.0
고독감 증가	예	126	28.3	137	24.7
	아니오	177	39.8	244	44.0
	해당없음	142	31.9	174	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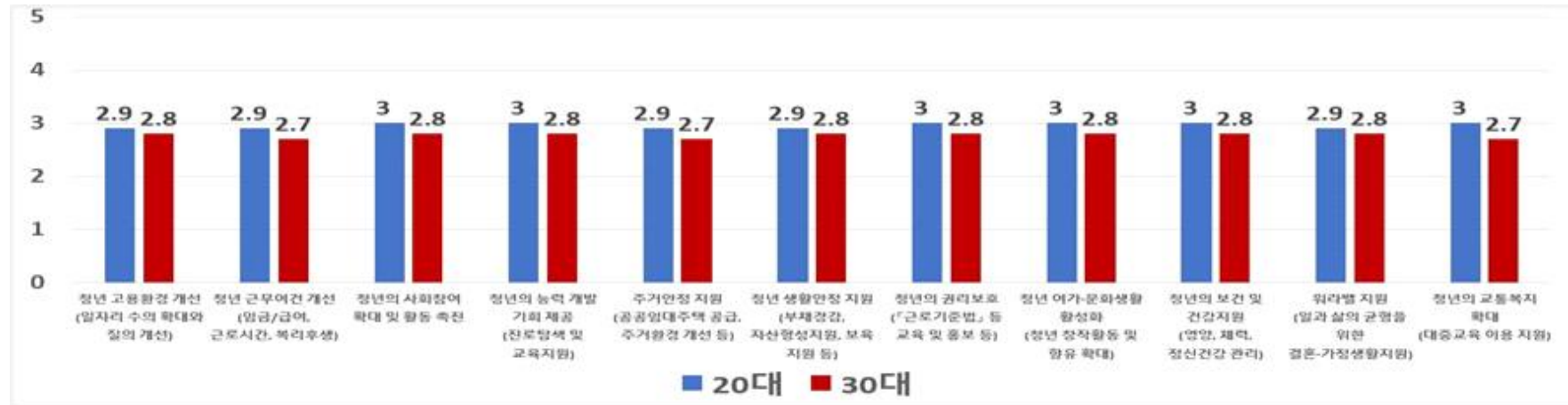
9)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해 영역별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20대 응답자의 경우 모든 개별 사업영역에서 2.9-3.0점의 만족도를 보였음
- 30대 응답자의 경우 모든 사업영역에서 20대 응답자보다 조금 낮았으며, 평균적으로 2점대 후반의 만족도를 보였음

<표 4-1-5-21>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수의 확대와 질의 개선)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3	5.2	54	9.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05	23.6	117	21.1
	보통이다 (3점)	240	53.9	310	55.9
	만족하는 편이다 (4점)	67	15.1	60	10.8
	매우 만족한다 (5점)	10	2.2	14	2.5
	평균 (표준편차)	2.9 (0.8)		2.8 (0.9)	
청년 근무여건 개선 (임금/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3	5.2	51	9.2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13	25.4	134	24.1
	보통이다 (3점)	205	46.1	288	51.9
	만족하는 편이다 (4점)	91	20.4	73	13.2
	매우 만족한다 (5점)	13	2.9	9	1.6
	평균 (표준편차)	2.9 (0.9)		2.7 (0.9)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촉진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19	4.3	45	8.1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87	19.6	111	20.0
	보통이다 (3점)	238	53.5	312	56.2
	만족하는 편이다 (4점)	86	19.3	73	13.2
	매우 만족한다 (5점)	15	3.4	14	2.5
	평균 (표준편차)	3.0 (0.8)		2.8 (0.9)	

구 분		20대 (N=445)		30대 (N=555)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의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진로탐색 및 교육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1	4.7	47	8.5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94	21.1	100	18.0
	보통이다 (3점)	227	51.0	319	57.5
	만족하는 편이다 (4점)	92	20.7	75	13.5
	매우 만족한다 (5점)	11	2.5	14	2.5
	평균 (표준편차)	3.0 (0.8)		2.8 (0.9)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40	9.0	71	12.8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93	20.9	139	25.0
	보통이다 (3점)	217	48.8	254	45.8
	만족하는 편이다 (4점)	83	18.7	71	12.8
	매우 만족한다 (5점)	12	2.7	20	3.6
	평균 (표준편차)	2.9 (0.9)		2.7 (1.0)	
청년 생활안정 지원 (부채경감, 자산형성지원, 보육 지원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4	5.4	57	10.3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95	21.3	123	22.2
	보통이다 (3점)	234	52.6	283	51.0
	만족하는 편이다 (4점)	82	18.4	77	13.9
	매우 만족한다 (5점)	10	2.2	15	2.7
	평균 (표준편차)	2.9 (0.8)		2.8 (0.9)	
청년의 권리보호 (「근로기준법」 등 교육 및 홍보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19	4.3	53	9.5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87	19.6	109	19.6
	보통이다 (3점)	238	53.5	290	52.3
	만족하는 편이다 (4점)	90	20.2	83	15.0
	매우 만족한다 (5점)	11	2.5	20	3.6
	평균 (표준편차)	3.0 (0.8)		2.8 (0.9)	
청년 여가·문화생활 활성화 (청년 창작활동 및 향유 확대)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1	4.7	50	9.0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82	18.4	116	20.9
	보통이다 (3점)	230	51.7	300	54.1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01	22.7	73	13.2
	매우 만족한다 (5점)	11	2.5	16	2.9
	평균 (표준편차)	3.0 (0.8)		2.8 (0.9)	
청년의 보건 및 건강지원 (영양, 체력, 정신건강 관리)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16	3.6	50	9.0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86	19.3	102	18.4
	보통이다 (3점)	224	50.3	309	55.7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07	24.0	78	14.1
	매우 만족한다 (5점)	12	2.7	16	2.9
	평균 (표준편차)	3.0 (0.8)		2.8 (0.9)	
위라벨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결혼·가정생활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23	5.2	65	11.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13	25.4	116	20.9
	보통이다 (3점)	219	49.2	275	49.5
	만족하는 편이다 (4점)	77	17.3	83	15.0
	매우 만족한다 (5점)	13	2.9	16	2.9
	평균 (표준편차)	2.9 (0.9)		2.8 (0.9)	
청년의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통 이용 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18	4.0	62	11.2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77	17.3	113	20.4
	보통이다 (3점)	236	53.0	298	53.7
	만족하는 편이다 (4점)	97	21.8	72	13.0
	매우 만족한다 (5점)	17	3.8	10	1.8
	평균 (표준편차)	3.0 (0.8)		2.7 (0.9)	



〈인천시 청년 정책 만족도 그래프〉

[그림 4-3-9]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5. 부채유형별 비교 분석

1)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교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남성은 51.5%, 여성은 48.5%로 성별차이가 거의 없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남성(56.5%)이 여성(43.5%)보다 많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남성(55.6%)이 여성(44.4%)보다 많았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4.2세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0.8세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평균연령은 34.3세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23.8%, 4년제 재학자가 0%, 4년제 졸업자가 50.5%일 정도로 학력수준은 높은 편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21.7%, 4년제 재학자가 8.7%, 4년제 졸업자가 39.1%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19.0%, 4년제 재학자가 1.6%, 4년제 졸업자가 50.8%였음

<표 4-1-4-1> 응답자의 인구사회 특성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1)	비율	빈도(N=115)	비율	빈도(N=63)	비율
성 별	남성	52	51.5	65	56.5	35	55.6
	여성	49	48.5	50	43.5	28	44.4
연령대	만 19~24세	2	2.0	17	14.8	2	3.2
	만 25~29세	11	10.9	30	26.1	7	11.1
	만 30~34세	32	31.7	35	30.4	21	33.3
	만 35~39세	56	55.4	33	28.7	33	52.4
	평균(표준편차)	34.2 (3.8)		30.8 (5.2)		34.3 (4.0)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1)	비율	빈도(N=115)	비율	빈도(N=63)	비율
최종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0	0	0	0	0	0
	고등학교 중퇴	1	1.0	1	0.9	0	0
	고등학교 졸업	13	12.9	14	12.2	7	11.1
	2·3년제 대학 중퇴	0	0	6	5.2	2	3.2
	2·3년제 대학 재학 중	1	1.0	0	0	2	3.2
	2·3년제 대학 졸업	24	23.8	25	21.7	12	19.0
	4년제 대학 중퇴	2	2.0	0	0	1	1.6
	4년제 대학 재학 중	0	0	10	8.7	1	1.6
	4년제 대학 졸업	51	50.5	45	39.1	32	50.8
	대학원 재학 중	2	2.0	6	5.2	1	1.6
	대학원 졸업	7	6.9	8	7.0	5	7.9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기혼이 65.3%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비혼은 33.7%를 차지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미혼/비혼이 84.3%로 가장 많았으며, 기혼은 13.0%였음
 - 주거+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기혼이 66.7%로 가장 많았으며, 미혼/비혼이 33.3%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4.4%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38.6%, 부모(17.8%), 단독가구(16.8%), 형제/자매(8.9%)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61.7%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형제/자매(43.5%), 단독가구(20.9%), 배우자(13.0%), 자녀(9.6%), 조부모님(5.2%), 친인척(0.9%)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66.7%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가 39.7%였으며, 부모(17.5%), 단독가구(14.3%), 형제/자매(12.7%), 친구/지인(3.2%)의 순이었음
- 응답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수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평균 2.5명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3.0명으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조금 많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가 2.6명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는 2명이 49.5%로 가장 많았으며, 1명(41.6%), 3명(6.9%), 4명(2.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명(36.5%), 1명(34.8%), 3명(20.9%), 4명(7.8%)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명(54.0%), 1명(38.1%), 3명(4.8%), 4명(1.6%), 6명(1.6%)의 순이었음
-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를 보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62.4%,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25.7%,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는 11.9%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가구주의 자녀인 경우는 53.9%, 응답자 본인이 가구주인 경우는 36.5%, 가구주의 배우자인 경우는 6.1%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가구주 본인인 경우는 58.7%, 가구주의 배우자(28.6%), 가구주의 자녀(12.7%)였음

<표 4-1-4-2> 응답자의 가구 특성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결혼상태	미혼/비혼	34	33.7	97	84.3	21	33.3
	기혼	66	65.3	15	13.0	42	66.7
	이혼	1	1.0	3	2.6	0	0
	사별	0	0	0	0	0	0
가구구성원	부모	18	17.8	71	61.7	11	17.5
	형제/자매	9	8.9	50	43.5	8	12.7
	배우자	65	64.4	15	13.0	42	66.7
	자녀	39	38.6	11	9.6	25	39.7
	본인만(단독가구)	17	16.8	24	20.9	9	14.3
	조부모님	0	0	6	5.2	0	0
	친구/지인	0	0	0	0	2	3.2
	친인척	0	0	1	0.9	0	0
가구원 수	1명	42	41.6	24	20.9	9	14.3
	2명	50	49.5	15	12.0	20	31.7
	3명	7	6.9	29	25.2	22	34.9
	4명	2	2.0	43	29.6	10	15.9
	5명	0	0	12	10.4	1	1.6
	6명 이상	0	0	1	0.9	1	1.6
	평균(표준편차)	2.5 (1.0)		3.0 (1.4)		2.6 (1.0)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 수	1명	42	41.6	40	34.8	24	38.1
	2명	50	49.5	42	36.5	34	54.0
	3명	7	6.9	24	20.9	3	4.8
	4명	2	2.0	9	7.8	1	1.6
	5명	0	0	0	0	0	0
	6명	0	0	0	0	1	1.6
	평균(표준편차)	1.6 (0.6)		2.0 (0.9)		1.7 (0.8)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가구주와의 관계	가구주 본인	63	62.4	42	36.5	37	58.7
	가구주의 자녀	12	11.9	62	53.9	8	12.7
	가구주의 배우자	26	25.7	7	6.1	18	28.6
	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0	0	1	0.9	0	0
	기타	0	0	3	2.6	0	0

2) 거주 및 주거 특성에 따른 비교

- 주거관련대출응답자의 거주지를 보면, 남동구(17.8%), 연수구(16.8%), 부평구(15.8%), 서구(15.8%), 계양구(12.9%)가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1.0%)과 옹진군(2.0%)이 가장 적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인구분포는 서구(19.1%), 남동구(18.3%), 연수구(14.8%)가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0.0%)과, 동구(1.7%)가 가장 적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서구(23.8%), 연수구(20.6%), 남동구(17.5%)가 가장 많았으며, 옹진군(0.0%)과 강화군(1.6%)이 가장 적었음
- 성인(만 18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역을 옮긴 사례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36.6%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0%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38.1%였음
- 이주 전 거주지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서울(32.4%)과 경기(27.0%)에 집중되어 있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도 서울(39.1%)과 경기(21.7%)에 집중되어 있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서울(37.5%)과 경기(20.8%)에 집중되어 있었음
- 이주 시기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12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10년 이후에 집중되어 있었음
-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주된 이유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취업 및 창업(62.2%), 결혼(27.0%), 학업(8.1%)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취업 및 창업(65.2%), 학업(17.4%), 결혼(8.7%)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취업 및 창업(37.5%), 결혼(37.5%), 학업(20.8%)의 순이었음

<표 4-1-4-3> 응답자의 거주 특성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거주지역	중구	3	3.0	6	5.2	5	7.9
	동구	5	5.0	2	1.7	2	3.2
	미추홀구	10	9.9	16	13.9	6	9.5
	연수구	17	16.8	17	14.8	13	20.6
	남동구	18	17.8	21	18.3	11	17.5
	부평구	16	15.8	13	11.3	8	12.7
	계양구	13	12.9	14	12.2	2	3.2
	서구	16	15.8	22	19.1	15	23.8
	강화군	1	1.0	4	3.5	1	1.6
	옹진군	2	2.0	0	0	0	0
성인이후 인천으로 거주지 변경 여부	예	37	36.6	23	20.0	24	38.1
	아니오	64	63.4	92	80.0	39	61.9
이전에 거주했던 지역	서울	12	32.4	9	39.1	9	37.5
	부산	3	8.1	0	0	1	4.2
	대구	1	2.7	1	4.3	2	8.3
	대전	1	2.7	0	0	0	0
	광주	1	2.7	1	4.3	0	0
	경기	10	27.0	5	21.7	5	20.8
	강원	3	8.1	0	0	1	4.2
	충남	1	2.7	2	8.7	1	4.2
	충북	0	0	0	0	2	8.3
	경남	1	2.7	2	8.7	0	0
	경북	2	5.4	0	0	1	4.2
	전남	0	0	3	13.0	1	4.2
	전북	1	2.7	0	0	0	0
	제주	0	0	0	0	1	4.2
	해외	1	2.7	0	0	0	0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연도	2000	0	0	0	0	1	4.2
	2001	0	0	2	8.7	1	4.2
	2002	1	2.7	0	0	0	0
	2003	0	0	1	4.3	0	0
	2005	0	0	1	4.3	1	4.2
	2006	1	2.7	0	0	1	4.2
	2007	0	0	0	0	0	0
	2008	0	0	0	0	1	4.2
	2009	2	5.4	0	0	0	0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10	3	8.1	1	4.3	2	8.3
	2011	3	8.1	0	0	0	0
	2012	7	18.9	3	13.0	1	4.2
	2013	2	5.4	1	4.3	3	12.5
	2014	0	0	1	4.3	1	4.2
	2015	3	8.1	2	8.7	3	12.5
	2016	1	2.7	1	4.3	1	4.2
	2017	7	18.9	1	4.3	4	16.7
	2018	2	5.4	2	8.7	3	12.5
	2019	1	2.7	3	13.0	1	4.2
	2020	3	8.1	3	13.0	0	0
	2021	1	2.7	1	4.3	0	0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한 이유	취업 및 창업	23	62.2	15	65.2	9	37.5
	결혼	10	27.0	2	8.7	9	37.5
	학업	3	8.1	4	17.4	5	20.8
	기타	1	2.7	2	8.7	1	4.2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70.3%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다세대/연립주택(14.9%), 오피스텔(8.9%), 다가구 단독주택(4.0%), 원룸(2.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아파트(44.3%), 다세대/연립주택(30.4%), 원룸(9.6%), 다가구 단독주택(7.8%), 일반단독주택(4.3%), 오피스텔(2.6%), 영업 겸용 단독 주택(0.9%)의 순이었음
 - 주거+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절반 이상이 아파트(57.1%)에 거주하였으며, 다세대/연립주택(17.5%), 오피스텔(14.3%), 다가구 단독주택(7.9%), 원룸(3.2%)의 순이었음
- 청년 1인 가구의 주택유형을 보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오피스텔(29.4%), 다세대/연립주택(23.5%), 아파트(23.5%)가 가장 많았고, 다가구 단독주택(17.6%), 원룸(5.9%)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원룸이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연립주택(33.3%), 아파트(12.5%), 오피스텔(8.3%), 다가구 단독주택(8.3%)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다세대/연립주택(33.3%)과 오피스텔(33.3%)이 가장 많았으며, 원룸(22.2%), 다가구 단독주택(11.1%)의 순이었음
-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를 보면, 가장 많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자가(67.3%)라고 답했으며, 그 다음은 전세(24.8%), 보증금 있는 월세(7.9%)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자가(53.0%), 보증금 있는 월세(21.7%), 전세(19.1%), 보증금 없는 월세(4.3%)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전세(49.2%), 자가(42.9%), 보증금 있는 월세(7.9%)의 순이었음

○ 1인 청년가구의 경우,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전세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보증금 있는 월세(29.4%), 자가(17.6%)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보증금 있는 월세가 50.0%로 가장 많았고, 전세(25.0%), 보증금 없는 월세(16.7%), 자가(4.2%), 무상(4.2%)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전세가 66.7%, 보증금 있는 월세가 33.3%였음

<표 4-1-4-4> 응답자의 주거 특성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1)	비율	빈도(N=115)	비율	빈도(N=63)	비율
거주 중인 주택 유형	아파트	71	70.3	51	44.3	36	57.1
	다세대/연립주택	15	14.9	35	30.4	11	17.5
	일반단독주택	0	0	5	4.3	0	0
	다가구 단독주택	4	4.0	9	7.8	5	7.9
	오피스텔	9	8.9	3	2.6	9	14.3
	원룸	2	2.0	11	9.6	2	3.2
	영업 겸용 단독 주택	0	0	1	0.9	0	0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0	0	0	0	0	0
	쪽방	0	0	0	0	0	0
거주 중인 주택 유형 (1인 가구)	원룸	1	5.9	9	37.5	2	22.2
	다세대/연립주택	4	23.5	8	33.3	3	33.3
	오피스텔	5	29.4	2	8.3	3	33.3
	아파트	4	23.5	3	12.5	0	0
	다가구 단독주택	3	17.6	2	8.3	1	11.1
	일반단독주택	0	0	0	0	0	0
	쪽방	0	0	0	0	0	0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자가	68	67.3	61	53.0	27	42.9
	전세	25	24.8	22	19.1	31	49.2
	보증금 있는 월세	8	7.9	25	21.7	5	7.9
	보증금 없는 월세	0	0	5	4.3	0	0
	일세	0	0	1	0.9	0	0
	무상	0	0	1	0.9	0	0
	사글세 또는 연세	0	0	0	0	0	0
거주 중인 주택 점유 형태 (1인 가구)	보증금 있는 월세	5	29.4	12	50.0	3	33.3
	전세	9	52.9	6	25.0	6	66.7
	보증금 없는 월세	0	0	4	16.7	0	0
	자가	3	17.6	1	4.2	0	0
	무상	0	0	1	4.2	0	0
	일세	0	0	0	0	0	0

3) 응답자의 일에 따른 비교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현재 하는 일을 구분해 보면, 취업 중인 자가 78.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주부(9.9%), 취업준비(3.0%), 쉬고 있음(3.0%), 창업 중(3.0%), 취업을 위한 교육(2.0%), 정규교육기관 학업(1.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현재 하는 일은 취업 중인 자(60.0%), 취업준비(11.3%), 정규교육기관 학업(8.7%), 창업 중(7.0%), 쉬고 있음(4.3%), 취업을 위한 교육(3.5%), 진학준비(1.7%), 주부(1.7%),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0.9%), 군 입대 대기(0.9%)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취업 중인 자가 87.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부(6.3%), 창업 중(3.2%), 취업 준비(1.6%),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1.6%)의 순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일자리 고용형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87.8%로 가장 많았으며,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5.0%),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3.0%),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2.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정규직 임금근로자(74.0%),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10.4%),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6.5%),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5.2%),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3.9%)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는 정규직 임금근로자(80.7%),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8.8%),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5.3%),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3.5%),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임금근로자(1.8%)의 순이었음
- 일(취업, 창업)을 하고 있는 경우, 평균 종사기간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76.7개월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45.6개월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짧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55.8개월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짧았음
-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는 없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50.0%가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한달평균 아르바이트 시간은 53.0시간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없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아르바이트를 한 주된 이유는 생활비(40.0%)와 여행자금(20.0%), 취업을 위한 경험(20.0%), 학원비 등 취업준비(20.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60.0%가 코로나19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시간이 줄어들었음
-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2월 이후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19.8%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7.8%가 실직을 경험함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5.9%가 실직을 경험함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실직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 만료(20.0%), 권고사직(10.0%), 비자발적 해고(10.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퇴사가 34.4%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기간 만료(28.1%), 권고사직(18.8%), 비자발적 해고(18.8%)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발적 퇴사(20.0%), 권고사직(10.0%), 비자발적 해고(10.0%)의 순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실직자(자발적 퇴사 포함) 가운데 55.0%가 실직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침체나 고용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답함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실직자는 84.4%가 관련이 있다고 답함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실직자는 모두가 관련이 있다고 답함
- 실직(자발적 퇴사 포함) 이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비율은 65.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는 56.3%가 받지 못함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40.0%가 받지 못함

<표 4-1-4-5> 응답자의 일과 취업/창업 현황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반도(N=101)	비율	반도(N=115)	비율	반도(N=63)	비율
현재 하는 일	취업 중(직장인) ※아르바이트는 제외	79	78.2	69	60.0	55	87.3
	정규교육기관 학업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1	1.0	10	8.7	0	0
	취업 준비 (별도 교육받지 않음)	3	3.0	13	11.3	1	1.6
	쉬고 있음	3	3.0	5	4.3	0	0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반도(N=101)	비율	반도(N=115)	비율	반도(N=63)	비율
	취업을 위한 교육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어학학원 등)	2	2.0	4	3.5	0	0
	창업 중(자영업자)	3	3.0	8	7.0	2	3.2
	진학 준비	0	0	2	1.7	0	0
	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0	0	1	0.9	1	1.6
	주부	10	9.9	2	1.7	4	6.3
	군입대 대기	0	0	1	0.9	0	0
일자리 고용형태	정규직 임금근로자	72	87.8	57	74.0	46	80.7
	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	2	2.0	4	5.2	5	8.8
	무기계약직 외 비정규직	5	5.0	5	6.5	1	1.8
	임금근로자						
	고용주 혹은 자영업자	3	3.0	8	10.4	2	3.5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등 비임금 근로자	0	0	3	3.9	3	5.3
일자리(취업·창업) 종사기간 (개월)	평균(표준편차)	76.7 (50.0)		45.6 (38.4)		55.8 (44.1)	
정규교육기관 학업 중 올해 아르바이트 경험여부	있다	0	0	5	50.0	0	0
	없다	1	100	5	50.0	0	0
한달 평균 아르바이트 시간	평균(표준편차)	0 (0)		53.0 (40.5)		0 (0)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	생활비 마련을 위해	0	0	2	40.0	0	0
	학비를 벌려고	0	0	0	0	0	0
	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0	0	0	0	0	0
	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경비 마련을 위해	0	0	1	20.0	0	0
	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0	0	1	20.0	0	0
	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0	0	0	0	0	0
	학원비 등 취업 준비를 위해	0	0	1	20.0	0	0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시간이 줄어들었는지 여부	0	0	3	60.0	0	0
	그렇지 않다	0	0	2	40.0	0	0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직 경험 여부	있다	20	19.8	32	27.8	10	15.9
	없다	81	80.2	83	72.2	53	84.1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1)	비율	빈도(N=115)	비율	빈도(N=63)	비율
실직 사유	자발적 퇴사	12	60.0	11	34.4	2	20.0
	계약기간 만료	4	20.0	9	28.1	6	60.0
	권고사직	2	10.0	6	18.8	1	10.0
	비자발적 해고	2	10.0	6	18.8	1	10.0
	기타	0	0	0	0	0	0
실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또는 고용위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	관련성이 전혀 없다	3	15.0	2	6.3	0	0
	관련성이 거의 없다	6	30.0	3	9.4	0	0
	관련성이 약간 있다	5	25.0	11	34.4	4	40.0
	관련성이 매우 크다	6	30.0	16	50.0	6	60.0
	잘 모르겠다	0	0	0	0	0	0
실업급여 수령 여부	받았다	5	25.0	10	31.3	3	30.0
	받았지만, 재취업 전에 모두 소진했다	2	10.0	4	12.5	3	30.0
	받지 못했다	13	65.0	18	56.3	4	40.0

4) 재무 상태에 따른 비교

① 소득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지난달 본인 소득 총합은 평균 300.7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월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9.9%, 99만원 이하인 자는 14.9%를 차지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지난달 월소득이 221.2만원이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4.3%, 99만원 이하인 자는 26.0%를 차지했으며, 월소득 200만원 이상의 비율이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지난달 월소득이 288.3만원이었으며, 소득이 전혀 없는 자는 4.8%, 99만원 이하인 자는 8.0%를 차지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소득의 주요 재원을 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평균 267.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소득이 17.1만원,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9.3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소득의 주요 재원을 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평균 185.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소득이 16.7만원, 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9.1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소득의 주요 재원을 보면, 근로 및 사업소득이 평균 271.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가족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이 9.5만원, 금융소득이 4.65만원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지난달 가구 총소득은 월499만원 이하가 42.6%로 가장 많았고, 월500만원~999만원은 41.6%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월 499만원 이하가 50.4%로 가장 많았고, 월500만원~999만원은 40.9%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월 499만원 이하가 50.8%로 가장 많았으며, 월500만원~999만원은 38.1%였음
- 지난 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7.9%였으며, 총금액은 497.5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는 20.0%였으며, 총금액은 386.7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음
- 지난 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한 경우는 30.7%였으며, 총금액은 333.3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3.5%가 정기적으로 가족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였으며, 총금액은 285.1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33.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으며, 그 금액도 822.8만원으로 역시 전체 평균보다 높았음

<표 4-1-4-6> 응답자와 가구의 소득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	비율	빈도(N=15)	비율	빈도(N=63)	비율
본인 지난날 소득	없음	10	9.9	5	4.3	3	4.8
	월 1만원~49만원	2	2.0	13	11.3	1	1.6
	월 50만원~99만원	3	3.0	12	10.4	1	1.6
	월 100만원~199만원	1	1.0	19	16.5	7	11.1
	월 200만원~299만원	35	34.7	41	35.7	26	41.3
	월 300만원~399만원	26	25.7	16	13.9	10	15.9
	월 400만원 이상	24	23.8	9	7.8	15	23.8
	평균(표준편차)	300.7 (178.0)		221.2 (225.6)		288.3 (158.2)	
본인 소득 재원	가족 및 친척	평균(표준편차)		9.3 (35.1)		9.1 (21.7)	
	근로 및 사업소득	평균(표준편차)		267.0 (154.9)		185.4 (216.1)	
	금융소득	평균(표준편차)		17.1 (51.2)		16.7 (59.5)	
	그 외의 기타소득	평균(표준편차)		7.3 (23.7)		9.8 (34.9)	
지난달 가구의 총 소득	월 499만원 이하	43	42.6	58	50.4	32	50.8
	월 500만원~999만원	42	41.6	47	40.9	24	38.1
	월 1,000만원~2,999만원	8	7.9	3	2.6	2	3.2
	월 3,000만원~4,999만원	4	4.0	6	5.2	2	3.2
	월 5,000만원~6,999만원	2	2.0	0	0	2	3.2
	월 7,000만원~8,999만원	1	1.0	0	0	1	1.6
	월 9,000만원~9,999만원	1	1.0	1	0.9	0	0
	월 1억원 이상	0	0	0	0	0	0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는지에 대한 여부	예	8	7.9	23	20.0	0	0
	아니요	93	92.1	92	80.0	63	100
지난 한 해 가족에게 받았던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497.5 (416.8)		386.7 (455.4)		0 (0)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여부	예	31	30.7	27	23.5	21	33.3
	아니요	70	69.3	88	76.5	42	66.7
지난 한 해 가족에게 준 경제적 도움(만원)	평균(표준편차)	333.3 (348.9)		285.1 (246.3)		822.8 (965.5)	

② 지출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414.4만원이었으며,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100만원 이상 많았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167.6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지출액은 평균 277.2만원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주요 지출항목은 주거비(186.8만원), 저축(66.0만원), 식료품/외식비(45.7만원)였으며, 부채상환에는 평균 39.7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부채상환비(40.1만원)가 가장 많았으며, 저축(32.8만원), 식료품/외식비(29.7만원)을 사용하였으며, 주거비에는 평균 12.1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주요 지출항목은 식료품/외식비(57.8만원), 부채상환(51.6만원), 저축(43.9만원), 주거비(38.6만원)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를 100%로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하는 경우는 73.3%였으며, 100보호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2.0%였으며, 나머지 24.8%는 본인(배우자 포함)과 보호자가 일정비율 분담하는 형태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00% 본인(배우자 포함) 부담 비율이 64.3%였으며, 100% 보호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8.7%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00%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하는 경우가 77.8%로 전체 평균에 비해 높았으며, 100%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1.6%로 전체 평균에 비해 낮았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는 8.9%였으며, 나머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한 경우 해결방법 1순위는 소비를 줄이는 것(73.3%)이었으며,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는 1.0%에 그쳤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5.2%가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생활비 부족 해결을 위한 1순위 방법으로 소비를 줄인다가 64.3%였으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7.8%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가 없으며, 소비를 줄이는 것(76.2%)이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고 답한 경우도 없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1순위 방법으로도 생활비 부족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2순위), 신용카드(28.3%), 추가근로(23.9%), 부모님의 도움(8.7%), 예금·적금·보험 등 해약(7.6%)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추가근로(25.7%), 신용카드(18.3%), 소비를 줄인다(14.7%), 부모님의 도움(13.8%) 예금·적금·보험 등 해약(11.0%)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신용카드(31.7%)가 전체 평균보다 많았으며, 추가근로(14.3%), 예금·적금·보험 등 해약(14.3%) 등의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활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2.0%,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1.1%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4.3%,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는 4.6%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1순위로 이용하는 경우 1.6%, 2순위로 이용하는 경우 9.5%였음
 - 신용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소액대출과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생활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절대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존재하고 있었음

<표 4-1-4-7> 응답자의 지출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본인 지출 항목	본인 지난달 지출	평균(표준편차)	414.1 (1416.8)		167.6 (151.8)		277.2 (133.4)	
	식료품/외식비	평균(표준편차)	45.7 (31.4)		29.7 (27.7)		57.8 (42.1)	
	컴퓨터/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	평균(표준편차)	10.1 (39.9)		3.7 (11.7)		7.4 (17.5)	
	주거비	평균(표준편차)	186.8 (1392.0)		12.1 (18.6)		38.6 (30.8)	
	학비	평균(표준편차)	0 (0)		3.9 (24.4)		2.8 (14.4)	
	취업준비비	평균(표준편차)	0.9 (4.2)		2.8 (11.1)		1.3 (4.5)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12.1 (29.8)		2.7 (15.3)		11.4 (21.8)	
	교통/통신비	평균(표준편차)	15.9 (13.2)		15.6 (15.8)		20.1 (15.5)	
	문화/미용비	평균(표준편차)	15.5 (21.1)		12.2 (15.9)		17.2 (20.2)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저축	평균(표준편차)	66.0 (155.6)		32.8 (43.9)		43.9 (73.5)	
	민간보험료	평균(표준편차)	20.1 (17.3)		8.1 (11.0)		22.7 (17.7)	
	부채상환	평균(표준편차)	39.7 (51.5)		40.1 (111.0)		51.6 (56.1)	
	기타1	평균(표준편차)	50.0		123.3 (75.0)		60.0 (56.5)	
	기타2	평균(표준편차)	30.0		50.0		0 (0)	
생활비 마련 방법	100%를 본인 (배우자 포함)이 마련한다		74	73.3	74	64.3	49	77.8
	75%정도를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5	5.0	14	12.2	3	4.8
	50%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16	15.8	7	6.1	7	11.1
	25%정도는 본인(배우자 포함)이 마련,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4	4.0	10	8.7	3	4.8
	100% 보호자가 지원한다		2	2.0	10	8.7	1	1.6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9	8.9	6	5.2	0	0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1순위	소비를 줄인다		74	73.3	74	64.3	48	76.2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1	1.0	9	7.8	0	0
	신용카드를 쓴다		8	7.9	9	7.8	8	12.7
	추가로 일을 한다		3	3.0	8	7.0	3	4.8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4	4.0	2	1.7	2	3.2
	지인에게 빌린다		0	0	1	0.9	1	1.6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2	2.0	5	4.3	1	1.6
	기타		0	0	1	0.9	0	0
평소 생활비가 부족한 경우 주 해결 방법 2순위	신용카드를 쓴다		26	28.3	20	18.3	20	31.7
	추가로 일을 한다		22	23.9	28	25.7	9	14.3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다		8	8.7	15	13.8	1	1.6
	예금·적금·보험 등을 해약한다		7	7.6	12	11.0	9	14.3
	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19	20.7	6	5.5	6	9.5
	소비를 줄인다		7	7.6	16	14.7	7	11.1
	지인에게 빌린다		2	2.2	7	6.4	4	6.3
	신용카드 리볼빙, 현금서비스,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다		1	1.1	5	4.6	6	9.5
	기타		0	0	0	0	1	1.6

③ 자산과 저축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본인 총자산은 평균 3억4670.9만원이었으며, 주된 자산인 부동산은 평균 3억527.7만원, 금융자산은 3480.8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에 비해 총자산(6285.3만원)과 부동산(4350.4만원)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5배, 금융자산(1715.5만원)은 2배정도 적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에 비해 본인 총자산(2억3978.4만원)과, 부동산(2억1110.9만원)이 약 1억원 적었으며, 금융자산은 2265.8만원이었음
- 부모를 포함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구의 총자산 규모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5.9%였으며,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19.8%였으며, 가구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6.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구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이 25.2%,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절반이 넘는 67.8%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약 3배였으며, 가구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1.8%로 극히 드물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구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4.8%, 1억원 미만인 경우를 합치면 30.2%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보다 다소 많았으며, 가구 총 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4.8%였음

<표 4-1-4-8> 응답자와 가구의 자산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본인 총 자산	부동산 자산	평균(표준편차)	30527.7 (42037.1)		4350.4 (14143.8)		21110.9 (25204.6)		
	금융 자산	평균(표준편차)	3480.8 (6070.2)		1715.5 (3959.8)		2265.8 (3309.5)		
	기타 자산	평균(표준편차)	662.4 (1574.9)		219.4 (843.8)		601.6 (1698.8)		
	합계	평균(표준편차)	34670.9 (43712.6)		6285.3 (16242.4)		23978.4 (26685.4)		
가구의 총 자산			5천만원 미만	6	5.9	29	25.2	3	4.8
			5천만원~1억원 미만	14	13.9	49	42.6	16	25.4
			1억원~2억원 미만	14	13.9	11	9.6	18	28.6
			2억원~4억원 미만	27	26.7	10	8.7	12	19.0
			4억원~6억원 미만	16	15.8	5	4.3	4	6.3
			6억원~8억원 미만	11	10.9	8	7.0	3	4.8
			8억원~10억원 미만	7	6.9	1	0.9	4	6.3
			10억원~12억원 미만	3	3.0	1	0.9	3	4.8
			12억원~14억원 미만	0	0	1	0.9	0	0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14억원~16억원 미만	2	2.0	0	0	0	0
	16억원~18억원 미만	0	0	0	0	0	0
	18억원~20억원 미만	0	0	0	0	0	0
	20억원 이상	1	1.0	0	0	0	0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저축액은 평균 65.6만원이었으며, 현재 총 저축액은 1955.9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저축액(32.4만원)과 총 저축액(1034.6만원)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다소 작은 경향을 보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월저축액은 43.1만원으로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많지만, 총 저축액은 916.2만원으로 다소 작았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5.0%였고,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수입부족(36.6%)을 꼽았으며, 대출금 상환 부담(27.7%), 예상치 못한 지출의 발생(11.9%), 즉흥소비(7.9%), 낮은 저축동기(5.0%), 많은 월세 지출(4.0%), 이미 많은 저축(2.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3.5%였고,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수입부족(54.8%)을 꼽았으며, 대출금 상환 부담(17.4%), 예상치 못한 지출의 발생(8.7%), 이미 많은 저축(5.2%), 많은 월세 지출(5.2%), 즉흥소비(2.6%), 낮은 저축동기(2.6%)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저축에 어려움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없었으며, 저축이 어려운 1순위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수입부족(46.0%)을 꼽았으며, 대출금 상환 부담(25.4%), 예상치 못한 지출의 발생(12.7%), 즉흥소비(7.9%), 이미 많은 저축(4.8%), 낮은 저축동기(1.6%), 많은 월세 지출(1.6%)의 순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저축이 어려운 2순위 주된 이유는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34.1%)이었으며, 대출금 상환부담(19.3%), 수입 부족(14.8%), 즉흥소비(11.4%), 낮은 저축동기(8.0%), 많은 월세 지출(6.8%), 이미 많은 저축(5.7%)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저축이 어려운 2순위 주된 이유도 예상치 못한 지출 발생(22.2%)이었으며, 수입 부족(20.2%), 대출금 상환부담(20.2%), 즉흥소비(17.2%), 이미 많은 저축(7.1%), 많은 월세지출(7.1%), 낮은 저축동기(6.1%)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대출금 상환부담(24.6%)이 주된 이유였으며, 수입부족(19.7%), 예상치 못한 지출(18.0%), 즉흥소비(13.1%), 낮은 저축동기(9.8%), 많은 월세지출(8.2%), 이미 많은 저축(6.6%)의 순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19.8%였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 금액은 평균 659.8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40.9%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보다 다소 많았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금액은 평균 245.0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예비비가 전혀 없는 비율은 73.0%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많았으며, 예비비가 있는 이들의 해당금액은 평균 383.49만원으로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다소 큰 금액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29.7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6.7만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추가로 저축할 수 있다고 밝힌 금액은 19.52만원이었음

<표 4-1-4-9> 응답자의 저축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N=101)	비율	빈도(N=115)	비율	빈도(N=63)	비율
지난달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65.6 (155.5)		32.4 (43.2)		43.1 (73.7)	
현재 총 저축액(만원)	평균(표준편차)	1955.9 (3363.8)		1034.6 (3603.7)		916.2 (1767.9)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1순위	어려움이 없다	5	5.0	4	3.5	0	0
	수입이 적다	37	36.6	63	54.8	29	46.0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12	11.9	10	8.7	8	12.7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28	27.7	20	17.4	16	25.4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2	2.0	6	5.2	3	4.8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8	7.9	3	2.6	5	7.9
	저축동기가 낮다	5	5.0	3	2.6	1	1.6
	월세 지출이 크다	4	4.0	6	5.2	1	1.6
저축에 어려움을 느꼈던 이유 2순위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30	34.1	22	22.2	11	18.0
	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10	11.4	17	17.2	8	13.1
	수입이 적다	13	14.8	20	20.2	12	19.7
	저축동기가 낮다	7	8.0	6	6.1	6	9.8
	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5	5.7	7	7.1	4	6.6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17	19.3	20	20.2	15	24.6
	월세 지출이 크다	6	6.8	7	7.1	5	8.2

긴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만원)	없다	20	19.8	47	40.9	46	73.0
	있다	81	80.2	68	59.1	17	27.0
추가 저축 가능금액(만원)	평균(표준편차)	659.8 (1180.0)		245.0 (585.7)		383.49 (688.8)	
	평균(표준편차)	29.7 (30.4)		16.7 (26.8)		19.52 (25.0)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경험은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95.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93.9%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경우가 88.9%로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었음
-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참여 경험을 보면,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6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시가 자체 운영하는 드림For청년통장(10.0%),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10.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참여경험이 7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드림For청년통장(28.6%)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청년내일채움공제(57.1%)에 대한 참여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와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모두 14.3%의 비율을 보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납입금은 평균 12.1만원이었고, 입금횟수는 평균 24.0회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납입금은 평균 12.6만원이었고, 입금횟수는 평균 12.8회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납입금은 평균 11.8만원이었고, 입금횟수는 평균 17.4회였음

<표 4-1-4-10> 응답자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경험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정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경험	현재 참여 중이다	3	3.0	4	3.5	4	6.3
	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2	2.0	3	2.6	3	4.8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	96	95.0	108	93.9	56	88.9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참여한 자산형성 지원사업	사업명	청년내일채움공제(고용부)	3	60.0	5	71.4	4	57.1
		드림For청년통장(인천시)	1	10.0	2	28.6	0	0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중기부)	0	0	0	0	1	14.3
		청년저축계좌(복지부)	0	0	0	0	1	14.3
		청년희망키움통장(복지부)	0	0	0	0	1	14.3
		희망키움통장(복지부)	0	0	0	0	0	0
		내일키움통장(복지부)	0	0	0	0	0	0
		디딤씨앗통장(복지부)	0	0	0	0	0	0
		희망두배 청년통장(서울시)	0	0	0	0	0	0
		경기도일하는청년통장(경기도)	1	10.0	0	0	0	0
		희망디딤돌통장(충남도)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월 납입금(만원)	평균(표준편차)	12.1 (2.4)		12.6 (2.4)		11.8 (3.7)	
	입금 횟수(회)	평균(표준편차)	24.0 (12.0)		12.8 (7.1)		17.4 (11.2)	

④ 부채

1] 부채 현황과 대출목적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대출 원금의 총 합계는 평균 1억830.3만원이었으며,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평균 8684.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2141.6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대출 원금의 총 합계는 평균 1750.7만원이었으며,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가 525.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학학자금(349.2만원), 투자목적(307.8만원), 자동차 구입(195.7만원), 가족의 대출 요청(155.8만원), 창업준비(144.3만원), 생활비(47.7만원) 등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대출 원금의 총 합계는 평균 1억1460.2만원이었으며, 주택구입이 평균 5421.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4124.8만원), 자동차 구입(641.3만원), 투자목적(335.9만원), 창업준비(206.3만원), 대학학자금(192.5만원), 가족의 대출 요청(89.8만원), 생활비(51.1만원) 등의 순이었음
- 청년의 부채가 본인이 아닌 가족의 대출요청(비주거관련대출응답자 155.8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89.8만원)에 의해서도 발생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등과 같은 투자형/비소비형 대출이외의 투자를 위한 대출금(비주거관련대출 307.8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335.9만원)이 대학 학자금이나 창업준비를 위한 대출금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도 시사점이 큼

<표 4-1-4-11> 응답자의 목적별 대출잔액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생활비	평균(표준편차)	0 (0)	47.7 (138.3)	51.1 (159.7)
	주택구입	평균(표준편차)	8684.8 (9618.8)	0.0 (0)	5421.8 (8411.3)
	전세보증금	평균(표준편차)	2141.6 (5043.5)	0.0 (0)	4124.8 (5703.3)
	월세	평균(표준편차)	0 (0)	0.8 (6.2)	0.0 (0)
	대학학자금	평균(표준편차)	0 (0)	349.2 (696.2)	192.5 (635.5)
	자녀교육비/보육비	평균(표준편차)	0 (0)	0.9 (9.3)	0.5 (3.8)
	결혼	평균(표준편차)	0 (0)	20.7 (135.9)	23.8 (103.9)
	자동차 구입	평균(표준편차)	0 (0)	195.7 (619.1)	641.3 (1025.7)
	가족의 대출 요청	평균(표준편차)	0 (0)	155.8 (627.7)	89.8 (422.9)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평균(표준편차)	0 (0)	525.7 (1333.3)	308.3 (768.6)
	취업준비	평균(표준편차)	0 (0)	1.7 (18.7)	0.0 (0)
	창업준비	평균(표준편차)	0 (0)	144.3 (804.1)	206.3 (953.1)
	병원비	평균(표준편차)	0 (0)	0.3 (2.1)	64.0 (304.4)
	투자목적	평균(표준편차)	0 (0)	307.8 (1257.2)	335.9 (814.9)
	합계	평균(표준편차)	10830.3 (8965.2)	1750.7 (2089.9)	11460.2 (7864.7)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그림 4-4-1] 대출현황과 목적별 대출잔액

② 대출기관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채권자별 대출 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9,922.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은 709.9만원이었으며, 다음은 가족(198.0만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채권자별 대출 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851.2만원이었으며, 다음으로 제2금융권(437.6만원), 한국장학재단(250.5만원), 가족(83.9만원), 합법적 대부업체(47.2만원)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채권자별 대출 원금 잔액은 제1금융권이 9700.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제2금융권(1263.2만원), 가족(193.8만원), 한국장학재단(132.2만원), 친구 및 지인(73.3만원), 합법적 대부업체(39.7만원)의 순이었음

<표 4-1-4-12> 응답자의 부채현황과 목적별 부채잔액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각 채권자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	제1금융권	평균(표준편차)	9922.3 (8197.5)	851.2 (1694.0)	9700.8 (8152.1)
	제2금융권	평균(표준편차)	709.9 (3445.8)	437.6 (1409.6)	1263.2 (2085.9)
	합법적 대부업체	평균(표준편차)	0 (0)	47.2 (232.9)	39.7 (258.7)
	불법 사채	평균(표준편차)	0 (0)	0 (0)	0 (0)
	직장	평균(표준편차)	0 (0)	0 (0)	1.6 (12.6)
	한국장학재단	평균(표준편차)	0 (0)	250.5 (603.6)	132.2 (518.0)
	가족	평균(표준편차)	198.0 (1990.0)	83.9 (375.7)	193.8 (1059.8)
	친구, 지인	평균(표준편차)	0 (0)	19.0 (145.5)	73.3 (357.4)
	기타	평균(표준편차)	0 (0)	1762.5 (1307.3)	1750.0 (1060.7)
	합계	평균(표준편차)	10830.3 (8965.1)	1750.7 (2089.9)	11460.2 (786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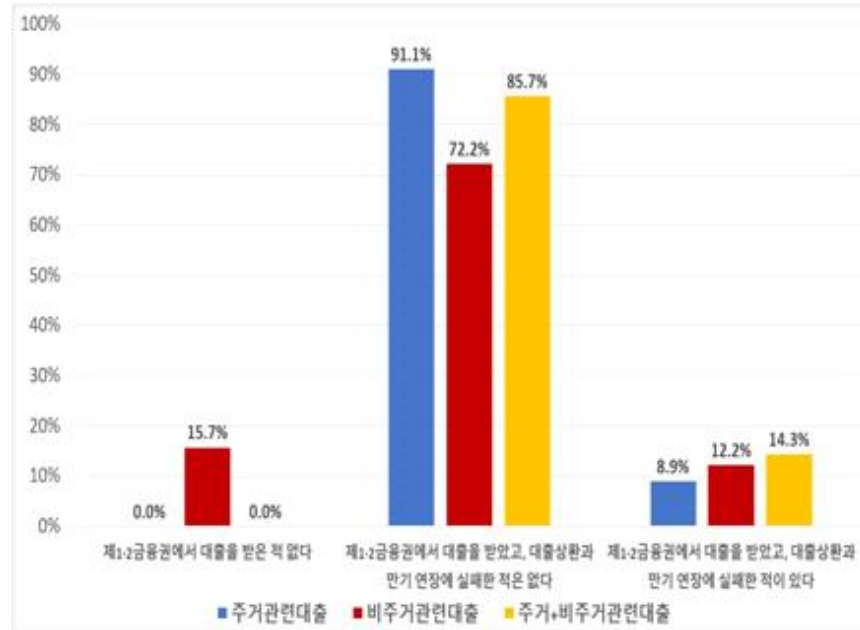
③ 신용 및 연체

- 제1·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비율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9.9%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2.2%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14.3%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요원인은 만성적 수입부족(33.3%),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22.2%), 자영업 실패(22.2%), 실업(11.1%)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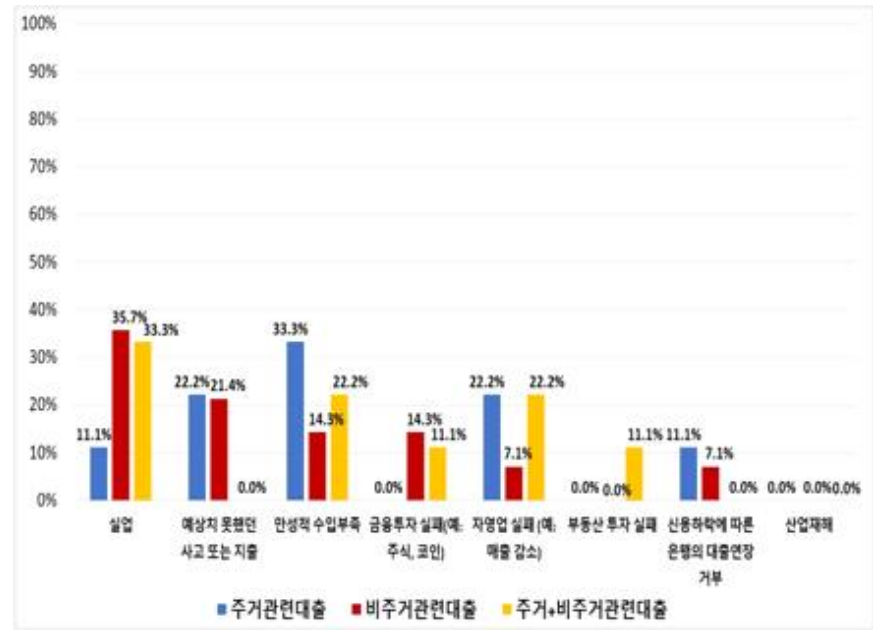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실업(35.7%)이 가장 높았으며,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21.4%), 만성적 수입부족(14.3%), 금융투자 실패(14.3%) 등의 사건의 비중이 높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실업이 33.3%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적 수입부족(22.2%), 자영업 실패(22.2%), 금융투자 실패(11.1%), 부동산 투자 실패(11.1%)의 순이었음
-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4.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1.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높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7.9%였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연체 시 활용했던 문제해결 방법은 소비를 줄인다(75.0%)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25.0%), 추가로 일을 한다(25.0%)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가 61.5%로 가장 많았으며, 소비를 줄인다(53.8%),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38.5%),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23.1%), 추가대출을 받는다(23.1%), 추가로 일을 한다(15.4%), 채무조정을 신청했다(7.7%)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소비를 줄인다가 60.0%였으며, 추가 대출을 받는다(40.0%),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20.0%)의 순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6.0%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포함)은 8.9%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은 18.3%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1.3%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은 17.5%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0.2%였음

<표 4-1-4-13> 응답자의 신용 및 연체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경험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적 없다	0	0	18	15.7	0	0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은 없다	92	91.1	83	72.2	54	85.7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대출상환과 만기 연장에 실패한 적이 있다	9	8.9	14	12.2	9	14.3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된 이유	실업	1	11.1	5	35.7	3	33.3
	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	2	22.2	3	21.4	0	0
	만성적 수입부족	3	33.3	2	14.3	2	22.2
	금융투자 실패(예: 주식, 코인)	0	0	2	14.3	1	11.1
	자영업 실패 (예: 매출 감소)	2	22.2	1	7.1	2	22.2
	부동산 투자 실패	0	0	0	0	1	11.1
	신용하락에 따른 은행의 대출연장 거부	1	1.11	1	7.1	0	0
	산업재해	0	0	0	0	0	0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 여부	예	4	4.0	13	11.3	5	7.9
	아니오	97	96.0	102	88.7	56	92.1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에 있는 응답자 중 연체 시 주 해결 방법 (중복응답)	소비를 줄인다	3	75.0	7	53.8	3	60.0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1	25.0	8	61.5	1	20.0
	추가로 일을 한다	1	25.0	2	15.4	0	0
	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0	0	5	38.5	0	0
	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	0	0	3	23.1	0	0
	추가 대출을 받는다	0	0	3	23.1	2	40.0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0	0	1	7.7	0	0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2	2.0	3	2.6	3	4.8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다	4	4.0	18	15.7	8	12.7
	경험이 없다	95	94.1	94	81.7	52	82.5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2	2.0	11	9.6	3	4.8
다른가구원 (본인제외) 중 금융채무불이행 (신용불량) 경험 여부	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적 있다	7	6.9	25	21.7	16	25.4
	가구원 중 아무도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다	92	91.1	79	68.7	44	6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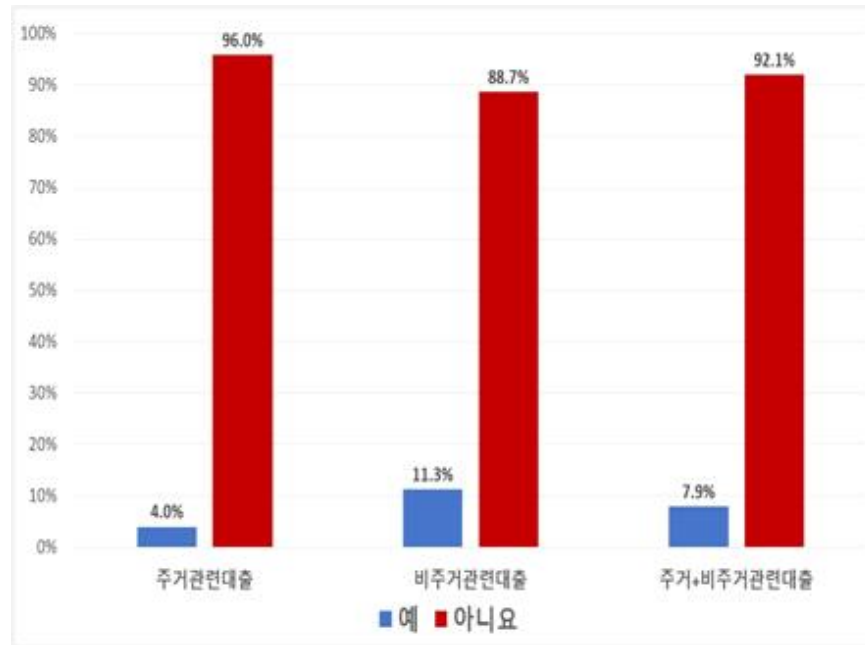


<제1·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만기연장 실패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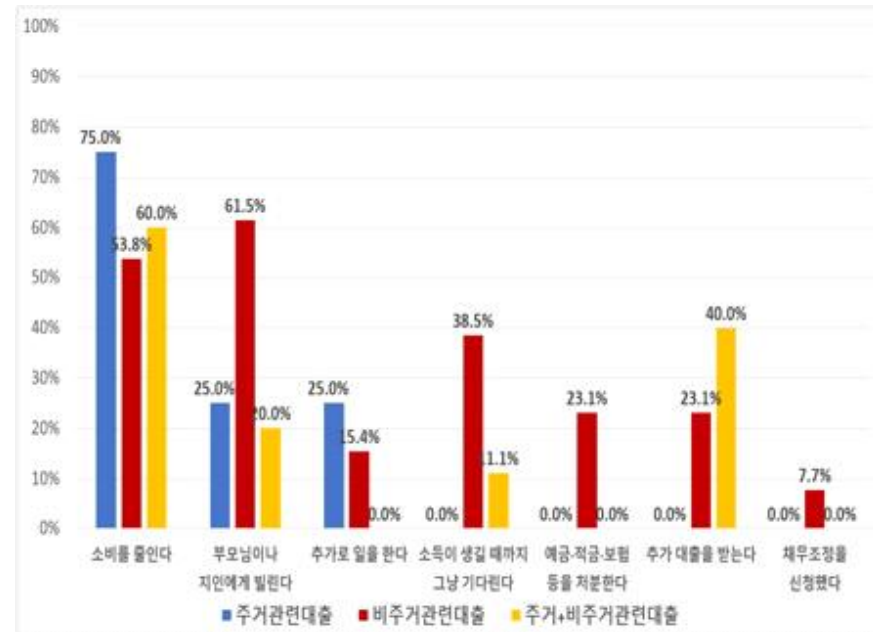


<대출상환 또는 만기연장에 실패한 주된 이유>

[그림 4-4-2-1] 신용 및 연체 현황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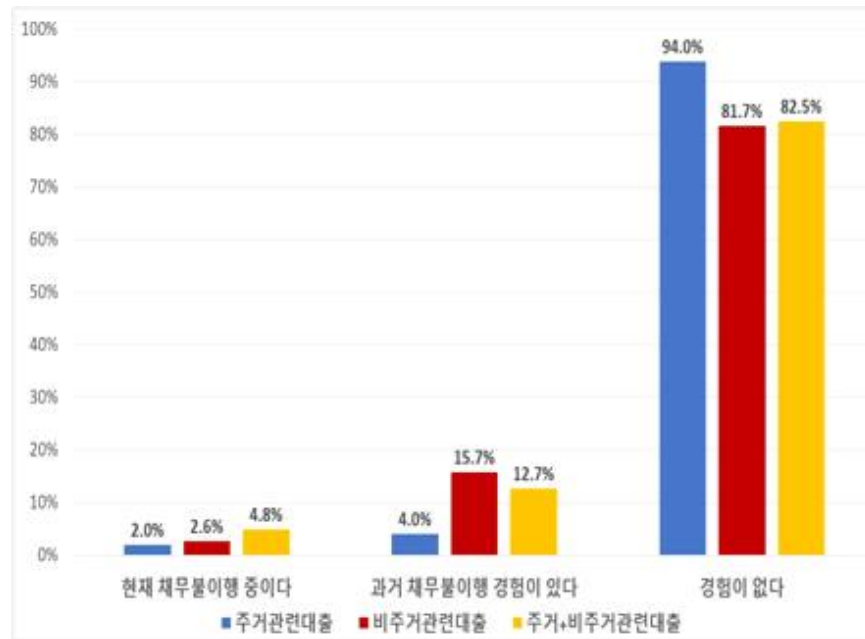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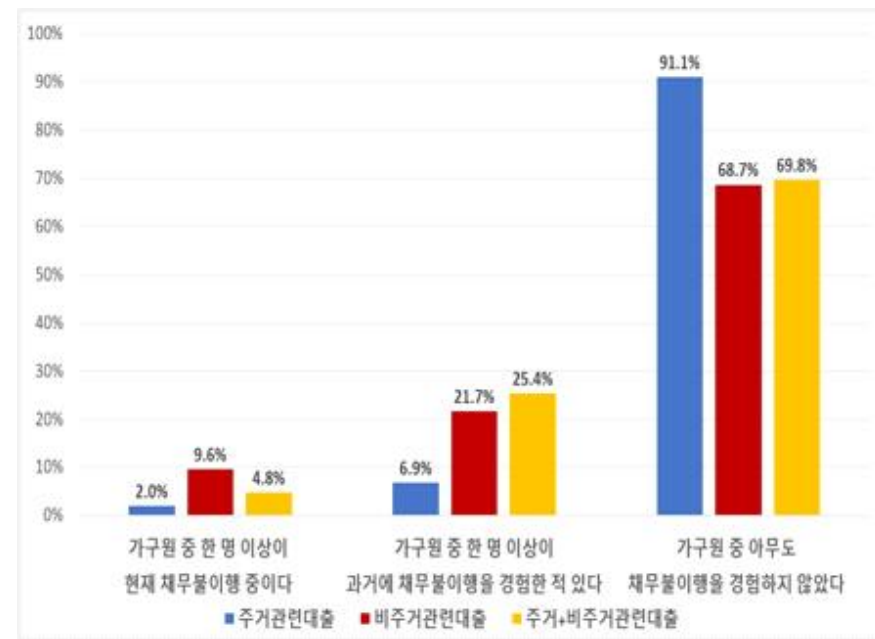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에 있는 응답자 중 연체 시 주 해결 방법 (중복응답)>

[그림 4-4-2-2] 신용 및 연체 현황 II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 여부>



<다른 가구원(본인제외) 중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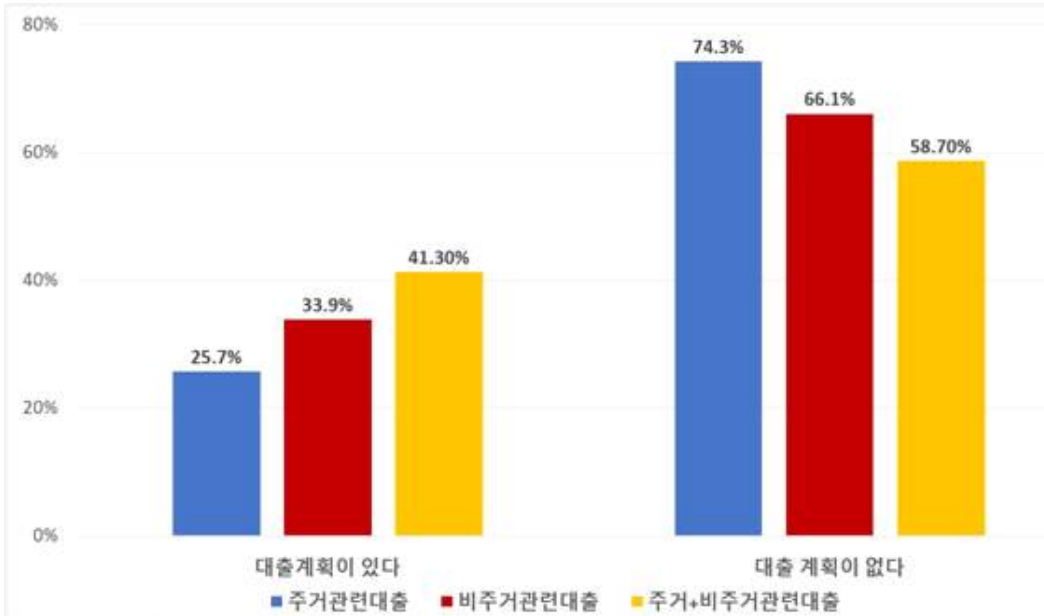
[그림 4-4-2-3] 신용 및 연체 현황 III

④ 대출 계획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25.7%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33.9%였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가운데 향후 1년 이내에 대출 계획이 있는 경우는 41.3%였음
- 대출계획이 있는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대출받고자 하는 용도는 주택구입(61.5%), 생활비(19.2%), 전세보증금(15.4%), 투자 목적(3.8%), 가족의 대출 요청(3.8%)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주택구입(35.9%), 생활비(28.2%), 전세보증금(25.6%),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15.4%), 투자 목적(12.8%), 창업준비(10.3%) 등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생활비 용도가 65.4%로 가장 많았으며, 전세보증금(23.1%), 자동차(19.2%) 등의 순이었으며, 주택구입에 대한 용도는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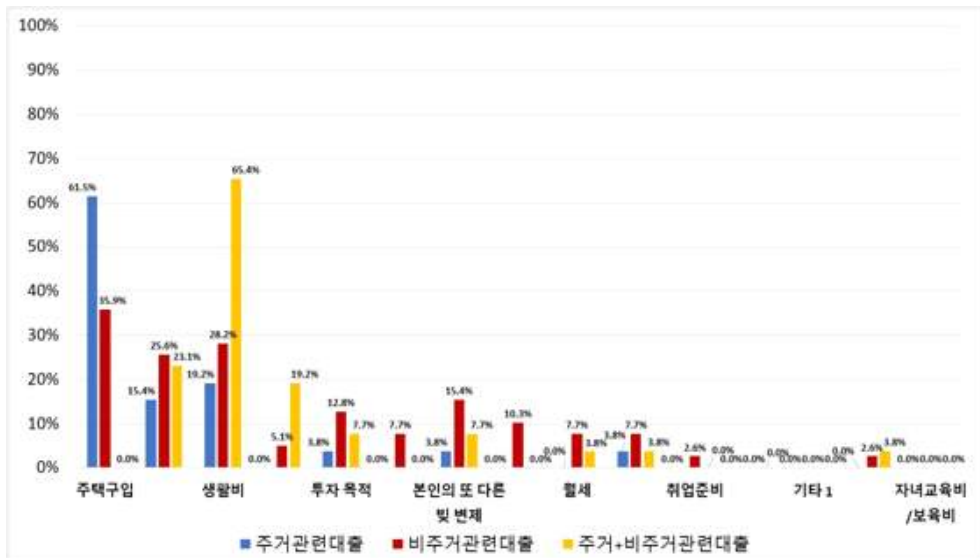
<표 4-1-4-14> 응답자의 대출계획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대출계획이 있다	26	25.7	39	33.9	26	41.3
	대출 계획이 없다	75	74.3	76	66.1	37	58.7
	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	16	61.5	14	35.9	0	0
	전세보증금	4	15.4	10	25.6	6	23.1
	생활비(식비, 사교비, 교통비 등)	5	19.2	11	28.2	17	65.4
	자동차	0	0	2	5.1	5	19.2
	투자 목적(주식, 코인 등)	1	3.8	5	12.8	2	7.7
	대학학자금	0	0	3	7.7	0	0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1	3.8	6	15.4	2	7.7
	창업준비	0	0	4	10.3	0	0
	월세(관리비 포함)	0	0	3	7.7	1	3.8
	가족의 대출 요청	1	3.8	3	7.7	1	3.8
	취업준비	0	0	1	2.6	0	0
	결혼	0	0	0	0	0	0
	기타 1	0	0	0	0	0	0
	병원비	0	0	1	2.6	1	3.8
	자녀교육비/보육비	0	0	0	0	0	0



<향후 1년 이내 대출 계획 여부>

[그림 4-4-3] 대출계획 유무



<대출계획이 있는 응답자 중 대출 받고자 하는 용도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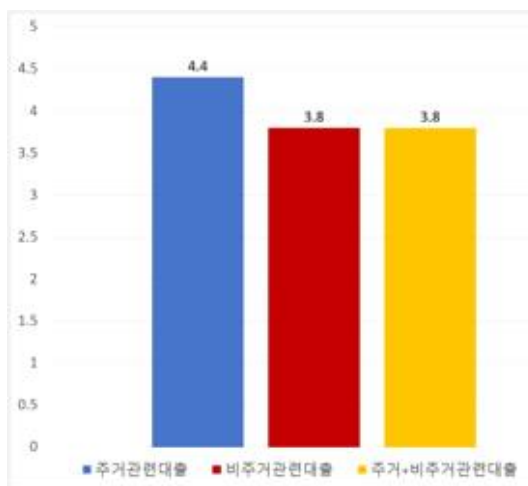
[그림 4-4-4] 대출계획의 용도

5) 금융역량과 재무건전성에 따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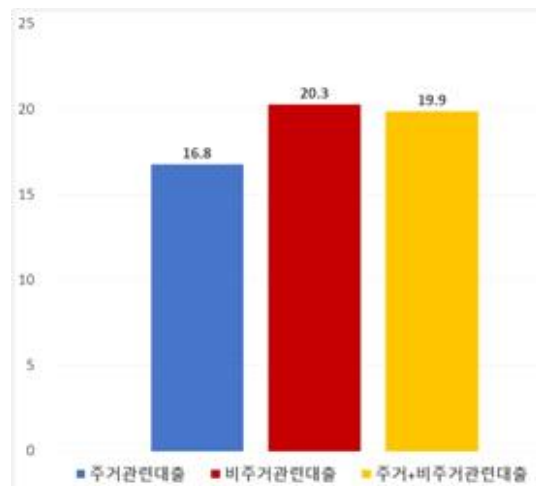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금융역량은 8점 만점에서 4.4점, 금전스트레스는 40점 만점에서 16.8점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금융역량은 3.8점, 금전스트레스는 20.3점으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평균에 비해 금융역량은 조금 더 낮고, 금전스트레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금융역량은 3.8점, 금전스트레스는 19.9점이었으며,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평균에 비해 금융역량이 조금 더 낮고 금전스트레스는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1-4-1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금융역량	101	4.4	1.5	115	3.8	1.8	63	3.8	1.5
금전스트레스	101	16.8	7.2	115	20.3	8.2	63	19.9	7.4



<금융역량>



<금전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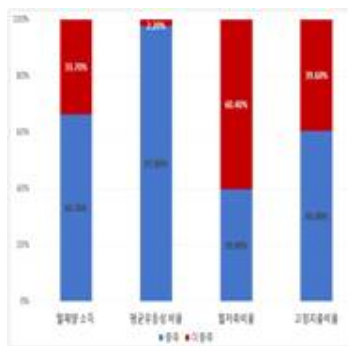
[그림 4-4-5] 응답자의 금융역량과 금전스트레스

- 월재량소득 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66.3%가 지출보다 소득이 많은 일명 흑자가구인 것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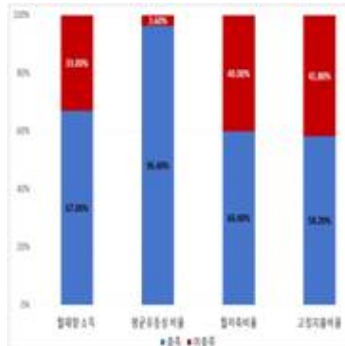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월재량소득 충족률은 67.0%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같은 수준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월재량소득 충족률이 54.0%로 다소 낮은 수치를 보였음
- 평균유동성 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97.8%가 2개월 치 월지출보다 많은 총저축액을 가진 것으로 나타남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평균유동성 충족률은 96.4%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평균유동성 비율도 98.3%로 타 응답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월저축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39.6%가 월소득의 10%보다 많은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월저축비율은 60.0%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높은 편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58.3%로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같은 수준이었음
- 고정지출비율 충족 여부를 보면,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60.4%가 고정지출을 월소득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고정지출비율 충족률은 58.2%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와 큰 차이가 없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고정지출비율 충족률은 33.3%로 타 응답자보다 크게 낮았음

<표 4-1-4-1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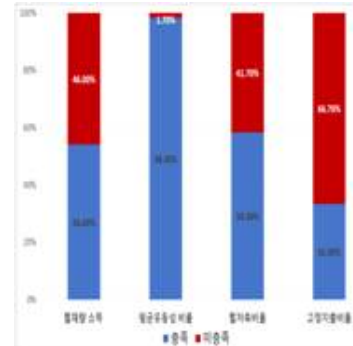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충족		미충족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월재량 소득	67	66.3	34	33.7	77	67.0	38	33.0	34	54.0	29	46.0
평균유동성 비율	89	97.8	2	2.2	106	96.4	4	3.6	59	98.3	1	1.7
월저축비율	36	39.6	55	60.4	66	60.0	44	40.0	35	58.3	25	41.7
고정지출비율	55	60.4	36	39.6	64	58.2	46	41.8	20	33.3	40	66.7



〈주거관련대출자의 총족비율〉



〈비주거관련대출자의 총족비율〉



〈주거관련+비주거관련대출자의 총족비율〉

[그림 4-4-6] 응답자의 재무건전성

6) 청년부채 관련 정책 수요

① 청년부채 관련 사업 이용률과 이용의향

- 연구진이 포괄적으로 제안한 청년부채 관련 사업 총 15개 가운데,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가장 높은 이용률을 보인 사업은 임신 및 육아지원(20.8%)이었으며, 그 다음은 대출 이자 지원(7.9%), 취업지원(7.9%), 저금리 대출지원(3.0%), 취업지원(3.0%), 경제교육(2.0%), 청년수당(2.0%), 대부업체 규제(1.0%), 인천청년 자산형성 지원제도(1.0%), 월세 지원(1.0%)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장학금이 21.7%로 가장 높았으며, 대출 이자지원(19.1%), 저금리 대출지원(8.7%), 취업지원(8.7%) 등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임신 및 육아지원이 25.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장학금(23.8%), 대출 이자지원(15.9%) 등의 순이었으며,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9.5%)이 타 응답자보다 높았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참여해 본 사업가운데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은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5.0점), 취업지원(4.7점), 대출 이자지원(4.3점), 경제교육(4.0점), 청년수당(4.0점), 장학금(3.9점), 임신 및 육아지원(3.9점), 저금리 대출지원(3.3점), 대부업체 규제(3.0점)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5.0점), 청년수당(4.1점), 저금리 대출지원(4.0점), 경제상담 및 컨설팅(4.0점), 대부업체 규제(4.0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4.0점), 장학금(4.0점), 부업지원(4.0점), 대출 이자지원(3.9점), 월세 지원(3.6점), 취업지원(3.6점), 경제교육(3.5점), 진로 및 심리상담(3.5점), 신용관리지원(3.3점), 임신 및 육아지원(3.3점)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신용관리지원(5.0점), 진로 및 심리상담(5.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른 응답자와 비교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며, 인천청년자산형성지원제도(4.0점)와 경제교육(2.5점)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낮았음
- 청년부채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진이 제안한 총 15개 사업의 중요도와 관련하여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3점대 후반으로 의견을 표시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인식도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3점대 후반으로 의견을 표시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인식은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3점대 중반으로 의견을 표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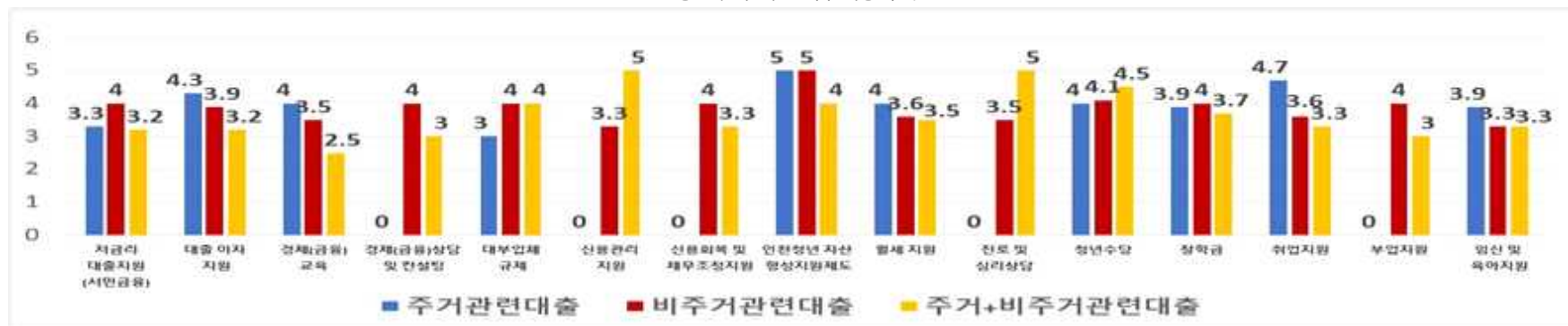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식하는 사업은 임신 및 육아지원(4.3점), 대출 이자지원(4.2점), 저금리 대출지원(4.1점), 대부업체 규제(4.1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4.1점), 취업지원(4.1점) 등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대출 이자지원(4.3점), 장학금(4.3점), 저금리 대출지원(4.2점),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4.2점),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4.2점), 월세지원(4.2점), 취업지원(4.2점), 임신 및 육아지원(4.2점) 등의 순이었으며, 장학금과 월세지원, 청년수당에 대한 중요도가 다른 응답자보다 높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임신 및 육아지원(4.3점), 대출 이자지원(4.1점), 장학금(4.1점) 등의 순이었으며, 저금리 대출지원과 경제교육, 경제상담 및 컨설팅에 대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낮았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향후 6개월 이내에 가장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은 임신 및 육아지원(3.5점)이었으며, 다음은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2점), 청년수당(3.2점) 등의 순이었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9점)와 청년수당(3.9)이 가장 높았으며, 저금리 대출지원(3.6점), 월세 지원(3.6점), 취업지원(3.6점) 등의 순이었으며, 청년수당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는, 임신 및 육아지원(3.7점)이었으며,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3.3점), 저금리 대출지원(3.2점), 신용관리 지원(3.2점), 청년수당(3.2점) 등의 순이었으며, 임신 및 육아지원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표 4-1-4-17>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사업에 대한 이용률과 이용의향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이용경험(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이용경험(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이용경험(有)		만족도		중요도		이용의향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유 관 사 업	저금리 대출지원 (서민금융)	3	3.0	3.3	2.1	4.1	1.3	3.0	1.7	10	8.7	4.0	0.7	4.2	1.2	3.6	1.6	5	7.9	3.2	1.6	3.7	1.2	3.2	1.8
	대출 이자 지원	8	7.9	4.3	0.5	4.2	1.2	2.8	1.8	22	19.1	3.9	0.9	4.3	0.9	3.4	1.7	10	15.9	3.2	0.8	4.1	1.1	3.1	1.8
	경제(금융) 교육	2	2.0	4.0	0.0	4.0	1.2	2.8	1.7	4	3.5	3.5	0.6	4.1	1.2	3.5	1.6	2	3.2	2.5	0.7	3.7	1.1	3.0	1.7
	경제(금융)상담 및 컨설팅	0	0			4.0	1.2	3.0	1.7	3	2.6	4.0	0.0	4.0	1.2	3.3	1.6	2	3.2	3.0	0.0	3.8	1.1	3.1	1.7
	대부업체 규제	1	1.0	3.0		4.1	1.3	3.0	1.8	1	0.9	4.0		4.1	1.3	3.1	1.6	4	6.3	4.0	0.8	4.0	1.1	3.1	1.7
	신용관리 지원	0	0			4.0	1.2	3.0	1.8	3	2.6	3.3	0.6	4.1	1.2	3.4	1.6	1	1.6	5.0		4.0	1.1	3.2	1.7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	0	0			4.1	1.2	2.8	1.8	6	5.2	4.0	1.3	4.2	1.1	3.2	1.6	6	9.5	3.3	1.4	4.0	1.1	3.0	1.8
	인천청년 자산 형성지원제도	1	1.0	5.0		3.9	1.4	3.2	1.7	2	1.7	5.0	0.0	4.2	1.2	3.9	1.4	1	1.6	4.0		4.0	1.2	3.3	1.7
	월세 지원	1	1.0	4.0		3.8	1.3	2.8	1.8	9	7.8	3.6	0.9	4.2	1.1	3.6	1.6	4	6.3	3.5	1.7	3.9	1.2	3.0	1.7
	진로 및 심리상담	0	0			4.0	1.2	3.0	1.7	4	3.5	3.5	0.6	4.0	1.2	3.4	1.7	1	1.6	5.0		4.0	1.1	3.0	1.7
	청년수당	2	2.0	4.0	0.0	3.6	1.5	3.2	1.8	9	7.8	4.1	0.6	4.0	1.4	3.9	1.6	2	3.2	4.5	0.7	3.6	1.4	3.2	1.7
	장학금	8	7.9	3.9	0.8	4.0	1.2	2.8	1.8	25	21.7	4.0	1.0	4.3	1.0	3.2	1.7	15	23.8	3.7	0.8	4.1	1.1	3.1	1.8
	취업지원	3	3.0	4.7	0.6	4.1	1.2	2.9	1.8	10	8.7	3.6	1.3	4.2	1.0	3.6	1.5	7	11.1	3.3	1.0	4.0	1.1	3.0	1.7
	부업지원	0	0			4.0	1.3	2.9	1.7	3	2.6	4.0	1.0	4.1	1.2	3.5	1.6	3	4.8	3.0	1.0	3.9	1.3	3.1	1.7
	임신 및 육아지원	21	20.8	3.9	0.7	4.3	1.2	3.5	1.8	8	7.0	3.3	1.4	4.2	1.1	3.5	1.5	16	25.4	3.3	1.1	4.3	1.2	3.7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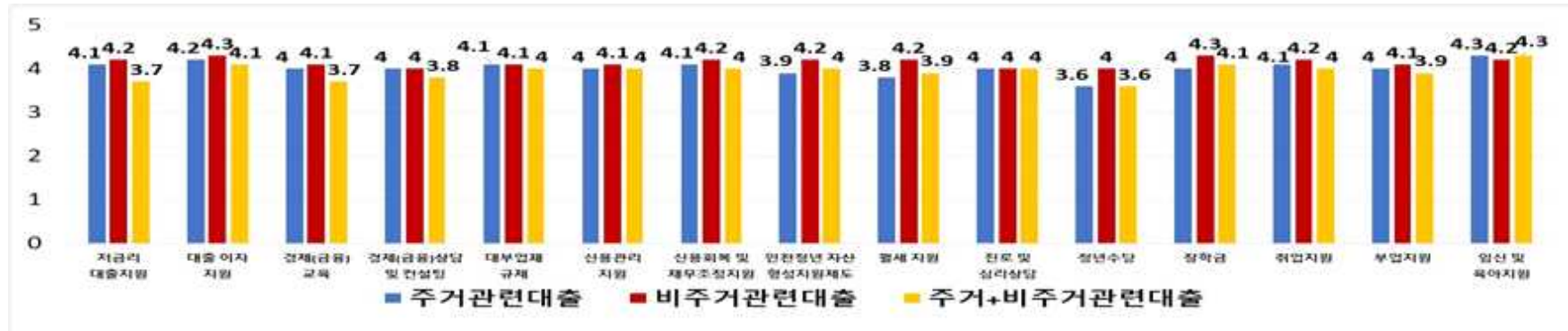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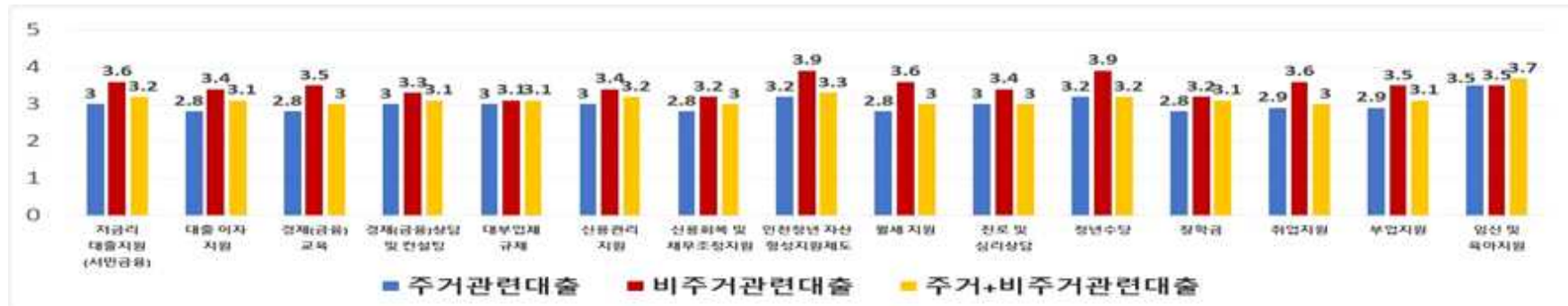
〈청년부채 지원사업 이용자 만족도〉

[그림 4-4-7]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이용자 수와 만족도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청년부채 문제 해소방안으로서의 사업 중요도>



<향후 6개월 이내 청년부채 지원 사업 이용 의향>

[그림 4-4-8] 청년부채 관련 사업의 중요도와 이용의향

② 청년부채 관련 청년 의견

- 청년부채 해소방안을 묻는 개방질문에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59.4%,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55.7%,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49.2%가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음
- 극히 작은 비율(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2.0%,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1.7%)이지만, 부채는 본인 책임이며, 지원해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청년부채 해소방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5.9%)이었으며,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5.0%),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5.0%), 대출상환 능력 없을 시 대출 제한 및 조건 강화(4.0%),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4.0%),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4.0%), 서울/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참고, 인천 청년사업 개선 및 확대(2.0%),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경제 독립을 돕는 지원 사업(2.0%),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2.0%) 등의 순으로 의견을 제시했으며,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6.1%)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 사업 홍보 강화(3.5%),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3.5%),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3.5%), 대학등록금 삭감 및 학자금 지원(2.6%) 등의 순이었으며, 기존 사업 홍보 강화와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가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고,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1.7%)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낮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6.3%)과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6.3%)이 가장 많았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4.8%),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4.8%),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사업 확대(3.2%),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경제 독립을 돕는 지원 사업(3.2%),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3.2%),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사업 확대(3.2%), 청년 지원금 제공(3.2%),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3.2%) 등의 순이었으며,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에 대한 비율이 다른 응답자에 비해 높았음

<표 4-1-4-18> 응답자의 청년부채 관련 의견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경기 부양	0	0	0	0	0	0
경력단절여성 등 여성 취업 지원사업	0	0	0	0	0	0
경제/금융 교육 및 상담	6	5.9	2	1.7	4	6.3
교육비 지원	0	0	0	0	0	0
규제완화	0	0	0	0	0	0
기본소득 제공	0	0	0	0	0	0
기존 사업 홍보 강화(지원금 신청방법 등)	0	0	4	3.5	0	0
대부업체 광고 제재 및 불법 사채 강력 단속	0	0	1	0.9	1	1.6
대출관련 혜택 및 무이자 대출 확대	0	0	1	0.9	0	0
대출상환 능력 없을 시 대출 제한 및 조건 강화	4	4.0	2	1.7	0	0
대출심사요건 완화	0	0	0	0	0	0
대학등록금 삭감 및 학자금 지원(대출이자 감면)	1	1.0	3	2.6	0	0
맞춤형 대출 상품 안내	0	0	0	0	0	0
무분별한 세금납비 유의 및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필요	0	0	1	0.9	0	0
부동산 안정화 정책	1	1.0	2	1.7	1	1.6
부채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함	1	1.0	0	0	0	0
부채는 본인 책임이며, 지원해줄 필요 없음	2	2.0	2	1.7	0	0
채무조정 서류 단순화	0	0	0	0	0	0
불필요한 신청서류 단순화	0	0	0	0	0	0
상속 등 집안사정으로 인한 부채 상환 지원사업	1	1.0	0	0	1	1.6
서울/경기도 청년 지원사업 참고 인천 청년사업 개선 및 확대	2	2.0	0	0	1	1.6
성실한 근로자 대상 부채 감면 제도	0	0	0	0	0	0
세금 활용한 지원 확대	1	1.0	0	0	0	0
소상공인/프리랜서 지원사업 확대	0	0	0	0	2	3.2
시장자율에 맡기기	0	0	0	0	0	0
신속한 지원	0	0	0	0	0	0
없음/모름/무응답	60	59.4	64	55.7	31	49.2
이자 관련 지원	1	1.0	0	0	0	0
인천시 내 청년 부채 지원 대책 확립	0	0	1	0.9	0	0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청년의 경제 독립을 돕는 지원 사업	2	2.0	1	0.9	2	3.2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일자리 창출 및 노동환경 개선	4	4.0	7	6.1	0	0
임금 상황	1	1.0	0	0	0	0
임대주택 공급 개선	0	0	0	0	0	0
임신/출산/양육 지원 확대	1	1.0	1	0.9	2	3.2
자산형성지원사업 확대	1	1.0	2	1.7	3	4.8
재난지원금 지급 빈도 상향	0	0	0	0	0	0
저소득 청년층을 위한 사업 확대	0	0	1	0.9	2	3.2
정책 실행시 지속적으로 운영	0	0	0	0	0	0
조건이 좋은 대출상품 출시	1	1.0	0	0	0	0
지역인재 가점 부여	0	0	0	0	1	1.6
지원대상 요건 검토 강화	0	0	0	0	0	0
창업비 지원	0	0	1	0.9	0	0
청년 나이 범위 상향 조정	0	0	2	1.7	0	0
청년 대상 저금리 대출사업	5	5.0	4	3.5	4	6.3
청년 대출 확대	0	0	0	0	0	0
청년 의견 수렴 및 현장 반영	0	0	0	0	0	0
청년 저신용대출 연봉 3배까지 가능하도록	0	0	0	0	0	0
청년 주거 지원	0	0	1	0.9	1	1.6
청년 지원금 제공	0	0	2	1.7	2	3.2
청년1인 가구 지원 확대	0	0	1	0.9	0	0
청년복지의 사각지대 보완 및 지원대상조건 완화	2	2.0	4	3.5	3	4.8
청년수당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 우려	0	0	0	0	0	0
청렴한 행정 필요	0	0	0	0	0	0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 교육	0	0	0	0	0	0
취업 안정	0	0	0	0	0	0
취업 알선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확대	4	4.0	1	0.9	2	3.2
취업 연계	0	0	0	0	0	0
투기조장 분위기 억제	0	0	0	0	0	0
포퓰리즘 억제	0	0	0	0	0	0
합법적 대부업체 정보 제공	0	0	1	0.9	0	0
행정 소외지역(영종)	0	0	0	0	0	0
현실에 맞는 정책 필요	0	0	0	0	0	0
현행 유지	0	0	0	0	0	0

7) 심리정서 상태에 따른 비교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자아존중감은 50점 만점에 34.9점이었으며, 미래지향은 40점 만점에 28.5점, 우울감은 44점 만점에 18.8점이었으며, 우울감 점수가 다른 응답자들에 비해 낮았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31.4점으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다소 낮았으며, 미래지향은 27.1점, 우울감은 21.6점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은 33.2점, 미래지향은 27.0점, 우울감은 20.5점이었음

<표 4-1-4-19> 응답자의 심리정서상태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N=101)			비주거관련대출(N=115)			주거+비주거관련대출(N=63)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자아존중감	101	34.9	6.9	115	31.4	7.2	63	33.2	7.0
미래지향	101	28.5	5.7	115	27.1	5.2	63	27.0	5.1
정서상태_우울감	101	18.8	6.7	115	21.6	7.5	63	20.5	7.0

8)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 연구진이 코로나19 이후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중에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가장 많이 경험한 실제 변화는 고독감 증가(25.7%),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18.8%), 월 저축액 감소(18.8%), 부채 증가(15.8%)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도 고독감 증가(33.3%)가 가장 높았으며, 노동시간 감소(26.1%), 소득 감소(25.2%), 월 저축액 감소(25.2%),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22.6%) 등의 순이었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에는 부채 증가(39.7%)가 가장 많았으며, 월 저축액 감소(34.9%), 소득 감소(31.7%), 고독감 증가(27.0%), 개인 신용점수 낮아짐(22.2%) 등의 순이었으며, 다른 응답자에 비해 부채 증가가 많았음

<표 4-1-4-20> 응답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변화 인식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 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노동시간 감소	예	10	9.9	30	26.1	11	17.5
	아니오	56	55.4	53	46.1	34	54.0
	해당없음	35	34.7	32	27.8	18	28.6
소득 감소	예	12	11.9	29	25.2	20	31.7
	아니오	53	52.5	51	44.3	28	44.4
	해당없음	36	35.6	35	30.4	15	23.8
임금 미지급 (연체)	예	7	6.9	7	6.1	9	14.3
	아니오	57	56.4	66	57.4	35	55.6
	해당없음	37	36.6	42	36.5	19	30.2
무급휴직 경험	예	9	8.9	8	7.0	13	20.6
	아니오	52	51.5	64	55.7	31	49.2
	해당없음	40	39.6	43	37.4	19	30.2
재택근무 일정기간 이상 실시	예	19	18.8	26	22.6	12	19.0
	아니오	43	42.6	49	42.6	29	46.0
	해당없음	39	38.6	40	34.8	22	34.9
월 저축액 감소	예	19	18.8	29	25.2	22	34.9
	아니오	49	48.5	54	47.0	25	39.7
	해당없음	33	32.7	32	27.8	16	25.4
정기 예·적금 중도해지	예	7	6.9	15	13.0	13	20.6
	아니오	59	58.4	64	55.7	33	52.4
	해당없음	35	34.7	36	31.3	17	27.0
보험 해약	예	6	5.9	9	7.8	11	17.5
	아니오	60	59.4	64	55.7	34	54.0
	해당없음	35	34.7	42	36.5	18	28.6
부채 증가	예	16	15.8	20	17.4	25	39.7
	아니오	51	50.5	64	55.7	26	41.3
	해당없음	34	33.7	31	27.0	12	19.0
개인 신용점수 낮아짐	예	9	8.9	18	15.7	14	22.2
	아니오	56	55.4	61	53.0	35	55.6
	해당없음	36	35.6	36	31.3	14	22.2
고독감 증가	예	26	25.7	38	33.0	17	27.0
	아니오	43	42.6	47	40.9	34	54.0
	해당없음	32	31.7	30	26.1	12	19.0

9)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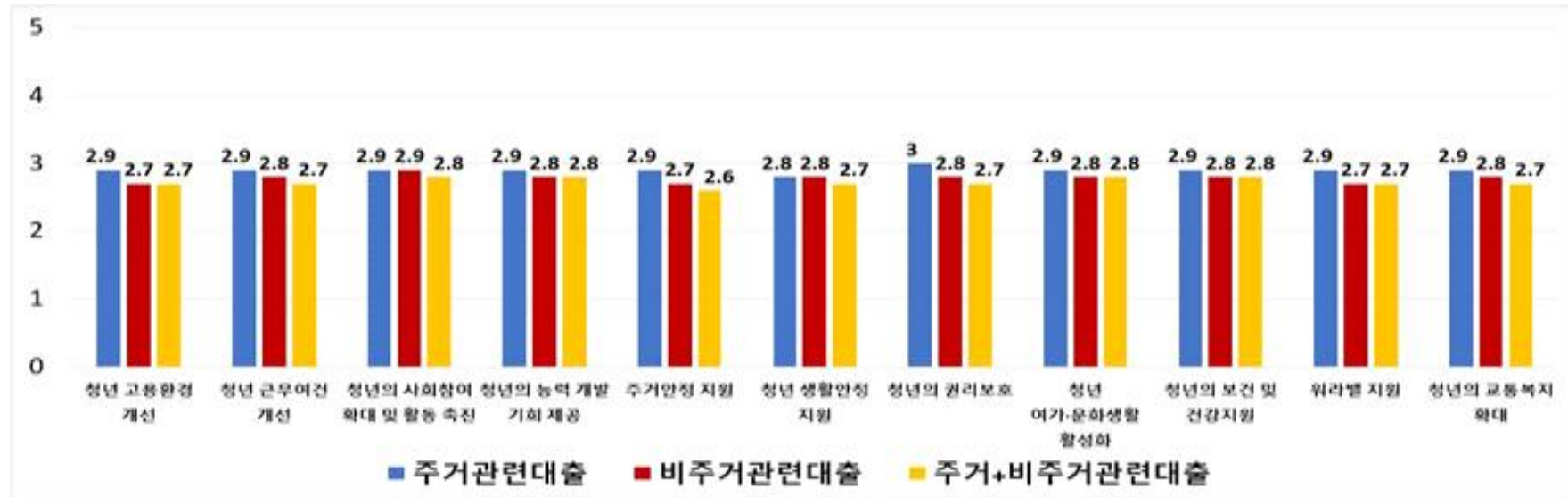
- 인천시 청년정책에 대해 영역별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모든 개별 사업영역에서 평균적으로 5점 만점에 2점대 후반의 만족도를 보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청년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모든 사업영역에서 주거관련대출 응답자보다 약간 더 낮거나 같았음
 -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모든 사업영역에서 다른 응답자보다 약간 더 낮거나 같았음

<표 4-1-4-21>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전체		101명	100%	115명	100%	63명	100%
청년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수의 확대와 질의 개선)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7	6.9	10	8.7	8	12.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9	18.8	32	27.8	13	20.6
	보통이다 (3점)	52	51.5	60	52.2	35	55.6
	만족하는 편이다 (4점)	21	20.8	8	7.0	6	9.5
	매우 만족한다 (5점)	2	2.0	5	4.3	1	1.6
	평균 (표준편차)	2.9 (0.9)		2.7 (0.9)		2.7 (0.9)	
청년 근무여건 개선 (임금/급여, 근로시간, 복리후생)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7	6.9	9	7.8	6	9.5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2	21.8	30	26.1	18	28.6
	보통이다 (3점)	47	46.5	58	50.4	30	47.6
	만족하는 편이다 (4점)	21	20.8	17	14.8	8	12.7
	매우 만족한다 (5점)	4	4.0	1	0.9	1	1.6
	평균 (표준편차)	2.9 (0.9)		2.8 (0.8)		2.7 (0.9)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 촉진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6	5.9	6	5.2	6	9.5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2	21.8	27	23.5	14	22.2
	보통이다 (3점)	54	53.5	59	51.3	32	50.8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6	15.8	20	17.4	9	14.3
	매우 만족한다 (5점)	3	3.0	3	2.6	2	3.2
	평균 (표준편차)	2.9 (0.9)		2.9 (0.8)		2.8 (0.9)	
청년의 능력 개발 기회 제공 (진로탐색 및 교육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6	5.9	7	6.1	10	15.9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9	18.8	24	20.9	7	11.1
	보통이다 (3점)	58	57.4	66	57.4	35	55.6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5	14.9	17	14.8	10	15.9
	매우 만족한다 (5점)	3	3.0	1	0.9	1	1.6
	평균 (표준편차)	2.9 (0.8)		2.8 (0.8)		2.8 (1.0)	
주거안정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9	8.9	15	13.0	10	15.9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5	24.8	27	23.5	18	28.6
	보통이다 (3점)	44	43.6	52	45.2	25	39.7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7	16.8	17	14.8	7	11.1
	매우 만족한다 (5점)	6	5.9	4	3.5	3	4.8
	평균 (표준편차)	2.9 (1.0)		2.7 (1.0)		2.6 (1.0)	

구 분		대출유형					
		주거관련대출		비주거관련대출		주거+비주거관련대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청년 생활안정 지원 (부채경감, 자산형성지원, 보육 지원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9	8.9	10	8.7	8	12.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6	25.7	28	24.3	18	28.6
	보통이다 (3점)	43	42.6	61	53.0	28	44.4
	만족하는 편이다 (4점)	21	20.8	13	11.3	6	9.5
	매우 만족한다 (5점)	2	2.0	3	2.6	3	4.8
	평균 (표준편차)	2.8 (0.9)		2.8 (0.9)		2.7 (1.0)	
청년의 권리보호 (「근로기준법」 등 교육 및 홍보 등)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8	7.9	10	8.7	8	12.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1	20.8	26	22.6	14	22.2
	보통이다 (3점)	46	45.5	58	50.4	34	54.0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9	18.8	17	14.8	4	6.3
	매우 만족한다 (5점)	7	6.9	4	3.5	3	4.8
	평균 (표준편차)	3.0 (1.0)		2.8 (0.9)		2.7 (0.9)	
청년 여가·문화생활 활성화 (청년 창작활동 및 향유 확대)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8	7.9	8	7.0	5	7.9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9	18.8	24	20.9	15	23.8
	보통이다 (3점)	53	52.5	65	56.5	36	57.1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8	17.8	16	13.9	5	7.9
	매우 만족한다 (5점)	3	3.0	2	1.7	2	3.2
	평균 (표준편차)	2.9 (0.9)		2.8 (0.8)		2.8 (0.8)	
청년의 보건 및 건강지원 (영양, 체력, 정신건강 관리)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6	5.9	7	6.1	8	12.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21	20.8	29	25.2	10	15.9
	보통이다 (3점)	53	52.5	59	51.3	34	54.0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7	16.8	18	15.7	9	14.3
	매우 만족한다 (5점)	4	4.0	2	1.7	2	3.2
	평균 (표준편차)	2.9 (0.9)		2.8 (0.8)		2.8 (1.0)	
워라밸 지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결혼· 가정생활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9	8.9	14	12.2	8	12.7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9	18.8	31	27.0	16	25.4
	보통이다 (3점)	50	49.5	51	44.3	31	49.2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9	18.8	16	13.9	5	7.9
	매우 만족한다 (5점)	4	4.0	3	2.6	3	4.8
	평균 (표준편차)	2.9 (0.9)		2.7 (1.0)		2.7 (1.0)	
청년의 교통복지 확대 (대중교육 이용 지원)	매우 불만족 한다 (1점)	11	10.9	10	8.7	6	9.5
	불만족 하는 편이다 (2점)	16	15.8	23	20.0	17	27.0
	보통이다 (3점)	52	51.5	67	58.3	34	54.0
	만족하는 편이다 (4점)	18	17.8	14	12.2	5	7.9
	매우 만족한다 (5점)	4	4.0	1	0.9	1	1.6
	평균 (표준편차)	2.9 (1.0)		2.8 (0.8)		2.7 (0.8)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인천시 청년 정책 만족도 그래프>

[그림 4-4-9] 응답자의 인천시 청년정책 사업에 대한 만족도

6. 소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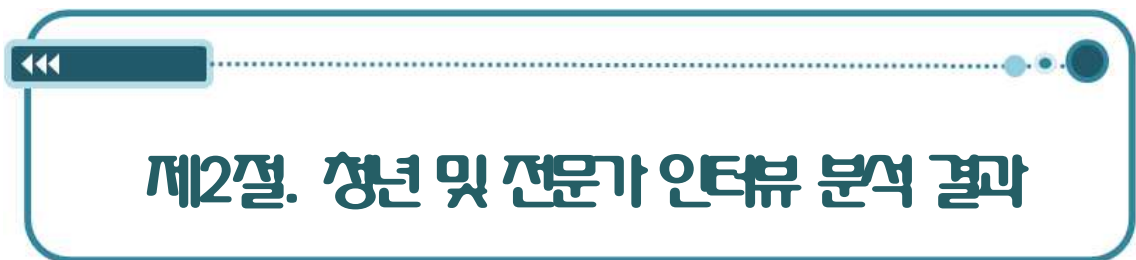
1) 2차 자료 분석을 통한 전국·지역별 청년부채 실태 분석

-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 30대의 가계부채는 40대 다음으로 규모가 컸고, 20대는 규모는 작지만 최근 들어 가장 급격한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은행 가계부채DB를 통해 인천 청년부채 현황을 살펴본 결과, 2020년 이후 20대 청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며, 30대는 전국 평균 이하이지만, 최근 코로나19 이후 뚜렷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인천 청년부채의 경우, 타지역에 비해 신용대출 비율이 낮고, 주택담보대출이 크다는 특징이 있음
- 청년패널과 한국노동패널을 활용한 분석에서도 인천의 청년부채는 타 지역에 비해 다소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2) 설문조사를 통한 인천지역 청년부채 실태 분석

- 인천 청년의 부채보유 비율은 27.9%였으며, 전체 응답자 1,000명의 평균 부채금액은 2,017.18만원, 부채보유 청년의 평균 부채금액은 7,230.0만원이었음
- 전체 응답자의 월 평균 소득은 211.0만원, 월 평균 지출은 187.5만원, 월 평균 저축액은 49.6만원, 평균 총저축액은 1,341.4만원이었음
- 부채보유 청년의 부채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주택구입대출이 평균 4,368.2만원으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전세보증금(1,706.7만원), 봉나의 또 다른 빚 변제(286.3만원), 자동차 구입(225.4만원), 투자목적(202.7만원), 대학학자금(187.4만원), 창업준비(106.1만원)이었음
- 대출 연체 등으로 본인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7.3%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16.3%였음
 - 부채 보유자의 경우 이 비율이 각각 13.7%와 22.9%로 크게 높았음
- 집단별로 부채금액을 비교해 보면, 연령이 높거나 가구원수가 증가할수록 총부채 잔액과 주택관련 대출액이 증가하는 반면, 비주거관련대출은 그렇지 않았음

- 성인이후 인천지역으로 이주한 청년과 자영업 청년의 비주거관련 신용대출액이 타 집단에 비해 많았고, 고정지출액이 너무 많은 청년의 경우에도 총부채 잔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주거관련대출액이 증가할 경우, 금전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자아존중감과 미래지향은 낮으며, 우울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 20대 응답자 가운데 부채보유자는 69명(15.5%), 평균 부채금액은 3411.1만원이었으며, 30대 응답자 중 부채보유자는 210명(37.8%), 평균 부채금액은 8,484.7만원으로 20대에 비해 훨씬 많았음
 - 2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전세보증금이 평균 128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주택구입(1036.2만원), 대학학자금(501.3만원), 창업준비(144.9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126.0만원), 투자목적(104.4만원), 자동차 구입(98.5만원), 가족의 대출요청(76.0만원) 등의 순이었음
 - 30대 부채보유 응답자의 부채를 대출목적별로 구분해보면, 주택구입이 546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세보증금(1843.6만원),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338.9만원), 자동차 구입(267.1만원), 투자목적(235.0만원), 창업준비(93.3만원), 가족의 대출요청(87.2만원) 등의 순이었음
- 대출원금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억830.3만원이었으며,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750.7만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가 평균 1억1,460.2만원이었음
- 주거관련대출 응답자 중에서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 포함)은 6.0%였으며, 본인 이외 본인의 가구원이 금융채무불이행을 경험한 비율(과거포함)은 8.9%였음
-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본인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 비율은 18.3%였으며, 본인 외 가구원의 금융채무불이행 경험비율이 31.3%였음
- 금전스트레스(40점 만점)은 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6.8점, 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20.3점, 주거+비주거관련대출 응답자의 경우 19.9점이었음



제2절. 청년 및 전문가 인터뷰 분석 결과

1. 개요

1) 조사목적

- 본 인터뷰의 목적은 청년의 부채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른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 조사설계

-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사이의 청년 중 대출경험이 있는 사람을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여 1대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한 내용과 금융 관련 전문가와 청년 활동가를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한 내용을 분석하였음
- 1대1 심층면접(IDI) 사례조사를 위해 연구진은 2021년 10월 09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인천지역 50명의 청년 사례자를 인터뷰하였고, 인천지역 청년관련 분야의 활동가 4명과 금융(부채)관련 전문가(종사자) 4명을 대상으로 2021년 11월 18일 집단심층면접을 실시함
- 1대1 심층면접 조사연구 참여자의 구성은 대학 재(휴)학, 취업자(정규직, 비정규직), 구직자, 전업주부와 창업자를 대상하였음. 또한 나이 대, 결혼여부와 성별에 따른 부채유형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연령, 기혼과 미혼, 남녀를 구분하여 분석함

<표 4-2-1> 질적조사 설계방안

구 분	1대1 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IDI)	표적집단 심층면접 (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대상	부채가 있거나 있었던 인천지역 청년 (만19세~만39세)	인천지역 청년관련 분야의 활동가 및 금융(부채) 관련 전문가(종사자)
표본크기	50명	8명
표본추출	연령별, 성별, 계층별(경제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섭외	관련 활동가 및 전문가 섭외

- 1대1 심층면접은 부채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청년의 기초실태와 부채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된 반구조화 질문지(semi-structured interview)²⁾를 이용하여 면접자가 면접 대상자의 일터 또는 주거지 부근으로 찾아가 해당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하는 방식과 화상프로그램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을 혼용하여 진행하였음
- 면접시간은 60분에서 120분까지 다양했으며, 면접대상자의 동의 아래 녹음하고 필사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여 분석보고서에 인용함
- 면접조사의 내용은 크게 △소비-저축실태, △부채의 원인, △부채의 영향, △청년부채의 해소방안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대출 및 지출에 대한 기초설문, 부채의 발생원인과 유형화 및 악성화경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생애경로에서 자립과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정책 수요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을 조사·분석함

<표 4-2-2> 청년의 부채 심층면접 구성

항목	질문내용
기본실태조사	기초조사, 지출과 대출 및 저축 실태
부채의 원인	부채 발생원인과 유형화, 악성화 경로
부채의 영향	부채의 우울, 자존감, 관계성 등에 미치는 영향
	부채의 생애경로에서 자립,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
부채의 해결방안	부채의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정도와 선호 정책 및 정책의 지향점

<표 4-2-3> 청년의 부채 개별심층면접(IDI) 참여자

연번	구분	성별	연령	부채성격	결혼여부	거주지
1	니트(취업진학준비,그냥쉬었음) A	여	25	생활비	미혼	부평구
2	니트(취업진학준비,그냥쉬었음) B	여	36	주거대출	기혼	계양구
3	실업자 A	남	26	학자금+생활비	미혼	부평구

2) 반구조적 검사는 자극이 분명하고 또는 그 의미가 명료함으로써 한 개인의 심층적인 성격 측면을 자기 방어기제에 의하여 드러내 주지 못하는 구조적 검사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비구조적 검사의 자극이 너무나 막연함으로써 심층적 성격측정에 있어서 비타당성과 비신뢰성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하는 데서 출발함[교육학용어사전,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연번	구분	성별	연령	부채성격	결혼여부	거주지
4	실업자 B	남	30	학자금+생활비	미혼	서구
5	실업자 C	남	31	학자금+생활비	미혼	계양구
6	실업자 D	남	32	학자금+자동차	미혼	남동구
7	실업자 E	남	33	학자금+생활비	미혼	미추홀구
8	실업자 F	여	27	학자금+생활비	미혼	부평구
9	실업자 G	여	30	학자금+주거대출	기혼	계양구
10	실업자 H	여	31	학자금+생활비	미혼	연수구
11	실업자 I	여	32	학자금+어머니병원비	미혼	부평구
12	정규교육기관(대학,대학원) A	남	22	학자금	미혼	부평구
13	정규교육기관(대학,대학원) B	남	26	학자금+생활비	미혼	미추홀구
14	정규교육기관(대학,대학원) C	남	27	학자금+생활비	미혼	미추홀구
15	정규교육기관(대학,대학원) D	여	23	학자금	미혼	남동구
16	정규교육기관(대학,대학원) E	여	24	전세자금	미혼	미추홀구
17	창업 A	남	32	전세자금+투자금	미혼	남동구
18	창업 B (경험 - 취업 중)	남	36	창업+학자금	기혼	미추홀구
19	창업 C (경험 - 취업 중)	여	27	창업+전세보증	미혼	남동구
20	취업 중(임금/비임금) A	남	26	학자금+보험대출	미혼	서구
21	취업 중(임금/비임금) B	남	27	학자금+동생자동차	미혼	서구
22	취업 중(임금/비임금) C	남	28	학자금	미혼	서구
23	취업 중(임금/비임금) D	남	29	생활비+학자금	미혼	미추홀구
24	취업 중(임금/비임금) E	남	29	주거대출	미혼	연수구
25	취업 중(임금/비임금) F	남	30	학자금+주거보증	미혼	남동구
26	취업 중(임금/비임금) G	남	30	전세대출+가족	기혼	계양구
27	취업 중(임금/비임금) H	남	30	학자금(생활비)	미혼	미추홀구
28	취업 중(임금/비임금) I	남	30	학자금(생활비)	미혼	미추홀구
29	취업 중(임금/비임금) J	남	32	학자금+생활비	미혼	부평구
30	취업 중(임금/비임금) K	남	33	전세대출+학자금	기혼	연수구
31	취업 중(임금/비임금) L	남	33	전세대출	미혼	연수구
32	취업 중(임금/비임금) M	남	36	주거대출+학자금	기혼	서구
33	취업 중(임금/비임금) N	남	36	주거대출+학자금	미혼	서구
34	취업 중(임금/비임금) O	여	25	주거대출	미혼	동구
35	취업 중(임금/비임금) P	여	26	학자금(생활비)	미혼	연수구
36	취업 중(임금/비임금) Q	여	27	학자금+생활비(집안)	미혼	부평구
37	취업 중(임금/비임금) R	여	28	주거대출	미혼	미추홀구

연번	구분	성별	연령	부채성격	결혼여부	거주지
38	취업 중(임금/비임금) S	여	30	학자금+신용	미혼	미추홀구
39	취업 중(임금/비임금) T	여	31	전세자금	미혼	서구
40	취업 중(임금/비임금) U	여	32	전세자금	미혼	남동구
41	취업 중(임금/비임금) V	여	33	주거대출	이혼	남동구
42	취업 중(임금/비임금) W	여	34	학자금+주거보증	미혼	남동구
43	취업 중(임금/비임금) X	여	34	학자금+주거보증	미혼	남동구
44	취업 중(임금/비임금) Y	여	34	생활비	미혼	남동구
45	취업 중(임금/비임금) Z	여	34	학자금	미혼	계양구
46	취업 중(임금/비임금) AA	여	35	학자금	미혼	남동구
47	취업 중(임금/비임금) AB	여	38	주거대출+생활비	기혼	남동구
48	프리랜서 A	남	24	생활비	미혼	부평구
49	프리랜서 B	남	32	학자금+전세보증	미혼	중구
50	프리랜서 C	여	39	전세대출	기혼	계양구

- 한편 집단심층면접(FGI)에서는 금융(부채)관련 전문가(종사자) 및 청년관련 분야의 활동가들의 청년 부채 발생원인에 대한 인식과 해결방안 등이 1대1 심층면접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하여 질적 연구의 타당성을 제고함
- 또한 부채 해결방안을 포함하여 인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정책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안을 모색함

<표 4-2-4> 청년의 부채 집단심층면접(FGI) 참여자

연번	구분	소속	직위
1	금융(부채) 전문가 A	〇〇은행 인천본부	과장
2	금융(부채) 전문가 B	〇〇〇〇〇〇지원센터	팀장
3	금융(부채) 전문가 C	〇〇〇〇〇〇〇〇센터	팀장
4	금융(부채) 전문가 D	〇〇〇〇〇〇센터	상임이사
5	청년분야 활동가 A	〇〇〇〇네트워크	위원
6	청년분야 활동가 B	〇〇〇〇네트워크	위원
7	청년분야 활동가 C	〇〇〇〇네트워크	위원
8	청년분야 활동가 D	〇〇〇〇〇〇위원회	위원

2. 인터뷰 분석

1) 기초실태 조사

(1) 소비지출 실태

- 소비지출에 대한 심층면접참여자의 사례연구 결과는 기존의 청년 소비지출에 대한 조사(서봉만·최태림·김다애, 2021)와 크게 다르지 않았음
 - 심층면접참여자의 대다수가 식료품/ 외식비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비와 통신비에 대한 지출 순이었음.
 - 이와 같은 심층면접 연구결과는 앞서 살펴본 양적 설문조사의 내용과 대체적으로 일치한 것이라 볼 수 있음
 - 참여자 중 실업상태 이거나 취업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높지 않은 청년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식료품 하고 외식비를 한 달에 그래도 50~60만원 조금 이상 쓰는 것 같다. 한 50%정도~ 60%정도” <정규교육기관 A>

“식료품/ 외식비요. 이게 진짜 만만치 않아요. 점심 저녁 값이 이게 제일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미용비. 지금은 운동 안 하지만, 또 다닐 예정이기 때문에 운동한다든지, 옷 산다든지, 여행 간다든지... 이쪽으로. 아, 저축예금이 그렇게 치면 제일 큰 것은 이거예요” <취업 중 O>

“교통비 아니면... 일단 술을 마실 때도 있고요. 혼자서 마실 때도 있지만 타인과 다른 사람과 같이 술 마실 때도 있고 주로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식비 교통비 이 두 가지가 제일 많고요. 뭐 또 나가는 것으로 치면은 카카오 톡으로 기프트콘 선물하는 것. 한 달에 한 뭐 축하해 줘야 한다 싶을 때 3개 정도” <실업자 B>

“소비는 생활비 비중이 크며 생활비는 뭐 오가면서 식비나 그다음에 교통비나 교통비,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거나 모임하거나 이럴 때에 들어가는 돈 이고요. 중간 중간에 이제 사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필요한 물건들을 좀 샀죠. 그래서 이렇게 피복비나 이런 걸로 좀 들어갔습니다.” <취업 중 F>

“식비가 제일 크긴 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도 몰랐는데 거의 하루에 만 오천 원 내지 2만 원 그냥 나가더라고요. 아침 점심 저녁만 먹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다 아침에는 제가 토스트를 해먹거든요. 집에서. 근데 점심저녁은 아무리 싸게 먹어도 1만 5천 원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의 주말에는 또 특히나 제가 저녁을 요즘 다이어트 하느라 저녁을 잘 안 먹는데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군것질도 좀 해야 되고 아침에 커피도 마셔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그냥 나가더라고요.” <취업 중 L>

“동네가 되게 비싼 동네여서 대학의 물가보다 훨씬 웃도는 물가였기 때문에 식사 한 끼도 거의 그냥 밥집인데 거의 식사 한 끼 만 원씩 해서. 또 이제 저희가 따로 밥을 해서 먹을 그런 시간은 없으니까 점심 저녁 하루에 또 두 끼씩 사 먹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런 생활비만으로 나가는 돈도 좀 상당했습니다.” <취업 중 S>

“생활비 우선 식비가 이제 회사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식비 좀 많이 쓰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많이 먹거나 그러지 않고 한 달에 뭐 술 먹고 그러다 보니까 한 20~30만 원 정도, 30~40만 원 그 정도 선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제 교통비 같은 거 교통비인데 이제 기름값이나 지금 기름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기름값하고 그리고 보험비 그런 부분에 거의 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취업 중 A>

“통신비 6만원, 교통비 10만원, 식비가 30정도, 기타 생필품들 간혹 사고, 모임이 있거나 하면 부족하다. 많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써야할 때는 식비를 줄인다. 저녁에 친구들이 밥 먹거나 해야 할때는 식비를 줄인다.” <실업자 E>

“식비, 교통비, 친구들 만나고 또 이제 정치 활동을 하니까 후배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밥 사 먹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사실 친구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만 조금 어렵게 살고 가까운 친구들이 다 좀 풍족하게 사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맞추려다 보면은 애들이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게 또 다르니까. 제가 평소에 먹는 거랑 또 같은 고기를 먹으려 가도 금액이 다른 거를 먹으려 가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한 번 만날 때마다 휘청 휘청 거리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B>

“저는 조금 기준이 이제 대략적으로 잡으면 이제 식료품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얼마 이상 쓰지 않는다 이런 게 있고 이제 여자 친구랑 저랑 해서 이제 이 데이트 같은 여가생활 지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로 리미트를 걸어놓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네 그냥 그 정도로 잡고 있어요. 이제” <실업자 A>

“한 달에 먼저 제가 버는 거 먼저 30만 원 부모님 용돈 드리고 이제 부모님이 또 이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챙기는 데도 또 이제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도 웬만해서는 제가 써드리려고 100만 원 정도는 투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 중 B>

“일단 교통비 출퇴근하는 교통비도 들겠고요. 아니면 이제 제가 또 활동하는 이런 제가 운영하는 단체라든지 그 정도에서 약간 제 스스로 어떤 생활비 무슨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약간 식비나 음료 이런 정도만 나가는데 그거 이외에는 크게 다른 데다 쓰는 데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옷을 쇼핑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솔직히 많이 안 하고 있고 못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정도 기본적으로.” <취업 중 D>

“식비가 제일 많이 나가요 사실 교통비라든가 유류세 저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않으니 식비가 사실 제일 많이 나가는데 요새 저기서 약간 물가가 상승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특히나 과일이라든가 기본 계란 이런 것들도 우유 이런 게 되게 많이 오르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체감하는 게 좀 달라서 아무래도 식비가 제일 많이 비중을 차지해요. 다른 거보다 이런 옷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주로 먹는 거.” <취업 중 Z>

- 한편, 청년들 사이에서도 주택대출에 따른 이자 지출과 자동차 할부금으로 인해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함

“주택대출이자가 지금 내고 있는 게 제일 비중이 크죠. 그 제일 크고 차량 할부금 좀 나가는 것도 좀 크고요. 예, 그리고 제가 종교가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헌금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비율로 봤을 때는 아마 그 순서 보험료도 조금 있고요. 그러다보면 이제 말씀하신 물론 통신비나 이런 건 있는데 거의 소액이잖아요. 10만 원 정도 이렇게 각각 따졌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화 여가비나 외식비 비율은 거기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입니다.” <취업 중 N>

- 경제상태별 소득-소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지출할 정도를 정해두고 반복적으로 소비지출하는 경우가 취업 중 청년에게 나타났으며, 정규교육기관을 다니거나 실업의 경우 소득의 한계로 인해 소득 수준에 맞춰 소비를 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소비지출은 보통 우리가 흔히 통장 쪼개기라고 하는 틀 정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틀 하나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틀 안에서 별 생각 없이 지출합니다.” <취업 중 F>

“소비의 3분의 2 정도가 제 기준에서는 되게 넉넉하게 잡은 생활비 기준이어서 쓰고 남은 거는 그냥 비상금으로 모아둔다고 생각을 하고 네 딱 3분의 1 정도만 고정을 시켜서 투자 금으로 놓고 있습니다.” <취업 중 T>

“학과 특성상 너무 학교에 있는 시간이 길고, 뭐 하는 애들은 하는데 저는 알바 할 시간이 없다고 느껴서, 용돈을 받고 (용돈에 맞춰) 식비 등 (소비)에 많이 사용한다.” <정규교육기관 D>

“생활비는 거의 너무 과하게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딱 진짜 정말 필수품 이외에 뭐 식비 이런 거 이외에 거의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식비 정도 식비는 한 달에 거의 집에서 거의 부모님이랑 요리해서 먹으면은 그렇게 맛있어 예전에는 외식할 경우에만 식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니트 A>

- 예상치 못한 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저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야 하는 경우도 발생

“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찌다 보면 이제 차에 이제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다 지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병원 같은 거 갈 때나 갑자기 이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지출이 발생했을 때는 살짝 이제 좀 뻘뻘합니다.” <취업 중 A>

“차 그거 유지하는 데 또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근래에 돈을 더 못 모은 것 같아. 보험료 내고 언제 뭐가 돈이 계속. 뭐가 고장 나고 그렇게 목돈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계속 긁고 있어요. 제가.” <취업 중 X>

- 기혼여성 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소비지출에서 양육(학원비, 분유, 기저귀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발생하여 차이가 나타남
 - 학령기 아이가 있는 기혼 청년의 경우 자녀 학원비가 지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미혼청년의 식비지출이 본인 및 지인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했다면, 기혼여성 청년의 경우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와 관련된 비용 위주로 생활비를 사용

“지출 중에서 그렇게 많이 나가는 게 아이 학원비 그 다음에 생활비 뭐 장보고 관리비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어쨌든 제가 생활하는 데에 쓰는 비용이잖아요? 필수항목 이것도. 그 비용이 제일 많이 나가요. 집에 생활비로 쓰는 거랑, 장보는 거랑, 대출 이게 제일 많이 나가요.” <취업 중 V>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서 아기에겐 많은 돈이 나가고, 식비, 대출금 이자, 남편 교통비 정도로 나가는 것 같다. 양육비가 분유 기저귀만 해서 50만 원 정도, 대출이자 15만원 정도, 식비는 20~30만원 정도, 통신비는 1인당 10~20만원 정도 들어간다. 교통비는 자가 용을 이용한다.” <실업자 G>

“요즘은 사교육비가 약간 그래도 이제 아기 배우고 싶어 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제 식비 같은 거 배달 같은 거. 왜냐하면은 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시간에 그런 게 있어서 배달도 많이 해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부모님이 가까운 데 사시니까. 양쪽 다 부모님하고 식사 자리나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저희가 이제 부담하니까 그런 게 좀 한 달에 좀 많아요. 그래서 식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취업 중 AB>

(2) 저축 실태

- 부채란 자신의 미래 소비를 희생하여 현재 소득화하는 것이며, 저축이란 현재의 소득을 미래 소비를 위해 쓰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저축의 동기는 미래를 위한 장기저축이나 투자를 위한 것이거나 현재의 소득 불안정과 관련하여 유동성 확보 욕구에 따른 것으로 나타남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저축 동기가 많았으며, 장기저축인 경우도 저축액이 크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저축을 비상금 목적으로 했던 게 크기 때문에..” <취업 중 H>

“(생략)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현금으로 쌓아놓는 스타일이었어요. 이걸 언제 뽑아서 내가 써야 될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있어서.” <취업 중 Y>

“생활비를 제외하고 번 돈의 반은 저축을 해가지고 나중에 뭔 일이 있을 때 쓸 수 있게 준비를 미리 해놓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C>

“적금으로 안 하고 단기 적금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모아놨다가, 왜냐하면 남편이 이제 만약에 늦게 월급이 미뤄진다면 이리하면 급하게 돈을 어쨌든 필요하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저희는 그냥 보통 예금에다가 이렇게 좀 모아놨다가 이제 급할 때 또 썼다가 하고 모았다가 또 상환할 때 또 쓰고 그런 식으로” <취업 중 AB>

“예금 통장에 넣어놓고 그리고 적금 따로 들고 있고요. 네 코인이나 이런 거는 투자는 안 했고 아니 안 했고는 아니고 하다가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하는 거 보고 들어가 가지고 잃지는 않았어요.” <창업 C>

“저축은 남는 금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수시로 하는 것 같아요. <취업 중 M>

“저축보다 그냥 통장에만 쌓여 가면 이제 이거를 어다가 써야 될지 하면서 보고 이제 한 번에 그냥 갚아버리고 막 그리고 있거든요. 예금 통장에 돈 번 거를 다 넣어놓고 이제 생활비로 쓰시든지.” <취업 중 B>

- 안정적 직장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유동성과 소비지출 억제를 위한 저축을 시도하는 경우도 나타남

“처음에는 그냥 통장에 돈을 넣어놓고, 그 급여 돈을 그냥 그대로 넣어놓고,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점점 버니까 씹씹이가 커지니까 보험도 연금보험도 들게 되고 어 막 편드나 그런 것도 들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취업 중 V>

“저축은 수입의 절반을 하려고 합니다. 갑자기 생활비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 없는 돈 중에도 상비금으로 이제 제가 따로 빼놓는 통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일단은 지출을 하고 반대로 이제 상여나 이제 저한테 플러스가 됐을 때 매우 노력하는 편입니다.” <취업 중 W>

- 장기저축을 하는 사례도 확인됨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이여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취업 중 V>

“(청약)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랑. 이제 따로 적금이나 이런 게 좋은 상품 그냥 나왔다고 은행 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그런 거” <취업 중 C>

“지금 이제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거를 기본적으로는 깔아놓고 10만 원 15만 원 요 정도만.” <취업 중 K>

- 심층면접연구 참여자들의 저축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저축을 하고 있으나 소득의 한계로 인해 저축을 많이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계좌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았음
- 이는 취업초기의 사회초년생의 특징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불확실한 소득상태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 또한 부모님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의 경우 적은 소득에도 꾸준히 저축을 시도하고 있었음

“비상금 목적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돈이 결국은 제 지출을 전부 충당을 해 주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세하게 생각을 안 했어도 알아서 이게 해결이 되는 그런 쪽이어서. 그렇게 깊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월급여가 130에서 150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급여의 한 50% 가까이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 정도” <취업 중 H>

“저축이라는 게, 보험도 저축에 해당 되는지.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지만 저축성 보험이여가지고 그것도 하고 있거든요.” <취업 중 V>

“적금 같은 거는 이제 해지가 만료 전에 해지가 되거나 이러면 좀 불리하니까 그래서 좀 그냥 저는 그냥 남겨놔던 것 같아요.” <취업 중 Y>

“그냥 그런 거 이제 소소하게 드는 편이고요. 처음에는 처음에 다녔을 때 직장 다녔을 때는 한 저희 학자금 상환 포함해가지고 최소 한 70~80%는 저금에 넣었던 것 같아요.” <취업 중 C>

“월급을 받으면 받은 돈의 반은 저금을 하고, 지금은 적금 통장은 따로 안 만들고, 그냥 예금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놓는 편인데 번 돈의 반은 따로 저축을 하고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나머지 반 갖고 생활하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정규교육기관 C>

“그리고 이제 자투리로 1~2만 원씩 생기는 거는 그냥 통장에 넣고있죠 입출금 자유롭게” <취업 중 K>

“저축 같은 경우도 원래 그전까지는 대출할 때까지는 제가 잘 이저에 대해서 개념을 몰랐어요. 학생들은 돈을 어떻게 불리고 이런 걸 진짜 너무 나중에 안 거든 나중에 대출 다 갖고 나서 그때야 눈을 돌리게 된 거예요.” <니트 A>

“보통 이제 고정 지출되는 거 고정 수입인 거, 급여나 이런 거는 한 통장에 다 모아놓고요. 돈을 이제 급여가 들어오면은 쪼개요. 그래서 이제 이쪽 통장이 얼마 해서 이제 약간 일반 보통 예금 통장을 몇 개를 놓고 쪼개서 하고 하나는 경조사비 통장, 그다음에 하나는 아이 육아 통장, 다음에 하나는 가족 여행비 통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네 개 정도 해가지고 해서 거기서 이제 큰돈은 경조사비 같은 거는 비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거기서 지출하고 그 다음에 아이 육아 관련해서도 이제 고정 지출 외로 들어가는 게 있으면 거기서 통장에서 빼고 이렇게.” <취업 중 AB>

“일단은 남은 돈이 있으면 제 와이프가 먼저 하고요. 와이프 통장으로 그냥 예금 상태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부 금액들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근데 그 비중은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수준이에요.” <취업 중 M>

“예금 통장에 돈 번 거를 다 넣어놓고 이제 생활비로 쓰시든지 아니면 집에 이렇게 보내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뒀다가 조금 더 차면 이제 그거 빼가지고 학자금 조금 갖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도록.” <취업 중 B>

○ 한편, 정책지원을 이용하여 저축을 하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나타남

“정책 상품 중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는 ‘청년내일채움공제’라고 있어요. 이거는 청년인데. 이제 신입사원 아닌 청년들만 가능한 이런 게 있는데 그거 하나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일반 시중은행의 상품 이용해서 저축하고 있습니다.” <취업 중 F>

○ 아직 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청년 비율이 높은 특성에 따라 자가 주택 마련을 위한 저축을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었으며, 부모님의 소득 지원이 없는 경우 저축을 시작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워하면서도 미래계획의 일환으로 주택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은 유지하려고 하였음

“제가 그 적금까지는 아니고 제가 주택 청약 넣은 게 있었구요. 아주 소량이지 만 주택 청약은 지금도 넣고 있기는 한데 그렇고 그다음에 저는 그냥 이렇게 약간 현금으로 쌓아놓는 스타일이었어요.” <취업 중 Y>

“(청약) 그거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랑 이제 따로 적금이나 이런 게 좋은 상품 그냥 나왔다고 은행 쪽에서 연락이 오면 그냥 그런 거 이제 소소하게 드는 편이고요.” <취업 중 C>

“저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도와주시는 건데 이제 주택 청약 월 10만 원씩 넣으라고 이제 부모님이 그거는 따로 주시고 계셔서 그걸로 이제 저축하고 있어요.” <정규교육기관 E>

“사실 저축이랄 것도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저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고등학교 중,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부모님이 따로 저축을 좀 바라시는 게 좀 있어가지고 주택 청약은 이제 그때부터 들기 시작했거든요.” <취업 중 C>

“저축은 이제 저 주택 청약은 하고 있고요 이제 소정으로 크지는 않지만 10만 원씩은 이렇게 달마다 10만 원씩은 나가고 있습니다.” <취업 중 A>

“저축을 시도했던 거는 청약통장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청약으로 매달 10만 원 정도씩은 나가게 하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저축이고.” <실업자 C>

“그리고 그냥 소수의 작품 한 20만 원 정도 따로 넣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제가 적금 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만 딱 드는 거고 청약이랑 합해서 30만 원 들고 나머지는 공제에 한 50 정도를 넣고 있어서 거기서 제하고 나오면 나머지 이렇게 딱 기본 생활금 정도도” <취업 중 Z>

- 주택과 함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상을 반영하듯,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또한 저축의 대안 수단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청년들은 미래준비를 위한 수단으로 소득과 정기 예·적금만으로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정기 예·적금 등 저축 상품의 금리가 대단히 낮은 점, 주식이 위험자산임에도 경제성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더 높은 수익창출 기회가 주어지는 부동산과 주식을 합리적 선택을 인식하였음

“은행에 적금을 해도 얼마 없거든요. 이자율이 진짜 지금은 일점 몇 이레가지고 그거 할 바엔 차라리 주식을 해보자 해가지고 그냥 주식을 해도 한 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뭐 하나 한 주 사고 싶다 하면은 한 10만원~20만원씩 한 번씩 그냥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경험삼아서 해보는 거예요.” <취업 중 R>

“원래는 제가 굉장히 안정을 지향하는 스타일이어서 무조건 적금 아니면 예금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이자가 내려가서 제가 대출받은 금리가 내려가는 건 너무 좋은데 높은 이자까지 내려가니까 이게 저축을 해도 그게 불려진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이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저금은 하고 있지 않고요. 그냥 재테크로 주식이나 코인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아주 작은 시드로 지금 이제 연습하는 식으로 조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따로 그래서 저축은 하지 않고 있고 전세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취업 중 T>

“적금 식으로 좀 들어놓은 것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주식이나 그런 쪽으로 좀 많이 넣고 있어가지고 저쪽보다는 이자율이 그래서. 위험자산이긴 한데 뭐랄까 그 위험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축하는 느낌으로 넣고 있는 거죠. 이걸로 큰돈을 벌겠다 그런 생각은 사실 별로 없고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수익이 더 나니까.” <창업 A>

“그다음에 지금은 중단을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한 10만 원 정도씩 계속 주식 같은 걸 넣고 있었어요. <실업자 C>

“점점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이자가 적어서 좋긴 하지만 내가 월세를 살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되고, 제가 어쨌든 결혼 자금으로 주신 거지만 그래도 다른 제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는 좀 큰 금액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차라리 재테크를 하면 좀 더 자산 증식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월세로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요즘 조금 들고 있어요.” <취업 중 T>

“저축 못하는 이유는 일단은 제 이제 소득에 비례했을 때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빼면 남는 게 없어서 저축을 이제 하고는 싶죠.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어찌 됐건 이미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저축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입니다.” <취업 중 N>

“아무래도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저축은 기본적으로 해 주고 어떻게 돈을 불리는 걸 좀 배워둬야겠다 해서 나중에 돈에 대해서 조금 좀 관심이 또 있고 알아보다 보니까 그때 적금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요새 풍차 돌리기 이런 재테크라든가. 소소하게 이런 재테크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약간 주식 같은 것도 몇 개 한 번 사든가 조금씩 진짜 소액으로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도를 안 한 사람보다 시도를 한 사람이 그래도 조금 수익이 좀 발생되거든요. 가만히 돈을 놔두면은 돈은 제로인데 어느 정도 예금 풀리고 적금 풀리고 조금이라도 소액으로 투자하면 돈이 좀 불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조금씩 조금씩 네 조금 쌓아가는 것 같아요.” <니트 A>

“예금은 안 하고, 일단은 신용대출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해서 주식을 돈을 이제 그래도 월급을 계속 모으니까 돈이 좀 쌓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주식을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제 주식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 일단은 지금 신용 대출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신용대출 빼고는 다 고정금리인데 신용대출만 변동금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갚으려고 하고 있어요.” <취업 중 E>

“작년에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부동산 시장 거품 올라간다. 각종 자산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여러 주장들과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엄두를 낼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빚을 낼 수 있을 때 내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취업 중 J>

- 소득의 한계와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여력이 발생하지 않아 저축을 못하는 경우, 특히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랜서인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소득이 축소하여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채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그러나 저축을 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남

“저축계획은 있고 해야 되는 게 맞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제 나이의 또래에 비해서 제가 저축을 안 한 것도 잘 알고 있어서 해야 되는데. 나름. 하지만 잘 안 되고 있다. 진짜 몇 천 모은 애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가장 큰 이유는 소득이 작아서 힘든 것 같아요.” <취업 중 X>

“프리랜서는 급여, 돈이 들어오는 날이 일정치 않으니까 제가 돈 관리를 너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더 그렇게 조금 뭔가를 이렇게 적금을 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거를 전혀 못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A>

“저축할 돈이 없다. 하지만 저축에 대한 욕구는 있다.” <실업자 F>

“저축을 좀 더 많이 하고 싶지만 그럴 만한 여유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마냥 많은 건 아니어도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지금 대출금 한 달에 100만 원씩 나가니까 대출금 또 아이 이제 또 교육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그래서 여유가 없다.” <취업 중 AB>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내가 굳이 돈을 모을 필요가 있나 내 스스로의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 나가게 되면 이거는 내가 뭐 의미가 없다. 그때부터 솔직히 허탈감이 좀 엄청 세계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저축을 좀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될 대로 되라지 이러면서” <취업 중 D>

“저축은 현재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형태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코로나 상황 전까지는 저축을 그래도 나름 벌어들이는 돈에서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서는 수입이 들쭉날쭉 쭉 되게 많이 변해가지고 어떨 때는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출 상환금 그리고 월세 그리고 기타 통신비하고 세금 이런 거 내기도 빠듯해서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작년 2020년 초부터는 저축을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프리랜서 B>

“저축할 돈이 없고 사람들 만난다는 게 단순히 제 그냥 인맥으로만 남는다기보다는 거 기서 소개 받아가지고 만나는 사람한테서 뭔가 얻어지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냥 단순히 인맥뿐만이 아니라 이 금전적인 부분도 한 번씩 뭔가 그 사람을 도와줘서 저한테 뭔가 떨어지는 게 있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있어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B>

- 기혼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존 예금성 보험 등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보통 펀드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그냥 그 이후로는 그냥 적금하는 방식으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생명보험 아이가 하나 있어서 생명보험으로 한 달에 13만 원인가 넣는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를 내년 1월 1일 날 해약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프리랜서 C>

-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저축을 모두 하려고 하였음. 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우 적었으며, 부채 이자로 인한 영향보다는 소득자체가 적은 경우가 더 많았음
 - 부채 이자의 경우 정책자금을 제출한 경우가 많아 저금리인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부채의 존재와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그로 인해 저축보다 현금성 예금 통장 사용이 많았으며 주택청약을 통해 미래 자산 형성을 준비하고 있으나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위험 자산인 주식, 코인에 대한 관심 또한 매우 높았음

2) 부채의 원인

- 청년부채의 유형화는 발생 원인에 따라 학자금, 생활비, 주택(자가, 전세, 월세) 마련 대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기관에 따라 국가기관의 정책자금과 금융기관 대출로 분류,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는 경우도 관찰되었음
- 개인별 부채 요인은 복합적 요인에 따라 발생하였으며, 학자금 대출과 함께 생활비, 주택마련 자금, 창업 자금 등이 추가 요인으로 나타남
 -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다시 대출을 이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함
 - 한편, 국가기관(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우 상환시점을 소득 발생 이후로 설정할 수 있어 당장 연체되는 경우가 없었으나,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체압박에 직면하는 경우도 있었음
 - 장학재단의 상환제도로 인해 청년부채의 악성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악성화 시기의 연기일 가능성도 존재함
 - 즉, 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한 취업압박, 불안정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 이에 따른 새로운 부채의 발생, 저소득으로 인한 연체가 반복되는 악성화 가능성이 높아짐
 - 본 연구의 심층면접 참여자들의 부채규모는 300만원~37,000만원으로 다양하게 나타남
- 부채 발생의 첫 번째 요인인 등록금 대출의 경우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을 이용하였으며, 저금리와 대출의 용이성으로 인해 부모님이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이용하였음

“학자금 대출을 제가 대학교 2년을 다니면서 등록금을 다 이제 한 3학기를 학자금 대출하고, 생활비 대출 했거든요. 그래서 다 해서는 1,000만원 조금 넘게 있었는데... 국가 장학금 조금 조금씩 감액이 되어가지고 한... 그래도 제가 조금 값은 것도 있고요. 단계적으로. 한 5년 가까이 조금씩 차감한 결과 한 8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실업자 B>

“학자금 대출로 1,000만 원 정도 있고 등록금하고 생활비하고 다 포함해서요. <취업 중 P>”

“본인 명의 대출로는 학자금이 제일 많았을 때라서 그때가 제일 많을 때가 한 700 정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취업 중 C>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게 1,200 정도였으니까 직장 다니면서 한 800 정도 상환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공장에 휴학하고 공장 다니면서 그다음에 값은 거라 지금은 400 남았습니다.” <정규교육기관 C>

- 학자금 대출의 경우는 가정형편에 의해 스스로 대출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모님의 계획에 따라 선택하는 경우도 나타남

“제가 4남매 막내로 있는데 부모님께서 연세가 조금 있으시고 누나들 먼저 대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약간 그렇게 좀 힘드신 것 같고, 이제 정년퇴직도 하시고 일도 안 하시고 하니까 또 달라고 하시고 죄송하고 등록금도 조금씩 제가 보태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분 많이 내주셔야지고 그 점에서 저는 그냥 대출해서 “내가 열심히 갚아 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그냥 했던 것 같습니다.” <정규교육기관 A>

“대학교 1학년 첫 학기부터 학자금 대출 받았는데 굳이 비중으로 따지자면은 한 70% 정도는 이유의 한 70% 정도는 집에서 이걸 다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좀 집에 부담이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받기로 결심한 거 있고요. 나머지 30% 정도는 어차피 내가 이 부모님한테 신세를 져도 내가 나중에 돈을 벌게 되면은 부모님을 또 이제 노후 부양이나 이런 것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으로 차라리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에서 받은 케이스입니다.” <취업 중 F>

“학자금을 실제 등록금과 생활비 대출 포함해서 3,300만 원 정도 부채가 있어요. 사실 처음 이제 입학하고 받았을 때는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아버님이 그때도 다 컴퓨터로 했으니까 아버님이 컴퓨터로 이제 다 하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셨어요. 저한테 자금 대출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분이 확인을 해보니 이제 제 명의로 한국장학재단에 이렇게 제출이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취업 중 I>

“지금 마이너스 통장 4천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학자금 대출은 2천만 원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으니까 총 한 6천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대학교 2학년 1학기 끝나고서는 군대를 갔는데 갔다 와서는 등록금을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대신 학자금 대출로 제가 스스로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총 5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썼고요.” <취업 중 J>

“학자금 대출은 제가 1학년 1학기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부모님께서 1학기까지는 등록비랑 해서 납부를 해주셨고요. 그 뒤에는 제가 막 다녔을 때 학자금 국가장학금 제도가 막 이제 알려지고 학자금 대출 제도가 막 알려지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꼭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프리랜서 B>

- 대학교육 이후 진로변경 및 심화를 목적으로 대학원을 등록하는 경우에도 학자금대출이 발생하였는데, 이 경우 일정 기간 후 상환이 도래하여 학업이 길어지거나 취업에 바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 부채상환 부담이 학부 학자금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학교 다닐 때는 사실 운이 좋게 좀 장학금 혜택이 있어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사실 학자금 대출은 없었어요. 학자금 처음에 처음에 이제 학교 등록할 때 조금 한 약 250만 원 정도 기억하는데 그거 외에는 이제 없었고 제가 이번에 사실은 작년부터 대학원 등록을 해가지고 이제 5학기 중에서 한 2학기 정도는 제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는데 이제 3학기부터는 아이도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금 대출을 그때 좀 받아가지고 지금은 대학원 학비로 한 1천만 원 정도 학자금 지금 대출이 좀 가지고 있고 내년 초에 졸업인데 마지막 학기인데 그때도 아무래도 한 약 500만 원 정도는 대출을 받을 것 같은 계획이 있습니다.” <취업 중 M>

“대학원 학자금 대출로 1,000만 원 정도 받았고 제가 이제 학교를 졸업 학부를 졸업했을 때는 사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이 학교인데 저희가 학교의 어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2급 정교사 자격증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그래서 대학원에 사실은 진학을 한 이유는 제가 직접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진학을 한 거였고 그래서 이제 2급 자격증을 받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임용고시 시험을 응시를 하려면 2급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원 다니면서 학자금을 받고 일단 졸업을 해서 좀 공부를 하다가 이제 임용고시 통과해서 제가 학교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은 사실은 제가 직장을 갖기 위한 반드시 나와야 되는 코스여서 그래서 가게 됐어요.” <취업 중 Z>

대학원 때는 생활비 대출만 받았어요. 제가 박사 수료까지 해가지고 석사 박사 하는 기간 동안에 생활비 대출 학기당 1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00만 원씩의 생활비 대출을 받고 등록금은 별도로 내지 않았습시다. 조교 등등의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해결했어요.” <취업 중 J>

“4천만 원 정도, 학자금 대출을 대학교 때는 받지 않았고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원 3년 동안 수업료랑 생활비 해서 총 이제 6학기 네 그러니까 여섯 학기 거랑 이제 생활비도 총 6번 발생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생계 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학원 개학하면서 연구비를 다 다리 교수님이 주시기는 하는데 연구비가 조금 적어서 이제 수원에서도 제가 월세로 살았기 때문에 월세도 내야하고 그런 부분적으로 좀 부족해서 그때 신용대출을 좀 받았습니다.” <취업 중 S>

-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의 경우, 등록금 대출과 더불어 창업관련 대출,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추가되는 경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었음

“사업 자체를 하면서 그 때 당시에 사업 자체를 하면서도 생겼었던 부채들 그러니까 그 사업장 만들면서 대출받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대출받고 이랬던 게 대략 6,000 정도 됐는데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처리를 제때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붙는 부채들이 더 있었죠. 그게 도합하면 한 8,0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창업 B>

“저는 부채가 좀 컸어요. 예전에 사업을 하다가 이제 생겼던 부채가 있어서 대략 뭐 금융권이나 개인적으로 받았던 것까지 포함하면 대략 8,000 정도?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을 포함하면 거의 1억 가까이 됐었죠.” <창업 B>

“학자금 대출 때문에 생긴 거구요. 1300 정도 있어요. 학자금은 등록금 플러스 생활비까지 했어요” <취업 중 H>

“부채가 기간별로 다르긴 한데 이제 지금 하면 3천만 원 정도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학자금은 한 2,400 만 원 정도 됐고요. 이제 아마도 이제 다른 거 대출 때문에 2천만 원 정도 하고 아마 그때까지는 한 천만 원 정도 남았을 거예요. 좀 갚으면서 생활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면 학자금이 지금 2,400을 빌려서 갚고 그 다음에 지금 차를 좀 사느라 2천만 원 정도. 3천만원이 이제 학자금 대출이 한 1천만 원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산 거라서요.” <취업 중 B>

“2,000만원 중에 학자금 대출이 1,600만원 되고요, 근데 이게 다 저는 생활비 대출이라 생활비 대출이랑 실제로 그게 학자금으로 나간 거는 500만원 나머지가 다 이제 생활비. 나머지 400만원은 정부에서 해주는 거. 햇살론 300은 햇살론이고 100만 원은 마이너스 통장 있어요. 다 생활비 용도로” <정규교육기관 B>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다 대출한 게 1,160만 원 정도, LH 공공임대 전세금으로 4,000만원 이렇게 부채가 있어요. LH 공공임대가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많이 내면은 월세를 적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급히 했죠.” <취업 중 X>

“총 5학기 동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썼고요. 거기다가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부를 다녔습니다.” <취업 중 J>

“학자금 대출이 있고 전체적인 규모는 한 학자금 대출이 1,5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연초에 한 700만 원 정도 신용 대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한 2,200만 원 2,1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신용대출은 말 그대로 예기치 않은 대출이었는데 제가 연초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면서 교통 사고에서 제가 말하자면은 보험에서 과실 비율에서 좀 불리하게 됐던 거예요.” <실업자 C>

“부채는 2,500만 원 정도고요 네 이거 학자금 대출이랑 생활비 대출 그런 게 주 목적이었어요. 2,5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상환을 하고 지금 300만 원 추가 받아서 2,300만 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실업자 H>

“총 부채는 3천만 원, 이중 2400만원은 대학원 학자금 대출, 600만원은 자동차 대출입니다. 총 원금 원래 대출이랑 빚 있던 게 총 원금으로 하면은 한 4,400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좀 갚아서 그래도 3,500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자동차 살 때는 자동차도 2천만 원에 구매를” <실업자 D>

○ 대출의 당사자와 실질 사용자는 청년 본인인 경우와 가족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언급한 사례는 본인명의 대출로 가족이 사용한 경우와 가족명의 대출로 청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 가능

- 즉, 학자금과 자녀의 생활비가 부족하여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청년이 지원받는 경우도 정책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한편 가족들의 경제적 문제로 인해 청년당사자가 대출을 받아 가족이 대출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정책수립 시 고려해야할 사항임

“부채 규모는 총 4,300정도, 이 중에 이자는 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생활비 대출이고 나머지는 부모님 빚 때문에 은행에서 빌렸어요.” <취업 중 Q>

“한 5천만 원 대출했고 15년 상환으로 갚고 있죠. 그래서 그게 2천만 원 남았습니다. 부평에 분양권을 내년에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고 있고요, 그 중도금 대출 계약하는 거에도 돈이 모자라서 부모님에게 돈을 좀 빌렸어요. 부모님한테는 1억 5천 정도 받았습시다.” <니트 B>

“학자금 대출에서 한 자금 700 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라 하죠 보험 대출 이제 전에 어머니가 받아주신 건데 그거를 제가 다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 450만 원 정도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이렇게. 예전 학자금 대출은 280은 이제 학교 등록금 저 이고요 이제 별도로 이제 생활비 대출해서 총 1,200~1,300 그 정도.” <취업 중 A>

“LH 임대주택 거주중이며 2,200만원은 학자금 대출이 거의 다였고 그다음에 생활비 정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빌리신 게 아니고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중간에 개인파산 신고 해서 정리 한번 하고난 이후에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있어요. 지방에서 학교를 다녀서 월세, 생활비 등이 많이 나갔어요. 현재 있는 1,000만원은 어머니 수술비” <실업자 I>

“총 부채는 6천만 원 정도입니다. 원래는 거의 이제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의 어떤 영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어머님의 개인적인 이제 채무가 있는 걸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제가 아들이다 보니까 어머니께서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하셔서 저도 제가 이렇게 제 명의로 이제 대출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 그러다 보는데 이제 그거를 저희 어머님께서 어느 정도 좀 다달이 갚아주셨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걸 이제 제 월급으로 이제 갚다 보니까 저도 이제 또 빚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조금 이제 생활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이제 경제적인 게 좀 많이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계속 대출을 조금씩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어머니 빚이랑 제 빚이랑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씩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정도 간 것 같아요. 별도로 학자금 대출은 800 만원 정도 있어요. 처음부터 6천 만 원을 다 대출을 받은 건 아니고요, 400만 원 했다가 이제 저도 이제 또 사람인지라 계속 이제 뭔가 생활비라든지 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 월급이 그렇다고 200만 원이 넘지 못하는 금액이었어 가지고 자꾸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도 그럼 대출을 좀 더 알아봐야겠다.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이제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카드 대출 자체가 그렇게 신용도나 이런 거에 별로 좋지 않다고 들어가지고 그러가지고 그냥 또 근데 제가 그게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처음부터 제가 신용도가 학자금 대출을 처음에 제가 2012년도에 학자금 대출을 처음 받았을 때 취업 후 상환이 아니라 일반 상환으로 해놔 가지고 근데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원래 거치 기간을 이후에도 이제 이제 대출이 뭐 상환이 발생하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게 안 돼서 특별 상환 유예 이런 걸 하다 보는데 또 그게 또 군대를 갔다. 오니까 이제 쌓인 거예요. 계속 채무가 안 되고 못되고 하다 보니까 제 신용도가 자연스럽게 또 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이제 그런 거 해서 그래서 1금융권에서는 제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제2금융 쪽으로 계속 대출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자는 되게 세고 대출은 별로 안 나오고 하는데도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들니까 대출을 계속 받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드 대출 먼저 갚고 햇살론도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늘어난 거죠.” <취업 중 D>

- 본 연구 참여 청년의 대부분은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한 경우는 극히 일부로 한국장학재단 프로그램을 알지 못하여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임

“1학년 때에는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다가 한 2학년 때부터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어요.” <정규교육기관 D>

“학비는 아무래도 대학교 대학생 될 때 아무래도 제가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때만 해도는 그냥 지원을 받았지만 대학교 올라가서는 제 스스로 일단은 장학금을 받 거니와 뭐 해가지고 거의 감당했던 것 같아요. 장학금 받거나 교내외 장학금 받거나 아니면 그냥 그때 아까도 말했듯이 대출 한 번 그때 한 번 나와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받은 게 아니라 그때 500만 원 제3금융권에서 대출 받을 때 학비 포함 다 해서 받았 어요.” <니트 A>

○ 부채 발생의 두 번째 원인은 주택(자가, 전세, 월세) 마련을 위한 각 종 대출이었으며, 자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일 경우 대출규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청년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경우 보 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금액은 높게 나타나지만 원금에 대한 상환부담은 적었 고, 이자 부담만 하는 경우가 많아 대출로 인한 부담이 적었으나 자가로 전환 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심리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남

“지역에 정착하기 위해서, 전세를 잡았는데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게 되었습니 다.” <취업 중 O>

“전세자금 대출은 일반 뉴스테이 라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라고 6,000만 원 정도 대출받았습니다.” <취업 중 F>

“청년 전세대출 그런 걸로 해서 은행에서 받았고 전세자금대출로 5천만 원 받았어요. 이전까지는 월세로 살았는데 월세로 살기에는 집이 다 이제 좀 여자다 보니까 조금 더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곳으로 가려니까 너무 비싸서 전세로 가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세 쪽으로 옮기게 됐어요.” <정규교육기관 E>

“20살 때 학교 때문에 서울로 가서 20살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월세 집을 얻어주셔서 가지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 다가 직장을 이제 졸업하고 잡았는데 월세로 살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에 요. (중략) 제가 월세를 계속 내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전세 대출 받아서 이제 1억 오 퍼스텔 1억짜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해서 들어보니까 한 5천 정도는 부모님한테 이제 빌려서 하고 나머지 5천은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 보니까 그게 잘 되어 있어서 이제 처음에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을 달라고 해서 그 금액에 모자라는 금액만 이제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옮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세대출로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상환을 조금씩하고 이제 3,000만원 정 도 있어요.” <취업 중 T>

“부채 전체금액은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LH 행복주택 들어오기 위해서 받았던 거랑, 그리고 학자금 대출도 여기 좀 떠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컸죠. 나머지는 따로 빚을 내서 살림을 꾸리지 않아서 두 가지가 가장 컸어요. 학자금 대출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대략 한 1,500만 원에서 한 1,700만 원 사이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다 더해보니깐 그리고 주택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기 위해서 1천만 원까지는 아니었고 800에서 900 사이 정도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프리랜서 B>

“대학교 등록금 때문에 다 대출한 게 1,160만 원 정도, LH 공공임대 전세금으로 4,000만원 이렇게 부채가 있어요. LH 공공임대가 대출을 해서 보증금을 많이 내면은 월세를 적게 될 수 있대요. 그래서 급히 했죠.” <취업 중 X>

“현재 총 부채가 2억 정도 됐었고 아파트랑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학자금 대출로는 2천만 원 있었는데 그건 다 갚았어요. 아파트 구입비는 LH 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은 거예요. 저는 이런 주택 정책에 좀 관심이 많아서 좀 알고는 있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래도 저리로 받았죠.” <취업 중 N>

“부동산 이것 때문에 한 3억 5천정도 부채를 가지고 있는지가 한 2년 됐거든요. 그래서 한 한 3억 2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이 한 2억 8천 있었고 신용대출 합쳐가지고 같이. 신용 같은 경우는 원리금 상환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담 대 같은 경우는 원리금하고 이제 이자하고 같이 해가지고 약 85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로 왔다갔다 하거든요.” <취업 중 M>

“차 캐피탈로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이거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제 갚은 지가 지금 얼마 안 되긴 해요. 그거 3600만 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 아파트 전세 대출이 지금 1억 3천정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 자부담 몫을 어머니 명의로 3천만원 정도 대출을 받아서 총 실질적인 대출은 1억 6600 정도 되네요.” <취업 중 G>

- 한편, 청년주거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 주택(전세 자금)담보대출은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였으며, 주거지원프로그램에 비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크게 나타남

“제가 남들보다 조금 빨리 일을 시작해서... 학교도 먼저 나오고 했었는데, 이거를... 보증금 때문이에요. 집 보증금 때문에.. 아파트 들어오면서, 또 이만한 이제(돈) 필요했었어요. 그 잔금이라는 게 또 있었어 가지고, 이걸 채우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씩 계속 갚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취업 중 R>

“분양받은 아파트 때문에 발생한 부채가 9,000에서 1억 사이일 거예요. 15년 거취로 해놓고 2년인가 3년을 이자만 내고 19년도인가 20년도부터 원금. 20년, 19년 9월부터인가 8월부터 원금 같이 갚아나가고 있어요.” <취업 중 V>

“일단 서울에서 회사를 좀 다니고 싶어 가지고 서울로 회사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제가 처음부터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인천에 제가 원래 지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걔가 혼자 살고 있어서 걔네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걔네 집에서 나오면서 이제 전세대출을 받은 거죠.” <창업 A>

“총 부채는 1억 6천만 원 정도이고, 오피스텔 전세자금 대출이 1억 4천정도 있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혼하면서 조금 져던 거랑 학자금 대출이랑 이런 거 합쳐서 2천정도 됩니다.” <취업 중 K>

- 주택마련을 위한 대출은 교육에서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는 부채로서 부채규모를 키우는 원인으로 작용하며, 증여를 받지 않는 이상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채라는 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월세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월세가 비싼 와중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빌려야지 이 보증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조금 은행에서 대출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아예 그냥 보증금 없는 월세였는데, 이걸 제가 늘려봤어요. 반전세로 늘려봤었고, 반전세 하다보니까 또 눈이 높아져가지고 아파트 여기에 생기는데 거기에 한번 넣어보자 해서 오펙랑 같이 똑같이 또 이렇게 넣어봤는데, 또 거기는 또 필요한 보증금이 있어야 하니까 그 대신 월세가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또 (부채가) 커지고 커지고 이렇게 됐어요” <취업 중 R>

“지금 아파트 대출이 들어올 때 제가 서울에 살다가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근데 그때 전세를 빼서 와가지고 그 전세금이 안 맞아가지고 대출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전세금 전세를 1억 5천 전세를 빼서 집이 2억 700에 들어와서 한 5천만 원 대출했고 15년 상환으로 갚고 있죠. 그래서 그게 2천만 원 남았습니다. 부평에 분양권을 내년에 12월에 입주할 수 있는 분양권을 사가지고 이제 그 중도금 대출을 이제 받고 있고요.” <니트(주부) B>

“부채가 2억 5천 대출인데 이게 다 지금 아파트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취업 중 L>

“저는 전세자금대출로 1억 2천정도 부채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용카드도 없고 이제 좀 다 이제 모아놓은 걸로 쓰거나 아니면 소비를 안 하던 스타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 나이 또래에서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집을 빼고는 사실 그렇게 이렇다 할 부채는 없었고 지금 결혼을 할 때 문제가 뭐였냐면 정부 정책 때문에 또 대출도 사실 신희부부라고 해도 저희가 아직은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동거인 신분으로 할 수 있는 대출이 굉장히 제약적이기도 하고 둘 다 중소기업을 다녔고 그리고 신랑 같은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때문에 명의를 또 집에다 해드린 게 있어요. 거기 투자용 이제 세컨하우스에 그래서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집값은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족한테 빌리게 된 케이스죠.” <취업 중 W>

“그리고 이제 소득이 생기거나 할 때마다 신용대출을 일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기 때 원래 연장을 계속해왔는데 최근 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돈을 갚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가 안 오르려면 그래가지고 제가 일부 계속 갚아나가니까 한 2천만 원 정도는 이제 갚아진 것 같아요.” <취업 중 M>

- 창업청년의 경우 창업자금과 주거마련 대출이 동시에 발생되어 다른 청년들에 비해 대출규모가 크게 나타남

“창업자금 5천, 전세대출 1억 포함하여 총 부채 1억 5천정도 있어요. 창업자금 5천은 원금 플러스 이자가 나가고 있고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이자만 나가고 있어요.” <창업 A>

“사업을 하면서 대출을 이제 부채가 있었던 게 있어서 그때 제일 많았던 거로 치면은 한 5~6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pc방을 운영해서 청년 창업지원은 못 받았고 그 전에 노래방을 해서 이제 권리금을 받아가지고 그 권리금으로 이제 초기 투자해가지고 대출이랑 같이 해서 운영을 했어요.” <창업 C>

-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대출이 잘 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함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대면서비스업, 문화예술종사 청년에 대한 부채해소 지원 및 소득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모습도 나타남

“프리랜서라서 대출이 잘 안돼요. 그리고 여기 오기 전까지는 제가 월세에서 살았기 때문에 대출받은 게 제일 컸던 거는 30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터지면서 이제 직업이 음악이다 보니까 음악이고 노래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일이 정말 그냥 툭 끊겼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월급을 받는 제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거의 그냥 끊기다시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활비가 점점 모자라기 시작한 거죠.” <취업 중 Y>

- 장기적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주식과 부동산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도 관찰되었음
 - 주식의 경우 비교적 안정 자산인 부동산 시장에서의 투자가 어려운 경우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였으며, 부동산 투자는 앞서 생활공간 마련을 주택담보대출과 다른 성격의 투자로 대출받는 경우였음

“각종 자산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여러 주장들과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엄두를 낼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빚을 낼 수 있을 때 내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둘째로는 마이너스 통장을 일단 열어놓으면 불의의 어떤 알 수 없는 유동성 위기에 대응할 수 있잖아요. 그게 빚을 내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취업 중 J>

“작년에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 열풍이 엄청나게 불었고 부동산 시장 거품 올라간다. 각종 자산 시장에 투자해야 된다는 여러 주장들과 사례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부동산 투자는 엄두를 낼 상황은 전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빚을 낼 수 있을 때 내서 자산 시장에 투자하는 경험을 지금부터 쌓아 나가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취업 중 J>

“부동산 투자로 부채가 한 2억 9천만 원 정도 있어요. 크게 제가 부동산 투자를 두 개를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이제 첫 번째 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송도 신도시에 있는 회사인데 서울에 여의도로 이전한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마침 제 쌍둥이 동생이 서울에 강남 쪽으로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고시원에서 살았어요. 집이 막 넉넉지는 않아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둘이 같이 살 곳을 서울에 구하자 해서 처음에 집을 샀어요. 그때 이제 신용대출 7,500만 원에 제 돈 2,500만 원을 포함해서 한 1억 정도를 저는 투자를 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집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회사가 서울로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돈을 투자한 셈인데 가끔 이제 놀러 가는 정도로 쓰고 있고 저는 그 집에 살지는 않고요.” <취업 중 E>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원래 대출을 더 받을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천천히 월급 잘 아껴 쓰고 모아서 제가 한 달에 한 50만 원 썼거든요. 평소에 그래서 잘 모아서 천천히 돈을 모아서 송도에 집을 사자 5년, 10년은 걸려서. 그게 제 목표였어요. 근데 집을 처음에 산 게 19년도고 근데 20년도에 처음 6월에 집을 샀고 근데 21년 초에 올해 초에 막 인천집값이 엄청 오르는 거예요. 제가 청학동이 아시겠지만 연수구에서도 제일 싼 동네고 진짜 썼거든요. 2억 이레가지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결혼하고 애를 낳을 수 있겠구나 이랬는데. 막 주변의 세 배가 되는 걸 보고 이 동네가 저도 이제 막 무서워지는 거예요. 제 동생은 서울에 집을 구했는데 나는 돈만 투자하고 내 돈도 없고 그리고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나는 빚은 있는데 집도 없고 불안한 시점이 있어가지고 그때 막 인천에 이제 집을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인천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하나 대출을 하는데 이제 그때 추가로 대출을 한 2억 정도 받으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1억 한 7천 만 원 했는데 2억 정도 받았죠. 2억 총 제가 진짜 대출받은 금액은 3억인데 1천만 원은 지금 갚았습니다. 최근에 ” <취업 중 E>

- 청년부채 지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대상은 적은 금액의 부채로도 악성화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 가계의 생활비 대출이 발생한 청년으로, 본 연구 참여자 중에서도 각 종 생활비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나타남

“햇살론 700만 원 대출은 부모님이 안 제서가지고 이제 남동생을 제가 돌보는데요. 남동생이 이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안 좋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 그거에 대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이제 당장 돈을 큰돈을 마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대출을 받게 됐어요.” <실업자 A>

“총액은 900만원이고 현대 캐피탈에서 자동차 대출로 200만원 대출해서 지금 13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개인 햇살론으로 이제 700만 원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한 6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실업자 A>

- 청년에게 부채는 대부분 대학교육과 관련하여 등록금과 생활비의 부족에서 시작되며, 대학 졸업 후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주거마련 등의 이유로 규모가 커지거나 소득이 약화되거나 준비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악성화 될 가능성이 존재함
 - 적성과 무관하게 대학을 선택하거나 전공과 무관한 취업준비를 함으로 인해 추가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임
 - 졸업 후 첫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거비를 필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임
- 한편, 본 개별심층면접 사례조사에 참여한 인천 청년들의 경우 대체로 부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세밀하지 못하였음
 - 상환이자가 정확히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상환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
 - 이는 이자와 상환금이 낮고 보호자가 이자 관리를 하거나, 아직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됨

3) 부채의 영향

- 인천광역시 사회지표 조사결과에서 자살률은 2019년 기준 특·광역시 중 2위로 나타났으며, 스트레스 인지율은 1위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추됨
- 부채가 발생할 경우에는 안정적인 소득마련을 위한 취업에 대한 부담과 사회적 단절 등에 따른 스트레스는 부채가 없는 경우에 비해 가중되며, 특히 경제·사회적 독립을 해야 하는 삶의 이행기에 놓여 있는 청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참여 청년을 대상으로 부채가 심리, 자존감, 사회적 관계, 미래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음
- 인천 청년 부채는 학업을 위한 학자금 대출과 소득부족에 따른 생활비 충당, 사회 진출 등에 따른 가구 독립을 위한 주거 마련 대출이 주요원인이었음
- 청년부채의 총 규모가 전체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작게 보이나, 부채에 따른 자존감, 가족 및 타인과의 관계성, 자립을 위한 생애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이행을 고려할 때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1) 심리에 미치는 영향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청년들은 대출금, 이자를 포함한 상환금의 크기 보다는 부채 존재 자체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여 소득 부족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었음
- 스트레스의 정도는 무기력증과 우울감에 약을 먹고 있는 청년부터 사회생활에서의 자신감 부족 등 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받는 청년까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음

“대출금 때문에 무기력증 하고 우울감이 심하게 와서 아직도 약을 먹고 있고요, 그냥 다 하기 싫었어요 그냥 번아웃이 심하게 왔다고 그래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만나기 싫고 관심도 없고 그때는 주말도 없이 일을 했었거든요.” <실업자 D>

“그냥 눈 뜨면 한숨 쉬고 눈 감을 때 한 숨 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소주 한 병 먹고 자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너무 안 좋은 경험 있으면 아침에 눈 떴을 때 마치 거짓말인 것 같고 꿈인 것 같고 막 부정하고 싶고 막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게 다 겠고 나서도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실업자 A>

“부채를 갚기 위해 일한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이제 한 몇 천만 원 정도가 쌓였을 텐데 이제 또래 동기들 보면 이제 그거 가지고 놀러 가거나 하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거에 투자하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런 게 어떤 게 좀 심리적으로도 그랬고 이제 또 부모님이 이제 힘든 걸 눈앞에서 보고 오니까 살짝 이제 돈을 좀 헛되게 쓰기 좀 애매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뭘 소비하거나 그런 거에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취업 중 B>

“매달 그니까 진짜 밥도 못 사 먹는다 이 정도는 아닌데 그냥 이제 평소에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항상 다 사는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못 하고 하는 정도예요. 그게 굉장히 큰 약간 스트레스고요 저한테는.” <취업 중 D>

“일단 부채라고하면 좀 많이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게 내 돈이 아니고 뭐, 국가에 나온 돈이던 다른 사람의 돈이기도 하니까, 나중에 부채 갚는 것에 급급해서 자기 생활을 못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사람일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예방차원에서 부채는 안 늘리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정규교육기관 A>

“일단 부채가 이자가 있다 보니까, 이자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받는 것 같고요. 또 이제 돈을 벌면 바로 갚는 것에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일부 생활하고 또 필요한 상황이 있을 텐데.. 그거 다 쓰고 나면 막상 또 갚으려고 하면 돈도 적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스트레스? 있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정규교육기관 A>

“부채에 대한 압박이 크진 않는데, 저도 그냥 이것을 빚이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갚아서 없애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지.” <취업 중 R>

“대출을 갚을 생각하면 막연하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나 사회 생활할 때 자신감이나 또는 주변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좀 심리적으로 영향이 있을 때가 있어요.” <취업 중 Q>

“생활비 이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온 거는 그게 크게 다가오죠. 지금 이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이걸 언젠가는 빨리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생활적인 측면이 훨씬 더 지금 더 힘든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C>

“제가 창업을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거나 제 삶에서 뭔가 돈을 쓰는 형태를 보면은 뭔가 차를 산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이런 형태의 선택은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큰 형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느낌이냐고 하시면 제가 스스로 올해 신용대출을 진 거 외에는 부채를 따로 일으킨 적은 없었기 때문에 부채로 인한 어려움은 없었지만 경제적으로 뭔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형태의 그런 인식을 늘 갖고 있었죠. 이게 주는 당연히 답답함도 있고 그리고 이게 20대 때는 하다못해 경험을 위해 돈을 써라 라고도 얘기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뭔가 제가 해외를 나간다는가 그런 선택들을 그냥 제 삶에서 배제를 하는 선택이 됐었죠. 사실 안 그래도 됐었던 건데 말이지요. 불안보다는 선택에 대한 조심성과 보수성이 커지는 거예요.” <실업자 C>

“20대 때는 좀 이런 부채 문제 부채 문제보다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소득의 문제에 스트레스나 이런 게 더 컸겠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이제 낙관주의로 나이가 나이 들면 더 많이 별거니까 그때 갚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취업 중 K>

- 청년기가 고등학교나 대학교 교육에서 안정적 취업으로 이행하는 시기로서 소득과 자산이 많지 않는 상황에서 부모님이 잘 살거나 부모님 등에게 도움을 받는 주변 지인을 볼 경우 부채 자체의 스트레스를 직접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또한 나타남
- 수도권외 동종업계에 종사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처우가 좋지 않을 경우 인천지역의 상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남

“좀 이제 회사에서 친해진 동기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빚이 있어봤자 다 그런 식이고 대부분 잘 살더라고요. 대부분 부모님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 가지고 그래서 집안 얘기할 때 넌 나중에 어떻게 독립할 거야? 이럴 때 이제 저는 말을 못하는 거죠. 보면 그런 게 있긴 해요.” <취업 중 Q>

“부천 같은 데나 아니면 구로 같은 데만 가더라도 경기도 급여 받고 서울 급여 받으니까 거의 그런 데를 취직하려고 하고 이제 돈도 그렇지만 수당 자체가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 있는 또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있잖아요. 이런 장학재단도 중소기업 이자 지원 이런 그것도 있지만 인천은 특하나 이제 그 혜택을 받기도 어렵고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게만 유독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같은 곳에서 일을 해도 서비스가 달라서 많이들 좀 박탈감 느끼면서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달 똑같이 이제 친형하고 똑같이 일하는데 친형 월급이 제 저의 두 배를 거의 받아요. 그러면 이제 매번 똑같이 같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박탈감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좀 그렇죠 자존감이 살짝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채도 상환을 해야 되는 입장인니까 그런 영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취업 중 A>

-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의 경우, 국가 지원 정책 자금(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LH 등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 독촉이 오지 않아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나,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과 현재 소득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것에 오는 부담이 중복되어 나타남

“학자금 대출이 바로 갚으라고 독촉이 오는 그런 것은 아니어서 와서 독촉을 한다거나 뭐 한국장학재단에서 막 와서 추장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그래도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는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죠. 제가 지금 경제활동을 해서 조금 조금씩 갚는 것이 그게 상식이고 도리인데 아직은 제가 지금 그런 활동을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좀 마음속에 항상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데 그런 걱정은 있죠 항상.” <실업자 B>

“나를 백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주는 불안감이 있고 그게 주는 보수성이 있어요. 선택에서의 보수성 그러니까 삶에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보수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아니었죠.” <실업자 C>

“스트레스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엄청 예민했던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공부는 또 해야 되고 근데 생활비는 또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뭐 하나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그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매일 매일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민해지고” <실업자 D>

- 창업자의 경우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과 함께 부채가 존재한다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나타남

“사업이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불안함에 불안함 때문에 고민도 많아지고 약간 그런 게 힘들긴 하죠. 일이 힘든 거는 둘째 치고.” <창업 A>

- 자신의 경제상태와 달리 집안의 어려움에 따라 부채 상태에 내성이 생겨 부채 상황을 수긍하며 자포자기 하거나, 대출로 인해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취미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 또한 발생함

“그게 어려서부터 집이 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항상 있었던 거죠. 항상 있었고 20대 초반이 제일 심했고 이제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학비도 벌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20대 초반이 제일 심해가지고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스트레스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다는 느낌이 이제 없는 거죠.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경제 사정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도박을 했다든지 이러면 제가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건 아니니까. 그냥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그냥 애쓰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취업 중 K>

“대출받은 사람들은 약간 자기 취미 생활도 다 포기하고 자기 시간도 다 거의 쫓겨 가면서 같이 병행하게 되니까. 안 그래도 그냥 일만 해도 좀 솔직히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큰데 거기다가 더 압박감이 더 쌓이니까. 그냥 완전히 너무나도 그냥 진짜 압박감에 이런 조여 오는 약간 삶에 사는데 약간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런 심리적인 그런 차분함하고 여유로움이 있어야 되는데. 삶에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자기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그렇게 즐길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진짜 삶에 쫓기면서 사는” <니트 A>

“생활의 조건, 전반적인 조건 때문에 심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거나 하진 않았고 그냥 개인사적인 사건이나 기분이라는 것은 늘 이렇게 변동하니까 그에 따라서 좀 마음이 힘들고 그런 적은 있었는데 그거는 제 삶의 조건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취업 중 J>

○ 사회초년생으로 미래를 대비해 준비한 자산이 부족하거나 부채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디지며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나타남

- 여성청년의 경우 부담되지 않았던 대출금 상환이 결혼-출산-육아-경력단절의 과정에서 부담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임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지금 이제 서른인데 이제 내년 되면 서른한 살 되는데 20대 때는 사실 그냥 계획 없이 막 그냥 쓰면서 그냥 조금 남으면 그거를 적금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 거의 한 작년부터 해가지고 바짝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긴 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것도 있고 아까 학자금 대출 관련해서 그거로 스트레스 받는 건 하는데 그때 당시에든 그렇고 지금까지도 크게 이렇게 받지는 않지만 아마 그 1,200만 원, 1,300만 원 돈이 제가 이제 나이를 1년 1년 더 먹어가면서 그 돈이 아마 꽤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취업 중 H>

“이사 올 때는 이사 오기 전에는 일 했었는데, 이사 오고 나서는 이제 일을 접고 온 거여서. 그다음에는 출산하고 저는 이제 애 임신해서 여기 이사를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 일을 못했고 한 2~3년은 작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이자액이 20만 원이라서 그렇게 신경 쓰일 정도 그리고 그건 아니고 차라리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됐었지” <니트 B>

“(기혼여성) (부채의 영향이) 결혼 전에는 없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좀 있었다. 내가 이 돈으로 뭘 했을까 하는 후회 같은 거. 결혼 전 2년간 돈을 많이 썼다. 그거 안 쓰고 모았으면 가게라도 하나 차렸을텐데 하는 후회를 엄청 했다. 그때는(결혼 전) 아무래도 혼자 이다 보니 지금보다 스트레스는 덜했다. 그냥 갚겠지~이런 생각을 했다.” <프리랜서 C>

“지금 아이가 이제 1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1학년이 되니까 약간 사교육비가 좀 들어서 살짜 그렇게는 한테 사실 7살 때까지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 돈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부담은 없었는데 1학년 되니까 이제 사교육비가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런 부담이 조금은 있어요.” <취업 중 AB>

- 액수의 크기와 상관없이 생각지 못한 일로 인해 부채가 발생한 경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출이 매끄럽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 낙담하는 경우도 발생

“3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알아보고 이제 대출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되거나 좀 낙담해야 된다고 할까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었던 거죠. 사실 그리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이, 제가 이렇게 300만 원을 빌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 못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근데 이제 그것도 너무 절실하게 되니까” <취업 중 Y>

-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생활비에 집중 되어 있는 경우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였음

“예전에는 돈 아끼려고 점심만 밖에서 먹고 이렇게 아침저녁은 이제 집에서 먹고 이랬었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저기는 좀 줄이고 한 달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술 같은 것만 마시고 나머지는 집에서 먹는 습관을 기렸거든요. 쓰잘데기 없이 커피도 안 마시고 누가 이렇게 사줄 때마다 먹고 좀 쪼잔 해지는 거죠.” <취업 중 A>

- 부채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인한 부담과 함께 노동시장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미래에 부채가 삶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범위 축소 등의 어려운 조건에 대한 심리적 영향도 존재하였음

“그런 불안감은 있어요. 약간... 이 전세 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깡통 전세’라고 집주인이 돈을 안 줘 버리면은 이 돈은 제가 부담해야 될 돈이잖아요. 그런 부담감은 있어요. 조금 조금씩 값아야 하긴 하는데..” <취업 중 O>

“물론 환경 좋은 곳에 가면 좋고 하는데 그게 독촉 같은 느낌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런 느낌. 이런 곳에서 좋은 환경에서 지내면 좋지만 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한테 보여지기에는... 물론 아이도 이 환경에서 자라면 좋고, 주변에 학군도 좋고 깨끗하고 좋긴 한데.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여유가 넉넉해야지 다 같이 좋은 거지 겉으로만 그러면 티가 나고 금세 이제 힘들어 지니까” <취업 중 V>

“대출을 안 했었으면 오래도 좀 평안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금리가 높다 보니까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그냥 발등에 불 떨어지고 난 순간부터 그냥 거의 보통 대부분 부모님한테. 같이 사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 보통은 되게 주말마다 일하면서까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대출 때문에 주말에도 뭔가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이때라도 일을 해서 갚아야 되나 해가지고, 주말도 일하게 되고 방학에도 거의 자기 생활 중에서 자기 그런 취미 생활도 그냥 아껴가면서 일하면서 무조건 갚아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냥 빨리 갚자 이런” <니트 A>

“소득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경제관념이 좀 이렇게 철저한 편은 아니었어서. 그래서 아마 또 학문도 천문학을 계속 했던 것 같고 이제 대학원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채가 생기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래를 위한 투자이고 학업이니까 그 정도 부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 이제 부채가 지금 제 또래인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지금 현 상황을 빼놓고 액수만 봤을 때 저는 부채만 있는 상태이고, 이제 직장을 간 친구들은 굉장히 저축도 많이 해놓은 상태이고, 집을 구매한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까지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이제 돈이긴 하지만 또 이제 돈이 중요한 지표니까 그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암담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위해 투자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정말 옳은 길이었는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좀 자주 있는 것 같아요.” <취업 중 S>

- 적성에 맞춘 대학 선택과 일자리와의 연결이 잘 된다면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발생한 일정정도의 부채는 수인 가능하지만 전공과 직업(직무)이 맞지 않을 경우 대학교육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 및 투입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발생

“내가 대학을 왜 빚까지 내면서 다녔을까 일할 때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말고 일을 실무를 하면서 아니 대학에서 배운 거랑 너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일은 굳이 대학을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시간이 진짜 많이 지났으니까 공부를 떠나서 그냥 경험이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미화해서 생각하는 것 같고, 그 전공으로 일을 했을 때는 진짜 대학 안 가도 되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돈도 그렇고. 돈도 좀 아까웠고 시간 아깝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죠. 실무를 더 했으면 지금 경력 이 더 됐겠다 약간 이런 그런” <취업 중 X>

- 부채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동시에 부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도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음

- 한국장학재단의 저금리 정책으로 크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남

“부모님한테 감사함을 진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휴대폰 비용도 부모님이 대주고 계시는데. 제 주변에는 휴대폰 비용도 자기가 내는 친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진짜 부모님한테 감사해야겠구나. 사실 또 잘 사는 애들은 워낙 잘 사니까. 또 거기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도 있는데. 저보다 힘든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 친구들을 보면서 느끼는 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안도감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E>

“학자금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까지라고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금이 사실 이제 제가 어떤 밖에서 그러니까 장학재단이 아니라 그냥 다른 데서 받아서 금리가 10% 이렇게 되면은 부담스러웠겠지만 2% 정도 내외다 보니까 그렇게 사실 거의 와 닿지도 않는 수준의 이자여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취업 중 H>

- 한편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즉 부채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어 학업 및 생활에 제약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어 학업을 제대로 못하는 문제 등이 나타남

- 아르바이트와 학업의 병행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한 청년도 존재함

“이제 방 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수입은 없고 쓰는 것만 점점 많아지니까 살면서 작년에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라도 구해볼까 했는데. 그때는 또 18학점 19학점 짹짹 채워가지고 들었을 때여 가지고 그럴 여유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조들리면서 살아가지고 작년에 좀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희망 사다리 장학금이라고 학교에서 계속 하라고 생활비 지원해 준다 이러면서 계속 문자가 오긴 했었는데. 오히려 그때 생각이 좀 학생 때는 좀 더 빛을 늘리지 말자, 이것도 희망 사다리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처럼 돼 있더라고요. 말만 장학금이지 이제 제가 취업을 해가지고 취업을 못하면 그게 좀 돌아가는 것처럼 약간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빛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능성을 열어두지 말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부채를 안느니 내가 좀 더 힘들고 말지 이 생각을 좀 많이 버텼던 것 같습니다.” <정규교육기관 C>

“(알바를 한 계기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학자금도 갚아야 하는데 생활비 대출까지 받으면 빚이 계속 쌓이니깐” <실업자 D>

“(부채, 소득부족) 두 가지다 영향을 받는다. 소득이 많다면 부채를 모두 빨리 갚아 버리고 싶다. 부채 있는 게 부담이 있으니... 부채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 <취업 중 U>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은 있지만 연체 경험은 없다. 소득은 좀만 더 많았으면 좋겠다. 현재는 살짝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여기저기 쓰고 싶은데 부족하다. 본인 소득이 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하다고 느낀다. 생활비는 모두 나의 소득으로 해결하고 부모님에게 따로 받지는 않는다. 소득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취업자 A>

“그게(학자금대출금액) 무서워서 무조건 먼저 갚고 시작했다. 왜냐하면 신용이 안 좋은 사람을 지켜봐서 갚을 돈이 생기면 항상 선납을 하고, 대학때는 선배나 친구들에게 얹혀 살 수 있으니깐(생활비가 적게 들었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것 같다.” <취업자 C>

- 정규교육기관에 속해 있는 경우 부채(학자금 대출)로 인해 부담을 느끼며, 교육을 받아야 할 시간에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위해 아르바이트 등 여러 일을 병행하는 경우도 간접적으로 드러남

“제 주변에 딱 두 명 친구만 좀 그 학자금 대출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갖거든요. 한 명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알바를 두 개씩 뛰면서 하나의 알바비로는 생활비를 하고 하나로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는 친구가 있고,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는 학자금 대출 + 생활비 대출까지 받아서 지내는 친구가 있어서. 생활비 대출까지 받는 친구가 조금 그 친구도 이제 알바랑 과외 등등 여러 가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E>

(2)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 자아(self)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로 정의(Rosenberg, 1965)되는 자존감은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시에, 당사자의 사회적 상호 작용이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됨³⁾

3)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2017) 참고

- 심리·정서적인 특성과 관련해서 자존감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Pelham & Swann, 1989), 삶의 만족도가 높으며(Myers & Diener, 1995), 불안이나 절망감,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적은 것으로 알려짐(Brockner, 1984; Tennen & Herzberger, 1987; Crocker et al., 1994)
 - 사회적 상호작용의 측면에서 낮은 자존감은 비행이나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반대로 자존감이 높을 때 개인적인 성과가 높아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연구됨(Crocker & Wolfe, 2001)
 - 이러한 자존감의 심리·사회적인 영향 때문에, 자존감은 인간의 기본 욕구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음(Maslow, 1987)
- 따라서 자존감에 미치는 부채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채의 해결방안을 찾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청년의 개인적 성과를 높이고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앞선 논의와 같이 부채는 개인에 따라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존재 자체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유발, 즉 부채 상환뿐만 아니라 부채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소득활동 때문에 발생한 다양한 제약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상대적 박탈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왔나 하는 후회를 느끼는 사례도 나타남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뭐랄까요, 위축된다고 할까. 친구랑 비교할 때 부럽고 부러운 것도 있지만 좀 저랑 친구를 비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러니까 저의 과거를 좀 후회한다고 생각하는. 왜 나는 저렇게 못 살았나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업자 I>

“남들은 없는 사람도 있는데 남들에 비해 뒤쳐진 것 같고 그냥 제 마음이 불편했어요.” <취업 중 P>

“또 이제 이걸 좀 갚아야 되는 좀 제 스스로의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건 있죠. 제가 제 나이 또래에 있는 친구들보다는 조금 빚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어떤 창업에 대한 빚이나 이런 거면 제가 딱 감수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제 의지 반 그리고 타의적으로 반으로 생긴 부채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많이 힘들긴 하죠. 제가 또 이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 단체에 대한 어떤 월세라든지 이런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도 또 부가적으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요즘에 와서는 좀 많이 부담이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취업 중 D>

“다른 애들 보면, 아르바이트 안 해도 부모님한테 용돈 타서... 물론 넉넉한 집 안에서, 아 부럽다... 나는 왜 그런데, 애들 놀고 있을 때에 나 혼자만 저는 매일 알바가야 한다. 뭐 해야 한다 이려고 있으니까 아르바이트 끝나면 이제 과제라든지, 그런 것 다 있으니까 놀 시간도 약간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약간 그런 게 (우울감) 올 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정규교육기관 A>

“저는 이제 학자금 대출이 따로 있진 않는데, 다른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20대 후반~ 30대까지도 학자금 대출을 계속해서 갚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학교 생활할 때에 생활비처럼 이렇게 대출을 받아가지고 생활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몇 년 이내에 갚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천천히 갚아 나가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길어졌다. 이런 식으로 말한 적 있어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상대적으로 (부채가)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취업 중 O>

“그래서 약간 상대적 박탈감을 엄청나게 느끼면서 이제 그래도 지방에 있을 때 부모님 집에 있을 때는 집값이 나가지 않았는데 이 돈이면은 이 돈의 2년이면은 내가 이만큼을 모았을 것 같은데 너무 왜 여기서 혼자서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살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나왔어요.” <취업 중 T>

“부모님들이 집값이 아무리 싸다 해도 몇 억씩 하는데 자식들에게 사준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상대적 박탈이나 상대적으로 소외 또는 그 살다 보면 헛타라 그런가요. 그런 거 생각할 때 좀 종종 오는 것 같아요.” <취업 중 Q>

“대학교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좀 다른 사람하고 되게 비교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비교는 안 하는데 그때는 비교가 되게 심했었어요. 재는 되게 잘 살아서 되게 저렇게 용돈도 많이 받고 되게 많이 먹고 막 그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어요.” <취업 중 L>

“대출을 갚아 나갈 때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대출을 저도 웬만하면 듣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나중에 추후에 대출하겠다는 애들한테 진짜 웬만하면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 그래도 일반 기준에 대출 안 받은 사람에 비해서 뭔가 생활적으로 심리적인 타격감이 되게 커요.” <니트 A>

“다들 또 어느 정도는 좀 일부의 사람들은 그래도 저보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하고 싶었던 걸 하기 위하여, 물론 공부도 하고 싶어서 돈을 빌린 거지만 공부 외적

으로 그냥 개인 만족 개인 여가 약간 이런 걸 위해서 어느 정도 할부든지 자동차를 산다든지 약간 이런 쪽으로 쓰는 걸 볼 때마다 그거는 어느 정도 물질적으로 유형적인 거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은 당장 내가 지금 성과가 없다고 느끼는 현재 상황에서는 되게 무형적이고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약간 놀기 위해 돈을 번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혹은 그렇기 위해서 할부를 사서 이걸 갚기 위해 회사를 다닌다는 약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약간 전 불멘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제 자신을. 너는 뭐 했나라든지 그냥 석사학위 끝나고 네 돈을 벌었어야 됐는데 그랬으면 니가 이렇게는 안 살지 않았겠느냐 <실업자 H>

“근데 그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 아니 되게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선뜻 빌려주기가 너무 어려운 금액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서로 제 스스로 모르고 제가 너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삽니다. 나 그래도 이렇게 좀 알리고 하는데 결국 실상은 돈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돈이나 빌리고 이런 거에 대한 자존감이 엄청 많이 떨어질 때가 엄청 있었죠.” <취업 중 D>

“빚을 안 지기 위해 엄청 노력한 20대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행복하거나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때 추억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차라리 좀 빚을 더 지고 나중에 바꾸면 되지 그렇게 할 걸 그랬나 생각 많이 하죠.” <취업 중 W>

“부채 때문에 어떤 자존감이나 그런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르겠지만 저는 시간 빌 때 저 프리랜서다 보니까 평일에 저는 시간이 많이 비거든요.” <프리랜서 B>

(3)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청년기에 부채는 친목 및 사교 모임 등 사회적 관계를 어느 정도 위축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며, 심층면접 연구 참가자들의 인식 또한 예측과 마찬가지로 나타남
 - 한편, 정규교육과정 중에 있거나 사회 진출 초년생인 청년은 미래소득에 대한 기대로 부채에 대한 부담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친구나 지인을 만날 경우 부채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고, 소득(임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부채 때문에 회식을 안 간다거나 이런 것보다 일단 가진 가는 거고, 친구도 그리 많이 안 만났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해놔던 것 같아요.” <취업 중 R>

“취업 준비할 그 시기에는 부채에 대해서 이제 오픈하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모임을 가더라도 부채 얘기는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다고 해도 이제 소득이나 이런 게 쪼들려서 힘들다고 얘기하지 내가 빚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는 잘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취업 중 F>

- 창업실패에 따른 부채와 저소득 경제상태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축소를 경험한 사례도 발견됨

“소득이 충분히 제가 기대하는 만큼 높지 않은 선택을 했기 때문이고 창업을 안 했고 창업에서 소위 말하는 제가 실패를 안 했으면은 이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 점에서는 글썄요 충분히 안정적인 형태의 어떤 소득원들을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좀 재미있는 거 많이 하지 않았을 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사람들도 더 자주 만나고” <실업자 C>

-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으로 생각하여 부채나 투자 이야기를 친구들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게 되는 경우도 나타남

“친한 애들한테는 아예 투자하고 이런 얘기도 안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투자 얘기가 참 특히 좀 조심스러운 게 10억짜리 아파트 투자했다는 친구 옆에서 나 2억짜리 투자했는데 얘기하면 너네 집 못 사는구나 이거 약간 증명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투자 안 한 애 앞에서 나 2억짜리 집 샀어 이러면 박탈감 개는 또 박탈감 느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 얘기는 부동산 투자하는 애들끼리 랑만 얘기를 해요. 그 서로 정보 공유하고 이해하니까 근데 주식 투자는 주식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취업 중 E>

- 부채의 존재 또는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소득수준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며,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 동안 만나왔던 사람만 만나게 되어 관계의 확장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함

“특별하게 경제적인, 돈 문제라든가 금융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친구들과고는 예민하니까, 말 잘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D>

“부모님 집에서 이제 지방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집 자체가 이제 조금 부유하지 못한 집이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6개월 동안 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나이가 저희가 서른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 친구가 서비스직을 하던 친구였는데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서 저희가 이제 무슨 일 있거나 할 때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나오는 거 같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또 몇 년 전부터 친구들끼리 이제 모임 통장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5만 원씩 넣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8개월 정도 연체가 됐어요. 그 친구만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조금 혼자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걸 느끼고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중 T>

“친구들을 만나기가 좀 껄끄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취업이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고 있을 때는 친구들한테 먼저 연락하기도 조금 창피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구나 했던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해서 내가 돈을 빨리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되니까 주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고 부모님이나 친척들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을 것이고 본인 자체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B>

“거의 그냥 노는 친구들끼리만 거의 위주로 놀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집안 사정은 알고 있어가지고 그냥 돈이 돈 없으니까 나중에 만나자라고 하면 그냥 그냥 나오라고 자기가 사준다고 그런 적은 많아 가지고 안하기보다는 좀 그렇죠 미안했던 것도 있긴 한데 이제 애는 나중에 내가 성공하면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좀 많이 찾았죠. 이제 애는 진짜 사람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던 친구다 그런 느낌” <취업 중 B>

“생활 패턴도 제가 오후 2시에 일어나서 새벽 6시에 자고 이런 생활 패턴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몸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맨날 제 방 안에서 어둡컴컴하게 핸드폰만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겠더라고요. 간혹 가다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제 개인적인 지인들을 만나고 이런 거를 해도 그때 당시에 되게 위축됐거든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은 나름 일자리가 그나마 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쳐다보는데 저는 뭐 아무것도 못 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야 좀만 기다려 내가 좀 성공해서 너희들보다 훨씬 잘 나갈 수 있어 이렇게 조금 뼈대거나 으스대거나 허세를 좀 부렸지만 실상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미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취업 중 D>

“부채 때문에 인간관계가 제가 원래 원래도 되게 축소 돼 있거든요. 사람 인간관계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만나는 친구가 한 3명. 3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기에 제 생활비와 모자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 그냥 딱 맞는 정도 딱 맞는 정도라서 근데 만약에 내가 이것보다 친구들이 더 많았다. 만나야 될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 많았다. 했으면 줄였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미안하다 나 못 나가 나가고 싶지만 돈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취업 중 I>

“스트레스 해소방법이 술을 먹는 건데 나가서 먹으면 진짜 술 한 번 먹으면 8만 원 9만 원씩 나가니까 차라리 그 돈이면 집에서 음식을 시켜서라도 먹어도 더 싸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빚이 이렇게 늘어나고 나서부터는 또 이제 물론 친구들도 계속 연락은 오지만 저도 이제 돈이 없다보니까 좀 잘 안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취업 중 G〉

- 기혼 청년의 경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위축될 경우 사회적 관계를 넘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나타남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이제 옆에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조금 많이 도와주고 제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도 나이고 저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 입장인데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이어서 많이 죄송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되려나 이제 막연한 좀 느낌이라고 할까요.” 〈프리랜서 C〉

- 청년부채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앞선 사례조사를 통해 보았으며, 대출을 비롯한 채무와 관련해서는 가족, 친인척, 친구나 직장동료들의 태도와 말에 따라 스트레스의 영향은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부담을 더는 경우도 존재함

“실질적으로 이 사회복지 직종에 있는 사람들끼리 원래 이제 월급이 낮다보니까 서로 간에 이제 잘 사는 사람들 물론 같은 이 직종에서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도 서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갚아 나갈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그 지역에 있는 이자 지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이렇게 아까 뭐 상환 유예 이런 것도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정보도 공유하는 편이고 대체로 제가 이 직종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의 좀 서스름 없이 다들 얘기를 해요. 물론 저도 이제 얼마 남았고 이렇게 갚아가고 있다. 누구는 다 갚았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편하게 거의 부담 가지면서 얘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취업 중 A〉

“대학교 때는 조금 그랬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별이가 그때 아르바이트로 충당하기에는 좀 술값까지 이렇게 하기는 좀 부담스러웠고 근데 지금은 애초에 평일에 일하고 주말에 다 이렇게 피곤하고 다 각자 그제 자주 못 만나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 〈취업 중 H〉

(4) 미래계획에 미치는 영향

- 대부분의 심층면접 사례조사 참여자들이 부채와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중요한 미래계획으로 주거마련을 염두해 둘 때 현재의 부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임
 - 주거마련과 결부되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나타나 저출산 등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한편, 부채 자체에 대한 부담으로 미래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와 소득의 절대 부족으로 인한 미래계획의 영향이 혼재하여 나타남
 - 현재 부채와 추가부채의 우려로 인한 미래계획의 영향

“내 경제력으로 인해서 아이를 갖는 거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영향력이 있어요. 진짜” <취업 중 AB>

“부채로 인해서, 내가 일을 그만 두면 안 되고... 이 돈을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저도 그냥 이 일을 이렇게까지 오래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이후로 (일을 계속한 이유가) 아마 이 집인 것 같기도 해요. 계속... 그때는 이자가 80만원, 60만원이었어요. 이자가 그랬어가지고 못 그만 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취업 중 R>

“결혼해서 애는 낳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죠. 자기는 애는 안 낳겠다, 그러면은 이런 생활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 정도 여유로운 생활을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겠죠. 이거를 낳으면은 또 다른 대출이 생기니까?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결혼은 해도 애는 안 가지겠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대출로도 난 벅차다. 그리고 결혼 생활하기도 전세하고 있고 집을 구해야 할 텐데, 거기에 애까지 낳으면 감당이 불가능하다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취업 중 O>

“두 번째 집은 어떻게 마련한다 이제 두 번째고 4천만 원 정도의 부채를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에 살기 위해서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지금의 삶이 지탱될 뿐이지 미래를 상상할 수는 없어요. 청년이 될 수 있는 주체는 사실 청년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청년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산가거나 혹은 엄청난 어떤 소득으로 현금 흐름이 계속 만들어지거나 특수한 경우가 아니 있어 사업을 열었는데 엄청 잘 돼가지고 돈방석에 앉는단든지 로또를 만든단든지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청년 부채를 통해서 기성세대가 일으킬 수 있는 만큼의 레버리지로 더 큰 자산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결코 그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취업 중 J>

“현재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결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요.”
〈취업 중 Q〉

“그냥 좋아지겠지 좋아지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언젠가 그래도 조금 더 이게 힘 들어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 대박은 터지겠지 라는 어떤 좀 냉혹하게 말하자면 헛된 희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냥” 〈취업 중 D〉

“결혼에 대한 관심사는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되게 높았고 그래도 나름 결혼 자금을 위해서 돈도 이렇게 많이 모아야 되겠다 해서 모으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결혼보다는 집을 좀 구해봐야 되겠다. 제가 여기 이제 사는 기간이 4년 남았거든요. 살 수 있는 기간이 4년 뒤에 4년이라는 시간이 길면 길고 또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내가 4년 뒤에 어디 살 수 있을까 해서 진짜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생각은 결혼보다는 안정적인 좀 주거 환경을 마련을 먼저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좀 바뀌었어요.”
〈프리랜서 B〉

○ 자산 부족에 따른 미래계획의 어려움이 확인됨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 친구와 좋아서 결혼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돼요. 감정적인 부분은 서로 관계는 깊어졌으니까 결혼하면 정말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설득하지? 첫 번째. 왜냐하면 저는 모아둔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직업도 불안정하고 비전도 불투명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설득한다? 이제 첫 번째” 〈취업 중 J〉

“뭔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당장 한 5년에서 7년 안에 또 그 돈 모으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때 지나면 또 결혼은 시기가 지날 것 같은 말이지. 그래서 거기에는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건 괜찮은 데” 〈취업 중 Q〉

“우선 결혼을 하면 보통 통장을 하나로 모아서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도 그러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제 남자친구는 본인이 버는 돈의 90%를 통장에 넣겠다. 저희 공용 통장을 만들면 저는 90%를 넣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90%가 아니고 80% 정도이거나 80%를 넣겠다고 했는데 저는 갚아야 할 부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저는 또 이제 다달이 월세가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제가 어쨌든간 덜 내야 하는 상황이니깐. 그런 것도 조금 마음이 좋지 않죠. 그만큼 제가 덜 내는 만큼 이제 또 저축도 덜하게 되는 거고 또 그만큼 주택 구입은 더 어려워지는 거고 그러면 매번 전세 걱정을 해야 하고 이사 걱정을 해야 하니까 장기적인 플랜에 이래저래” 〈취업 중 S〉

“이제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실은 예전에는 저도 서울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이랑 나중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돈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인천이 그래도 서울에 비해서는 훨씬 집값도 저렴하고, 인천 안에서도 송도라든가 아니면 청라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비싼 편은 아니라서. 그래도 제가 좀 이렇게 계획을 잘한다면은 인천 안에서는 그래도 내 집만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천 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몇 년간 일을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하에서는 인천 안에서 계획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취업 중 Z>

“솔직히 그나마 이제 차는 어떻게 또 그전에 모았던 게 있어서 이제 그걸로 이제 좀 마무리 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 달에 70만 원 가까이 나가던 돈이 이제 줄어드니까.. 좀 그래도 돈을 좀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아직까지 좀 이렇게 경제적인 그런 것도 잘 제가 좀 안 잡혀 있는지 또 모으는 돈 없이 또 나가더라도 고요 돈이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약간 조금 이제 돈 쓸 때 좀 많이 신경 쓰고 이제 아무래도 특히 결혼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또 가장이 돼 버리니까 더 좀 많이 신경 쓰이긴 했죠.” <취업 중 G>

- 한편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까지 고민하고 있었으며, ‘당장 취업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시간을 두고 적성을 고려할 것인지’ 등 진로를 결정과정에서도 부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
- 부채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직할 경우 직장이 잘 구해지지 못했을 때 공포로 다가오는 점, 교육을 더 받고 싶지만 쌓이는 부채 때문에 걱정되는 점,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 욕구 발생 등 부채로 인해 미래에 다양하게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돈을 벌지 않는 다고해도 아 내가 빚을 갚아야 하니까, 어떤 경제활동은 계속 해서 갚아야 하는 구나 항상 이제 그게 발목을 잡고 있죠. 그런데, 뭐 제가 원해서 어떻게 보면 받은 것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에, 인생을 설계할 때에 항상 고려해야 하는 거죠. 필수적으로.” <실업자 B>

“내가 만약에 일자리를 구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잘 구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여가지고 1~2년이 그냥 비어질 수도 있겠죠. 그 비워지는 것 자체가 공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너는 뭘 했어 그 자격증을 공부했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어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그래 고생하는구나 하겠지만 그게 3년이 되고 이어졌을 때 혹은 그런 일이 자주 발생했을 때 그래 뭐 공부하고 뭔가 도약하려는 거 알겠는데 너의 그 고생이 증명되지가 않잖아 그러면 너의 쓸모는 무엇이지? 그 답에 대답할 수 없다는 것 혹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냥 그 자체가 불안이에요.” <취업 중 J>

“앞으로 사실 대학원을 저도 이제 진학 예정에 있어서 아마 그때 되면 부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학자금 대출을 해야 돼서 지금까지는 아빠 회사에서 나왔는데 학비가 대학원에는 지원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는 엄청 부담이 될 것 같긴 해요.” <정규교육기관 E>

“실질적으로 이제 이직의 사유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급보다는 월급에 비해서 지금 이제 제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으니깐 차라리 이것보다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더 주는 곳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바뀐 것 같아요.” <취업 중 A>

“학교 다닐 동안 지금까지는 부모님이 갚아주셨어도 이제 취업하면 제가 어느 정도는 내야 하는데... 좀... 부담이 된다.” <정규교육기관 D>

“채무 조정에 대한 인식이 이제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때 좀 많이 절망감을 느꼈죠. 고등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진행을 하시면서 또 저희 부모님은 이런 걸 다 오픈하는 스타일이시거든요. 특히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약주 드시면은 얘기하시는 편이라서 하자마자 바로 저한테 자녀들한테 오픈을 하신 거예요 그때 저도 무언가 찾아보고 할 때는 꽤 많이 절망감 우리 집 망했구나. 대학 못 가고 취직해야 되나. 이런 생각 했었죠.” <취업 중 F>

“한 달에 얼마 정도의 생활비를 쓰면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워 놓고 이제 공부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그때 퇴사하기로 해서. 사실 그거를 원금을 다 갚았으면 좀 생활하는 데 좀 자장이 좀 많이 있으니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안 되겠다 라고요. 사실 빚을 좀 갚아 갚는 것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저한테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좀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진짜로 이제 계획 없이 퇴사하게 되면, 예를 들어 돈이 있었더라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뭘 하지 뭘 하지 하면서 지냈을 것 같아서 너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고정 지출도 생겨버렸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뭔가 계획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실업자 D>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옆에 팀 직원도 야기 가졌는데 배 조금 불러오니까 이제 계속 면담 불러가지고 이제 육아휴직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법이랑은 또 판판인 이야기거든요. 고용 불안을 또 느껴요. 옆에서 나는 다시 안 불러주면 자동으로 실직인데 그러면 벌이가 없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또 빚이거든요. 외벌이로 요새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아주 걱정이죠.” <취업 중 W>

“불안감을 많이 느끼죠 왜냐하면 소득이 이제 없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회사에서도 개런티를 안 해주고 저도 이제 회사에다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기를 언제 낳을 거라고 꼭 약속을 하고 나올 수 있는 건 아

“나니까 그래서 불안함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아기를 미루는 게 불안감을 덜 느낄 수 있는 방법이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취업 중 W>

(5) 기타의 영향

- 청년의 첫 번째 부채는 대부분 학자금 대출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부채가 학업에 미치는 영향은 청년부채 해법에 중요한 분석요인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최근 주거문제가 대두되며 주택마련과 관련한 대출 또한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대면활동 축소 등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대두됨
- 심층면접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부채보다 소득 축소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직업과 직종의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프로젝트 이행 어려움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상했던 소득이 감소함

“교육 쪽인데 이제 저는 사실 학교 방과 후 쪽으로 나갔었는데 그거 하면서 2020년도에 제가 이제 초반에 면접 봐서 한 학교를 다섯 군데 정도를 다 잡아놨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한 군데도 출강을 못했어요. 어려움이 많아서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많이 이제 옆에서 보시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조금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이도 나이고 저희가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할 입장인데 지금 받아서 쓰고 있는 입장이어서 많이 좌충하고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되려나 이제 막연한 좀 느낌이라고 할까요.” <프리랜서 C>

“사실 이거는 부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때 굳이 말하면 저희 회사의 영향이 있었죠. 제가 창업했던 아이템이 코로나랑은 좀 타격이 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제가 재정적인 영향을 받은 게 맞죠. 다만 그것 때문에 대출이 늘어나서 그런 건 아니었어요. 경제적인 여파가 있었던 건 맞지만.” <실업자 C>

“아직 박사 논문을 다 끝내지는 않아서 사실 경제 활동을 하려고 무던히 중간 중간 노력은 했었는데 위촉 연구원이나 이런 걸 누군가가 연결을 해줘서 단기적으로 일을 한 적은 있지만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건 기업에 취업을 하는 건데 학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신입사원으로 잘 채용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력은 했으나 잘 되지 않았다. 근데 저희가 약간 완전 식품 쪽은 아니고 조리 외식 쪽이어서 사실 제가 학위 프로젝트를 몇

년 전에는 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저는 사실 사람을 한 100명까지는 모아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되게 안 된 상황이고 또 실험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옆었어요. 옆어서 외식 쪽으로 아예 외식 경영 쪽으로 논문을 다 다시 주제를 잡아서 쓸 생각이어 가지고 계속 돈이 아니게 경제활동을 못하고 논문에 잡혀 있고 그런 지속중입니다.” <실업자 H>

-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낮은 금리, 비대면으로 인한 집안 활동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감소 등 경제적 부담이 적어지는 경우도 역설적으로 발생함

“원래 하고 있던 알바가 그러니까 좀 아는 지인 분을 통해서 정말 편한 알바 요즘 말로는 이제 꿀 알바라고 하죠. 꿀알바를 두 개 정도는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진행이 안 돼서 하나만 하게 되니까 수입이 이제 반으로 줄잖아요. 그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수입이 줄어서 근데 수입이 줄 만큼 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안 돌아다니니까 원래는 옷 같은 경우도 이제 여자애들 같은 면 옷도 많이 사고 화장품도 많이 사잖아요. 사실 화장할 일도 없으니까 화장품도 안 사게 되고 옷도 차려 입고 나갈 일이 없어지고 대부분 줌으로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줄어든 수입을 좀 보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규교육기관 E>

“오히려 코로나 약 지금 한 2년 동안은 오히려 좀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0시나 아니면 9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술자리도 많이 안 가게 되고 회사 집 회사 집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이렇게 집중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좀 나가더라도 이제 먹는 거 식비 이런 데가 지출이 좀 많아지는 편이 있더라도 그 정도로 이제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진 않았습시다.” <취업 중 A>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많이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6만 원에서 7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내는데 사실 4천만 원 처음 전세 대출을 받았을 때는 거의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이미 거의 3~4년 전이었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한 달에 12만 원 내는 것도 조금 버겁긴 하더라고요. 그것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생활비부터 여러 가지가 나가니까 그나마 지금은 그때가 금리가 거의 2.7~2.8%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1%로 좀 내려왔어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취업 중 T>

“만약에 코로나가 있으면 또 사람을 만난다고 쓰거나 아니면 뭘 사고 또 코로나일 때는 너무 답답하니까 뭘 자꾸 사는 그런 게 뭘 많이 샀던 것 같아요. 집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걸 사고 쇼핑을 괜히 한다든지. 괜히 막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쨌든 풀 뭔가가 필요해서 어쨌든 소비를 했던 것 같아요.” <취업 중 X>

“코로나 때문에 밀접 접촉자도 아니었고 그냥 거기서 하는 자가 격리가 아니고 그냥 스스로 하는 자가 격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그 그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 놀 수도 없고 다들 그냥 좀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자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혼자 있게 됐는데 나가기도 뭐 하고 식당가기도 뭐 하고 해서 많이 시켜 먹었고(그래서 살은 불었지만, 소비는 조금 줄었다)” <취업 중 L>

4) 부채와 부채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함
- 부채지원정책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경제교육과 재무상담,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정기적금이나 예금 등을 이용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나 이자지원 정책이 부채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과 금융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현실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경제교육과 재무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신용회복프로그램, 청년 맞춤형 재무 설계 상담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하기도 함

“청년들에게 경제금융교육이 필요하다. 대부업체 규제. 이거 주변 친구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했다.” <취업 중 R>

“내가 기회비용을 줄여가면서 내가 만약에 어느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 금액이라던가 교통비를 줄여가면서 그 금액으로 약간 조금씩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불려나간다던가 약간 조금 그런 식으로 약간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근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생활하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던 것 같아요. 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지 지금은 약간 조금씩 배워가니까. 어떻게 좀 융통성으로 예전에는 내가 과거에는 돈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막 지출을 하고 쓸데없는 거를 이렇게 과소비하지만 그분에 대해서 배우니까 소비 습관도 약간 이제는 불필요한 거는 줄여가고 소비를 안 하고 약간 경제적으로 써야 되는 물품만 이렇게 딱 구매를 하고 이러는 것 같아요” <니트 A>

“부채관련해서 이자를 이제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대신 갚아주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정책도 좋고 그냥 어찌됐든 미리 교육을 (노이즈) 하면서 젊은이들이 잘 (노이즈) 설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빚은 좀 안 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실업자 B>

“신용회복 제도를 초반부에 더 활용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했던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를 채무조정을 하면서 적어도 이제 뭐 뭐라 그럴까 이자가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계속 조정이 되고 그리고 상환 계획들이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 정보들을 쉽게 취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파산제도도 있고, 개인회생이 있고, 뭐 워크아웃도 있고 이런 것을 하는 게 있다. 이런 신용회복 제도를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청년들이 확실히 알기에는 좀 쉽지 않은 정보인 것 같아요 그렇게 청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게 청년들을 위한 제도만은 아니니까” <창업 B>

“부채관련 해서는 어떤 상담 할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재정설계라든지 청년 주거설계 컨설턴트 사업을 들어본 적 있다.” <실업자 B>

“사업 부채라든지 그런 액수에 대해서 일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 액수뿐만이 아니라도 내 지금 현 상황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다, 그랬을 때 일부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죠 <창업 A>”

“이자 정도 지원이 제일 나올 것 같아요 지자체에서 저리로 전환 대출을 해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약간 그런 방법이거나 아니면 지원금 지원하려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세한 이유를 써서 내라고 한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지원금에 대한 그런 지원 대상에 대한 바운더리를 좀 넓혀준다든가 약간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업자 H>

“지방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 있을 수도 있지만 당에서 얘기하기도 한 청년들에게 일정한 자산을 할당해주는 자산을 배당해주는 이런 방식이 가장 효용이 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현실 가능성을 떠나서 일정한 연령의 일은 만 20세가 도래했을 때 5천만 원의 자산을 무조건적으로 주고 그걸 어떻게 쓰든지 정부나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면 말하자면 제가 32살 때 경험하게 된 마이너스 통장을 운용하는 것 같은 어떤 자유 내지는 여유를 20대 때부터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걸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공

부를 하면서 학자금의 일부를 그걸 충당하면서 적어도 빚을 내지 않고 살 수 있게 되기 말하자면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가 빚을 내서 청년들의 삶을 여유롭게 만들어주는 정책인 셈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참여 소득과 같은 방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어쨌든 소득이 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노동자 중에서 만 35세 만 40세 미만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좀 더 폭넓게 넓혀서 예를 들어서 제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마을 활동가들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여러 가지 복지 사업이나 마을 활동을 더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활동가들이 발굴되고 지탱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좀 지탱할 수 있도록 하는 수준의 어떤 지원 정책 그러한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그들의 생활이 활동과의 삶만으로도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참여 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당장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 3회 캠페인이 있는데 이걸 참여하면 월 얼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미래를 도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와 결합된 방식으로 청년들은 일정한 노동을 제공을 하되 그것이 어떤 공익적인 측면에 부합하기만 한다면 일정한 소득을 정부에서 함께 지원해 주는 그런 일자리가 더 많아지면 좋겠어요” <취업 중 J>

“경제문제 관련해서 부모님한테 좀 물어보는 편인데 저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조금 경제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프리랜서 C>

“돈을 관리하는 역량 딱 보통에서 살짝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렇게 된 계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할부도 나가고 보험비도 나가고 생활비도 쓰고 카드 값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딱 한 달 월급에서의 계산을 해요 이번 달은 이만큼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돈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정말 부족한 경우가 있으면 아까 얘기했던 10만 원짜리 적금 붓는 게 이제 입출금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이제 했다가 다시 이제 메꾸고 이런 식으로 계산적이라고 할 것 같아요 관리보다는 이제 좀 계산적으로 관리하는 조금 보통보다 조금 원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채가 있다 보니까 좀 아까 얘기했던 이자나 이제 원금 상황이 들어가게 되면 네 그거를 먼저 고려를 해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우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그게 제일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취업 중 A>

- 자산형성과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요구하고 있었으며,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음

“부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인천시에만 좀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제가 용인 쪽이 본가다 보니까 용인에서 청년들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지원을 많이 해줘요 부채뿐만 아니라 그런 전세도 그렇고 월세라든가 그런 학생들 생활비 지원 같은 걸 굉장히 좀 많이 해주기도 하고 범위도 큰데 인천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가지 수가 굉장히 적더라고요 가지 수도 적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적고 지원금도 되게 적은 편이고 근데 또 최근에 인천시 정책 같은 것들 보면 돈은 또 크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청년에 대한 그런 보여주기식 말고 실질적인 필요한 거? 부채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게.” <정규교육기관 E>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빚이 너무 많으면 이자가 너무 세다든가 이러면 조금 조율해주고 이런 게 있는 건 알고 있거든요 이 본인도 해보셨어가지고 옛날에 근데 약간 청년들 만 20대에서 30대 초반이다. 이런 청년들이 그런 빚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그 신용회복 위원에 지금 기준에 충족이 안 돼도 네 이자를 조금 줄여준다든가 그게 정리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청년들 위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취업 중 Q>”

- 위와 같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스스로 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부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주거문제를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함

“청년이 실질적으로 느끼기에는 자기가 해서 자기가 성취를 해야지 월세 대출을 대출 이자를 내주겠다 고 말한다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대출은 그대로 왜냐하면은 그걸로 인해서 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집값이 오르고 하는데 나는 나라에서 이자를 준다네 대출을 받으라는 거네 이렇게 받았잖아요 일을 하게하고 수당 돈을 벌어서 자기가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대출 이자를 내주고 월세를 아니면 아예 월세를 동결을 해주면 모르겠지만 개인 재산으로 건드릴 수가 없는 문제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나라가 부채를 없애려면은 학자금 대출을 더 이자를 싸게 해주거나 나라에서 해주는 교육은 그렇게 어떻게든 대출 금리를 낮추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거 문제를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닌 이상 그거에 대해서 월세를 지원해 주거나 이자를 주거나 나는 집주인만 좋은 일이지 <니트 B>”

“부채가 있는 청년들을 일자리를 좀 알선을 해줘서 갚을 수 있게 교육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부채만 떠안고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청년들이 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든단 말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이제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민하는 동기들도 많이 받고 취업도 못 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동기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때마

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제 그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일자리가 있고 지금 내가 공부한 분야가 이런 거니까 이 분야에서 이런 사람을 구한다 여기 한번 면접을 지원해보라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 돈을 갚을 수 있게 능력을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 주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돈을 지원을 해주기보다 이거 내가 대신 갚아줄게 돈 얼마 줄게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이제 일을 해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왜냐하면 돈만 쥐어주게 됐을 경우에는 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규교육기관 C>”

“중소기업에 청년이 취업을 하면 청년 구직자 이렇게 하면 월급 절반을 이렇게 기업한테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청년한테 빚을 갚아주는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사람이 근로 소득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그 부담을 낮춰주고 그리고 이제 이 분은 이제 정상적인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빚을 탕감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제도랄까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제 돈을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실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기업 지원 기업 청년 취업 지원 서비스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이제 문제인 정부 들어가지고 청년의 일자리 아니면 이제 인천시나 어디에 청년 일자리 몇 만 개 증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수치적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송도의 이런 스마트 바이오 단지나 아니면 이런 데 주변에 이제 이런 남동공단 이런 데에서도 특색 있는 이런 청년 일자리 이런 센터 같은 걸로 개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죠 그냥 최저임금으로 고용되는 이런 노인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일자리 지원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대로 된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취업 지원센터가 별도로 좀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근데 그 대상은 청년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나중에 노후 세대에 대한 이제 세금이나 이런 거를 갚으려면 청년들이 이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청년들은 쉽게 쉽게 이렇게 가려고만 하고 있고 아니면 이걸 좀 3d 업종은 가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좀 개선을 하려면 이 사람들이 진짜 제대로 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센터를 저희가 이제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중 A>”

“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생계를 위한 거라면은 당연히 좀 나라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저처럼 개인적인 걸 위해서 쓴 대출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실업자 D>”

- 청년부채가 이행기 청년의 특성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다면, 부채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대출경로를 제시해주고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음

회사 운영했는데 생활비하고 이런 원금 이자 다 포함해서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급한 게 이제 급하게 받을 수 있는 대출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1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하게 <창업 A>

“일단 제일 1차적으로는 인터넷으로 알아보는 게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알아본 다음에 이제 지점을 방문을 해서 물어보는 편인데 이제 지점마다 담당 직원마다 또 아는 게 다 다르시더라고요 .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기본 바운더리는 알아봐 놓고 그다음에 은행을 한 3~4 군데 들러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플랜을 제시하시는 분한테서 이제 대출을 진행을 해줬죠 ” <취업 중 K>

“3금융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저축은행 그쪽이 약간 대출 심사가 좀 절차도 까다롭지 않고 바로 심사 서류 넘기면 바로 돼가지고 그때 저축은행 대출을 받았었는데 아무래도 1금융권을 받는 게 더 괜찮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심사는 까다롭지만 약간 신용 이런 게 조회했을 때 이게 등급 나오잖아요 네 약간 상금 요건은 대출은 쉽지만 이제 조금 신용등급이 많이 하락이 되고 그리고 금리도 1금융에 비해서는 좀 금리도 좀 높은 편이고 대신 조회할 때 서류 조회할 때 바로 결과가 바로 심사가 나가지고 그 편한 거 빼고는 아무래도 1금융권이 나은 것 같아요 ” <니트 A>

“만약에 대출을 꼭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만약에 말을 해주고 싶은 말은 차라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대출은 노력을 하지만 절대 3금융권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 <니트 A>

- 부채해소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청년 정책과 관련해서 아는 사람만 아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홍보가 진짜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플랫폼이 되게 여러개잖아요? 구청이면 구청, 진짜 드림스타트면 드림스타트 다 따로 따로 하잖아요 그런 게 번거로워요 ” <취업 중 O>

“문화생활을 할 수 있게, 그런 것에 대한 정책?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정규교육기관 A>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잖아요. 뭔가 이제 처음부터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인데 부채에 대한 압박감 그런 것을 받으면 안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압박감도 줄여주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정책” <정규교육기관 A>

“청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출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도 심리적인 타격감이 아까 말했듯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이렇게 상담해 주고 이렇게 조금 심리적인 이런 마음에 있는 그런 압박감 이런 거를 치유하고 케어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있어서 이게 연계해줘 가지고 이렇게 조금 힘을 붙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응원해 주고 힘을 보태어 줄 수 있는 이런 전문 센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약간 요새는 재활 센터가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충 이런 청년들에게 조금 이분들도 조금 재활할 수 있게 이분들도 약간 마음적인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 이런 심리적인 이런 스트레스를 좀 해결해 주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이런 센터가 연계돼서 마련돼 있으면은 아무래도 마음적으로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면서 그분들도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니트 A>

“인천시에서 청년 부채의 실태나 이런 목소리를 듣는 기획을 했다는 게 매우 좋고 질적 인터뷰 fgi 같은 거 종종 하러 제가 진행하러 다니고 했는데 설문지를 돌리면서 파악하려는 것 이상의 품이 사실 드는 일이잖아요 인터뷰를 수집한다는 게 네 그래도 이런 연구를 발주를 해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인천 시민으로서는 되게 반가운 일이고 인천 청년으로서도 되게 고마운 일이고 잘 연구가 진행이 돼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취업 중 J>

“저도 되게 처음에 경제관념이 전혀 없었고 주변에 누가 지인이 알려주지 않으면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그런 게 없고 그런데 지금 사실 청년이 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지금 완전 어린 세대 애들은 더 모를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그래서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거를 조금 많이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그러니까 본인이 찾아가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어서 처음에 기초를 조금 듣고 시작하는 거랑 안 듣고 시작하는 건 다르니까 그런 게 조금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해서 이제 가르침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실수도 해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취업 중 AB>

“취업 후 상환 대출이랑 일반 대출이랑 나누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잠깐 생각한 거라서 많이 짧을 수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취업 활동을 취업 준비 활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도 몇 개씩 돌리고 이렇게 하는 청년들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에 이자까지 내야 된다는 게 이자가 얼마 발생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이자를 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어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천 원이고 2천

원이고 내가 이자를 내야 된다는 사실이 부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금액의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취업 후 상환 대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자를 안 내고 있는데 이자도 안 내고 있거든요.” <정규교육기관 B>

“대중교통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소액으로 그거를 저 그런 옛날에 핸드폰 있었을 때 그런 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신용 보증 같은 데서는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이상은 갚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나라에서 미리 변제를 해 주고 이제 저금리로 매달 5만 원에서 이제 10만 원 사이씩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매달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씩 갚게 해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만약에 진짜 그렇게 빚을 만든 거는 굉장히 실수지만 몇 백만 원 때문에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진짜 그거를 낼 수가 없어요. 일시납 아니면 40만 원 50만 원씩은 꼭 갚아야 된다 이러는데 네 근데 40만 원씩 50만 원씩 내는 게 정말 낼 수 없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그렇게 그냥 악순환으로 그냥 이자만 계속 나 오고 이러는 상황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나라에서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먼저 보증을 사서 갚아주고 신용을 회복시켜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나라에서 저금리로 해서 찬찬히 5년 납이든 3년 납이든 천천히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게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업자 A>

“만약에 돈을 못 갚는다 해도 생활비나 교육비 정도가 등록금 정도가 무난하긴 할 텐데 이제 또 그런 내가 힘든 상황이라는 걸 좀 증명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이제 낼 수 있는 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초수급자 대상이나 그런 등급으로 밖에 측정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뭔가 방법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취업 그거는 어떻게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취업을 금액이 낮더라도 해서 돈이라도 버는 부분이겠지만 그거 한 이상은 뭐 그래 최고는 뭔가 좀 정신적으로 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취업 중 B>

“어떻게 보면 대출 상담사나 제2금융이나 하는 데는 되게 그냥 시장의 논리로 하는 거라서 네 그냥 제가 거기다 끼워 맞추는 거잖아요. 제 상황을 근데 이제 만약에 시나 판이나 이런 데서 그와 관련된 청년들 나 혹은 저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청년들에게 보조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단순하게 현금성으로 어떤 저의 우리의 대출금을 갚아주는 정도면 더 좋고요 근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걸 좀 장기적으로 좀 회복을 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좀 장기적인 혹은 중장기적인 플랜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연구나 이런 걸 제작한다고 봐요. 이제 하나의 좀 시작이기는 하지만 좀 그래도 대출을 갚아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건 조금 제가 생각하기도 너무 좀 모르겠어요. 염치가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부채인데 시 너네가 나 좀 갚아줘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바람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스스로 제가 좀 갚아나갈 수 있는 능력 자체나 여력이나 지원을 그렇게 대한 보조 서포트 했으면 좋겠거든요.” <취업 중 D>

“지금 어떤 공공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에서도 그런 대상과 관련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좀 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인천은 아예 그거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용역이나 이런 것 자체가 이거에 대한 아예 데이터베이스가 전무하다고 해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고 이제 나름의 어느 정도 현금적인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준다고 하면 아니면 이자율을 내려준다든지, 이자율을 관해서 조금 더 좀 관여를 해서 이자를 좀 내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조 그러니까 인천시 자체에서는 지금 학자금 대출에 대한 보조를 해주고 있거든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근데 이제 그게 청년층까지 그냥 일반 청년층까지 나와서 부채가 있는 청년들한테 이 정도로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전액을 다 도와줄 수는 없어서 일정 부분은 조금 더 상환을 해주거나 이런 걸 좀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렇게까지 좀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 <취업 중 D>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태조사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불만인 거는 이걸 인천시에 고용주들이랑도 공유를 하는가 아니면 그들도 인터뷰를 하는가 왜냐면 청년 부채를 알아보려면 저희 들어오는 데는 월급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계약서에 두 잡이 안 되니까 그럼 들어오는 데가 월급밖에 없는데 저희 소득의 원천인 월급 주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보았나 그들이 우리가 왜 돈이 없는지 왜 빠듯한지에 대해 정말 이해를 하고 있나 연봉 몇 억씩 받고 중소기업도 다 최소 제네시스 끄는데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 타는 내 마음을 아냐, 그게 정말 궁금하고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부채를 줄여주려면 소득을 늘려주는 게 가장 좋은 가장 심플한 솔루션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한테 5만 원, 10만 원 주시면 그거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그 기본 값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늘려줄 수 있는 아까 그 굵직굵직한 제도들이 있잖아요. 근데 못 받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이걸 그 사람들이 아는가 그 제도가 뭔지는 아는가 한 달에 본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가르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좋은 제도 내놔라고 뿌려놓고 젊은 직원들은 블로그 보고 해달라고 출력해서 올리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돈 들어갈 것 같으니까 콧방귀를 끼지 않는가 그걸 좀 알아봐야 되지 않나 좀 젊은 사람들 백날 인터뷰해 봐야 그분들 마음을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게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취업 중 W>

“뭐 월세를 한 몇 달 이렇게 좀 정 안 되면 월세 그러니까 정 진짜 좀 사정이 안 되는 날에는 월세를 좀 유예를 해준다든가 정말 더 좋은 거는 그 달 월세 몇 한 예를 들어 10번 하면 10번 정도까지는 월세를 좀 이렇게 제할 수 있다든가 그 단에는 10번까지는 이렇게 뭔가 횡수제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든가 하는 실질적으로 그 달 나가는 돈의 돈을 좀 줄일 수 있는 인천시라고 하면 인천시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혜택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네요. 월세 이런 정말 아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비용들을 좀 절감 받을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화생활이라든가 이런 거는 떠나서 저 밥 먹고 이런 건 정말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인천시에 있는 그런 식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사 먹거나 식료품을 살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거나 하는 지역 화폐라는 그런 거 요즘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지원해준다면 거기에 들어갈 돈을 아끼고 좀 현금을 이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테니까 그런 지원이 된다면 도움이 되게 많이 되겠네요.” <프리랜서 B>

“유튜브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저는 저는 제가 이 지경까지 오면서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경제관념 교육을 해야 된다 사람이 이게 저는 너무 정말 없어도 너무 없을 정도로 관념이 경제관념이 없이 산 것 같아요. 제가 제 탕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학교에서는 아무 것도 해 주는 게 없고 얘기해 주는 게 없고 부모님들도 그냥 돈 쓰지 마 돈 아껴라 라는 얘기밖에 안 하니까 이게 사실 어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어느 정도 일을 어떻게 해서 어떤 세금을 내고 어떤 식으로 적금을 들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게 자세하게 하잖아요. 거기 그 반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런 이게 정말 보편화된다. 이런 교육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는 걸 저는 요즘 정말 열심히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취업 중 D>

“지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봤고요 워낙 지금 정부에서 하는 지원들은 많아서 오히려 더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정부에서 하는 건 정부에서 하는 거고 지자체에서 광역이나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건 또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환경과 이 청년들 소득이나 여러 가지 지금 연구된 거에 따라서 가야지 무조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저희가 다 맞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 게 또 있는 것 같고 너무 부채, 부채, 부채 해가지고 이게 사실 겁을 내는 건 맞는데 너무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겁을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자만 낼 수 있으면 그 부채도 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것도 사실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 돈이 제 돈인 거고 그러한 그렇게 청년들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부채 빨리 어떻게 갚아야지 물론 갚아야 되는 거는 맞죠.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그 금액이 있어야 저희도 뭔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주택 구입을 할 수도 있고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에 너무 이제 부채는 사회악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거에 대한 조금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조금 경제적인 부채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교육들이 조금 심층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취업 중 N>

“가장 좋은 거는 솔직히 지금 다 부동산이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막말로 집을 한 채씩 주면 좋겠지만 그거는 어렵고 현실적이지 않고 한 90프로 정도로 좀 대출 규제 풀어주고 물론 이제 진짜 꼼꼼하게 따져서 그게 진짜로 투자 목적 그런 게 아니라 90%로 정도 이제 대출 한도 풀어줘 가지고 이율도 뭐 한 2프로에서 3프로 사이 정도로 해서 고정금리로 또 변동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고정으로 그런 것만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고 대신 그게 투자 목적이거나 나중에 그런 게 밝혀지면은 당연히 회수하고 이런 거를 오히려 좀 공무원들이 신경 써서 그런 투자가 아니라 진짜 이제 이렇게 집 못 구하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약간 그렇게만 해도 솔직히 부동산 이런 게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얘기가 가장 큰 이슈가 부동산이잖아요. 사실 저희 나라가 지금부터 또 대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자를 한 1년간 내주고 사실

이런 거보다는 일단은 대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특히 청년들은 남자들은 진짜 남자들 한 스물다섯 살 기준으로 하면은 군대 갔다 오고 대학 갔다오면은 대학 졸업도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2년 뒤에 나오고 군대 갔다. 온다고 해도 진짜 한 1, 2년 밖에 일을 안 한 친구들이 진짜 부모님 도움 없이 툭툭 해가지고 대기업 간 애들 제외하고는 1, 2년 모아봤자 수치가 얼마나 모르겠어요. 많이 모아봤자 한 2~3천이죠. 그러니까 그 2~3천만으로도 가지고도 자금 욕심 이런 거 안 부리고 한 3억 정도 아파트 산다는 가정 하에 10프로는 진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의 노력도 봐야 되는 거니까 10프로 정도만 준비를 하면 이제 90를 좀 고정금리로 해가지고 대출 규제만 풀어줘도 이자 이율은 그것도 너무 욕심 없이 그냥 한 2~3% 정도 대로 해서 그렇게 하면은 일단 집 문제가 해결될 거고 집 문제가 해결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제 의식주가 잡히면은 결혼 안 한다는 애들도 이제 결혼 충분히 결혼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그게 다 이어져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지금 결혼해도 뭐 결혼해도 지금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그러면 월세 아니면 매매인데 매매는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 보니까 이제 결혼 포기하고 그렇게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이런 친구들도 많다고 이제 그런 쪽에는 좀 그래도 아직까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의식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 주거만 해결돼도 그런 문제는 오히려 자동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취업 중 G>

3. 청년부채 해결방안 관련 FGI 결과

1) 금융(부채)전문가 FGI

- 청년부채 해결 방안 관련 금융(부채)전문가 FGI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인천시의 채무조정 개인회생 파산 워크아웃 등을 담당하는 기관의 특징이 사회 취약계층 위주지원에서 일반인들까지 상담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 있음
 - 청년들 대상으로 주거지원, 의료지원, 창업지원, 취업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인천 청년들의 부채가 상당히 많은 청년들에게 존재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부채의 심각성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느꼈음
-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부채의 원인이 같은 청년세대에서도 20대와 30대가 다르게 나타남. 20대는 주거매입보다는 전세 보증금 임대나 신용대출이 주를 이루고 30대는 주택 매입 관련 대출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일명 ‘빚투’ 형상이 실제 인천청년 사이에서 실제 나타나며 이로 인해 신용도가 떨어지고 원리금 상환도 안 되는 청년이 존재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 나타남
 - 인천 청년만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청년 공통의 문제로서 인천만의 특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있어 어떻게 인천에서 효과적인 방안을 만들 것인지에 대한 논의 필요
 - 새로운 개발지구의 등장으로 부유해 보이는 청년세대가 등장하며 취약계층에 속하는 청년이 드러나지 않게 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청년 집단을 세부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1)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전문가 의견

-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청년을 하나의 획일적인 방식으로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함
 - 청년부채와 같이 청년 관련 문제가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되었을 때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간층의 청년, 그리고 그 아래 계층을 떠받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 (청년부채 상담 활동가) 만나는 대부분의 청년은 ‘빚투’ 조차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며, ‘투자 자체를 생각할 수 있는 청년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의구심이 존재
일명 ‘빚투’ 청년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빚내서 투자하는 청년과 빚을 상환하지 않고 투자하는 청년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기초생활 수급 청년이 주로 이용하는 센터인 경우 대부분의 청년이 부채를 지고 있는 상황이며, 코로나19로 인해서나 가정이나 사회적 문제로 인해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 기초생활 수급 청년은 대부분 1인가구로 생활고로 인해 쉽게 신용카드사용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 핸드폰을 이용한 소액대출 등이 반복되며 부채가 증폭되는 경우도 나타났음
- 사회주택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 면담을 진행하는데 보증금 200만원이 없거나 대출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려운 경우가 많음
- 소액대출의 반복에 따른 부채 증가와 대출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초적인 생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함
- 보호종료 청년들의 경우 정착이 소액 지원이 되나 사회생활에 취약하여 쉽게 탕진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주거공간이 없어 노숙을 하게 되는 청년까지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특히 코로나19 상황이 더 많은 청년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판단함
- 부채와 관련된 정책을 수행하는 입장에서 부채 정책을 총괄하는 지자체의 부서가 없으며, 부채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조례)가 존재하나 지역실정이나 청년의 실정에 맞춘 지원근거가 부족함
- 보호종료 청년의 예를 들어보면, 기관들 간의 역할 조정과 협업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 DB를 중심으로 양적지표를 관리하는 분야에서는 다른 광역시에 비해 인천시가 크게 두드러진 특징을 찾기 어려웠음
- 한편, 인천 청년의 부채의 증가 속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굉장히 빠른 추세로서 청년들이 소득을 얻지 못할 경우 부채증가속도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30대 청년의 경우 자산 관련되어 대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코로나19 이후 주가가 많이 떨어져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경우 향후 흐름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주식이나 코인 등의 투자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음
- 청년들의 부채는 개인적 문제로서 지원을 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것이라 주장과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대체로 사회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에 동의하였음
- 개인의 도덕적 해이에서 부채문제를 바로 보는 것은 채권자 입장이며, 채무자들은 기본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사회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 존재
- 학자금 대출은 높은 교육비와 취업난으로 비롯된 문제이고, 주거 대출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비가 증가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회경제학적인 변동이나 문제에서 기인된 것으로 인식하고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1인 가구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발생한 현상
- 특히 저소득청년의 경우 사회 구조적으로 실업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결국 청년 자활 프로그램으로 편입되는 점을 봤을 때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 청년들의 채무 조정에 반대하는 청년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의견은 청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에서의 주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채무조정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고단하며 법원의 엄격한 판단에 따른 것이니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학자금 대출 문제에서 기성세대나 한국장학재단 및 금융권 관계자가 아닌 당사자 학생들의 ‘나는 열심히 갚고 있고 있거나 갚았는데 왜 다른 사람은 면제를 해줘야 하나?’ 라는 의견이 많았음

(2) 청년부채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

-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정책의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
 - 예를 들어, 보호 종료되어 자립 지원금으로 몇 백만 원 받고 사회로 나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청년들이나, 부모님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
 -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정책 환경 조성 필요
-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가 필요하며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나타냄

- 지역 네트워크의 경우 소상공인 금융상담센터의 역할 확대와 서울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와 같은 기구 설치하여 청년 부채 문제를 정책화하는 방안을 예시로 들었음
- 또한 교육과 상담 등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점을 공유하였음
- 현재 여러 기관이나 은행과 연계하여 교육을 다양하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청년 개인별 상황이 워낙 다양해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개인 대출이나 창업을 위한 보증금서 대출을 받았을 때 상환 계획 수립 등의 최소한의 교육을 진행하거나 대출 후 자금 운영 컨설팅과 같은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예를 들어 학생생활 상담센터가 모든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취업지원뿐만 아니라 채무상담이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해설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에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함
- 이와 유사하게 청년정책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므로 청년문제를 통합하여 상담과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창구마련을 제안하였음
- “목록조차 다 읽어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있음에도 인천시에 거주하고 근로하는 청년으로서 이것에 대해 들어보거나 그랬던 적이 거의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싶어도 이제 기사라든지 이런 방면을 통해서라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다.” 라는 의견과 함께 어느 기관이나 센터 방문 시 자신의 상태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나 금융 관련된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정책지원을 원클릭시스템으로 정보를 받아 해결할 수 있을 때 청년 부채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제안함
- 더불어 전문적인 상담과 지역 네트워크와의 신속 정확한 연계를 위한 부채 관련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정책을 한눈에 확인 할 수 있는 홍보체계 구축도 제안
- “그냥 개인의 문제라고 해서 개인에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걸로 떠넘기기보다는 어떤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전체적인 비용 사회적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라는 의견도 제시됨
- 인천의 금융 정책과 청년 부채 정책이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화되고 전문적으로 수립·집행되길 요구하였음
- 기존 진행되었던 경제교육 프로그램들을 청년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시켜 나가는 방안도 제시되었음

2) 청년활동가 FGI

○ 청년부채 해결 방안 관련 청년활동가 FGI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부채에 대해 금액에 상관없이 심리적인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해소 방안 또한 스스로 찾아가고 있었으나 정책적 지원이 필요
-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장년층에 비해 대출 정도는 적었지만, 증가 추세에 있음
- 세부적으로 20대와 30대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고 청년 자영업자 등의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주거대출과 생활비 해결을 위한 대출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유용한 정책제안을 위해 청년 중 정책지원을 집중해야할 구체적인 집단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1)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청년활동가의 의견

○ 각 영역에서 바라보는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인식은 다음과 같음

- 본인이 청년정책 관련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도 필요한 정책을 찾고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으나, 자신보다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이 많다는 인식을 하였음
또한 부채는 주거문제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LH 청년 행복주택에 입주해 살면서 느끼게 되었음
- 현재 결혼하는 청년들의 나이가 늦춰지고 있으며, 주거 문제가 주요한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딸 청년보다는 신혼부부 쪽으로 주거 정책에 많이 쏠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전국을 대상으로 청년 활동을 하며 여러 조사와 연구를 통해 청년 부채의 경향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며, 과거 학자금 중심의 부채가 생활비 중심으로 옮겨가는 경향과 최근 단기 및 소액 투자가 활발해지나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음

○ 전문가 FGI와 마찬가지로 청년들의 부채가 도덕적 해이 영역인지 사회 구조적 문제 영역인지에 대한 의견은 전문가집단보다 더욱 강하게 사회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음

- 현재의 경쟁구조에서 대학은 청년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되다시피 하는 현실과 서울소재 출신과 지방소재 출신의 사회적 차별등과 이로 인해 취업과 미래계획에 차이가 생기는 등의 사회구조적 문제라 생각함

- 특히 대학 등록금을 저리에 대출해주지만 졸업 후 취업이 된다는 전제를 하는데 현재 경제상황이 청년들이 취업 후 바로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하여도 불안정성이 지속되어 부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된 상담 등이 없이 진행되어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청년들이 적지 않는 금액을 대출하는데 적절한 교육이나 상담이 없는 문제가 있으며, 주위에 “도와주는 어른이나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참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위험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다고 인식함
- 대학에서는 입학에 위해 등록금 대출을 권장하는데 설명이 충분히 안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 주거지원정책을 실시하여 보증금 대출 등이 발생하지만 현실적으로 집주인(건물주)의 이익을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함
즉, 주거비 지원이 되는 건물의 경우 주거비를 대폭 증가시켜 청년의 보증금 대출액수는 증가하고, 관리비를 월세보다 살짝 적게 하여 받는 등 실질적으로는 월세와 다를 바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엄청 경쟁적인 사회”로 인해 청년 세대 내의 자산격차 또한 심각해지며, 위기상황에서 자기 탓을 하며 극단적인 상황까지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2) 청년부채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청년활동가의 의견

- 청년부채 해결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청년부채에 대한 실태에 대한 인식에서도 드러났듯이 모든 청년활동가들은 상담과 교육체계, 대출 전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함
 - 또한 빚투 등 최근의 경향성에 대해서는 주식시장 등 금융관련 기초적이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등록금을 이렇게 마련을 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받는 게 있고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방법, 상환할 때 어떻게 상환을 하는 것이 내 입장에서는 좀 더 도움이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교육을 해줄 수 있거나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었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함
 - “금융상품 팔 때나 뭐 이럴 때는 다 직접 설명했는지 확인하고 이런 어떤 법적제재가 있는데, 왜 정작 공공 영역은 그런 걸 안 해도 되는지 약간 이런 게

좀 의문일 때가 있다.” 라며, 청년 대상 학자금 대출 진행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주거지원정책과 관련하여 관리비(월세)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책정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 케어 체계를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함
- 부채를 해소하는데 실패한 청년들에게는 파산이 선언될 수 있어야 하며, 파산 이후 컨설팅 등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청년부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먼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한편,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주어야 하며 부채 이전의 상태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함
- “자립해서 자기 스스로의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해주는 게, 그분들(청년)한테 가장 큰 효과를 줬던 것 같거든요.” 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였음

또한 대학 차원에서 부채 상담 창구가 필요하며, 대학 졸업 청년의 경우 부채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되어 대학 차원을 넘어선 부채 상담을 통해 스스로 빚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 교육하여 부채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현재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청년들이 “노력해서 안정적인 자산을 쌓을 수 없고, 한 방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고 보고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자산형성 지원의 경우 조건이 까다로워 청년들의 접근성이 좋지 못하다고 보고 있음
- 조건으로 장기근속을 요구하나 장기근속을 채우기 어려운 기업 환경이거나, 기간을 조금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지원이 무효화 되는 문제가 있음
- “지자체, 중앙정부, 기업 매칭을 해가지고 금액만 키우는 데 너무 집중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금액보다도 시간 기간과 그다음에 연속성의 문제가 더 중요하단 이런 생각들이 일단 들어요.” 라며 정책 설계가 유연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단기든 뭐든 해서 일부는 모을 수 있게끔 그래서 대출 받더라도 많이 안 받게 가면 좋지 않을까” 라고 제안함

○ 부채문제가 주거지원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앞서 보았으며,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주택청약통장’ 사업이 논의됨

- 주택 청약이 없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약제도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생애 한번 청약금액을 납입해서 통장을 개설해주는 제도로 현재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더하여 생애 최초로 청년정책에 참여한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됨
 - 한편, 주거 지원 정책과 같이 금액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 여러 정책 중 청년에게 적합한 정책이 어떤 것인지 선택을 잘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함
- 이는 이행기 청년의 특성상 일정 기간 이후 다음 단계로 이행을 해야 하는데 (졸업-취업-독립-결혼) 될 수 있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 다음단계로 이행하는데 오히려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임

“근데 인천시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 시세 평균이 밑에도 한 20평 기준으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잡아야 돼요. 그러면 내 돈이 이제 거기 안에 도배도 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현금으로 한 1억 5천, 2억 원 가지고 있어야 내가 덜 불안한 채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갚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련이 안 돼 있으면 또 그러면 내년 내후년을 기약하면 내년 내후년에 1억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 청년들은 열심히 경쟁 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낙오됐다고 판단된 사람들이 낙오가 안 되게끔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함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인정을 하고, (중략) 그런 거에 대한 상호 인식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좀 공존할 수 있게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그런 대면 홍보라든지 그런 것도 좀 잘 해보면 좋겠습니다.”

“잘 알고 해서 문제로 터지지 않지만 모르고 선택하게 됐을 경우에 터지는 그 문제들을 잘 제어해 주는 어떤 체계들이 잘 구축되는 것이 청년 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소결

- 본 질적조사의 목적은 인천 청년의 부채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른 해소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청년의 부채에 대한 생각, 부채의 수준과 심리적 영향, 실태진단, 적합한 해소방안 등을 조사 분석함
- 이를 위해 본 조사에서는 교육에서 사회로의 이행기 중 부채형성의 원인과 수준, 그로 인한 영향, 그리고 부채에 대한 인식을 부채경험이 있는 인천지역 청년 50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 IDI) 조사와 관련 전문가 및 청년정책 분야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표적집단심층면접(Focused Group Interview, FGI) 조사를 실시하였음
- 면접조사의 내용은 크게 △소비-저축실태, △부채의 원인, △부채의 영향, △청년부채의 해소방안을 파악할 수 있게 설계하였으며, 세부적으로 면접대상자 인구학적 특성을 포함한 대출 및 지출에 대한 기초설문, 부채의 발생원인과 유형화 및 악성화경로, 부채로 인해 발생하는 개인의 자존감 및 사회적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 생애경로에서 자립과 삶의 만족도 등에 미치는 영향,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 정책 수요 조사 및 시사점 도출 등을 조사·분석함

1) 소비-저축실태

- 소비지출에 대한 심층면접참여자의 사례연구 결과, 심층면접참여자의 대다수가 식료품/외식비에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교통비와 통신비에 대한 지출 순이었음. 참여자 중 실업상태 이거나 취업 중이라 하더라도 연차가 높지 않은 청년의 특성에 따라 소득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경제상태별 소득-소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중 청년의 경우 소비지출 금액을 정하여 소비하고, 정규교육기관을 다니거나 실업의 경우 소득의 한계로 인해 소득 수준에 맞춰 소비를 하는 경향성이 나타남
- 예상치 못한 소비 지출이 발생할 경우 저축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생활비를 빠듯하게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소득의 한계가 있어 소비지출을 줄이려 필수적인 식사 등을 집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나타났으며, 기혼여성 청년은 미혼청년의 지출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지출 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남

- 저축여부를 살펴보면, 대부분 경우 미래 소비를 위해 현재 소득을 저축하고 있었으며, 주어진 소득 수준이 낮아 저축을 못하는 경우에도 저축을 하려는 욕구를 모두 나타내고 있었음
 - 이는 취업초기의 사회초년생의 특징에 의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불확실한 소득상태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보이며, 취업한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직 재무역량이 부족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됨
- 대다수는 청년기의 특성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저축의 시작을 청약통장으로 하고 있었으며, 주택과 함께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현상을 반영하듯,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또한 저축의 대안 수단으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
- 소득의 한계로 인해 생활비를 제외하면 저축여력이 발생하지 않아 저축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저축에 대한 욕구는 모든 연구 참여자에게서 나타남
- 기혼청년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기존 예금성 보험 등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준비를 위해 저축을 모두 하려고 하였음. 하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소비의 비중이 저축을 할 수 있는 경우 적었으며, 부채 이자로 인한 영향보다는 소득자체가 적은 경우가 더 많았음

2) 부채의 원인

- 부채의 발생원인은 첫째가 대학교육으로 인한 학자금과 생활비 대출이었으며, 대부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함. 이 경우 상환시점을 소득 발생 이후로 설정할 수 있어 당장 연체되는 경우가 없었으나, 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한 경우 연체압박에 직면하는 경우 발생
 - 한국장학재단의 상환제도로 인해 청년부채의 악성화는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악성화 시기의 연기일 가능성도 존재함
 - 즉, 부채 상환부담으로 인한 취업압박, 불안정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 이에 따른 새로운 부채의 발생, 저소득으로 인한 연체가 반복되는 악성화 가능성이 높아짐
- 부채의 발생원인은 두 번째가 주택(자가, 전세, 월세) 마련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규모가 큰 경우는 자가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이었음

- 또한 청년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액은 높게 나타나지만 상환부담이 적어 소액의 월세부담으로 보였으나, 자가로 전환할 경우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어 심리적 위축이 나타남
- 대출의 당사자와 실질 사용자는 청년당사자인 경우와 가족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이 언급한 사례는 본인명의 대출로 가족이 사용한 경우와 가족명의 대출로 청년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로 분류 가능
- 창업청년의 경우 창업자금과 주거 대출이 한꺼번에 진행되어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프리랜서의 경우 직업적 특성으로 대출이 잘 안되었으나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 진행
- 한편, 본 개별심층면접 사례조사에 참여한 인천 청년들의 경우 대체로 부채관리를 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세밀하지 못하였음

3) 부채의 영향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가한 청년들은 대출금의 크기보다는 부채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있으며, 부채에 따른 스트레스와 함께 더 이상 부채를 늘리지 않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는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등 소득 부족의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었음
- 부채가 존재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거나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미래소득에 부채가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존재하였고, 소득 부족으로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경험, 부채와 더불어 소득 부족이 발생할 때 타인과 비교되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
- 저축이 없는 상황에서 부채 상환도 이뤄지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나타났으며, 연애나 결혼 문제를 비롯하여 취업에 대한 부담과 직업 선택의 문제 등 부채의 부담감이 미래계획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는 경우가 많았음
- 주거마련과 결부되어 결혼을 미루거나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나타나 저출산 등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
- 부채가 생애 이행기 과정에서 자립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 자체로 인한 영향과 미래소득의 불투명에 대한 부담의 정도에 따라 개인 간 편차가 나타났으며, 대학졸업 후 사

회 진출로 이어지는 이행기에서 부채는 선순환적 이행을 방해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경제적 상황에 더하여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채까지 고민하고 있었으며, ‘당장 취업을 해야 할 것인지’ 또는 ‘시간을 두고 적성을 고려할 것인지’ 등 진로를 결정과정에서도 부채가 영향을 미침
- 등록금 대출에 따른 부채의 경우도 개인에 따라 받는 스트레스의 차이가 나타나는 한편, 부채를 유지하기 위해, 즉 부채를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아르바이트 등을 하게 되어 학업 및 생활에 제약이 발생한 사례도 관찰됨. 하지만, 대출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적어 자존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도 존재함
- 아직 완전한 독립적 시민으로 자리 잡지 못한 청년기의 주요 특징으로 인해, 부모님이 잘 살거나 도움을 받는 주변 지인을 볼 경우 부채 자체의 스트레스로 표현하지는 않더라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 또한 나타남
- 수도권의 동종업계에 종사하지만 서울과 경기도에 비해 처우가 다른 인천지역의 상황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도 나타남
- 실업상태에 놓여 있는 청년의 경우, 국가 지원 정책 자금(한국장학재단 등록금 대출, LH 등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한 경우 독촉이 오지 않아 민간 금융기관 대출에 비해 스트레스를 덜 받았으나,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부담과 현재 소득이 없거나 극히 작은 것에 오는 부담이 중복되어 나타남
- 창업자의 경우 사업 전망에 대한 불안이 부채의 존재와 함께 가중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나타남
- 부채의 존재 또는 대출을 할 수 밖에 없는 소득수준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는 것이 꺼려지고, 서로의 처지를 알고 있고, 그 동안 만나왔던 사람만 만나게 되어 관계의 확장에 어려움과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기혼 청년의 경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수준이 위축될 경우 사회적 관계를 넘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확인됨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대면활동 축소 등 경제적·심리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부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심층면접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의 대부분은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는데 있어 부채보다 소득 축소 여부가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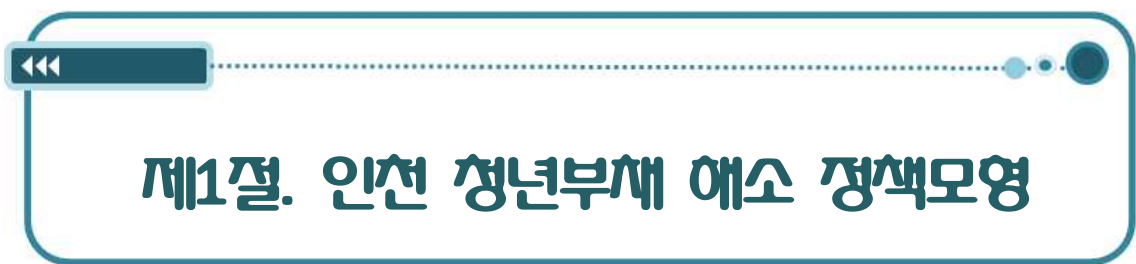
- 직업과 직종의 특성에 따라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한 수입의 감소와 프로젝트 이행 어려움으로 학업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예상했던 소득이 감소함
- 종합하면, 부채가 생애 이행기 과정에서 자립에 미치는 영향은 부채 자체로 인한 영향과 미래소득의 불투명에 대한 부담의 정도에 따라 개인 간 편차가 존재하였고, 또한 대학졸업 후 사회 진출로 이어지는 이행기에서 부채는 선순환적 이행을 방해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함. 특히, 청년부채는 가구의 소득수준과 가족과의 관계, 지인과의 사회적 관계 위축 등에서 청년이 받는 스트레스와 대응방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해결방안 수립에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됨

4) 청년부채의 해결방안

- 청년문제의 실효적인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사자의 청년과 청년정책에 대한 인지정도 및 선호하는 정책과 지향점이 매우 중요하며, 매우 민감한 주제인 부채에 대한 지원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입장과 의견을 정확히 반영하여 선호에 따른 해소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는 지원정책과 정책에 참여하는 청년을 적절히 매칭할 때 정책적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나기 때문임
- 본 연구의 심층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의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부채지원정책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용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였음
- 부채지원정책 및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를 본인의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표출하였으며, 대체적으로 경제교육과 재무상담, 자산형성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정기적금이나 예금 등을 이용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나 이자지원 정책이 부채해결에 가장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과 금융에 관련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 현실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경제교육과 재무상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신용회복프로그램, 청년 맞춤형 재무 설계 상담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하기도 함
- 자산형성과 신용회복프로그램 등을 도입할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구체적이지는 않았지만 요구하고 있었으며, 기존 지원프로그램의 기준을 완화하여 좀 더 많은 청년이 지원받을 수 있기를 요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청년 스스로 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부채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방안을 주거문제를 포함하여 제시하기도 함
- 청년부채가 이행기 청년의 특성에 따라 발생될 수밖에 없다면, 부채가 악성화 되지 않도록 대출경로를 제시해주고 좋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하는 의견도 있었음
- 부채해소방안이 마련되더라도 많은 청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과 부채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 이와 같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참여자들의 답변이 특정 집단이나 계층, 한두 개의 정책영역에 맞춰져 있지 않고 주거정책, 일자리 정책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왜 청년정책이 사회정책이자 미래전략정책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음
- 앞서 살펴보았듯이 청년 부채가 발생하는 주요요인은 학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활비와 학자금 대출이었으며, 대학을 졸업하기 까지 해마다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교육정도에 맞는 일자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어 소득은 부족한 반면, 주거비와 생활비 등은 청년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여 대출 규모가 커졌으며, 학자금 대출과는 비교되지 않는 대출을 받아야 주거를 해결할 수 있어 심리적 불안에 놓여있음
- 이렇게 형성되어 존재하는 부채는 청년들이 부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주요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청년들 또한 부채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나타냈고, 체념으로 스스로 위로하는 청년의 모습도 나타났음
 - 다만, 부채 총액이 현재 및 미래소득에 비해 적다고 느끼거나 상환부담이 적은 경우, 부채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며, 이는 청년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안정적 소득이 발생하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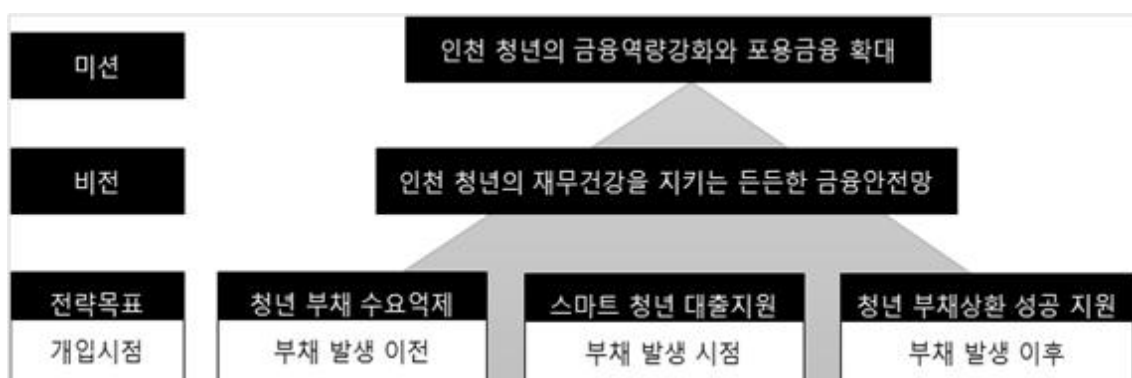
제5장. 인천 청년부채 해소방안



제1절. 인천 청년부채 해소 정책모형

1. 인천시 청년부채정책의 비전과 전략목표

- 인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미션으로 “인천 청년의 금융역량강화와 포용금융 확대”를 제안함
 - 인천시는 청년들이 불필요한 부채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으로 부채를 상환하는데 필요한 청년의 금융역량(financial capability)과 포용금융(inclusive finance)의 기회를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인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비전으로는 “인천 청년의 재무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금융안전망(financial safety net)”을 제시함
 - 인천 청년을 위한 건강한 금융안전망은 과잉대출로 취약해진 인천 청년의 금융안녕(financial well-being)을 제고하기 위해 인천시가 구축한 일종의 청년 금융복지지원체계로서 의미를 가짐
- 인천 청년부채 해소방안의 전략목표는 ‘청년부채 수요억제’,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 ‘청년 부채상환 성공 지원’, 총 3가지로 설정함
 - 이는 부채발생 이전, 부채발생 시점, 부채발생 이후라는 3가지 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개입을 제안한 EPIC 가계부채 해소모형(2018)을 참고한 것으로, 인천시 청년부채 해소정책이 기본적으로 청년들로 하여금 대출을 안 받게 하는 것을 목표하지만, 더불어 현실적으로 대출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좋은 대출을 받게 하는 것, 또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상환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목표임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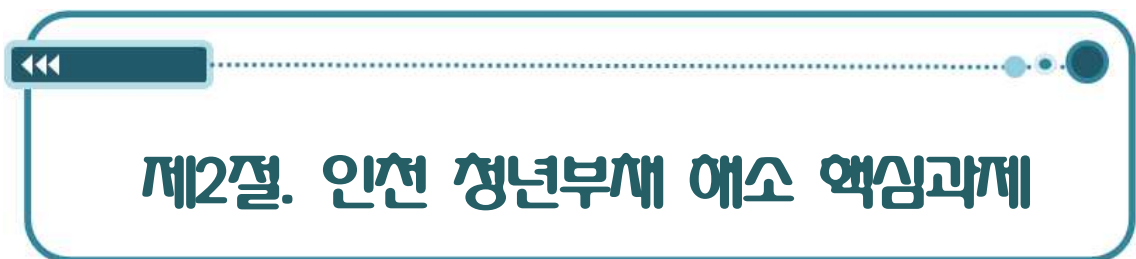
[그림 5-1-1] 인천시 청년부채 해소정책의 미션, 비전, 전략목표

2. 인천시 청년부채정책의 전략과제

- 청년부채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한 3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과제는 크게 ‘포용금융’ (financial inclusion)과 ‘금융역량강화’ (financial capability)’의 관점에서 제안함
 - 개별 전략과제는 3단계, 전략목표는 2수준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개별 전략과제는 크게 6가지 유형, 총 14개로 도출됨
- ①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1-1, 1-2)
 - ②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2-1, 2-2, 2-3, 2-4)
 - ③ 스마트 청년대출지원을 위한 포용금융(3-1, 3-2)
 - ④ 스마트 청년대출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4-1, 4-2)
 - ⑤ 청년 부채상환 성공지원을 위한 포용금융(5-1, 5-2)
 - ⑥ 청년 부채상환 성공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6-1, 6-2)

전략목표		청년 부채 수요억제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	청년 부채상환 성공 지원
전략과제	포용 금융 (제도 변화)	1-1. 최소 유동성확보지원	3-1. 인천청년대출	5-1. 청년금융안정협의체 운영
		1-2. 자산형성지원	3-2. 청년 자조금융 지원	5-2. 채무조정지원 인력 확충
	금융 역량 강화 (개인 변화)	2-1. 대학생 금융역량강화	4-1. 청년PB센터	6-1. 부채상환컨설팅 이용률 제고
		2-2. 근로 청년 금융역량강화	4-2. 청년PB이용 인센티브 지원	6-2. 인천시 채무조정 성과장려금
		2-3. 청년 가구원 금융역량강화		
		2-4. 청년 처분가능소득 확대		

[그림 5-1-2] 인천 청년부채 전략목표별 전략과제



제2절. 인천 청년부채 해소 핵심과제

1.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1-1. 최소 유동성 확보지원

○ 추진배경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 청년 응답자의 약 30%가 긴급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실업 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한 경우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거나 대출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최소 유동성 지원은 가게 또는 청년부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이고 대중성 있는 지원정책임(장동호·백경호, 2017; EPIC, 2018)
- 최소 유동성이 확보될 경우, 경제적 회복탄력성(financial resilience)이 높아져 부채예방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예: 자산형성지원사업, 시중은행 적금) 자체가 원활해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 10개월 단기 저축지원프로그램이지만,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쌍방향 금융멘토링(온라인)을 제공할 경우, 참여자의 금융역량강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더불어 미국 월마트와 마찬가지로 저축상품을 구입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복권형 저축사업’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청년 저축인구를 늘리고 이들의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핵심사업 1-1-1: 저소득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비상금 통장 사업

- 목표: 일시적 소득 감소 및 중단 극복에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확보지원과 금융역량강화

- 대상: 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39세까지의 1인 가구 청년

※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월세부담이 크고 가족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선 정책대상으로 설정함

○ 사업내용

- 청년이 매월 10만원 저축 시 인천시가 10만원 매칭 지원(총 10개월)
- 금융역량강화를 위한 온라인 금융멘토링(2개월)과 재무컨설팅 1회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청년비상금통장 준비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사업설계 여부 • 운영매뉴얼 유무 • 예산수립 여부	• 참여자 • 예산 및 인력 • 자산증가액 • 금융역량접수	• 참여자 • 예산 및 인력 • 자산증가액 • 금융역량접수	• 참여자 • 예산 및 인력 • 자산증가액 • 금융역량접수	• 참여자 • 예산 및 인력 • 자산증가액 • 금융역량접수

○ 예산: 연 900,000천원

- 경비 500,000천원(매칭금 1,000천원×연500명), 경비 및 운영비 400,000천원

■ 핵심사업 1-1-2: 저연령 청년 복권방식 저축사업

○ 목표: 10대 및 20대 청년들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중은행 적금 가입자(주택청약저축 포함) 및 유지자 확대

○ 대상: 월 3만원이상 시중 적금상품에 가입한 만 19~39세까지의 청년

○ 사업내용

- 매달 적금상품 가입 청년 10명(조정가능)을 추천하여 500만원의 당첨금 지급
- 온라인으로 선신청·후증빙(사업접근성 및 행정효율성 증대)
- 가입 개월 수에 비례하여 당첨확률을 높임으로써 적금 유지율 제고
- 가입자에게 경제교육 뉴스레터 발송
- 주거 및 자산, 부채 상담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시범사업 운영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시범사업 여부 • 참여자 만족도	• 응모자수 • 선정자수 • 예산	• 응모자수 • 선정자수 • 예산	• 응모자수 • 선정자수 • 예산	• 응모자수 • 선정자수 • 예산

○ 예산: 연 100,000천원

- 경비 60,000천원(당첨금 5,000천원×12개월), 홍보 및 운영비 40,000천원

- 은행이나 신협 등과 협력할 경우, 민간후원 개발도 가능



[그림 5-2-1] 미국 월마트 복권(prize)방식 저축상품

1-2. 자산형성지원

○ 추진배경

-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부채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으로서, 이미 인천시가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해 시행 중인 ‘드림For청년통장’ 그리고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행복씨앗통장’ 등이 있음
- 자격조건을 충족한 모든 청년들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며, 따라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상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더불어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들의 중도해지를 예방하고 만기성공을 돕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함
-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청년이나 월세부담 등이 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3년 동안 저축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고용과 소득 불안이 고조되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실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중도해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가입의 기회가 차단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들이 가입 시 만기해지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청년내일채움공제 늘린다지만...2년 이상 유지 비율 64% 그쳐

이직·학업 탓 작년 2.3만명 해지
만족스런 첫 일자리 욕구 강한데
'퍼주기식' 中企 취업 유도 한계

세종=박효정 기자 | 2021-07-04 18:00:10 | 경제동향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림 5-2-2] 청년내일채움공제 유지 비율관련 보도자료

출처: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S6CTNYC>

■ 핵심사업 1-2-1: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홍보강화와 지원체계 정비

- 목표: 인천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통한 부채예방 및 자립역량 강화
- 대상: 정부 및 인천시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조건을 충족한 청년
- 내용
 -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상담 강화
 - 정부의 자산형성사업과 역할분담 또는 대상자 차별화 전략 수립 등 지원체계 정비(2022년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의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인천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과의 상생전략 수립 필요)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사범사업 운영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홍보예산 및 횡수 • 자산형성사업 지원체계 정비	• 홍보예산 및 횡수	• 홍보예산 및 횡수	• 홍보예산 및 횡수	• 홍보예산 및 횡수

○ 예산: 20,000천원

- 자산형성지원사업 지원체계 정비 관련해서 연구용역 필요
- 2022년 청년미래저축계좌 시행과 관련하여 홍보예산 비반영

■ 핵심사업 1-2-2: 청년통장 멘토사업

○ 목표: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 청년의 저축 유예 및 중도해지 예방

○ 대상: 정부 및 인천시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예정이거나 가입 중인 청년

○ 내용

-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예비자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온라인/오프라인)
- 실직 및 가계위기 상황 등으로 인해 저축이 어려운 청년들의 저축유지를 돕는 상담 및 자원연계(일자리 소개 및 소액대출 등)
- 참여자 유인을 위해 일정금액을 저축 적립금으로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사범사업 운영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시범사업 여부 • 참여자 만족도	• 참가자수 • 만족도 • 금융역량	• 참가자수 • 만족도 • 금융역량	• 참가자수 • 만족도 • 금융역량	• 참가자수 • 만족도 • 금융역량

○ 예산: 연 150,000천원

- 사업비 100,000천원, 관리운영비 및 인건비 50,000천원

-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서비스로 민간위탁방식으로 사업 수행이 바람직함

“처음에는 너무 귀찮고 이걸 왜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를 계속해가니까 제가 무분별한 소비 습관으로부터 조금 소비에 대한 인지도가 생기고, 그리고 가계부를 쓰면서 좋은 경제적인 습관들이 형성이 되었던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냥 나를 위해서 뭔가 물질적인 것들을 되도록 많이 쓰고 있구나! 뭔가 교육적인 것 나의 성장과 발전에 대해서는 쓰는 건 없고 그냥 먹는 것 그런 것만 썼지 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는 건 없구나!”

“소득을 벌어도 습관적인 부분에서 이제 습관이 돈을 막 쓴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나가는 거죠 의미 없는 ... 거기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습관”

“이제 그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밑이 빠지지 않는 독을 만드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를 사더라도 한 3번은 생각하고 진짜 필요한가? 그러다 집에 가서 이게 있는가? 꼭 사야 되겠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소비를 하는 습관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자산을 내가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습관들이 생기니까 사실 제 주변에서도 제 또래 친구들도 어떻게 내가 자산을 형성해야 하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림 5-2-3] 온라인 금융멘토링의 효과

출처: 장동호(2021).

2.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2-1. 대학생 금융역량강화

○ 추진배경

-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을 위해 적지 않은 대출(학자금 대출 포함)을 받고 있고,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업성취도가 낮아지고 휴학과 복학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음
- 현재 대학에는 대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상담해주고 문제해결을 지원하는 금융상담 및 금융경제교육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않음
- 반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이후, 미국의 여러 대학들은 학생들의 금융경제문제의 예방과 해결,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해 캠퍼스 내에 금융복지센터(Financial Wellness Center)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 대학생들에게 계획소비, 저축 등의 중요성과 방법 등을 알려주는 대학교양 강의가 제공되고, 비교과로서 대학생 금융멘토링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대학생 부채예방뿐만 아니라, 학업몰입도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5-2-4] 유타주립대학교의 금융복지센터

■ 핵심사업 2-1-1: 캠퍼스 금융복지센터(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 목표: 대학생들의 경제적 스트레스 및 금융복지 향상
- 대상: 인천 소재 대학 재학 및 휴학 청년
- 내용
 - 대학 내 금융복지센터 설치를 통한 대학생 대상 금융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신입생, 취업 및 창업 준비생 대상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 제공
 - 위기대학생 경제금융상담 및 자원연계(복지, 일자리, 장학금 등)
 - 대학생으로 구성된 금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지역사회 연계): 미래의 청년인 지역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조기 금융교육 제공

- 대학을 위한 저축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확보
- 대학생 학자금대출 상담
- 아르바이트 자원 확보 및 연계
- 식사나 간식(쿠폰 포함)을 제공하여, 경제교육 및 상담에 대한 호응도 제고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대학과 협의 및 사업준비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대학협의 여부 • 예산신청 여부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예산: 연 140,000천원

- 사업비 50,000천원, 관리운영 및 인건비 90,000천원

■ 핵심사업 2-1-2: 대학생 생활경제 관련 대학교양과목 개설 및 운영 지원

- 목표: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향상
- 대상: 인천 소재 대학 재학생
- 내용
 - 대학과 협업하여 대학생의 금융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양교과(가칭 “대학생의 슬기로운 경제생활”) 개설 및 강사 지원
 - 1개 대학에서 시범사업 실시 후 다른 대학으로 확대(1안)
 - 다수 대학에서 시범강의 후 정식교양교과 개설(2안)
 - 재무관리가 중요한 창업준비 과정 참여 대학생, 복지분야 전공 재학생에게 맞춤형 특화교과 제공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역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대학과 협의 및 사업준비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대학협의 여부 • 예산신청 여부	• 이용자수 • 강의평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예산: 연 100,000천원

- 교재 및 교육도구 개발 50,000천원, 강사지원 50,000천원

2-2. 근로 청년(직장 청년) 금융역량강화

○ 추진배경

-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 상당수가 재무계획이 없으며, 불필요한 고정지출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나 마이너스 대출에 의존하고, 적금이나 보험 등을 해약하는 부정적 결과를 마주함
- 창업청년은 사업아이템에 대한 이해와 경험에 비해 회계 관리나 재무관리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이 사업실패로 귀결되기도 함
- 근로 청년의 경우, 근로로 인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제공되는 경제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여유가 없어, 찾아가는 경제교육이나 상담이 필요함

■ 핵심사업 2-2: 찾아가는 근로청년 경제생활 교육 바우처

○ 목표: 생활경제교육에 대한 근로청년의 접근성 제고 및 금융역량강화

○ 대상: 인천 소재 기업체

○ 내용

- 경제생활 교육 전문가가 기업체에 찾아가 경제교육 및 상담제공
- 교육공간은 기업체 또는 유유기지 등 청년 공간
- 주로 점심시간 등을 이용하여 청년 근로자에게 보험다이아트, 지출계획, 자산형성, 부채관리 등을 주제로 강의나 상담을 제공(온라인 가능)
- 식사나 간식(쿠폰 포함)을 제공하여, 경제교육 및 상담에 대한 호응도 제고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시범사업 운영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찾아가는 청년금융교육 실시 여부 • 만족도	• 이용자수 • 강의평가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예산

○ 예산: 연 100,000천원

- 사업은 소비자 선택권 보장과 경제교육 및 상담의 질 관리를 위해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
- 민간위탁사업비 50,000원(2개소 선택)



[그림 5-2-5] 찾아가는 직장인 경제교육 사진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baruncfp&logNo=221553280532>

2-3. 청년 가구원 금융역량강화

○ 추진배경

- 부채 등 청년의 경제적 어려움 중 상당부분은 부모나 가구원의 경제능력 및 금융역량 부족(예: 청년명의 대출)으로 인해 발생하며, 청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는 가구원, 특히 부모의 금융역량 강화가 중요함

- 경제적 자립이 쉽지 않은 청년(장애청년, 은둔형 청년 등)을 자녀로 둔 저소득 부모의 경우, 자녀 돌봄으로 인해 경제생활 쉽지 않고 경제적 스트레스가 높으며, 재무건전성이 취약함
- 부모나 가구원의 취약한 재무건전성이 청년 자녀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모 등 취약청년 가구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청년가구의 1차적 경제안정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핵심사업 2-3: 청년 가구원 금융컨설팅과 금융멘토링

- 목표: 취약청년과 소비생활을 함께 하는 가구원(부모 포함)의 금융역량강화
- 대상: 장애청년·은둔형 청년 등을 가구원으로 두고 있는 가구원
 - 인천시가 시행 중인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행복씨앗통장’ 참여자 가족 우선 지원
- 내용
 - 청년 가구원(부모)의 재무건전성 진단 및 컨설팅 제공
 - 청년 가구원(부모)의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멘토링 제공
 - 청년 가구원(부모)에 복지자원 연계
 - 우수 사례 발표 및 시상
 - 대상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사회복지기관이 담당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시범사업 운영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청년 가구원 금융컨설팅 등 실시 여부 • 만족도	• 이용자수 • 강의평가 • 자원연계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자원연계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자원연계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강의평가 • 자원연계 • 우수사례

- 예산: 연 60,000천원
 - 민간위탁 사업비 30,000천원(2개소)



[그림 5-2-6] 발달장애인 부모 생활금융교육 홍보물

2-4. 청년 처분가능소득 확대

○ 추진배경

- 주어진 소득을 잘 관리하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것도 부채예방에 있어 중요하지만,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것도 부채수요를 억제하는 효과적일 수 있음 (EPIC, 2018)
- 인천시 자체 청년일자리 및 복지사업, 그리고 중앙정부와 민간기업 및 재단이 지원하는 복지급여를 인천청년이 최대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년부채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음
- 청년의 처분가능소득 확대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은 정부나 인천시의 월세 지원, 의료비, 교육비 지원 등이며, 더 나아가 일자리 연계도 매우 의미 있는 처분가능소득 확대 자원임
- 특히, 월세 거주 인천청년의 주거비 부담⁴⁾이 적지 않고 주거비를 포함한 고정지출 증가가 부채유발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월세지원 및 주거비 경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연계가 필요함

4) 본 연구의 설문자료를 이용하여,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월세거주 청년 105명의 주거비 부담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36.9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핵심사업 2-4-1: 청년 처분가능소득 확대 지원

- 목표: 청년의 처분가능소득 확대와 관련된 예산과 지원인원의 지속적 확대
- 대상: 인천시 청년 전체
- 내용
 - 인천시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현금·현물급여의 총예산과 수급인원을 파악하고 매년 예산과 수급인원이 점증적으로 확대되도록 관리
 - 2021년 현재 대상사업은 ‘취창업 재직생활 월세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 임대’, ‘약정형 매입임대주택사업’, ‘구직활동 청년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1석 5조) 인천 재직청년 드림포인트’,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드림For청년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 발달장애인 자산형성지원사업 행복씨앗통장’, ‘맞춤형 일·경험지원사업’, ‘부업대학생 운영’ 등임
- 단계별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지원센터의 계획에 따름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지원계획 수립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지원계획안 유무	• 사업예산 • 참여자수	• 사업예산 • 참여자수	• 사업예산 • 참여자수	• 사업예산 • 참여자수

- 예산: 인천 월세지원 사업 예산
 - 예산은 매년 점증적으로 확대
 - 주거컨설팅, 월세 알선 등의 프로그램 예산 20,000천원

■ 핵심사업 2-4-2: 청년 월세지원 사업 플러스

- 목표: 월세지원을 통한 인천 1인 가구 청년의 처분가능소득의 확대
-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만 19세~39세의 1인 가구 청년
- 내용
 - 인천시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는 월세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신청 지원

-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지원센터가 주거컨설팅(월세 다이어트), 저렴하고 질 높은 월세 알선(주거상향, 임대주택 등), 임대계약 도우미 서비스 제공
- 월세지원 사업 지원자의 동의를 얻어, 부채 등 청년 생활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사업 지속 안내

○ 단계별 추진계획

- 인천광역시 광역주거복지지원센터의 계획에 따름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수요억제를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사업준비	• 주거 컨설팅 • 주거알선 • 임대계약도우미	• 주거 컨설팅 • 주거알선 • 임대계약도우미	• 주거 컨설팅 • 주거알선 • 임대계약도우미	• 주거 컨설팅 • 주거알선 • 임대계약도우미
	성과지표	• 청년 가구원 금융컨설팅 등 실시 여부 • 만족도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 이용자수 • 만족도 • 자원연계	• 이용자수 • 만족도 • 자원연계

○ 예산: 인천 월세지원 사업 예산

- 예산은 매년 점증적으로 확대
- 주거컨설팅, 월세 알선 등의 프로그램 예산 20,000천원

‘구해줘 홈즈’ 이시영, 인천에서 청년 전세임대주택 찾기 “경험 살려 최선”

온라인 기사 2020.01.26 22:54

[일요신문] ‘구해줘 홈즈’에 정은지, 이시영이 인턴 코디로 출연했다.



[그림 5-2-7] 주거소개 관련 TV 프로그램 내용

3. 청년 스마트 대출 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3-1. 인천청년대출

○ 추진배경

-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는 등 생활자금 혹은 고금리 전환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을 위해 중금리의 대학생·처연 햇살론이 존재하지만, 신용점수가 낮거나 같은 연체가 있는 경우 이용이 어려움
-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도는 2022년을 목표로 청년기본대출을 추진중임
- 경기도 청년기본대출은 만 25~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당 500만원까지 빌려주는 소액저리장기대출임
- 인천시도 햇살론과 같은 중금리 정책대출의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경기도의 사업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소규모 대출사업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핵심사업 3-1: 인천청년대출

○ 목표: 금융소외 청년을 위한 저금리 소액 장기대출 상품 지원

○ 대상: 청년 햇살론을 이용할 수 없는 저신용·고금리대출 이용 인천 청년

○ 내용

- NICE 724점 이하 또는 KCB 665점 이하의 저신용, 고금리대출 이용자 및 연체자에게 인천시가 기금의 범위 내에서 3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 대출
-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함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스마트 대출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준비 • 타지역 사례검토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
	성과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범사업 계획안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 예산: 3,500,000천원

- 대출기금 3,000,000천원, 민간위탁운영비 500,000천원

3-2. 청년 자조금융 지원

○ 추진배경

- 대학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없거나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경우, 은행대출이 거의 불가능함
- 수년 전부터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관계금융 방식의 청년자조금융(예: 키다리은행)을 운영한 바 있으며, 높은 상환율을 보임
- 최근 청년들을 중심으로 전국단위에서 청년신용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있으며, 인천지역 신협과 협력하여 인천형 청년자조금융을 시행하는 함으로써, 무·저신용 청년의 고금리대출, 불법사금융대출 이용을 최소화함

■ 핵심사업 3-2: 인천 대학생을 위한 자조금융 지원

○ 목표: 청년자조금융을 통해 대학생 고금리 불법 대출 피해 최소화

○ 대상: 청년신협(가칭)이 설립된 대학의 재학생

○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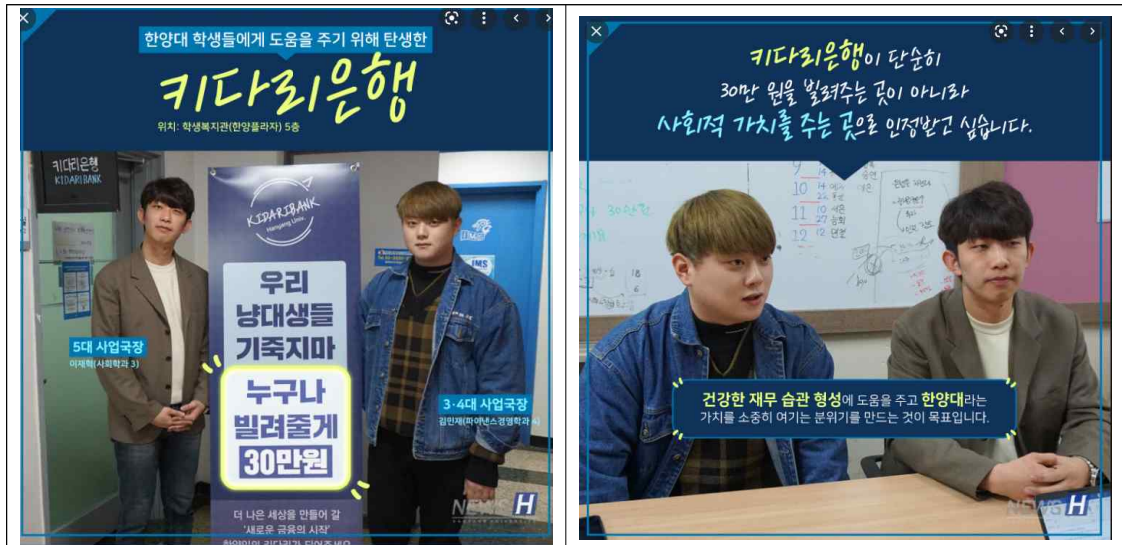
- 대학별로 청년신협 조직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모집
- 인천시와 협정을 맺은 인천지역 신협과 협력하여 대학별 청년신협대출상품 개발
- 협동조합방식의 청년신협 설립 지원
- 협정을 맺은 신협에서 청년신협 회원 출연금 관리
- 일정조건(예: 활동기간, 대안신용점수 등)을 충족한 청년신협 회원을 대상으로 무담보·무이자 소액단기 대출
- 청년신협별로 금융역량강화 활동 지원
- 기업후원 발굴을 통해 대출재원의 안정 도모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스마트 대출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시범사업 준비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사업사업 계획안 유무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 이용자수 • 대출액 • 우수사례

○ 예산: 70,000천원

- 청년신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70,000천원



[그림 5-2-8] 한양대학교 대학생 자조금융 '키다리은행' 자료 화면

4. 스마트 청년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4-1. 청년PB센터

○ 추진배경

- 정부 및 시중은행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음
- 각 대출상품이 제공하는 사업안내는 단편적이며, 다양한 대출상품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알려주는 전문가가 없음

- 동시에 많은 청년들이 대출 및 부채상담의 긍정적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며, 자격이 됴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등 더 나은 조건에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대출수요가 발생한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불필요한 대출을 최소화하고, 더 나은 조건에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청년접근성이 높은 청년공간에서 금융전문가의 종합 대출상담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장애청년 등 일반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낮은 청년집단을 위한 상담 공간과 전문인력이 요구됨

□ 핵심사업 4-2: 청년PB센터 운영

- 목표: 청년공간에서 PB센터를 운영하여, 청년 맞춤형 대출상담 제공
- 대상: 만 19세~39세의 인천청년 전체
- 사업내용
 - 청년센터, 유유기지 등 청년공간에 청년PB센터 설치(인천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내 설치도 고려할 수 있음)
 - 청년 유관기관과 금융상담 협력체계 구축
 - 청년 금융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청년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신청 지원
 - 청년부채 관련 캠페인 수행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스마트 대출지원을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시범사업 준비	• 시범사업 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사범사업 계획안 유무	• 이용자수 • 만족도 • 채무조정 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채무조정 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채무조정 사례	• 이용자수 • 만족도 • 채무조정 사례

- 예산: 70,000천원
 - 청년신협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지원 70,000천원

4-2. 청년PB 이용 인센티브 지원

○ 추진배경

- 청년PB센터를 설치하여도, 이용자가 적을 수 있음
- 대출을 앞둔 청년들이 센터를 이용하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넛지(nudge) 차원에서 청년PB 이용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면, 청년PB센터의 활성화와 인천청년의 스마트 대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핵심사업 4-1: 청년PB 이용자 대출이자 지원사업

○ 목표: 인천시 청년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게 하는 것

○ 대상: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출(한국장학재단 대출 제외) 및 신용대출, 대부업대출 신청 예정자

○ 내용

- 인천시가 지정한 청년PB와 대출상담을 진행한 후, 청년이 대출을 신청한 경우 인천시가 일정 금액을 이자지원비로 지원
- 대출신청 확인 후 대출이자지원(1인 최대 100천원)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스마트 대출지원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시범사업 준비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사업사업 계획안 유무	• 이용자수 • 만족도	• 이용자수 • 만족도	• 이용자수 • 만족도	• 이용자수 • 만족도

○ 예산: 220,000천원

- 이자지원 금액 100,000천원(이자지원금 100천원×1,000명)
-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120,000천원

5. 청년 부채상환 성공을 위한 포용금융

5-1. 청년 금융안정 협의체 운영

○ 추진배경

- 인천의 청년부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다양한 자원을 가진 지역의 주체들이 협력해야 함
- 청년부채와 관련한 지역 주체의 기능중복을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신규사업과 시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개발·확장해야 함
- 해외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 청년 친화적 금융안전망 조성을 위해 민관협력사업들의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음(예: 미국 세인트루이스의 Financial Capability Partnership Initiative: FCPI)

■ 핵심사업 5-1: 인천 청년 금융안정협의체 운영

○ 목표: 인천 청년부채해소를 위한 동력과 협력 유지 및 강화

○ 대상: 인천시,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은행 인천본부,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본부, 지역자활센터,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사회보장협의체, 지역 대학(학습지원, 심리지원, 취창업지원, 장학지원 부서 등), 청년활동가 및 단체대표 등

○ 내용

- 청년부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 인천 청년부채 관련 현안 논의 및 대책수립
- 청년부채 해소를 위한 자원발굴
- 청년부채 유관기관 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
- 청년부채 관련 민간위탁사업 심사 및 자문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상황 성공을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시업시행	• 사업시행	• 시업시행	• 사업시행	• 시업시행
	성과지표	• 참여율 • 참여율 구성 여부	• 사업계획 횟수 • 사업평가 횟수	• 사업계획 횟수 • 사업평가 횟수	• 사업계획 횟수 • 사업평가 횟수	• 사업계획 횟수 • 사업평가 횟수

○ 예산: 연 2,000천원

- 참여수당 및 회의비 등

5-2. 채무조정지원 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추진배경

- 채무상황이 어려운 신용유의자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채무조정 신청을 망설임
- 채무조정 과정에서 자신의 부채정보를 직면해야 하고, 채무조정 후 뒤따르는 변제계획 이행에 자신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을 가족 등이 알게 될 것이 두렵기 때문임
- 채무조정 상담은 채무나 부채와 관련한 객관적 사실과 고통스러운 사건 등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심리정서와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오랜 기간이 상담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예: 2시간)
-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금융복지상담사의 경우, 적지 않은 시간뿐만 아니라 감정소모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 인력의 보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내담자가 청년인 경우, 청년의 입장과 눈높이에 맞춘 상담이 필요함
-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인력현황과 업무량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면 청년 감수성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원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원 역량강화를 지원해야 함

■ 핵심사업 5-2: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청년부채상담 인력 충원 및 역량강화 사업

- 목표: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인력충원 및 상담의 질 관리를 통한 청년부채 상담 규모 및 만족도 제고

○ 대상: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내용

- 청년부채 상담전문 인력 2명 충원
-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원 직무역량강화 및 복지증진
- 인천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홍보 확대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상환 성공을 위한 포용금융	주요내용	•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준비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협의 여부	• 상담 횟수 • 만족도	• 상담 횟수 • 만족도	• 상담 횟수 • 만족도	• 상담 횟수 • 만족도

○ 예산: 연 150,000천원

- 상담전문 인력 2명 충원 90,000천원
- 직원 직무역량강화 5,000천원
- 직원 복지증진 및 홍보 확대 10,000천원

6. 청년 부채상환 성공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6-1. 인천시 부채상환 컨설팅 이용률 제고

○ 추진배경

- 다수의 청년들이 본인의 부채 현황과 채무상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원금상환을 미루고 있음
-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부채상환을 위해서는 본인의 소비구조 개편, 지출계획 수립 등이 매우 중요하며, 부채상환의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하여 전문가의 조언도 중요함
- 부채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대출원금 상환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연체가 빈번한 청년들의 경우, 1:1 재무컨설팅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부채상환 성공률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

■ 핵심사업 6-1: 인천시 부채상환 상담 및 교육 포인트 운영

○ 목표: 부채상담 기관의 이용률을 높여 청년 부채상환의 성공률 제고

○ 대상: 은행대출·대부업체대출·카드대출 등의 부채를 보유한 인천 청년

- 영세자영업청년 우선 지원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자는 후순위 지원
- 주택담보대출만 보유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본 연구의 결과 및 기존 연구에서 가장 부채문제가 심각한 집단 중 하나인 자영업 청년을 우선 지원

○ 내용

- 인천시가 지정한 부채상담 기관(예: 청년PB센터, 인천시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을 통해 1:1 맞춤형 부채상담에 참여하여, 부채상환계획을 수립한 경우 5만원~100만원 지원(대출금액과 상담 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인천시가 지정한 부채상담 기관을 통해 대출상환 관련 집단교육에 참여한 경우 5만원~20만원 지원(교육 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지원금은 100% 부채상환을 위해 금융기관·대부업체로 입금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상환 성공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사업준비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사업계획안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예산: 연 100,000천원

-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

6-2. 인천시 채무조정 성과장려금

○ 추진배경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 채무조정변제기간은 10년으로 짧지 않은 기간이며,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운 소득 중단이나 감소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어렵게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 기회 얻고도, 코로나19에 따른 실업 등으로 변제계획을 지키지 못해 신용회복 기회 놓치는 청년이 많은 것으로 예상됨
- 채무변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성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인천시가 제공한다면 장기간 채무변제에 지친 청년들이 다시 힘을 내고 채무변제에 성공할 수 있을 것임

■ 핵심사업 6-2: 인천시 신용회복 성과장려금/위기극복지원금

- 목표: 개인신용회복이나 채무조정 확정 후 채무변제 중인 청년의 신용회복 중도탈락 예방
- 대상: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이용 중인 만 19세 ~39세인 자
- 내용
 -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기간 중 취업을 하거나, 직업교육이나 경제상담에 참여한 경우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과인센티브 제공
 - 개인회생 및 채무조정 기간 중 가계소득 감소(실업, 소득감소 등)나 지출 확대(예: 결혼, 출산 등) 등의 위기가 발생한 경우 위기극복지원금 지원
- 단계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사업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청년부채 상환 성공을 위한 금융역량강화	주요내용	• 사업준비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 사업시행
	성과지표	• 사업계획안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이용건수 • 만족도

- 예산: 연 100,000천원
 - 예산 한도 내에서 집행

참 고 문 헌

- 강보배. 2021. “청년층 투자현상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2021 청년부채 문제 해결 순회 토론회: 1차 청년부채 현실과 진단 자료집 토론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강성호 · 최장훈 · 최현자 · 김민정 · 한지형. 2018. 한국 가계의 재무건강 연구. 한국FP학회 하계학술대회.
- 강종만. 2015.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금주의 논단』 24(5.2~5.8). 한국금융연구원.
- 김세림 · 김미현. 2016. 서울시 저소득층의 가계건전성을 위한 소비실태 분석: 청년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2016-27.
- 김순영. 2011. 『대출 권하는 사회』. 서울: 후마니타스.
- 김양중. 2018. 충남 청년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학주. 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연구”. 『사회보장연구』 21(1): 119-147.
- 동아일보. 2021. “청년 14만명 ‘6개월이상 학자금 연체’ …코로나 취업난에 작년 5000명 늘었다.” 10월 12일.
- 맹성준 · 한창근. 2019. “가계부채가 가족갈등수준에 미치는 영향: 자산과 소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1): 57-81.
- 백은영. 2017. “은퇴가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50대 이상 가계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10(3): 31-63.
- 서봉만 · 최태림 · 김다애. 2021.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인천광역시 가계부채 동향과 정책 대응방안: 청년층, 저소득층 그리고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 세계일보. 2021. “영끌·빚투에 가계빚 폭증…증가속도·비율 ‘세계 1위’.” 11월 15일.
- 양세정 · 주소현 · 차경욱 · 김민정. 2013. “한국형 가계재무비율 도출 및 가이드라인 제안”. 『Financial Planning Review』 6(3): 143-181.
- 양정선. 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여경훈. 2010.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 원인과 거시경제적 함의(1).”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 연합뉴스. 2021. “5대 은행 가계대출 관리 ‘한계’ …올해 증가율 이미 5% 육박.” 9월 22일.
- 이동준 · 맹성준 · 강준혁. 2020. “청년 주식투자자들의 ‘빚투’ 경험에 관한 연구: 근거이론 접근.” 『미래사회복지연구』 12(1): 127-160.

- 이선정. 2017. “빈곤화 기제로서의 강요된 소비사회 : 중산층의 과부담 소비와 다차원적 박탈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승렬. 2011. 근로자 가구의 소득·소비·저축 변화와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이윤정·송인한. 2015. “자살과 연관된 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부채와 자살생각.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43(1): 58-82.
- 인천광역시. 2021. 인천포 청년정책 백퍼 활용법. 인천시광역시 청년정책과.
- 임명규. 2021. “사회적 부채로서 청년부채.” 2021 청년부채 문제 해결 순회 토론회: 1차 청년부채 현실과 진단 자료집 토론문.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 장동호. 2013.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코칭 프로그램의 개념 및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정책』 40(3): 207-231.
- 장동호. 2014. “가계부채 문제와 복지국가의 관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41(4): 201-226.
- 장동호. 2018. “청년 연체의 규모와 결정요인 탐색.” 『복지상담교육연구』 7(2): 49-75.
- 장동호. 2021. 광주광역시 제5기 청년13통장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광주금융사회복지협회.
- 장동호·백경호. 2017. 광주지역 청년부채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광주광역시.
- 조맹제·김계희. 1993.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 381-399.
- 주소현·차경옥·김민정·김소연. 2016. “소득계층별 재무상태 비교 및 Financial Fitness 분석: 가계수지, 부채부담, 투자성향 지표를 중심으로”. 『Financial Planning Review』 9(2): 1-38.
- 최윤지·최현자. 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1): 83-96.
- 탁장한·박정민. 2017. “과중채무자의 사회경제적 박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48(2): 173-201.
- 통계청. 2016. 『보도자료 2016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 2016년 8월 19일.
- 통계청. 2019. 가계금융복지조사(패널). 소득5분위별 가계 재무건전성.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HDCB03
- 파이널셜뉴스. 2021. “[단독]2030세대 '생계자금 대출' 56조. 빚내서 생계 유지.” 9월 27일.
- 한국은행. 2010. “참고 1. 최근 청년층의 가계대출 현황 및 평가.” 『금융안정보고서』. 2020년 12월호 pp. 22-27.

- 한국은행. 2018. 2018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 결과.
- 한국은행. 2021. “참고 1. 취급시기별 가계대출 연체율 상황.” 『금융안정보고서』. 2021년 6월호. pp. 21-25.
- 한국은행. 2021. 연령대별 가계부채 상황 및 평가. 금융안정 조사연구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57/view.do?nttId=10066456&menuNo=200327&pageIdx=2>
- Aldana, S. G. and Liljenquist, W. 1998. Validity and Reliability of a Financial Strain Survey.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9(2): 11-19.
- Beverly, S., Sherraden, M., Cramer, R., Williams Shanks, T., Nam, Y., & Zhan, M. 2008. “Determinants of Asset Building.” A Report in the Series Poor Finance: Asset and Low-Income Household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Washington University in St. Louis and New America Foundation.
- Birkenmaier, J., Sherraden, M. S., and Curley, J. (eds.), 2013.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Development: Research, Education, Policy, and Practice*.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Boshara, R., and Emmons, W. R., 2015. “A balance sheet perspective on financial success: why starting early matters” , *Journal of Consumer Affairs*, 49(1): 267-298.
- Caffman, E., Woolard, J. 1999. The future outlook inventory. Unpublished manuscript, MacArthur Network on Adolescent Development and Juvenile Justice.
- CFED. 2015. *Building Financial Capability: A Planning Guide for Integrated Services*.
- Collins, J. M. 2014. *Financial Coaching: An Asset Building Strategy*. Madison, WI: The Center for Financial Security.
- Collins, J. M. and Murrell, K. 2010. Using a Financial Coaching Approach to Help Low-Income Families Achieve Economic Succes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or the Field. Higher Heights Consulting for the Center for Working Families Convening: July 22-23.
- Collins, J. M. and P. Olive. 2016. Financial Coaching: Defining an Emerging Field. In J. J. X (ed). *Handbook of Consumer Finance Research* (2nd Edition). Switzerland: Springer.
- Comelli, M. 2014. Private debt, public virtu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welfare and household debt.
- EPIC. 2018. *Lifting the Weight: Solving the consumer debt crisis for families, communities & future generations*.
- Greninger, S. A., Hampton, V. L., Kitt, K. A., and Achacoso, J. A., 1996. “Ratios and benchmarks for measuring the financial well-being of families and individuals” , *Financial Services Reviews*, 5(1): 57-70.

- Griffith, R., 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Khashadourian, E., 2017. Financial Case Management and the Household Cash Flow Model, Opportunity to Asset, April 2017, <http://opportunitytoassets.com/resource/2017.pdf>
- Kim, J. and Chatterjee, S. 2013. “Childhood Financial Socialization and Young Adults’ Financial Management.”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4(1): 61-79.
- Klontz, B., Kahler, R., & Klontz, T. 2008. Facilitating Financial Health: Tools for Financial Planners, Coaches, and Therapist. Cincinnati, Ohio: Klontz, Kahler Institute, LLC.
- Lytton, R. H., Garmean, E. T., and Porter, N. M., 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s when advising clients” ,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1): 393-406.
- Money Advice Service(MAS). 2013. UK Financial Capability Strategy: call for evidence.
- National Endowment for Financial Education(NEFE). 2014.
- OECD. 2014. OECD FACTBOOK 2014: Household Debt.
- OECD/INFE. 2011.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Core Questionnaire. In Measuring Financial Literacy: Questionnaire and Guidance Notes for conducting an Internationally Comparable Survey of Financial Literacy. Paris: OECD.
- OECD/INFE. 2016. International Survey of Adult Financial Literacy Competencies. Paris: OECD.
- Prather, 1990. “The ratio analysis technique applied to personal financial statements: development of household norms” ,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 53-69.
- Pressman, S. and Scott, R. H. 2009. Who are the debt poor. Journal of Economic Issues, 43(2): 423-432.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 385-4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erer, M. and Maddux, J. E. 1982.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 Sherraden, M. S., Birkenmaier, J., Collins, J. M., 2018. Financial Capability and Asset Building in Vulnerable Households: theory and practice,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herraden, M., 1991.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부록1. 조사 설문지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의뢰를 받아 「인천 청년 계층별 부채실태 및 해소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효과적인 청년부채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에 필요한 인천 청년의 재무실태 전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답변은 인천 청년부채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바쁘시겠지만 시간을 내어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답변에는 약 15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년 8월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장동호

연락처: 041-580-2525, dongho.jang@gmail.com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실사·관리되고, 설문지에 기재하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해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SQ. 응답자 쿼터

성별	①남() ②여()	생년월일	()년 ()월 ※1982년 8월~2002년 8월 이외 조사종료
현 거주지	①중구() ②동구() ③미추홀구() ④연수구() ⑤남동구() ⑥부평구() ⑦계양구() ⑧서구() ⑨강화군() ⑩옹진군() ⑪기타() ※기타는 조사종료		

A. 개인 인적사항

A1. 귀하의 최종학력을 말씀해 주십시오.

- ①중학교 졸업 이하() ②고등학교 중퇴() ③고등학교 졸업()
 ④2·3년제 대학 중퇴() ⑤2·3년제 대학 재학 중() ⑥2·3년제 대학 졸업()
 ⑦4년제 대학 중퇴() ⑧4년제 대학 재학 중() ⑨4년제 대학 졸업()
 ⑩대학원 재학 중() ⑪대학원 졸업()

A2. 귀하의 결혼상태를 말씀해 주십시오.

- ①미혼/비혼() ②기혼() ③이혼() ④사별()

A3. 현재 귀하의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을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중복응답 가능)

- ①부모님() ②형제/자매() ③조부모님() ④배우자() ⑤자녀()
 ⑥친인척() ⑦친구/지인() ⑧기타()

A4. 귀 가구의 가구원 수는 총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A5. 귀 가구에서 경제활동 중인 가구원은 몇 명입니까?(본인 포함)
→()명

A6. 귀하는 가구주와 어떤 관계입니까?

①가구주 본인 () ②가구주의 자녀 ()

③가구주의 배우자 () ④가구주의 기타 친인척 ()

⑤기타()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

A7. 귀하는 성인(만 18세)이 된 이후, 인천으로 거주지를 변경하였습니까?

①예() ②아니오(인천에서 성인이 되기 전부터 계속 거주 중)()→A8로 이동

A7-1. 인천에서 거주하기 이전에 거주하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대전() ⑤광주()

⑥울산() ⑦경기() ⑧강원() ⑨충남() ⑩충북()

⑪경남() ⑫경북() ⑬전남() ⑭전북() ⑮제주()

⑯세종() ⑰해외()

A7-2 몇 년도에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기셨습니까? ()년

A7-3. 타 지역에서 인천으로 거주지 변경을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학업() ②취창업() ③결혼() ④기타()

A8. 귀하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유형은 무엇입니까?

①일반단독주택() ②다가구 단독주택() ③영업점용단독주택()
 ④아파트() ⑤다세대/연립주택() ⑥오피스텔()
 ⑦비거주용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⑧고시원() ⑨기숙사()
 ⑩원룸() ⑪쪽방() ⑫기타()

A9. 귀하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①자가() ②전세() ③보증금 있는 월세()
 ④보증금 없는 월세() ⑤사글세 또는 연세() ⑥일세() ⑦무상()

A10. 귀하는 현재 어떤 일을 하십니까?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③~⑧번 중에서 가장 현재 상황에 맞는 것을 선택)

①취업 중(직장인, 아르바이트 제외)() ②창업 중(자영업자)()
 ③주부() ④정규교육기관 학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등)()
 ⑤진학준비() ⑥취업을 위한 교육(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어학학원 등)()
 ⑦군입대 대기() ⑧취업준비(별도 교육받지 않음)()
 ⑨건강상의 이유로 요양() ⑩쉬고 있음()

© 2006 The Authors
Journal compilation © 2006 Blackwell Publishing Ltd

- ①정규직 임금근로자() ②무기계약직 임금근로자()

A12. 귀하는 그 일자리에서 얼마나 오래 일했습니까?

약 ()년 ()개월→A15로 이동

- ①있다() ②없다() → A14로 이동

A13-1. 한 달 평균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한 달 평균 아르바이트 () 시간

A13-2. 아르바이트를 한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가족의 생계를 돕기 위해 () ②학비를 벌려고 ()
 ③생활비 마련을 위해 () ④독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
 ⑤여가시간을 활용하기 위해 () ⑥국내여행, 해외여행 등 경비 마련을 위해 ()
 ⑦학원비 등 취업준비를 위해 () ⑧졸업 후 취업을 위한 경험을 쌓기 위해 ()
 ⑨카드빚, 대출 등 부채를 갚기 위해 () ⑩기타 () (내용:)

A13-3.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르바이트를 잃거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까?

- ①그렇다 () ②그렇지 않다 ()

A14. 학자금은 주로 어떻게 충당하고 있습니까?(한 가지만 선택)

- ①부모님 및 친인척의 도움() ②장학금() ③아르바이트()
 ④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⑤시중은행 학자금대출
 ⑥기타() (내용:)

A15. 귀하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실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 ②없다()→B1로 이동

A15-1. 귀하가 실직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 ①비자발적 해고() ②권고사직() ③계약기간 만료()
 ④자발적 퇴사() ⑤기타() (내용:)

A15-2. 귀하의 실직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또는 고용위기와 작간접적으로 관련성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관련성이 전혀 없다() ②관련성이 거의 없다() ③관련성이 약간 있다()
④관련성이 매우 크다() ⑤잘 모르겠다()

A15-3. 귀하는 실업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았습니까?

- ①받았다() ②받았지만, 재취업 전에 모두 소진했다() ③받지 못했다()

B. 가계소득과 지출

B1. 지난달 귀하의 소득은 얼마였습니까? (본인의 소득만 기입해주세요)

문항	소득원	금액
1	가족, 친척 등으로부터의 지원금(용돈 등)	_____만원
2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사회보험료, 세금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_____만원
3	금융소득(이자, 주식, 배당소득 등)과 부동산소득	_____만원
4	그 외의 기타소득(기초생활급여, 아동수당 등 공적급여 포함)	_____만원

B2. 귀하의 지난달 가구의 총소득은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부모, 형제, 배우자 등 함께 거주하는 가구의 세후 소득을 모두 포함해서 기입해주세요).

- ①999만원 이하() ②1,000만원~2,999만원()
③3,000만원~4,999만원() ④5,000만원~6,999만원 미만()
⑤7,000만원~8,999만원 미만() ⑥9,000만원~9,999만원()
⑦1억원 이상()

B3.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B4로 이동

B3-1.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 등 가족에게 받았던 경제적 도움은 대략 얼마입니까?

→ 현금: ()만원, 현물: ()만원

B4. 부모님 등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까?

① 예() → B4-1로 이동 ② 아니오() → B5로 이동

B4-1. 지난 한 해 동안 부모님 등 가족에게 드렸던 경제적 도움은 대략 얼마입니까?

→ 현금: ()만원, 현물: ()만원

B5. 지난달 귀하의 총 생활비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본인의 지출만 기입해주세요).

→ 지난달 총지출 ()만원

B5-1. 귀하의 지난달 생활비 지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해주시요. 합계는 B5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문항	내용	금액
1	식료품/외식비	_____만원
2	컴퓨터·자동차 등 내구재 구입비	_____만원
3	주거비(주택구입, 주택청약, 전월세 보증금, 월세, 주거관리비 등)	_____만원
4	본인 학비(등록금)	_____만원
5	본인 취업준비비(본인 학원 수강료·교재비·자격시험 응시료)	_____만원
6	자녀교육비/보육비(학원 또는 보습교육, 어린이집 등)	_____만원
7	교통 통신비(차량유지비, 대중교통비, 전화 및 인터넷요금 등)	_____만원
8	문화·미용비(여행, 오락, 문화, 미용, 의류 등)	_____만원
9	저축(예금, 적금)	_____만원
10	민간보험료	_____만원
11	부채상환(학자금 등 각종 대출 상환 등)	_____만원
12	기타 1(_____)	_____만원
13	기타 2(_____)	_____만원
합계		_____만원

B6. 귀하는 귀하의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 ①100%를 본인이 마련한다()
- ②75%정도를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 ③50%정도는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 ④25%정도는 본인이 마련하고, 나머지는 보호자가 지원한다()
- ⑤100% 보호자가 지원한다()

→ 1순위: () → 2순위: ()

- ⑨생활비가 부족한 적이 없다.

C. 가계자산 및 저축

C1. 귀하의 총자산은 대략 얼마입니까?(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여쭙습니다. 본인 명의의 자산만 기입해주세요)

자산?

모기지론, 주택담보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학자금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한 금액

모기지론, 주택담보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학자금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한 금액

문항	자산 항목	금액
1	부동산 자산 (주택, 주택 외 부동산, 전세보증금, 권리금 받은 것 등)	_____만원
2	금융 자산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_____만원
3	기타 자산 (자동차, 농기계, 회원권(골프, 콘도 등), 지적재산권 등)	_____만원

C2. 귀 가구가 보유한 총 자산은 대략 얼마입니까?(부채를 뺀 순자산이 아닌, 총자산을 여쭙습니다. 가구 전체가 보유한 자산의 규모를 답해주세요)

- ①5천만원 미만() ②5천만원~1억원 미만() ③1억원~2억원 미만()
 ④2억원~4억원 미만() ⑤4억원~6억원 미만() ⑥6억원~8억원 미만()
 ⑦8억원~10억원 미만() ⑧10억원~12억원 미만() ⑨12억원~14억원 미만()
 ⑩14억원~16억원 미만() ⑪16억원~18억원 미만() ⑫18억원~20억원 미만()
 ⑬20억원 이상()

C3. 귀하는 지난달에 얼마를 저축(저축성 예금·적금)을 하셨습니까?(단, 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드림For청년통장 등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저축액 제외)

→ 지난달 저축액 ()만원 ※없으면 '0'기입

C4. 현재 귀하의 은행계좌(계좌소유자와 상관없이 본인 저축 포함)에 있는 총저축액(저축성 예금·적금 잔액)은 얼마입니까?(단, 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드림For청년통장 등 청년자산형성지원사업 저축액 제외)

→ 현재 총 저축액 ()만원 ※없으면 '0'기입

C5. 혹시 저축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순위: () → 2순위: ()

- | | |
|-------------------|------------------|
| ① <u>어려움이 없다</u> | ②수입이 적다 |
| ③월세 지출이 크다 | ④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다 |
| ⑤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다 | ⑥이미 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 |
| ⑦즉흥소비를 많이 한다 | ⑧저축동기가 낮다 |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의 상황

간급상황이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나 지출
증가의 상황

C7. 정부(보건복지부,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지자체 등)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드림FOR청년통장 등)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②과거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C7-1. 참여 중이신 자산형성지원사업명은 무엇이며, 월 납입금 그리고 입금 횟수를 말씀해주십시
오?

→ 월 본인 자산형성 저축액: ()만원

C7-2. 과거에 참여하였던 자산형성지원사업명은 무엇이며, 월 납입금 그리고 입금 횟수를

→ 월 본인 자산형성 저축액: ()만원

C8. 현재 소득으로 귀하가 매월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335 -

D. 가계부채와 신용

가계부채란?

모기지론, 주택담보 신용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대출, 학자금대출과 기타 대출을 합한 금액

D1. 귀하는 상환해야 할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부모나 배우자를 제외한, 본인의 대출액만 답변해주세요)

① 예() ② 아니오() → D2로 이동

D1-1. 귀하가 상환해야 할 대출 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 총()만원

D1-2. 다음의 각 대출 목적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을 기재해주시오.(합계는 D1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합계는 D1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문항	내용	금액
1	생활비(식비, 사교비, 교통비 등)	_____만원
2	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	_____만원
3	전세보증금	_____만원
4	월세(관리비 포함)	_____만원
5	대학학자금	_____만원
6	자녀교육비/보육비	_____만원
7	결혼	_____만원
8	자동차 구입	_____만원
9	가족의 대출 요청	_____만원
10	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_____만원
11	취업준비	_____만원
12	창업준비	_____만원
13	병원비	_____만원
14	투자 목적 (주식, 코인 등)	_____만원
15	기타 1(내용:)	_____만원
16	기타 2(내용:)	_____만원
합계		_____만원

D1-3. 다음의 각 채권자별로 남아있는 대출 원금을 기재해주십시오.(합계는 D1의 금액과 같아야 합니다)

문항	내용	금액
1	제1금융권(NH농협은행과 수협중앙회 포함)	_____만원
2	제2금융권(우체국, 새마을금고, 단위 농·수축협, 신협,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회사, 캐피탈 등)	_____만원
3	합법적 대부업체	_____만원
4	불법 사채(연이자 24% 초과)	_____만원
5	직장	_____만원
6	한국장학재단	_____만원
7	가족	_____만원
8	친구, 지인	_____만원
9	기타 1(내용: _____)	_____만원
10	기타 2(내용: _____)	_____만원
합계		_____만원

D2. 귀하는 제1·2금융권(학자금 대출 포함)에서 빌린 대출금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대출 연장요청 거부)

①있다() ②없다()

D2-1. 제1·2금융권 대출금상환을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자영업 실패(예: 매출 감소)() ②금융투자 실패(예: 주식, 코인)()

③부동산 투자 실패() ④실업() ⑤만성적 수입부족()

⑥예상치 못했던 사고 또는 지출() ⑦산업재해()

⑧기타(내용: _____)()

D3. 귀하께서는 향후 1년 이내에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대출 계획이 있다() ②대출 계획이 없다()→D4으로 이동

D3-1. 향후 대출 목적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향후 1년 이내에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그 용도는 무엇입니까?(중복응답 가능)

- ①생활비(식비, 사교비, 교통비 등)() ②주택구입(주택담보대출)()
 ③전세보증금() ④월세(관리비 포함)() ⑤대학학자금 ()
 ⑥자녀교육비/보육비() ⑦결혼() ⑧자동차()
 ⑨가족의 대출 요청() ⑩본인의 또 다른 빚 변제() ⑪취업준비()
 ⑫창업준비() ⑬병원비() ⑭투자 목적(주식, 코인 등)()
 ⑮기타 1() (내용:) ⑮기타 2() (내용:)

D4. 귀하께서는 최근 3개월간 연체 경험이 있습니까?

①예()

②아니오()→D5로 이동

연체란?

카드값, 대출원리금, 월세, 고시원비, 하숙비, 각종 보험료, 공과금, 핸드폰 요금, 관리비 등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D4-1. 연체가 생겼을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소비를 줄인다() ②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린다()
 ③예금·적금·보험 등을 처분한다() ④추가대출을 받는다()
 ⑤추가로 일을 한다() ⑥소득이 생길 때까지 그냥 기다린다()
 ⑦채무조정을 신청했다() ⑦기타(): ()

D5. 귀하께서는 지금까지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이 있습니까?

- ①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②과거 채무불이행 경험이 있다()
 ③경험이 없다()

D6. 귀하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금융채무불이행(신용불량)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①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현재 채무불이행 중이다()

②가구원 중 한 명 이상이 과거에 채무불이행을 경험한 적 있다()

③가구원 중 아무도 채무불이행을 경험하지 않았다()

D7. 청년부채 문제 해소방안으로 각 사업의 중요도와 귀하의 이용 경험, 이용 만족도, 이용 의향을 숫자로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문 항	사업명	내용	D6-1. 귀하의 이용 경험	D6-2. 귀하의 이용 만족도→ D6-1에 서 이용 경험이 있는 문항만 답변	D6-3. 청년부채 문제 해결방안 으로서 각 사업의 중요도	D6-4. 귀하의 이용 의향(6개 월 이내)
			있다=1, 없다=2	매우 만족한다 =5,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	매우 중요하 다=5, 전혀 중요하 지 않다=1, 잘 모르겠 다=0	꼭 이용하고 싶다=5,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1, 해당없다 =0
1	저금리 대출지원(서민 금융)	저신용 청년을 위한 인천시 자체 대출상품 운영				
2	대출 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	경제(금융)교육	청년 생활경제교육(찾아가는 경제교육 포함) 제공				
4	경제(금융)상 담 및 컨설팅	1:1 생활경제 상담 및 컨설팅 제공(찾아가는 경제상담 포함)				
5	대부업체 규제	불법대부업체 신고 및 예방 캠페인				
6	신용관리 지원	신용점수 향상을 지원하는 상담 및 자조 모임 지원				
7	신용회복 및 채무조정지원	연체 등 신용위기에 처한 청년을 위한 개인회생, 면책 및 파산 신청 상담 및 동행 서비스				
8	인천청년 자산형성지원 제도	참여자가 일정 기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인천시가 일정비율의 저축 메칭금을 제공해 자산형성을 지원(예: 드림 For 청년통장)				

문 항	사업명	내용	D6-1. 귀하의 이용 경험	D6-2. 귀하의 이용 만족도→ D6-1에 서 이용 경험이 있는 문항만 답변	D6-3. 청년부채 문제 해결방안 으로서 각 사업의 중요도	D6-4. 귀하의 이용 의향(6개 월 이내)
			있다=1, 없다=2	매우 만족한다 =5,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1	매우 중요하 다=5, 전혀 중요하 지 않다=1, 잘 모르겠 다=0	꼭 이용하고 싶다=5,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1, 해당없다 =0
9	월세 지원	취·창업 재직 청년을 위한 8개월 월세비용(월 10만원) 지원사업				
10	진로 및 심리상담	진로 및 정신건강서비스 상담센터 운영				
11	청년수당	1인 총 100만원정도의 청년소득 지원				
12	장학금	대학생 장학금 지원				
13	취업 지원	청년고용할당제, 취업코칭제, 구직활동 지원				
14	부업지원	방학중 공공영역 행정 아르바이트 모집 및 인건비 지원				
15	임신 및 육아지원	출산 비용지원, 아동 및 육아 수당지원				

D8. 청년부채 문제 예방 및 해소를 위해 귀하가 인천시에 제안하고 싶은 사업이나 지원이 있습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E. 금융역량과 금전 스트레스

E1. 금융역량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문항	내용	그렇지 않다	그렇다	
1	현재 가계소비를 위한 지출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①	
2	매달 꾸준히 저축하고 있다.	①	①	
3	지난달 가계 적자가 발생했다.	①	①	
4	지난 12개월간, 돈이 없어 공과금이나 대출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적이 1번 이상 있다.	①	①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다소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재무 관련 목표(예: 저축, 재무관리 등) 달성에 자신이 있다.	①	①	②
6	갑자기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비상금(여유통)이 있어 최소 1달은 돈을 빌지 않고 살 수 있다.	①	①	②

E2. 금전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세요.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정말 그렇다
1	돈과 관련하여 가족 간에 갈등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돈 때문에 가족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다투기도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과정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①	②	③	④	⑤
4	돈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①	②	③	④	⑤
5	돈 걱정 때문에 종종 잠을 자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⑤
6	돈 문제 때문에 종종 두통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7	대출금이나 공과금 납부를 생각하면 종종 목이나 등이 아프다.	①	②	③	④	⑤
8	돈 걱정 때문에 종종 호흡곤란이나 위경련을 경험했다.	①	②	③	④	⑤

F. 심리정서

F1. 다음은 자아존중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각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문 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정말 그렇 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2. 다음은 미래지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귀하의 상황과 각 문항의 내용이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문 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 다	정말 그렇 다
1	때론 힘들고 재미없어도 더 잘살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미래의 내 상황에 대해 생각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잘 정리(계획, 기록)해 둔다.	①	②	③	④	⑤
4	의사결정을 할 때,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해본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의 즐거움은 포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6	미래의 어려움을 대비해 돈을 저축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10년 뒤 내 모습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그 결과를 먼저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F3. 다음은 정서상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에 제시된 문항들을 읽으시고, 지난 일주일간 귀하의 상황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주세요.

문항	내용	극히 드물었다 (일주일 동안 1일 미만)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2일)	종종 그랬다 (일주일에 3~4일간)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에 5일 이상)
1	먹고 싶지 않고 식욕이 없다	①	②	③	④
2	비교적 잘 지냈다.	①	②	③	④
3	상당히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①	②	③	④
5	잠을 설쳤다(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①	②	③	④
6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①	②	③	④
7	큰 불만 없이 생활했다.	①	②	③	④
8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9	마음이 슬펐다.	①	②	③	④
10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①	②	③	④
11	도무지 뭘 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①	②	③	④

G. 코로나19의 영향

G1. 코로나 19로 인해 귀하에게 아래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까?

문항	내용	예	아니오	해당없음
1	노동시간이 줄었다	①	②	③
2	소득이 삭감되었다	①	②	③
3	임금이 미지급되었다(연체 되었다)	①	②	③
4	무급휴직을 경험했다	①	②	③
5	재택근무를 일정기간 이상 실시하였다	①	②	③
6	월 저축액이 줄어들었다	①	②	③
7	정기 예·적금을 중도해지하였다	①	②	③
8	보험을 해약하였다	①	②	③
9	부채가 증가했다	①	②	③
10	개인 신용점수가 낮아졌다	①	②	③
11	고독감이 증가했다	①	②	③
12	기타()	①	②	③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청년부채와 관련하여

심층 인터뷰(약 1시간 30분 소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뷰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성함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주십시오(참여해주실 경우, 5만원 상당의 상품권/또는 현금을 드립니다)

성함: ()

핸드폰 번호: ()

설문에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